

建築士

■ 등록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제 라-1251
■ 1985년 12월 31일 제 3종 우편물(나)급인가 ■ 우편번호/137-070
■ 1990년 3월 15일 발행 ■ 통권 251호 ■ 발행/대한건축사협회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

건축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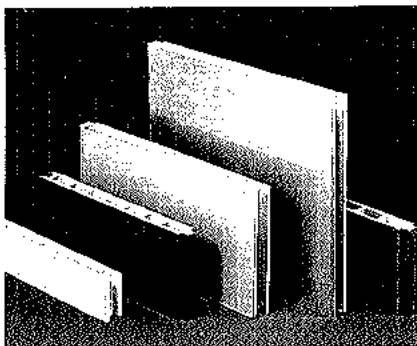
1호

2호

치로원 원료제조원
화학주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부산시 남구 성암동 45-25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치움,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 당 부가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문두, 건축물내 외벽, 칸막이, 계단, 도로변의 서문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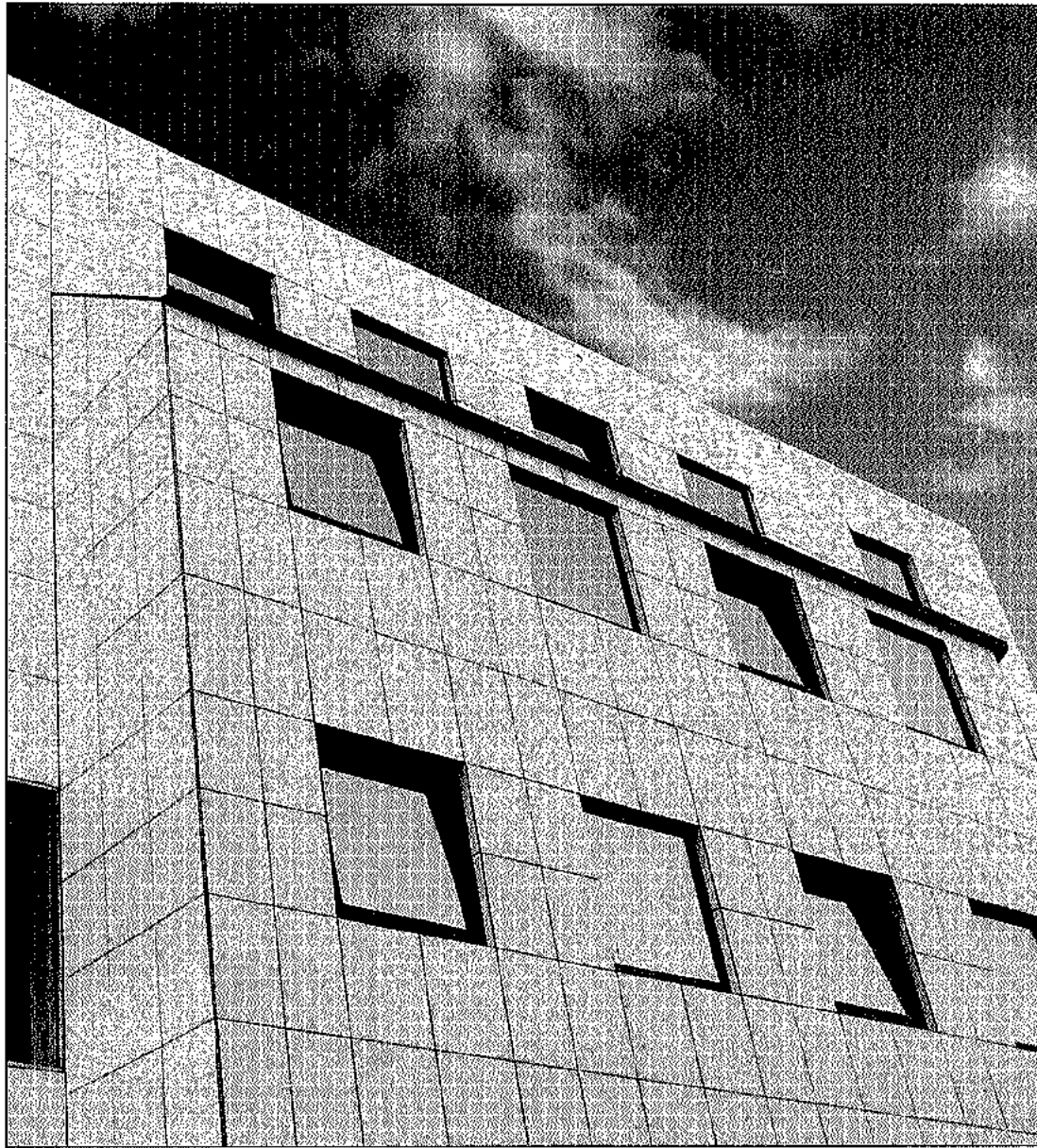
최적의 사무공간을 만들어주는 명품창문, 이건창호는 OFFICE BUILDING 에서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사공사례-오피스빌딩편

역삼동에 위치한 '얀·텍스' 사옥 —
눈부시게 하얀 타일의 건물에
악센트를 주는 빨간색 창문이
이국적인 색의 대비를 이룬다

외부는 현대적 감각에 어울리는 알루미늄 소재를,
내부는 차분하고 품위있는 사무실 분위기의 목재를 —
하나의 창문으로 실내·외 소재와 칼라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이견창호를 고른 사람의
센스가 돋보인다

특히, 조용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고려하여
뛰어난 방음 기능과 편리한 환기시스템을 갖춘
이견창호를 선택하였다는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한껏 느껴진다



최고의 오피스빌딩을 만드는 명품창문

디자인·소재에서/이견창호는 형태와 크기, 소재 결합이 자유롭고 알루미늄칼라와
목재의 종류가 다양해 건물 분위기에 따라 자유자재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방음·보온에서/이견창호는 이중유리와 밀폐성높은 가스켓, 열전도를 차단하는
신소재를 사용하고 컴퓨터 정밀 설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온도
유지기능이 뛰어나고 특히 바깥 소음의 차단 효과가 큼니다

환기·개폐에서/이견창호는 개폐방식이 독특하여 환기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전에서/이견창호의 이중유리와 8개의 잠금장치, 독특한 가어시스템은 사무실
문단속을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이건 시스템 윈도우

■ 상설전시장 안내 위치 :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 540-2071~9 FAX : 540-2080
*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이건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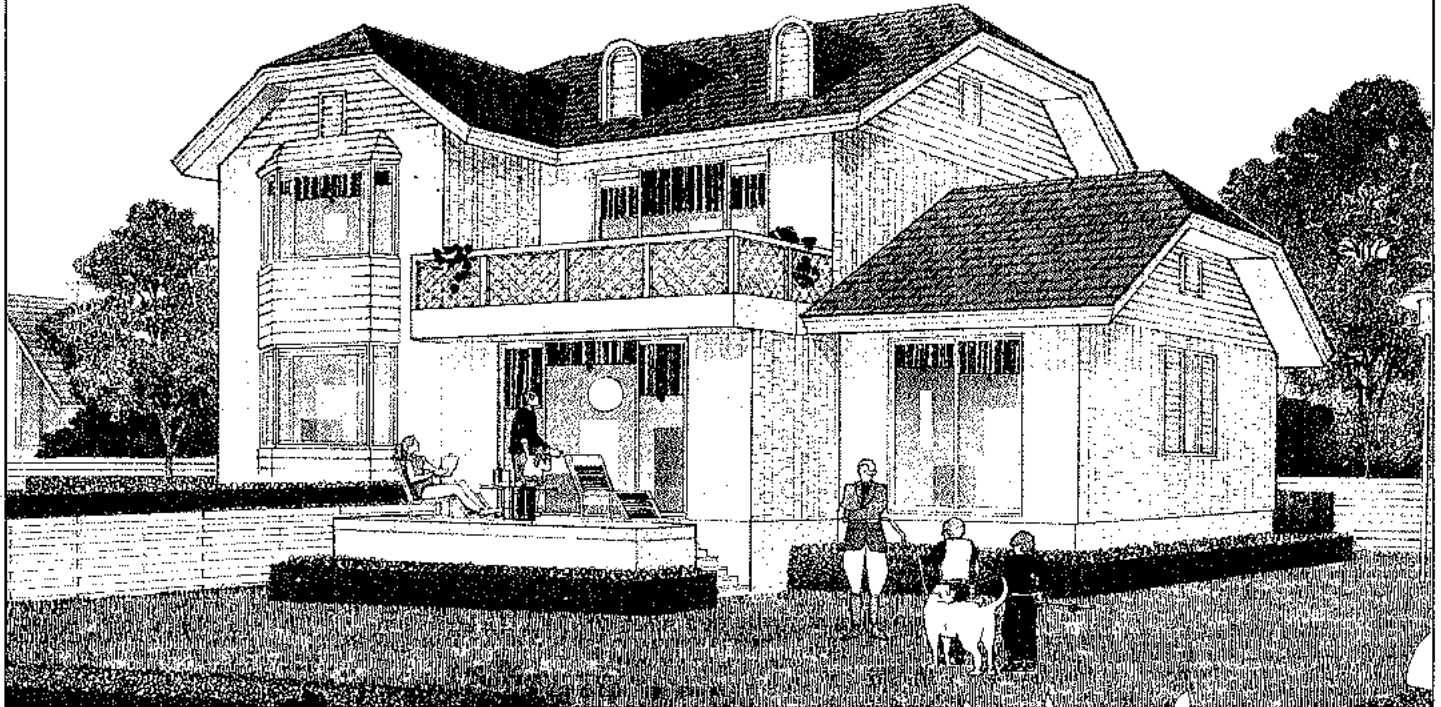
한국에 온 정통 칼라아스팔트 싱글 - 맨빌

맨빌

MVL
Manville

Roofing
Systems
Division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정통 칼라아스팔트 싱글 - 맨빌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Manville roofing 수입판매권자 (Exclusive Agent) 인 동림산업이 개성있는 주택을 꿈꾸오신 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하는 130년 전통의 칼라아스팔트 싱글 - 맨빌. 다양한 패턴, 아름다운 색상으로 한국에 지붕재의 칼라아스팔트 싱글 시대를 선언합니다.



삼익 세라믹 판넬 외벽재와 맨빌 칼라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를 사용한 양재동 빌라.

COLOR SELECTION



SHAKEWOOD TAN



HICKORY



BROWN BARK



CAMBRIDGE GRAY



TUDOR BLACK



COUNTRY SLATE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 - 동림산업

가드베일, 가드케이볼등의 철구조물 및 산업기계 등을 제작·판매해오던 東林이 산규 분야에까지 사업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산업기계 토목, 무역, 주문주택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 - 동림산업을 주목 하십시오.

칼라아스팔트 싱글이란?

아름다운 외관과 간편한 시공으로 독특한 주택의 미를 살려 주는 칼라아스팔트 싱글은 경제성은 물론 내구성도 뛰어난 유럽풍의 고급 지붕재입니다. 최고급 빌라, 고급주택, 골프장, 클럽하우스, 영업용 건물, 별장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어 새로운 주택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맨빌의 칼라아스팔트 싱글이 우리나라 주택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엮니다.

미국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Manville

130년 역사를 지닌 ROOFING SYSTEM 전문업체인 MANVILLE은 지붕재 분야에서 쌓은 축적된 경험과 고도의 기술로 아름다운 색상, 다양한 패턴의 칼라아스팔트 싱글만을 생산함으로써 미국 의 아스팔트 싱글 시장을 이미 석권 했습니다.

"맨빌의 명성" - 역시 최고임이 입증됩니다.

1. 맨빌은 1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붕재 전문회사
2. ROOFING SYSTEM 전문회사인 대형 다국적 기업
3. 미국 UL 마크를 획득한 보증할수 있는 제품.
4. 25년이상 장기간 품질보증
5. 최상의 화이버 글라스 함유로 뛰어난 내구성
6. 미국시장을 이미 석권한 최고급 세라믹 화이버 글라스 싱글
7. 완벽한 책임 시공 팀 운영, 전국적인 직영판매
8. 전문건설업, 갑류 무역업, 무역대리업 등록 및 제조업체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사.



다양한 칼라, 다양한 패턴 - 맨빌

- WOODLANDS PREMIER
- WOODLANDS
- FIRE KING
- ADVANTAGE 25
- WEATHER-SEAL
- FIRE GLASS III

주요관련 사업

철구조물·철골제작, 산업기계 제작 및 수출, 토목공사, 아스팔트 싱글등 건축자재 수입, 주문주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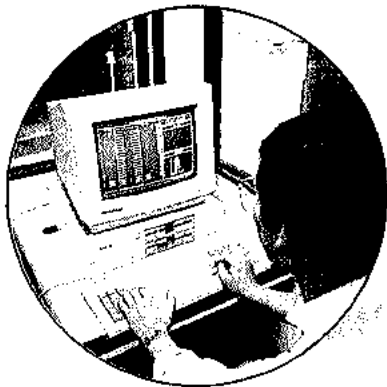


주식 동림산업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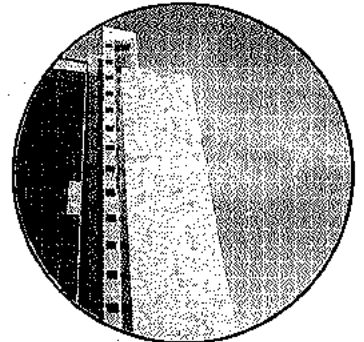
특수사업부: 강남구 삼성동154-15 (진출빌딩4층)
TEL: 557-1544, 563-1431~4
FAX: 563-1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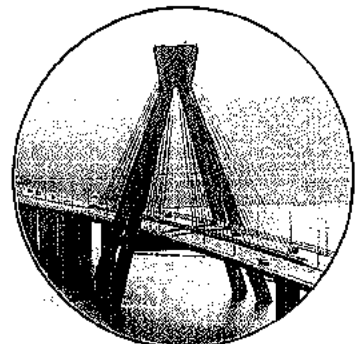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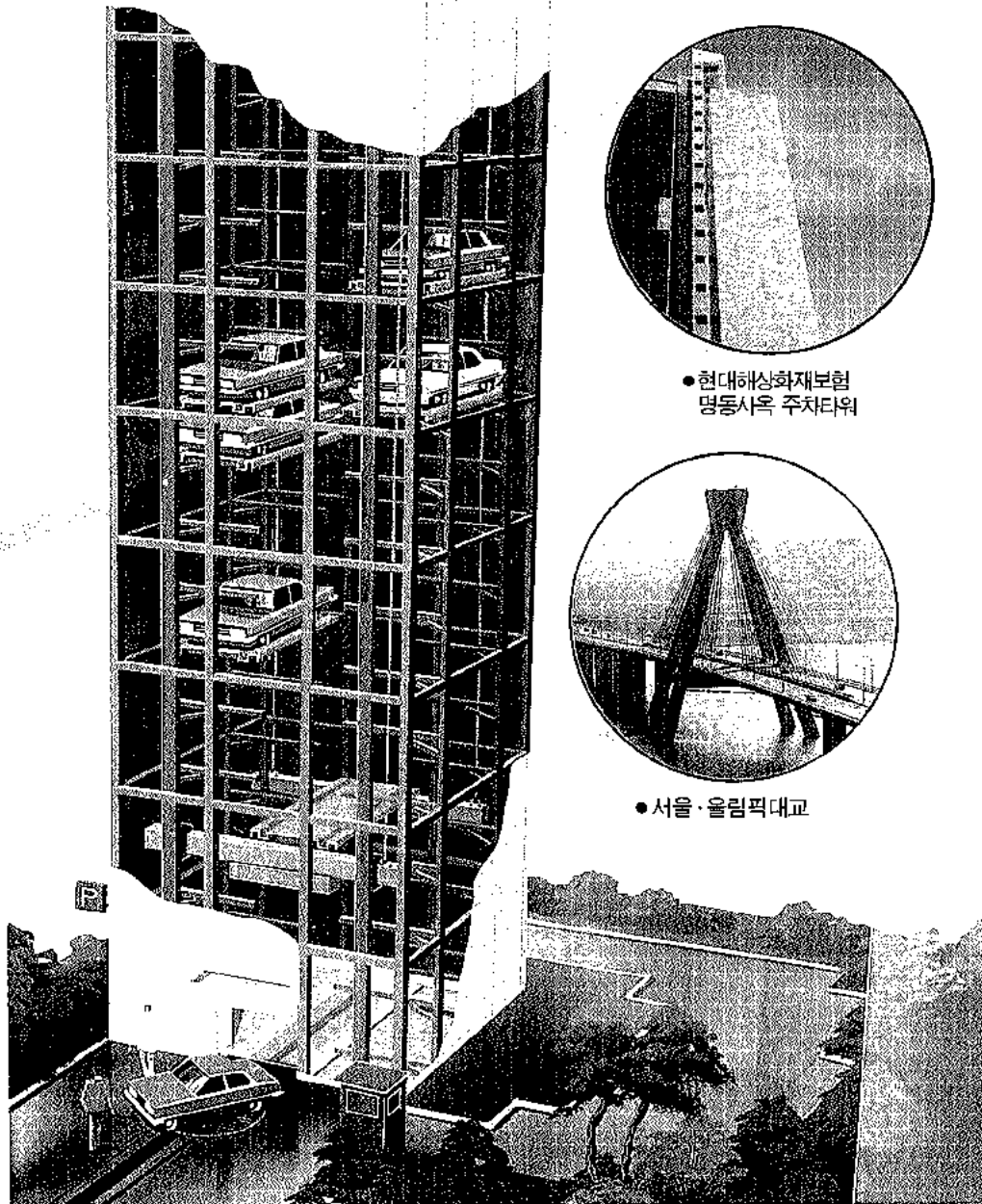
● 한국일보사신문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 서울·올림픽대교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문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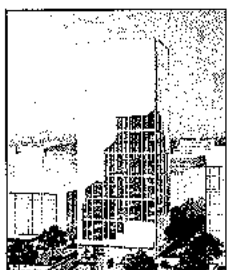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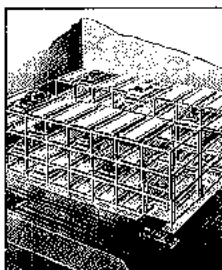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문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소망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입주차타운 : 4기 200대



YOP-A 연립형



YOP-M형



유원건설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좋은 설계를
위하여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청사진 복사기 pd 1180i
암모니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Convenience Engineering
Copier with Automatic Original Print Separator

AMMONIA가 필요없는,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MECHANISM의 결정체입니다.

COPINICA PD 118은 종전의 AMMONIA를 사용하던
복사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독특한 System인 1R, 2R, P
현상방식과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건식 청사진복사기
입니다. (복사폭 680mm)

지금까지 청사진 복사기의 최대 난점이었던 AMMONIA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시간이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스위치
한 동작으로서 작동되는 COPINICA PD 118은 어느 업종,
어느 장소에서나 효율적인 작업을 약속합니다.

Items

- Diazoprinter
- Wide-width Plain Paper Copier • Copy Paper
- PD Copier • Film Sepia • Tracing Paper
- Sensitive Paper (blue, black line, PD, etc.)
- ALL REPROGRAPHICS EQUIPMENTS



(株) 龜 映

The Pros in Reprographics in Korea.

'90全國建築士大會

기간 / 1990년3월22일~23일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서양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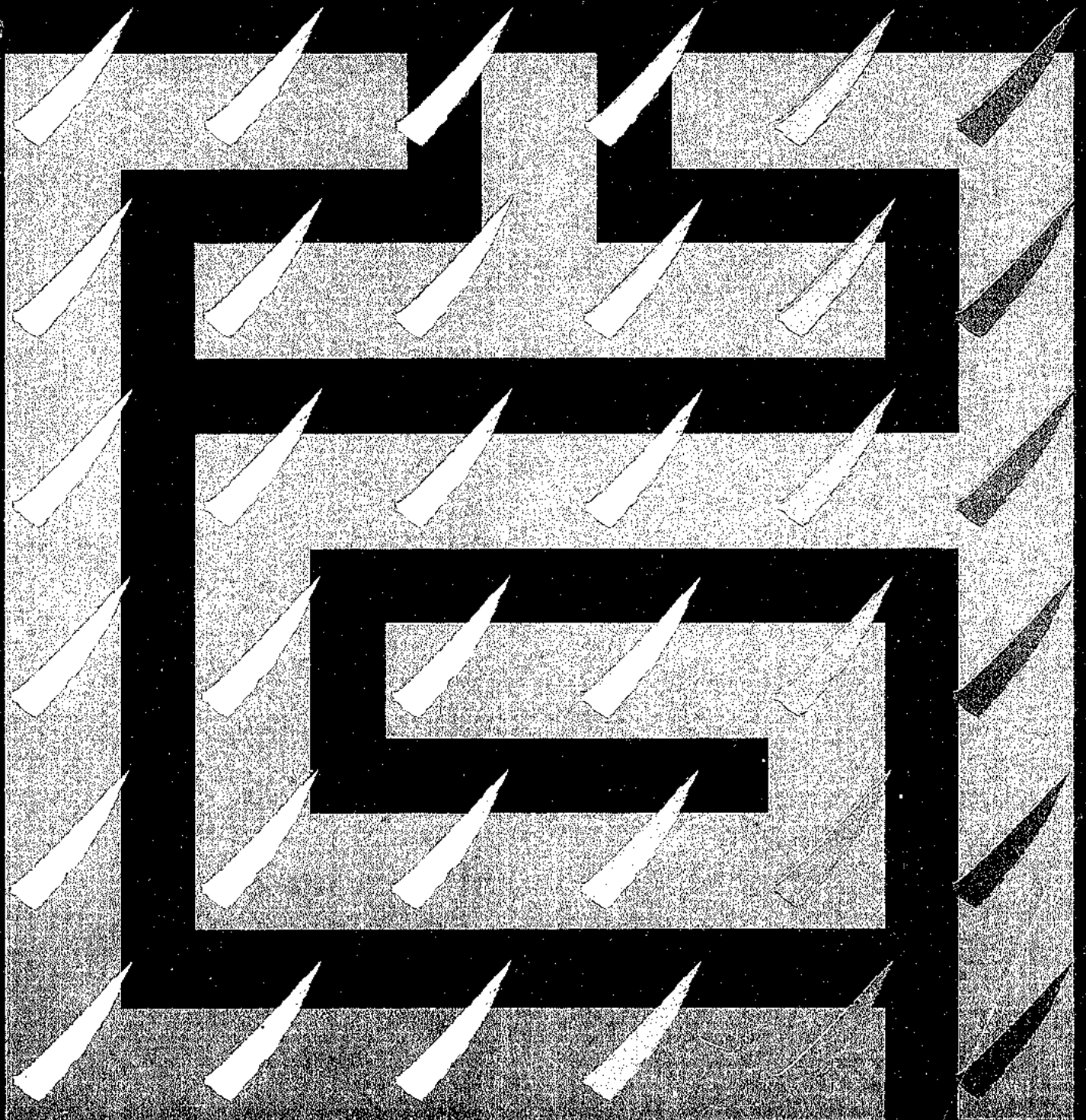
주제 / 건축환경과 국민의식

1) 주거환경과 우리사회 2) 건축사의 책임과 역할

행사 / 1) 전국대의원총회 2) 전국건축사대회 3) 특별강좌

4) 제15회건축사작품발표회 5) '90우수건축기자재 및 CAD 품평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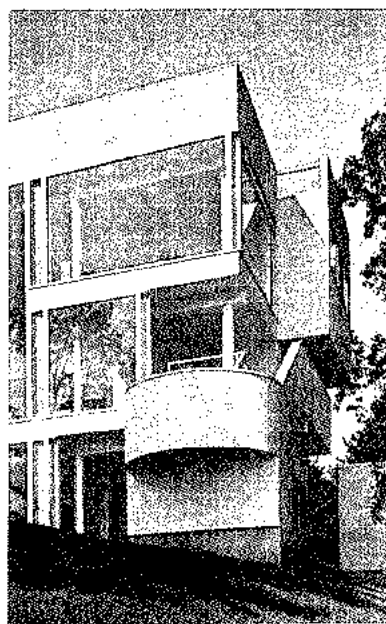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 후원 / 건설부





차례/1990년 3월호 통권 제251호

會員作品	의환은행 상계지점/金基雄	10
	조흥은행 상계지점/李永熙	14
	목우빌딩/金永雄	17
	거반빌딩/李恒培	20
	한국투자신탁 개포지점/金昶一+方喆麟	22
	경은상호신용금고/崔東奎	25
	K빌딩/金軟培+金鎬慶	28
	효진빌딩/趙中衍	30
나의 스케치	계획안 2題/金錫澈	32
일하며 생각하며	나자신부터.../閔承烈	36
寄稿	건축설계심의제도의 배경과 그 방향/건설부 기술심사관실	38
研究	한국의 전통건축(23) 高麗시대의 建築/張慶浩	40
	메타볼리즘과 일본현대건축/金文德	48
	새로운 채광수법으로서의 아트리움(2)/金正泰	56
	외국의 현대건축가소개(11)-리차드 마이어/成仁洙	66
誌上中繼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87
자료	1990년 1월분 도서신고현황	92
	'90 각 위원회 위원 명단	96
協會消息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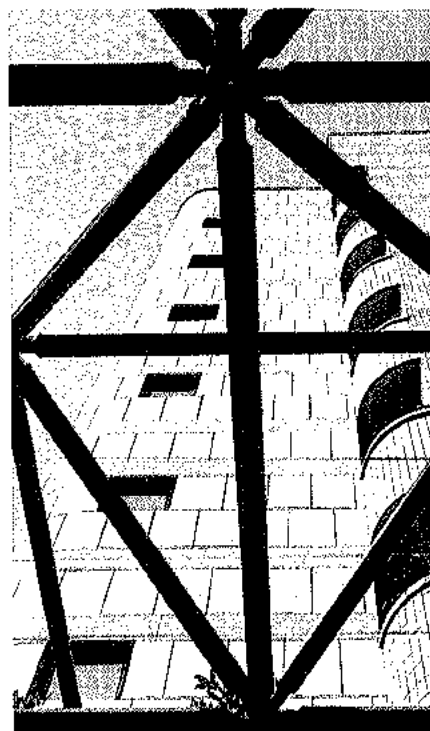
표지: 의환은행 상계지점
(설계: 金基雄)

發行人: 宋基德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委員: 董政根, 朴舒弘, 吳澤吉, 金基哲,
 趙聖烈, 崔正一, 鄭正治, 朴研心,
 崔命喆, 金周喆, 이창식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렉스: KIRAA 33550
 登錄番號: 第라-1251(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D.C.: 69/72:054-2:0612(519)
 印刷人: 全允珪/洸文精版社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Member: Dong, Jeong-Keun/ Park, Seo-Hong/ Oh, Teak-kil
 / Kim, Kee-Chul/ Cho, Sung-Yul/ Choi, Jeong-Il/
 Jeong, Jung-Chi/ Park, Yeon-Sim/ Choi, Myung-
 Chul/ Kim, Joo-Cheol/ Lee, Chang-Sik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1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72:054-2:0612(519)
 Printer: Jeon, Yim-Kyu (Kwang soo Printing Co.)

CONTENTS Vol. 251, MARCH 1990

WORKS	Foreign Exchange Bank Sangkye Branch/ Kim, Ki-Woong	10
	Choheung Bank Sangkye Branch/ Lee, Young-Hee	14
	Mokwoo Building/ Kim, Young-Woong	17
	Gurban Building/ Lee, Hang-Bae	20
	Korea Investment Trust Co., Kaepo Branch/ Kim, Chang-Il & Bang Chul-Lin	22
	Kyungeun Mutuality Credit Association/ Choi, Dong-Kyu	25
	K.H.S Building/ Kim, Yean-Bae & Kim, Ho-Kyeang	28
	Hyojin Building/ Cho, Joong-Yeon	30
MY SKETCH	Planning 2./ Kim, Suk-Chul	32
ESSAY	From Myself.../ Min, Seoung-Ryul	36
FEATURE		38
REPORT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Korea Period/ Chang, Kyung-Ho	40
	Metabolism &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Kim, Moon-Duk	48
	Artrium as Emerging Daylighting System(2)/ Kim, Jeong-Tai	56
	Overseas Contemporary-Richard Meier/ Seong, In-Soo	66
TABLE TALK		87
MATERIALS		92
KIRA NEWS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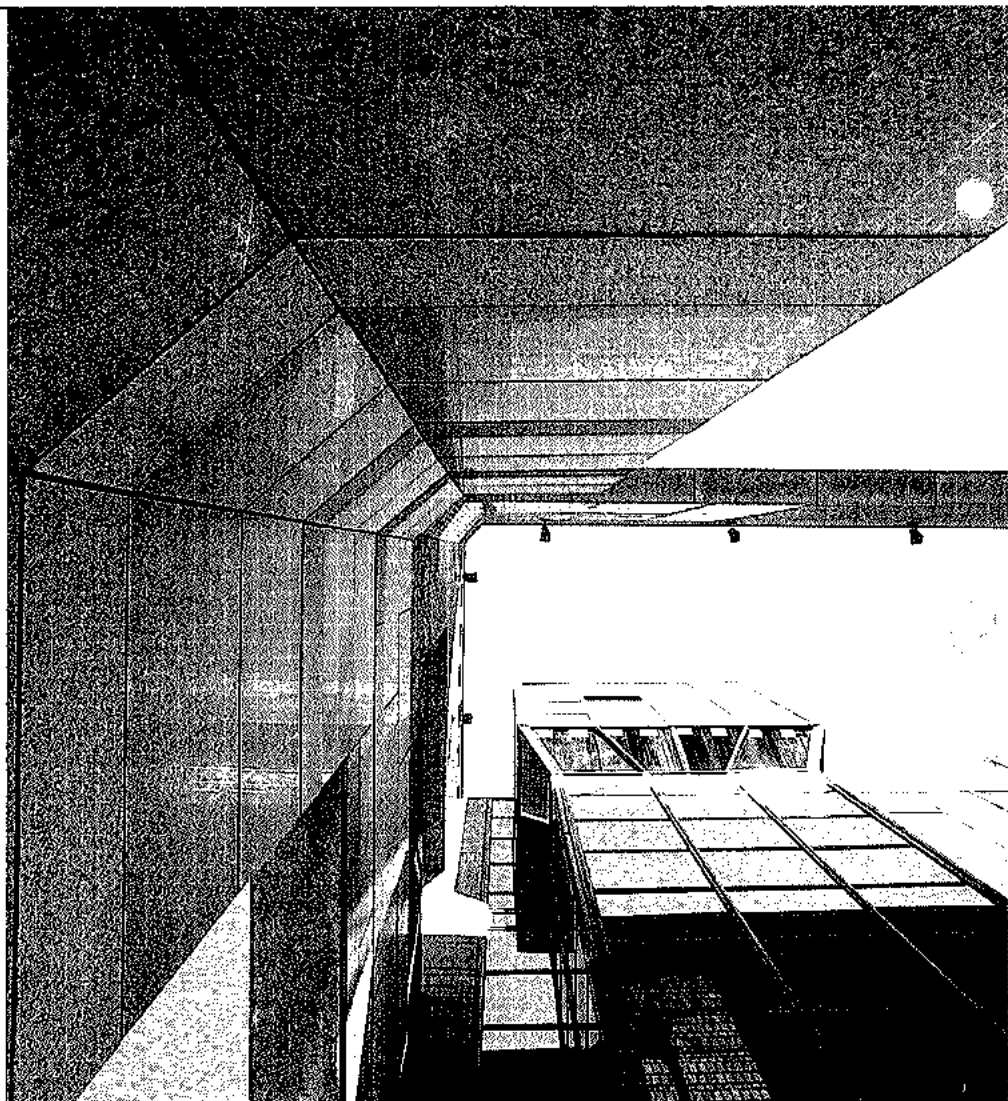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화동169-25, 333-6411. 관악분소 / 관악구선리동1422-17, 882-6744.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강동분소 / 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강북분소 / 강북구구로동252-16, 446-5244. 중대문분소 / 중대문구신원동101-7, 923-6313. 종로분소 / 종로구청전동201-1, 738-5416. 마포분소 / 마포구 성산동275-1, 333-5251.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50-12, 423-9153. 중구분소 / 중구로2가49-11, 279-1415.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1가29-22, 712-7647.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60. 은평분소 / 은평구북면동79-32, 352-6720. 동광분소 / 동광구사당동206-6, 815-3026. 양남분소 / 양남구노원동241-6, 511-8515. 노원분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양천분소 / 양천구석정동1027-9, 646-7172. 중랑분소 / 중랑구독1동171-12, 973-4921. 성북분소 / 성북구삼전5가10, 923-4401.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충청북도지부** / 부안직할시중구동광동1가(부안데파트내) (051) 246-6284~5. **충청남도지부** / 대주직할시수영구벌어동3가11-8, (053) 72-5141~2. **충청남도지부** / 안성직할시남구간석1동568-1, (032) 424-0146, 5100(한국종합빌딩204호).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북구 중흥동684-10, (062) 521-0025 (FAX) 521-0026. **대전직할시지부**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37-1, (042) 254-2441.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124-5, (031) 47-6129~30. **적성분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1-8, (031) 42-6490, 7072.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719-9, (0343) 2-2698, 2-0012. 부천분소 / 부천시원마로74-6, (032) 63-3141. 성남분소 / 성남시선릉동5512, (0342) 2-5445.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1) 12-1083. 송탄분소 / 송탄시인장동21, (0333) 4-6153. 고양분소 / 고양시원당동302리384동16동, (0344) 63-8902.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409-2, (0346) 63-8112. 이천분소 / 이천군이천읍송리216-8, (0336) 12-3396.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164-7, 082-2875. 안산분소 / 안산시관학동531-5, 82-2820. **경상남도지부** / 김해도천천시옥천동39-5, (0361) 54-2442. 진주분소 / 진주시일산동206, (0371) 42-3257. 강령분소 / 강령사정내동6-14, (0391) 12-2262. 속초분소 / 속초시동명동466-33, (0392) 33-9288.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55-43, (0397) 12-3106.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월리960-12, (0372) 43-265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2가116-168, (0431) 56-2752, 53-7342.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673-1, (0441) 12-3082. 제천분소 / 제천시외동8-8, (0443) 12-6253. 옥천분소 / 옥천군옥천읍삼양동222-206, (0475) 32-9997.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473-1, (042) 256-4088. 천안분소 / 천안시문화동160-1, 4, (0417) 12-4551.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리239-1, (0451) 32-2853.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남동리703-1, (0463) 12-2217. 대천분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 34-3367.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서동635-5(대북빌딩508), (0652) 87-6007. 이리분소 / 이리시남충동1가77-22, (0653) 52-3304. 군산분소 / 군산시중양로1가10-11, (0654) 12-4060. 남원분소 / 남원시하정동108-2, (0671) 12-6002.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구죽림동763-23(죽선회관) (062) 364-7567, 33-9944. 목포분소 / 목포시대인1동1, (0631) 43-3348. 순천분소 / 순천시장원동51-11(0661) 13-2457. 여수분소 / 여수시관문동441번지, 10662164-7023.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285번지, (053) 425-4904. 포항분소 / 포항시죽도동43-22, (0542) 44-6029. 경주분소 / 경주시노동동42-21(0561) 13-3638.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964-264, (0546) 52-6351. 안동분소 / 안동시서부동157-4, (0571) 12-5703. 김천분소 / 김천시평화동280-1, (0547) 12-2541. 영주분소 / 영주시교전2동295-2, (0572) 12-4566. 함흥분소 / 함흥시중앙동283-3, (0581) 12-2706. 상주분소 / 상주시남성동36-23, (0582) 12-4306.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3-47, (0551) 46-4530~1.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 171-8836. 진주분소 / 진주시보성동7-20, (0591) 12-6403. 통영분소 / 통영시서호동163-18, (0557) 43-3577, 2-7420. 김해분소 / 김해시부원동24B-10L, (0594) 12-6114. 밀양분소 / 밀양군삼문동184-168, (0527) 53-2110.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동양리274-3, (0598) 12-7090.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대방리522-4, (0523) 84-3050. 거제분소 / 거제군선원읍고현리139-2, (0558) 84-3132, 2-3372. 삼천포분소 / 삼천포시중앙동1-61(0593) 12-3591. **제주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동1동1289-6, (064)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포동299-6, (064) 32-7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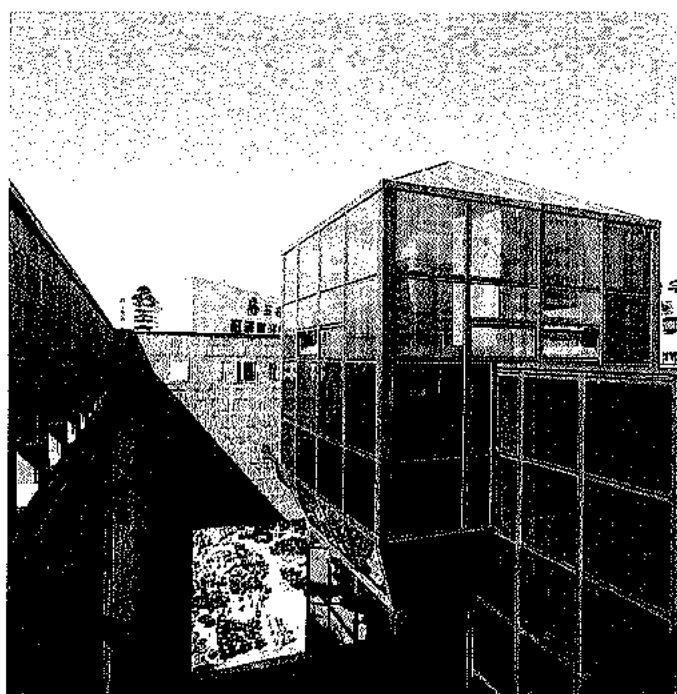
외환은행 상계지점

Foreign Exchange Bank Sangkye Bra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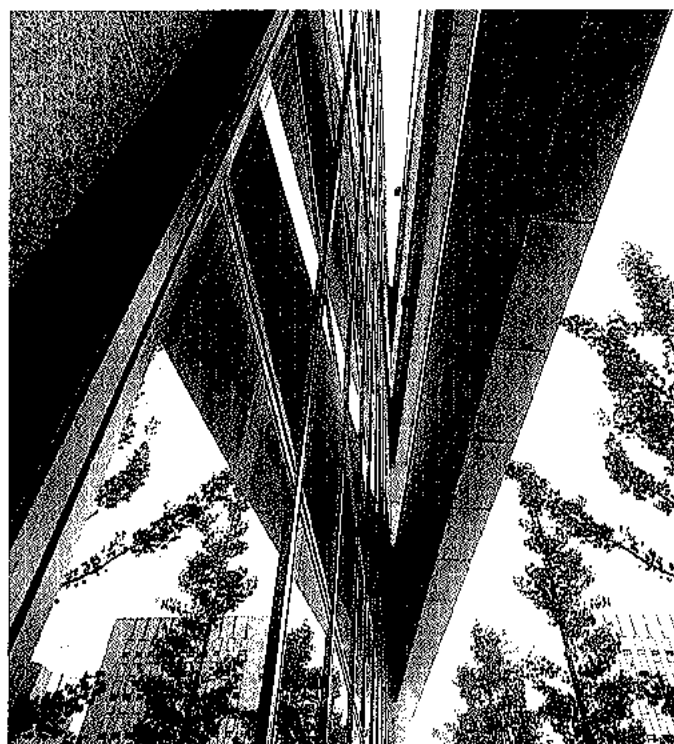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대지면적 / 872.0㎡
건축면적 / 447.88㎡
연면적 / 2,274.08㎡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재료 / 외장타일, 화강석 버너구이 및 물갈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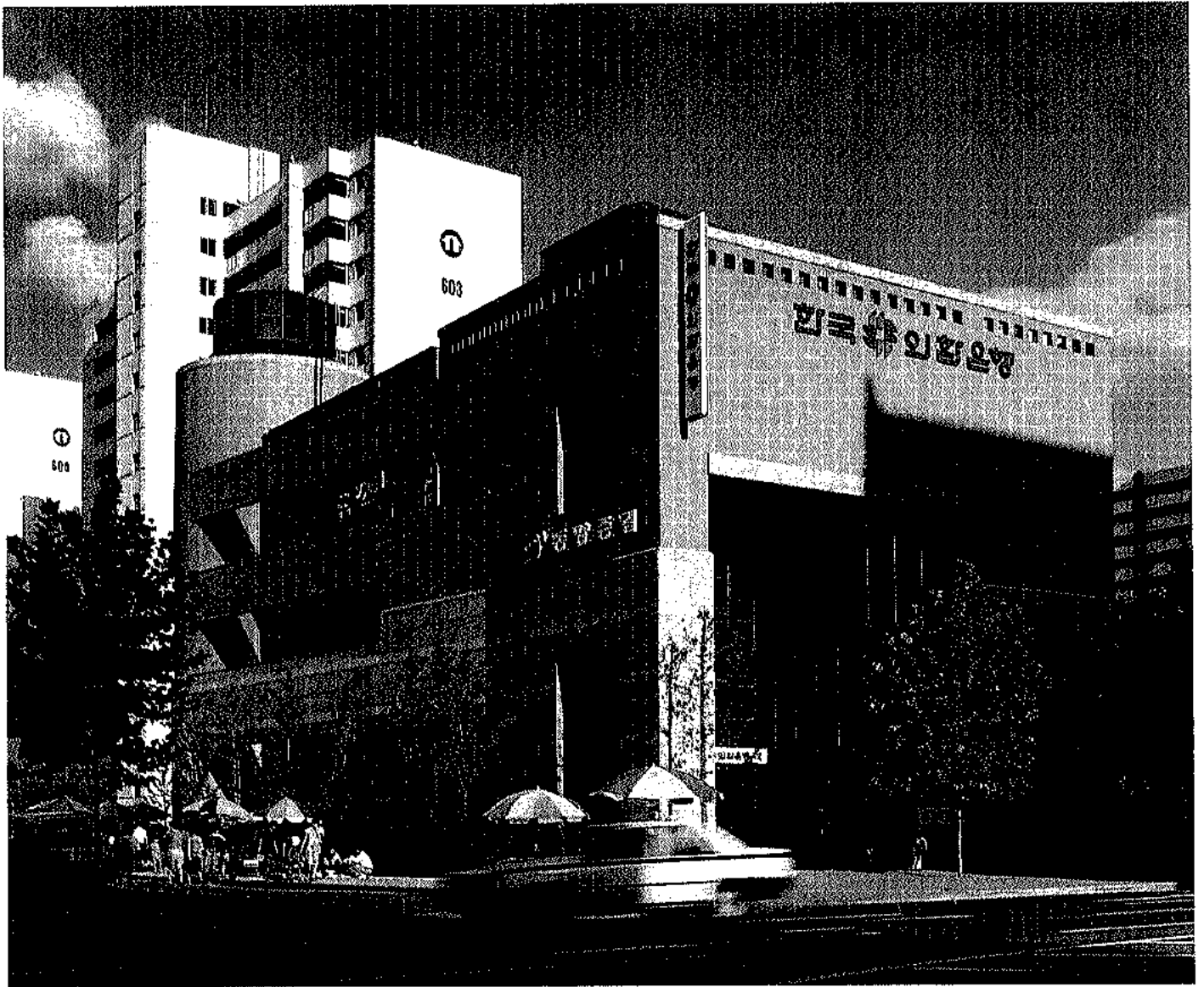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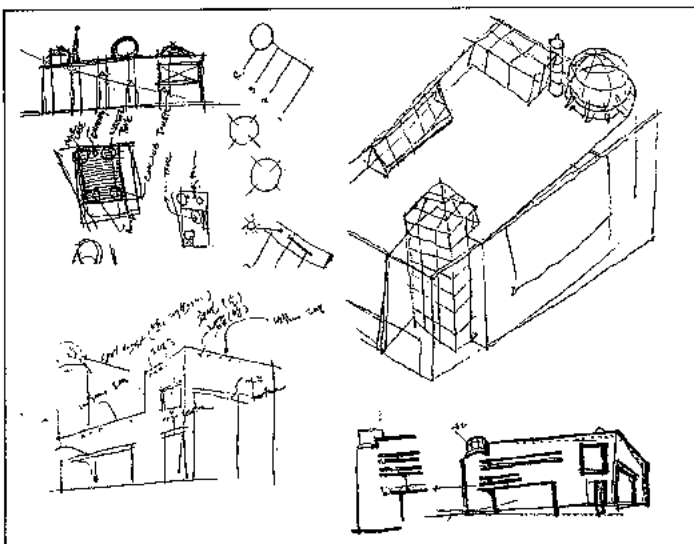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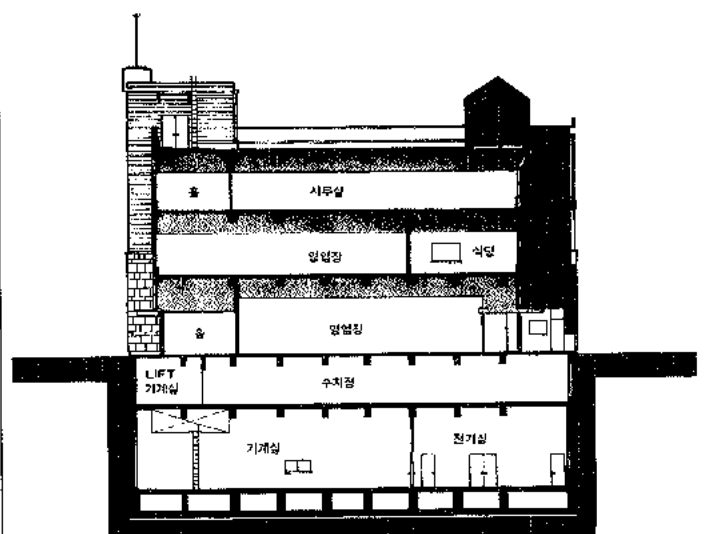
金基雄 / 삼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Ki-W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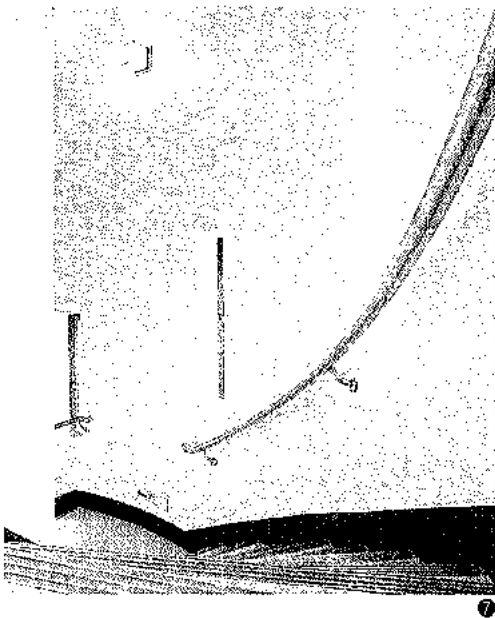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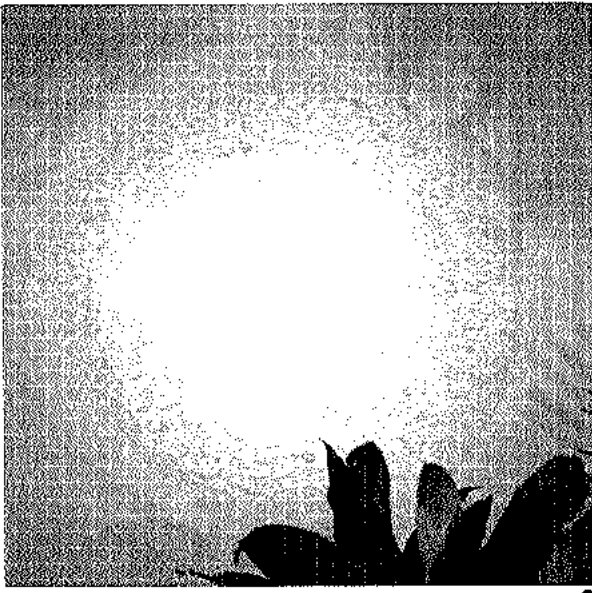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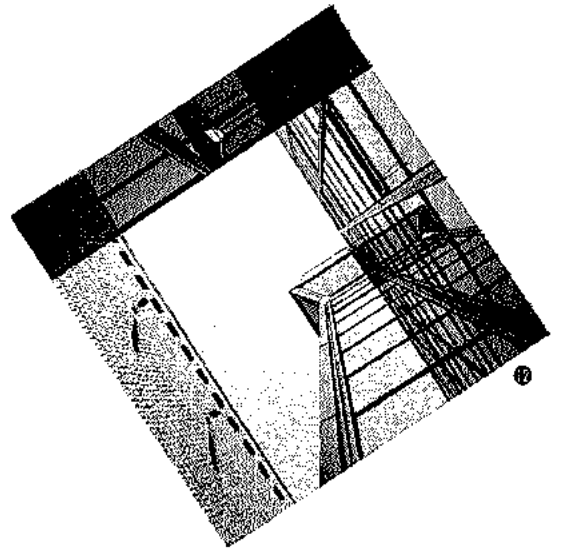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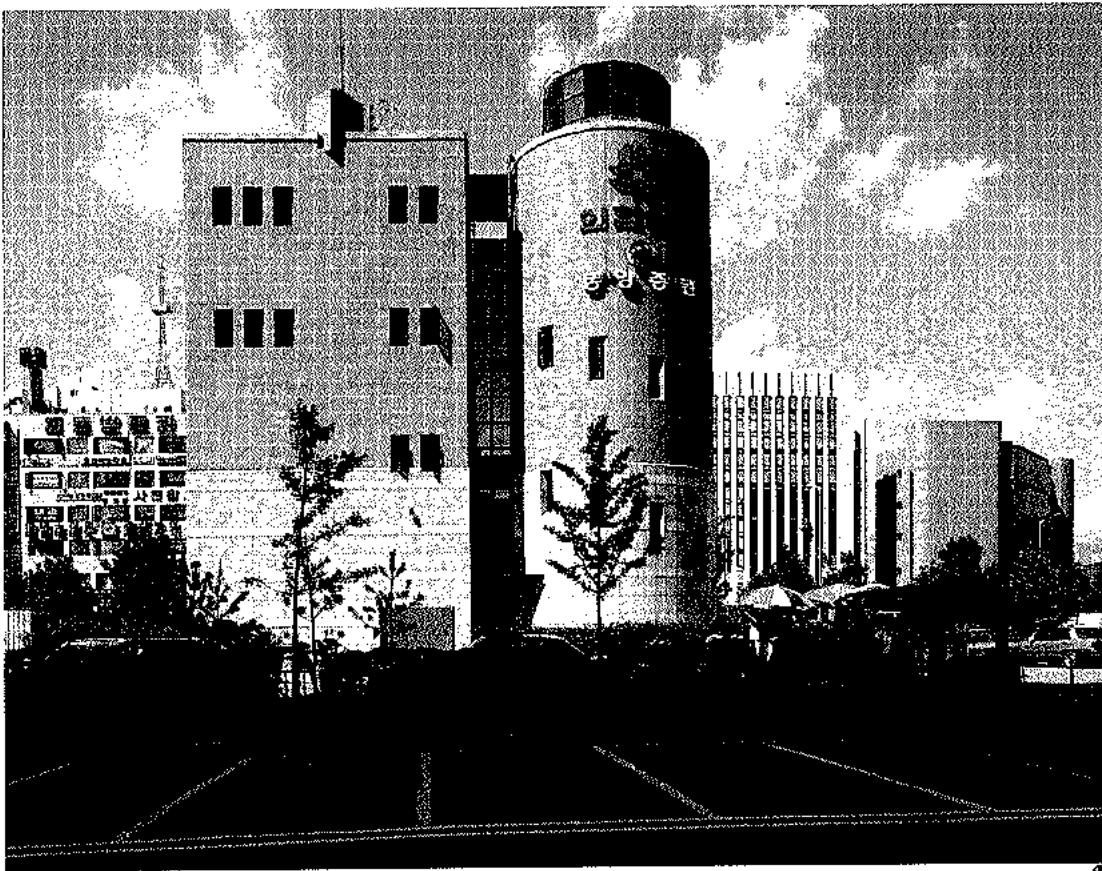
- ① 주출입구측 외벽 양각상세
- ② 주출입구측 상부 외벽상세
- ③ 주출입구측 외벽상세
- ④ 전경
- ⑤ 설계개념 스케치
- ⑥ 주단면도
- ⑦ 계단상세
- ⑧ 전면도로에서 본 전경
- ⑨ 객장전경
- ⑩ 내부광정 (光井)
- ⑪ 주차장에서 본 배면전경
- ⑫ 주출입구측 양각상세
- ⑬ 1층평면도
- ⑭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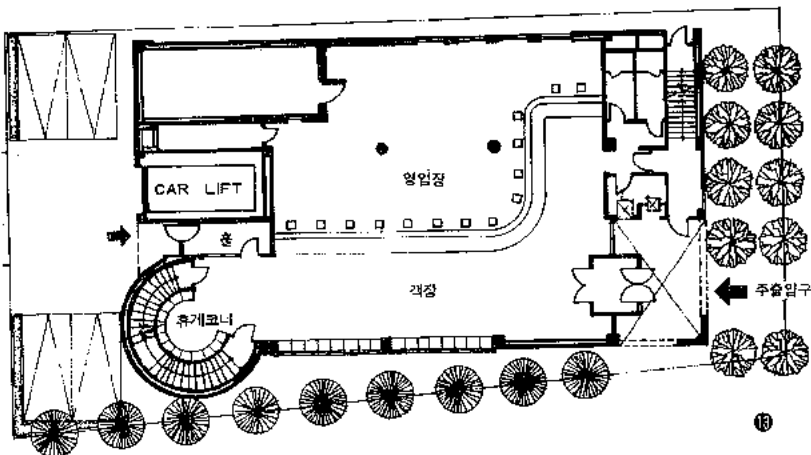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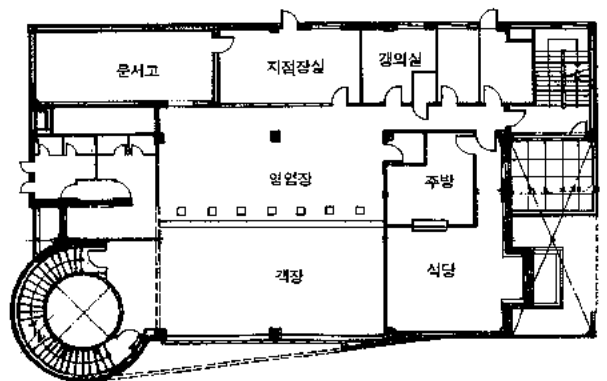
11



12



13



14

조흥은행 상계지점

Choheung Bank Sangkye Branch



대지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지역 · 지구 / 상업지역, 2종미관지구, 고도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도시설계구역

대지면적 / 1,445.0㎡

건축면적 / 686.075㎡

건폐율 / 47.49%

연면적 / 4,512.315㎡

용적률 / 216.58%

층수 / 지하 2층, 지상 5층, 옥탑 1층

최고높이 / 22.15m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화강석버너구이, 18mm목층 반사유리

주차대수 / 25대(옥외 8대, 옥내 1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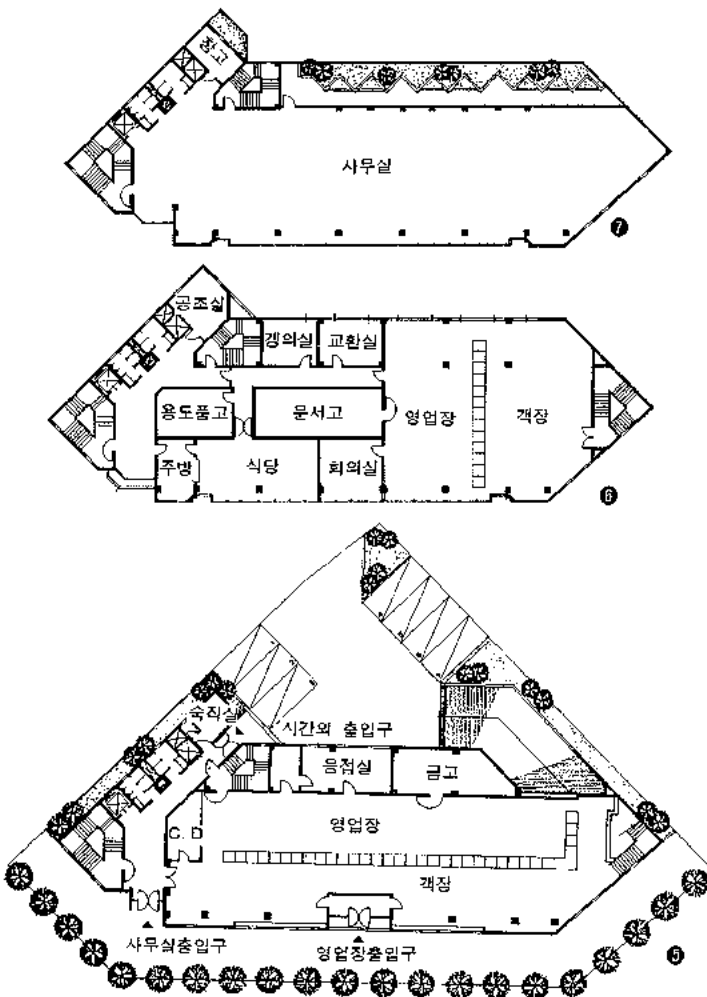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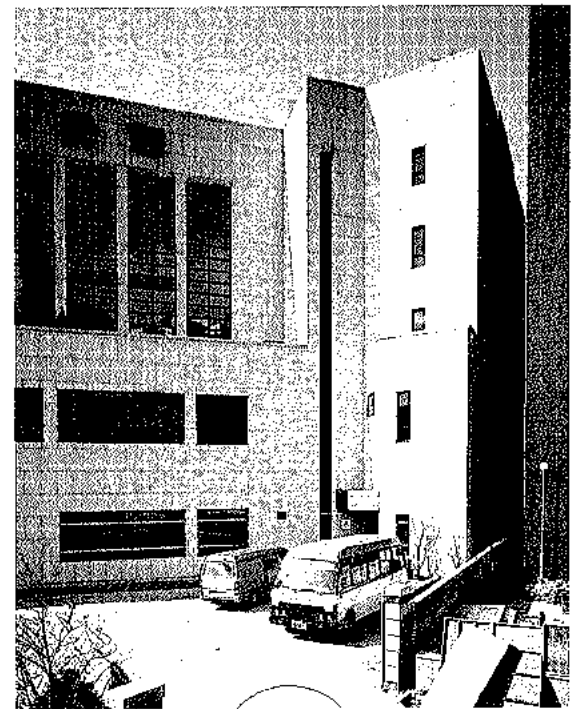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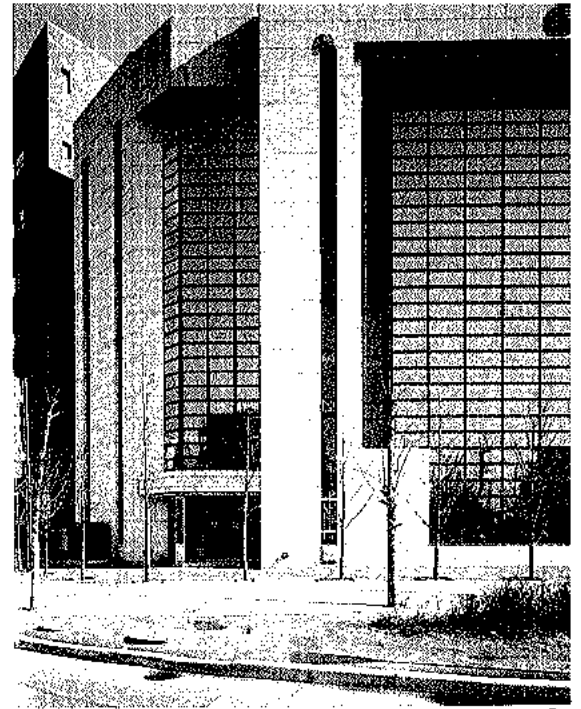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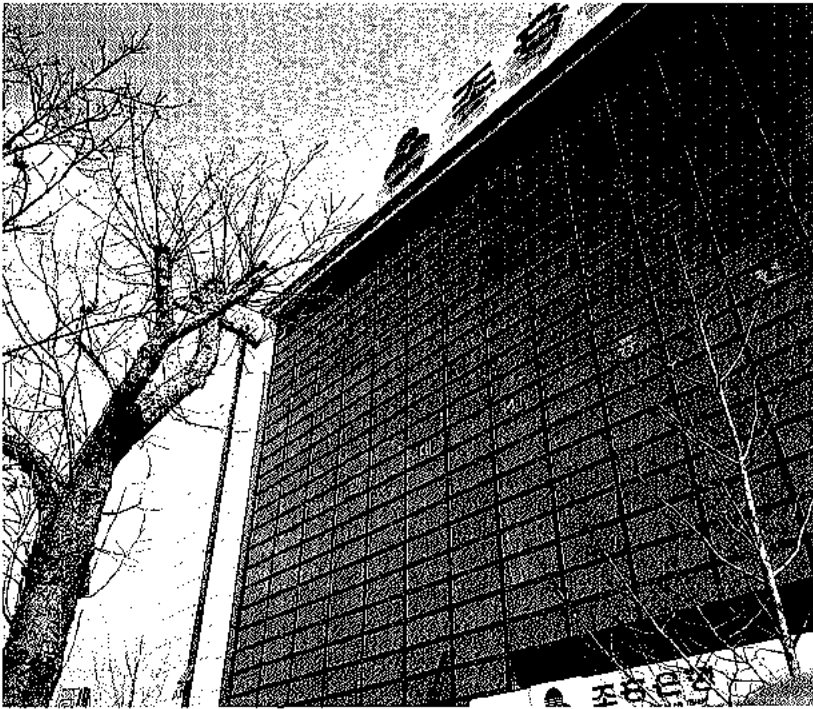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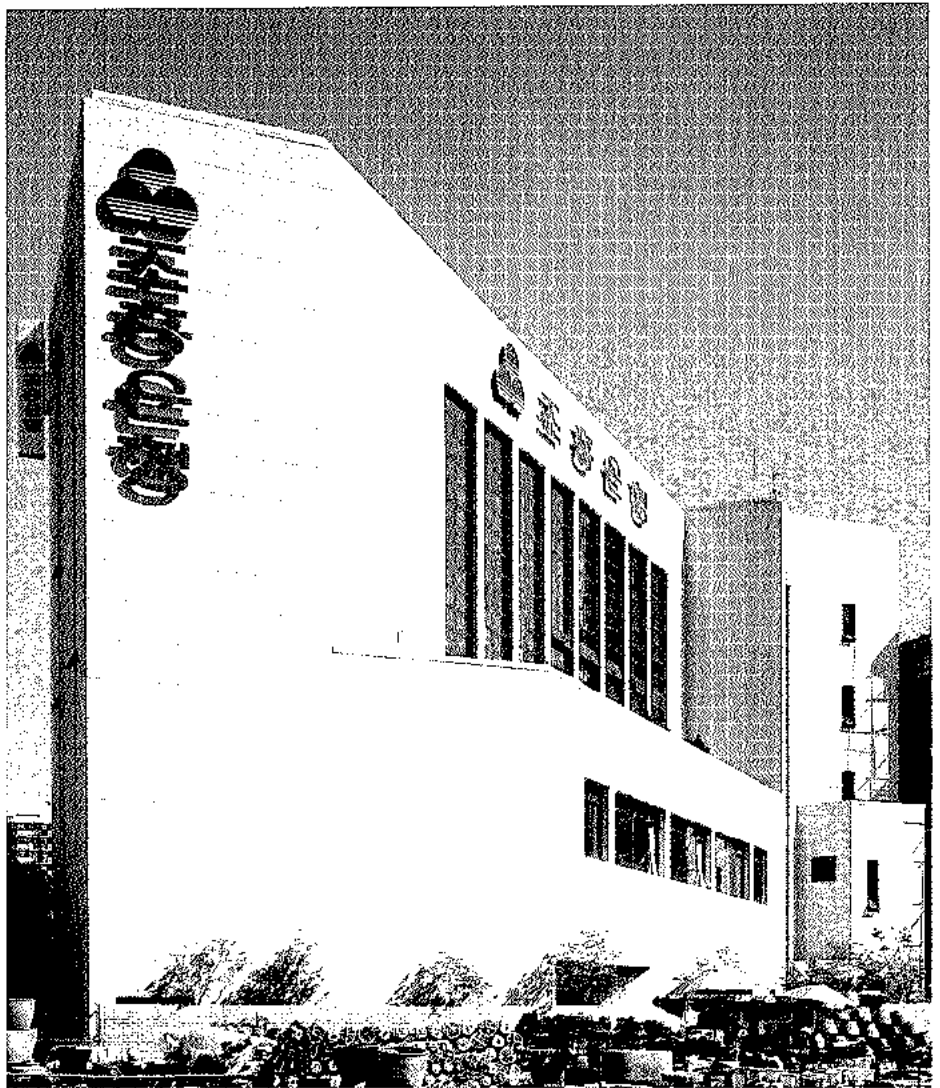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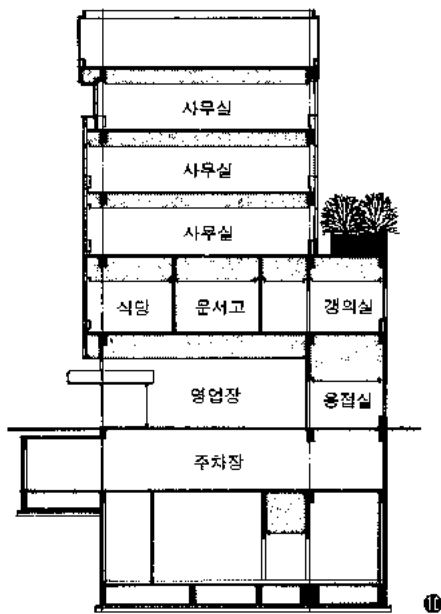
본 설계는 상계동 신시가지 개발 중에 착수되었다. 대규모 재개발계획으로 새로운 강북의 주거중심지로 떠오른 상계동 지역은, 그 실행 이전부터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주민재정착의 문제로 실행 이전의 갈등이 실행 이후의 교통문제로 이어지면서 대규모 주거단지로써 실패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류의 문제는 도시개발의 계획상 혹은 설계작업중 프로그램의 문제만을 지적한 것이며, 건축가의 입장에서 볼 때 문화적 환경의 소외가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아파트단지 자체의 획일적인 배치와 무미건조한 형태가 항상 지적되어온 문제라면, 이러한 단지와 더불어 근린의 여러 건물들의 단조로움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주거영역은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기억과 편안함을 주어야 하는 定住의 장이 되어야 한다. 부지런하게 재잘거리는 상가건물들, 근엄하게 미소짓는 관청건물, 포근하면서도 묵직하게 침묵을 지키는 학교, 이런 동네에 믿음직스럽게 은은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신사이고 싶었던 것이 이 건물의 모습이었다. 넓직한 도로를(35m) 앞과 옆에 둔 모서리의 대지에 두 도로 모두에서 쉽게 바라볼 수 있도록 건물을 대각선으로 배치하고 그 중심에 주출입구를 두었다.

이 건물의 형태상 특징은 돌과 유리라는 이질적인 재료의 대비와 강한 분절을 들 수 있다. 두 재료의 대비는 본 상계동 지점에서만 시도했던 것은 아니며, 여러번 반복되어서 회림건축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버린 느낌도 없지 않다. 그러나 돌과 유리의 반복적인 사용은 은행건물의 성격을 표현하기에 가장 근접된 재료로 느껴졌으며, 이 돌과 유리는 형태상의 주요 테마인 '분절'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다. 본 상계동 지점은 너무 펼쳐져 약간은 과장되었다는 느낌도 감출 수 없으나 상대적으로 전면의 깊은 분절을 유도할 수 있었고, 배면의 가지런한 창으로써 이 건물의 외관을 완성하였다.

李永熙 / 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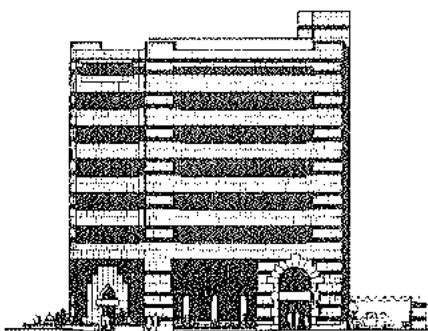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주출입구측 외벽상세
- ③ 사무실출입구측 외벽상세
- ④ 시간외 출입구측 외벽상세
- ⑤ 배치 및 1층평면도
- ⑥ 2층평면도
- ⑦ 3층평면도
- ⑧ 배면전경
- ⑨ 1층영입장내부
- ⑩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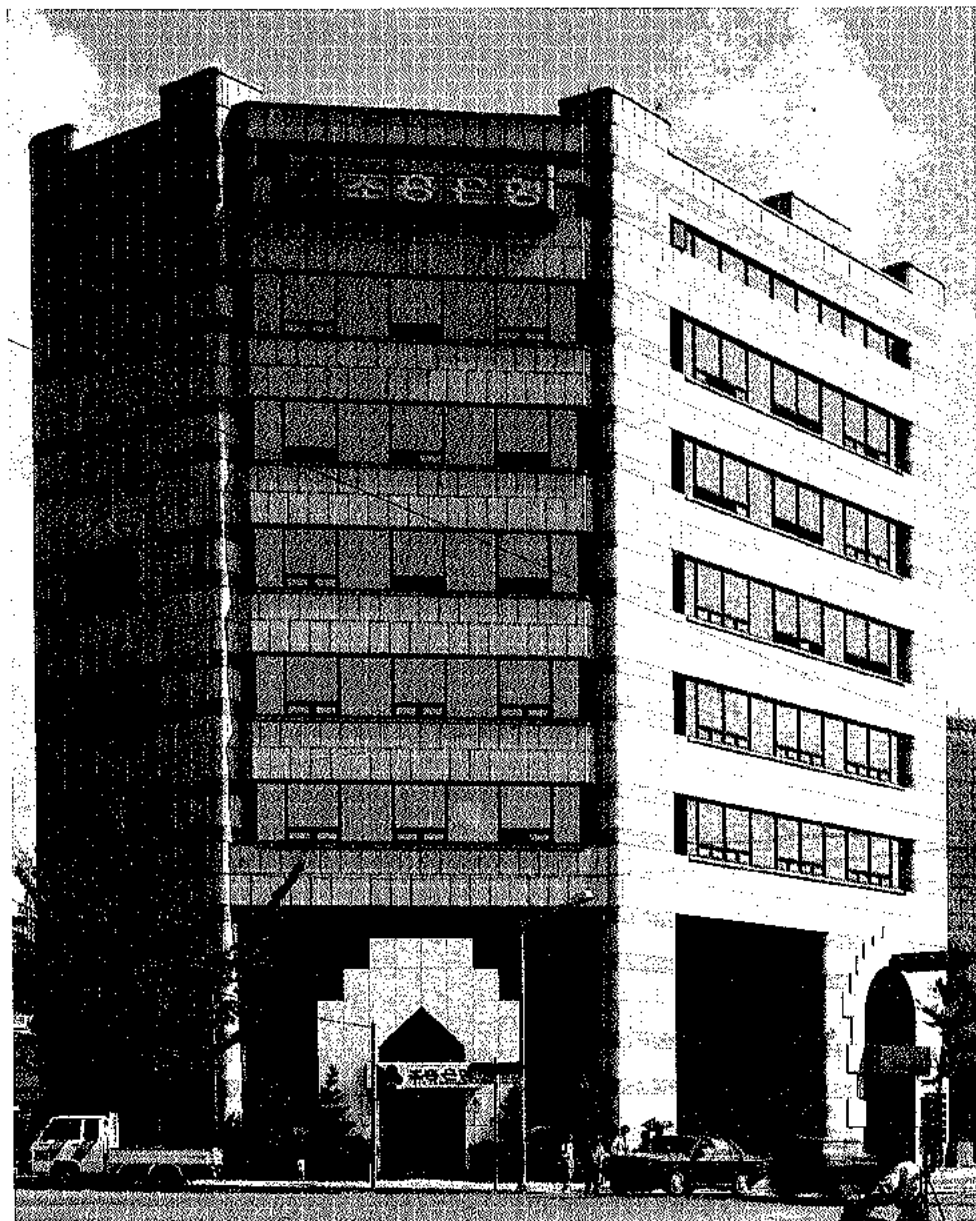
목우빌딩

Mokwoo Building

대지위치 /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동 900-3
지역 · 지구 / 준주거지역, 미관, 방화, 고도지구
대지면적 / 907㎡
건축면적 / 550㎡
연면적 / 4,547㎡
건폐율 / 60.56%
용적률 / 387.04%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화강석버너마감 및 물갈기+석재타일



2



1

설계소묘

1, 2층은 은행지점, 3층이상은 사무실의 단순기능으로 평면적으로는 은행출입구를 사거리 모퉁이에 위치시켜 출입의 인지도를 높였고, 사무실의 주출입구는 주차장과 인접하여 순환도로 측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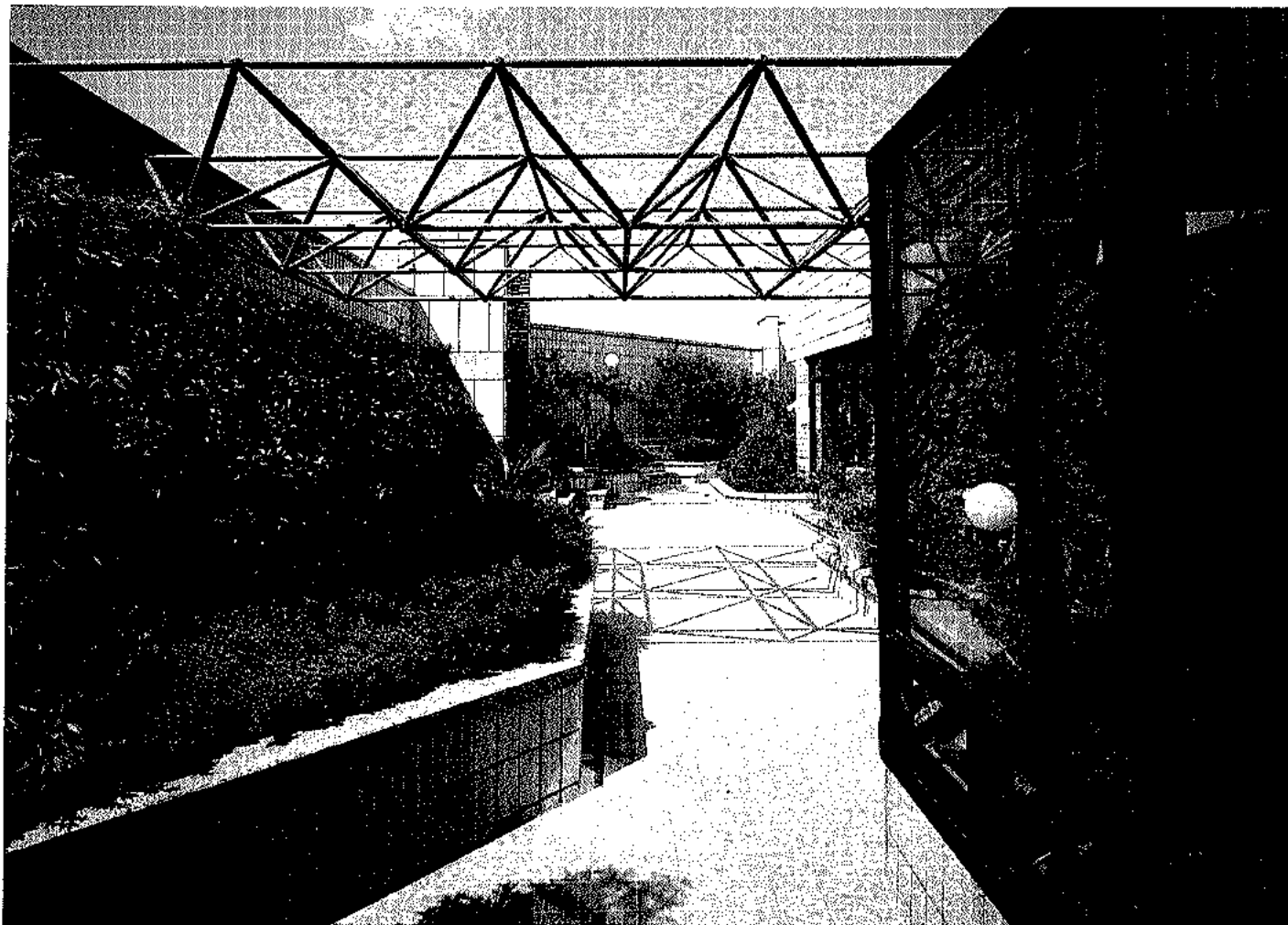
또한 건물의 배치에서는 동서로 향한 건물배치가 남북으로 향한 건물배치보다 향의 불리함이 있으나, 동측이 광주시 도심과 무등산을 정면으로 조망할 수 있고 서측은 원거리 시야의 오픈으로 전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동서향 배치를 택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가볍지 않고 묵직한 느낌을 요구하는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전면의 외장재로는 화강석과 후면은 예산을 고려하여 타일로 마감시켰다.

화강석과의 절감을 고려하여 타일을 석재타일로 선정하였고, 화강석에는 버너마감 면과 붉은색돌의 물갈기 면이 주는 색의 변화를 이용한 띠를 부여하였다. 또한 석재타일도 흰색과 붉은색의 2가지 색상을 활용하여 이질재료의 거부감을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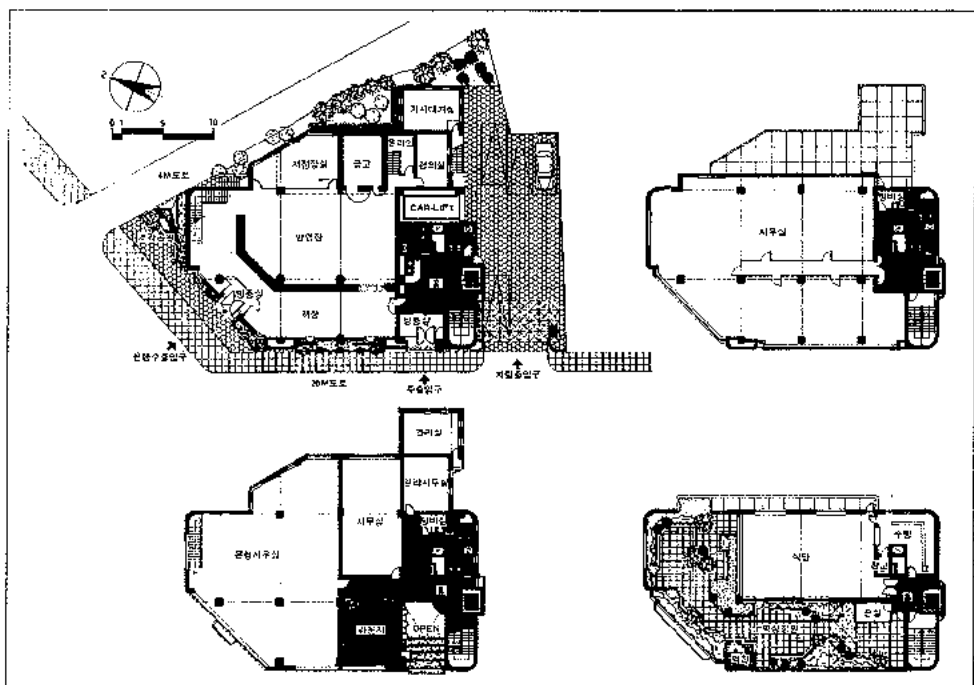
사거리에 면해 있는 상업성이 강한 은행출입구는 검은 유리를 배경으로 흰색면을 대비시켰다. 사무실 출입구는 아치형 돌 마감으로 하여 주출입구감을 강조하였다.

金永雄 / 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
Designed by Kim, Young-Woong



3

- ① 전경
- ② 정면도
- ③ 옥상 휴게공간
- ④ 좌 상부로부터 시계방향으로
1층평면도 기준층평면도
2층평면도 3층평면도
- ⑤ 2층복도
- ⑥ 외벽상세
- ⑦ 1층 주출입구 내부
- ⑧ 단면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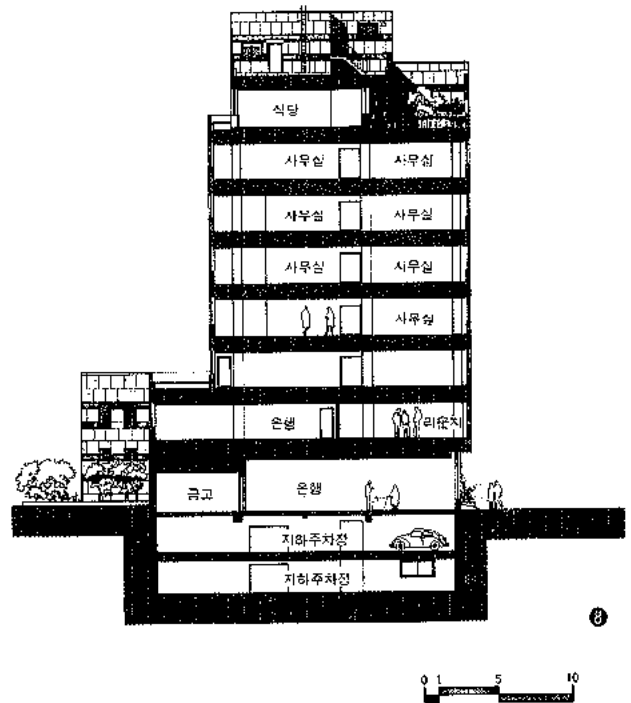
5



6



7



8

거반빌딩

Gurban Building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6-38
 대지면적 / 494.6㎡
 건축면적 / 203.79㎡
 연면적 / 745.71㎡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변색벽돌 치장쌓기, 아스팔트형글 지붕



1



2

설계소묘

좁고 긴 모양의 땅.

대지의 형상대로 사무공간의 평면을 만들고 코어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어 중간층에 둥글게 해서 화장실 면적의 절약과 함께 사무공간과의 기능분리가 명확히 되도록 하였다.

사무공간과 화장실의 접속부분을 계단실로 처리하여 부담없이 자연스레 오르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계단과 화장실 사이의 여유공간 양측에 화단을 두어 화장실을 오가며 잠시나마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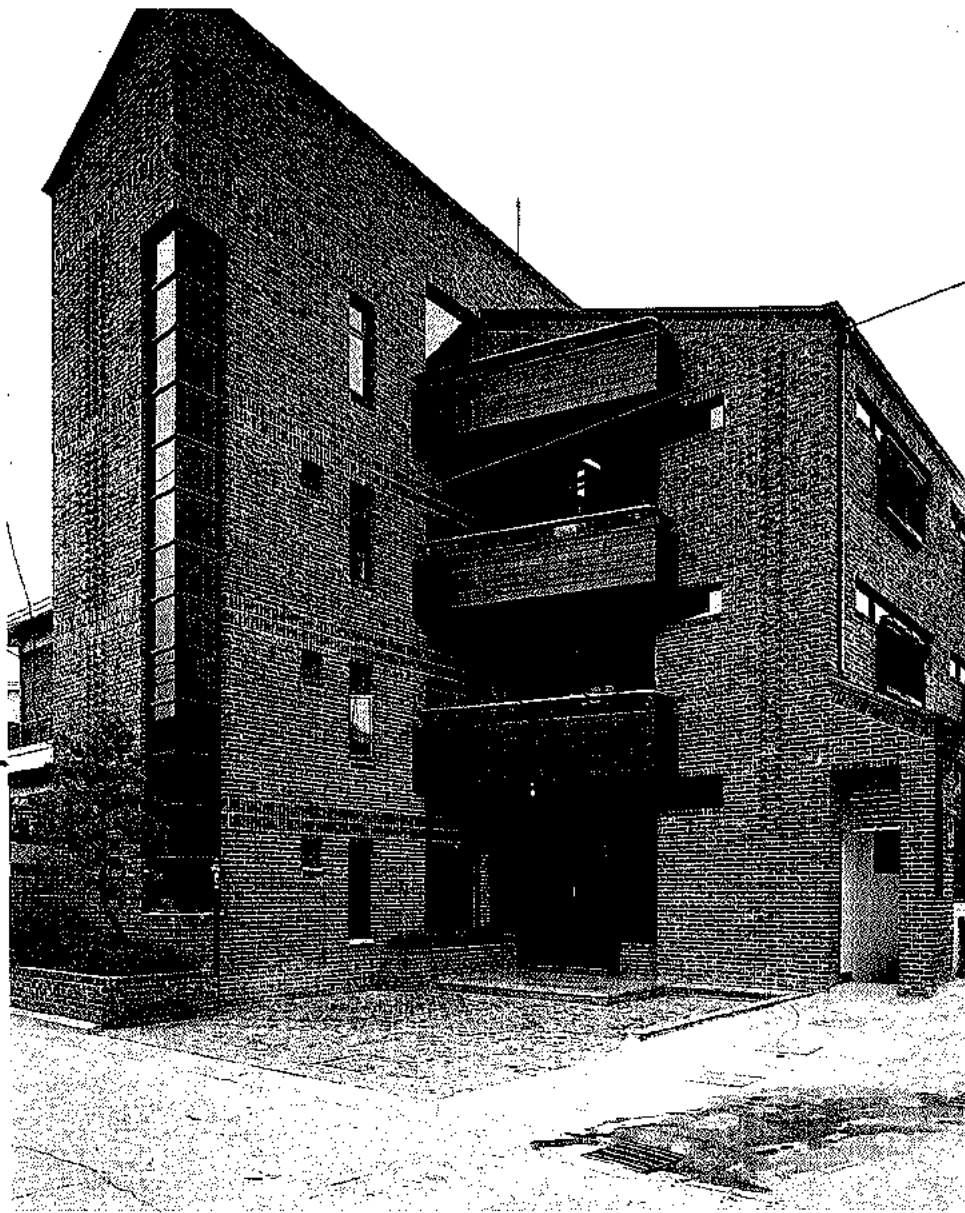
남측면을 막아선 기존주택들의 살풍경한 배면을 가능한한 차단하면서 채광과 통풍을 위해 고창과 화단을 도입시켰고 화단 방향으로 시계가 멀리도록 측창을 개방하여 답답하지 않도록 고려함과 동시에 화단주위 밝은 공간이 각층의 출입 및 대기 공간이 되도록 의도했다.

주택가에 어우러지도록 경사지붕을 채택하였으며, 긴 평면의 지루함과 단순함을 없애기 위해 보조창들을 설치하여 3층 사무실 공간이 쾌적하고 풍성한 느낌을 갖도록 시도했다. 변화가 있는 창문의 형태는 입면구성의 재미보다는 내부공간에서의 일관성과 사용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생긴 부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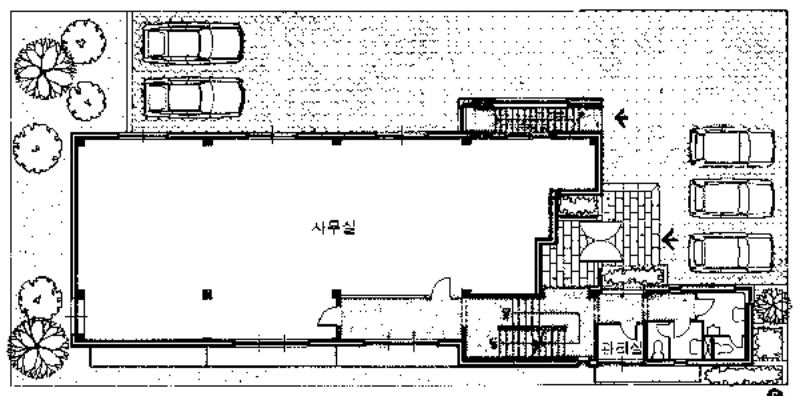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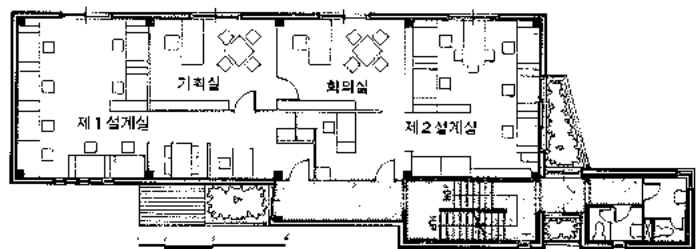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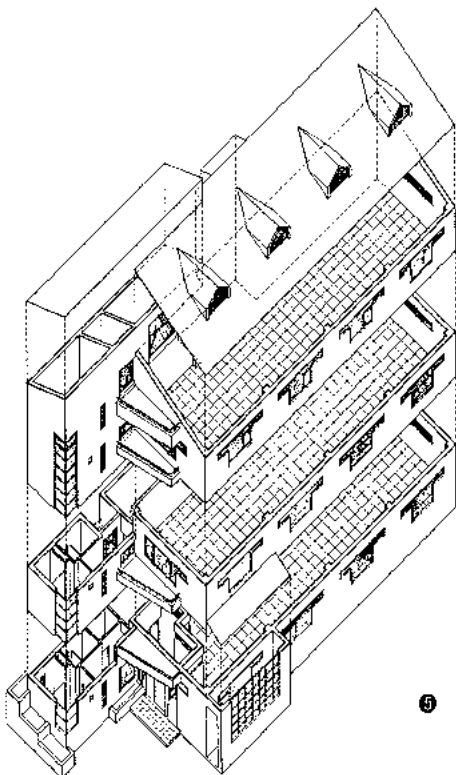
민산이 바라다 보이는 교창, 단상으로 처리된 전면의 화단, 계단실의 자그마한 4각의 개구부들이 자연스레 연계되도록 시도했으나 앞집들에 가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은것이 아쉽다.

어두운 색조의 변색벽돌집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처음에는 밝고 화사한 외벽 재료를 사용하여 눈에 두드러지게하고 싶었으나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변색벽돌로 바꾸어 보았다.

李恒培 / 건축사사무소 근반
 Designed by Lee, Hang-Bae



- ① 3층 설계실 내부
- ② 주출입구측 외벽상세
- ③ 전경
- ④ 외벽상세
- ⑤ 아이소메트릭
- ⑥ 1층 평면도
- ⑦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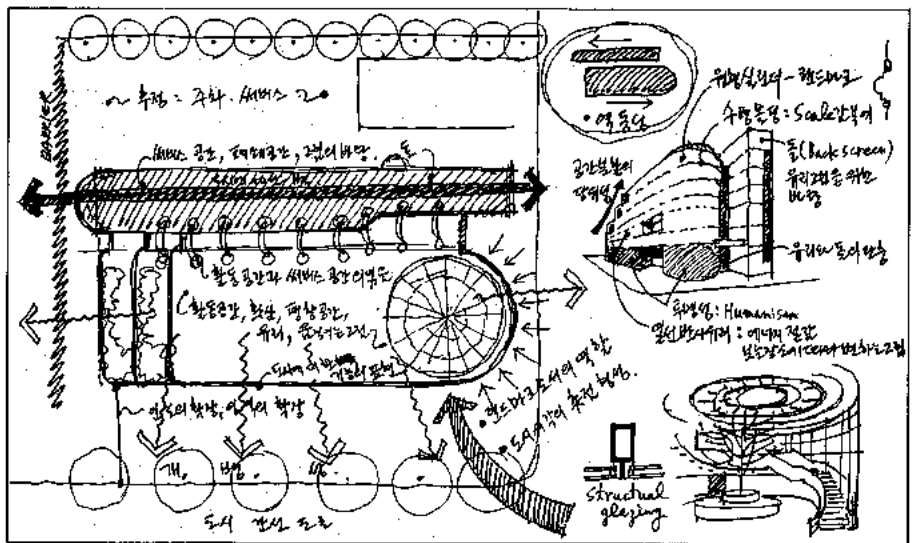
한국투자신탁 개포지점

Korea Investment
Trust Co.,
Kaepo Branch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지면적 / 1,248.50㎡
연면적 / 4,468.03㎡
구조 / R.C라멘조
외장 / 구조용실란트, 화강석,
열선반사유리



①



②

설계소요 1,2층 영업장의 터진 원형공간은 1,2층의 자연스러운 연결요소로도 사용되지만 대고객 접대공간의 질적향상을 가능케하며, 이 원형 실린더 부분은 특히 건축의 표현이란 관점에서 볼때 금융기관 공간배분의 특성에서 얻어지는 Mass의 점층적 Recess요소와 함께 통과 교통의 시각적 초점을 형성하여 Land Mark로서의 역할과 무표정한 주변지역에 생동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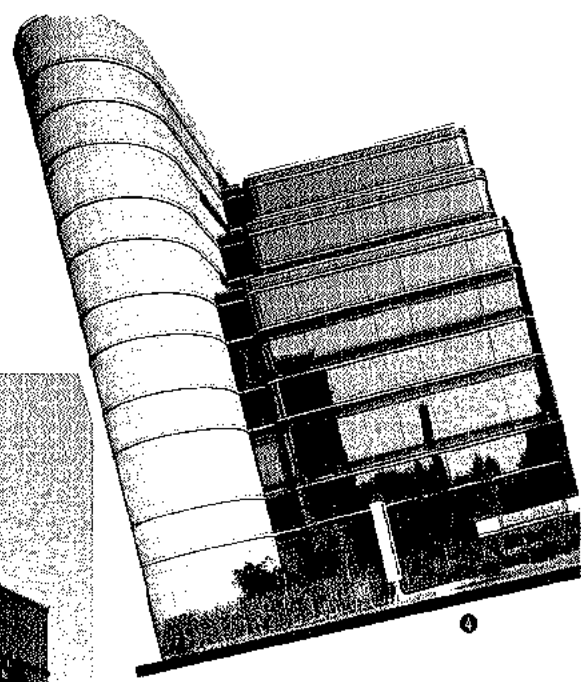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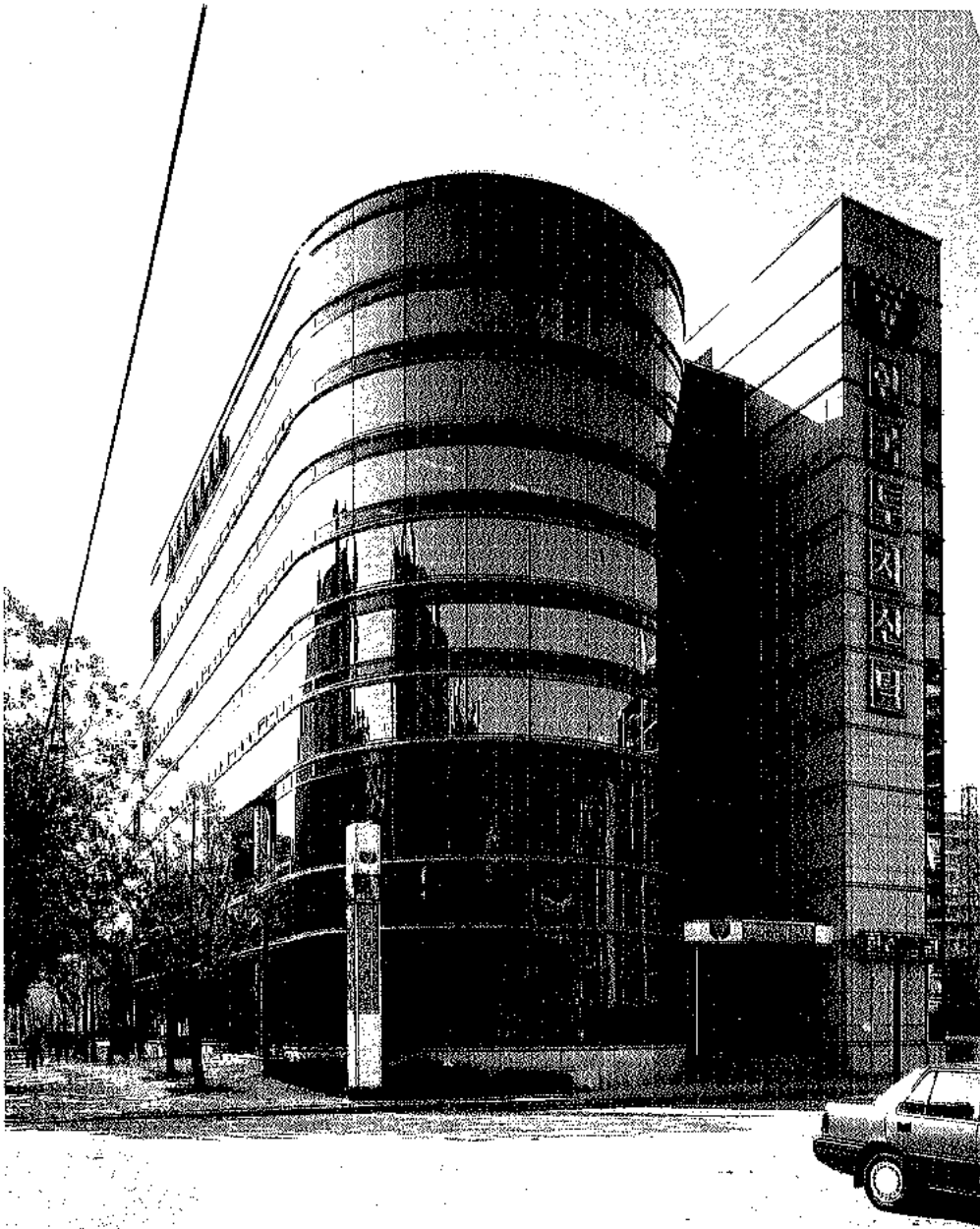
한국투자신탁 개포지점의 부지는 고층 아파트군으로 둘러싸인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에는 서울남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폭 40미터의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고 있다.

가로에 대하여 끝없는 팽창성과 개방성을 표현해주고자 노력한 일련의 한국투자신탁 지점설계 어휘 속에서 개포지점의 계획은 대지가 갖는 환경적 성격을 체득하면서 시작되었다. 돌과 유리의 재료적 속성을 이용한 공간과 Mass의 표현, 수평성을 강조하면서도 Scale감을 부여해주는 수평 Band와 Molding, 이러한 건축적 어휘들은 이제까지의 한국 투자신탁 지점사옥들에 부여해주었던 공통어휘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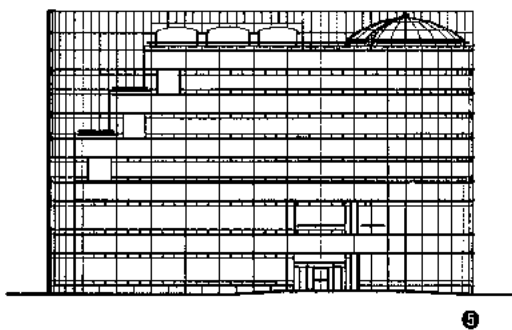
金一 + 方喆麟

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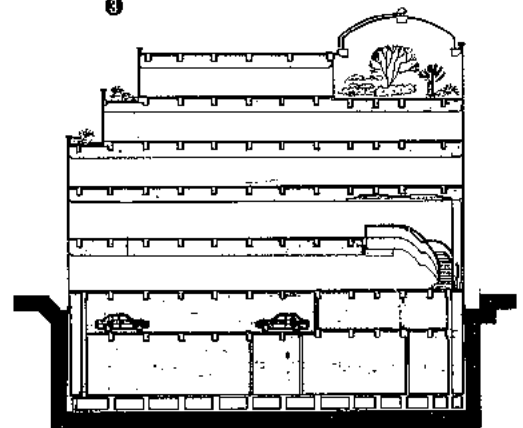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Chang-II &
Bang, Chul-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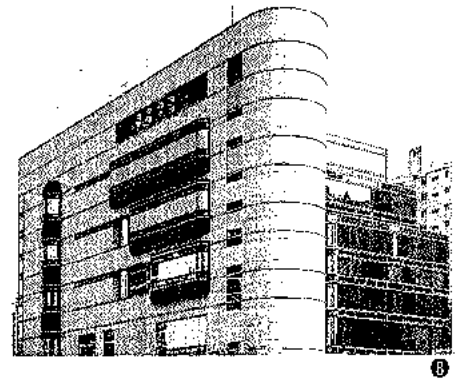
- ① 객장전경
- ② 설계 개념도
- ③ 주출입구측 전경
- ④ 남서측 전경
- ⑤ 정면도
- ⑥ 단면도
- ⑦ 1층 객장 및 원형계단
- ⑧ 배면
- ⑨ 배치 및 1층평면도
- ⑩ 2층평면도
- ⑪ 5층평면도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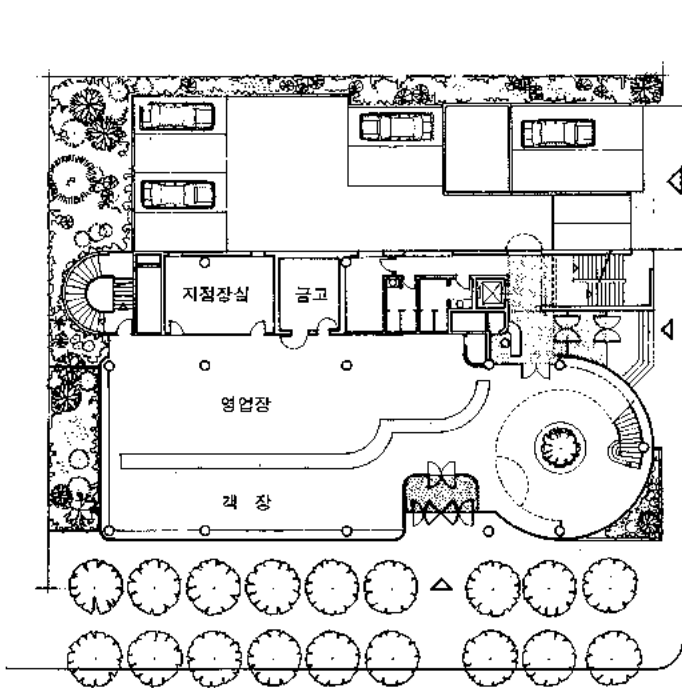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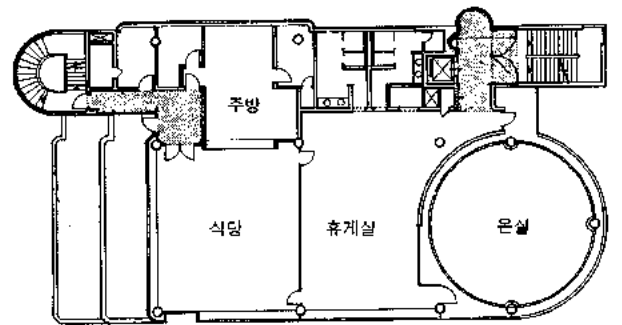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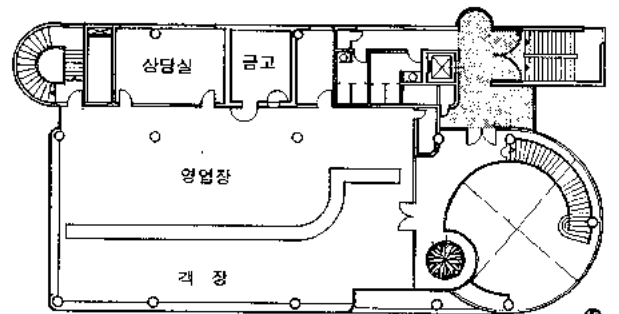
7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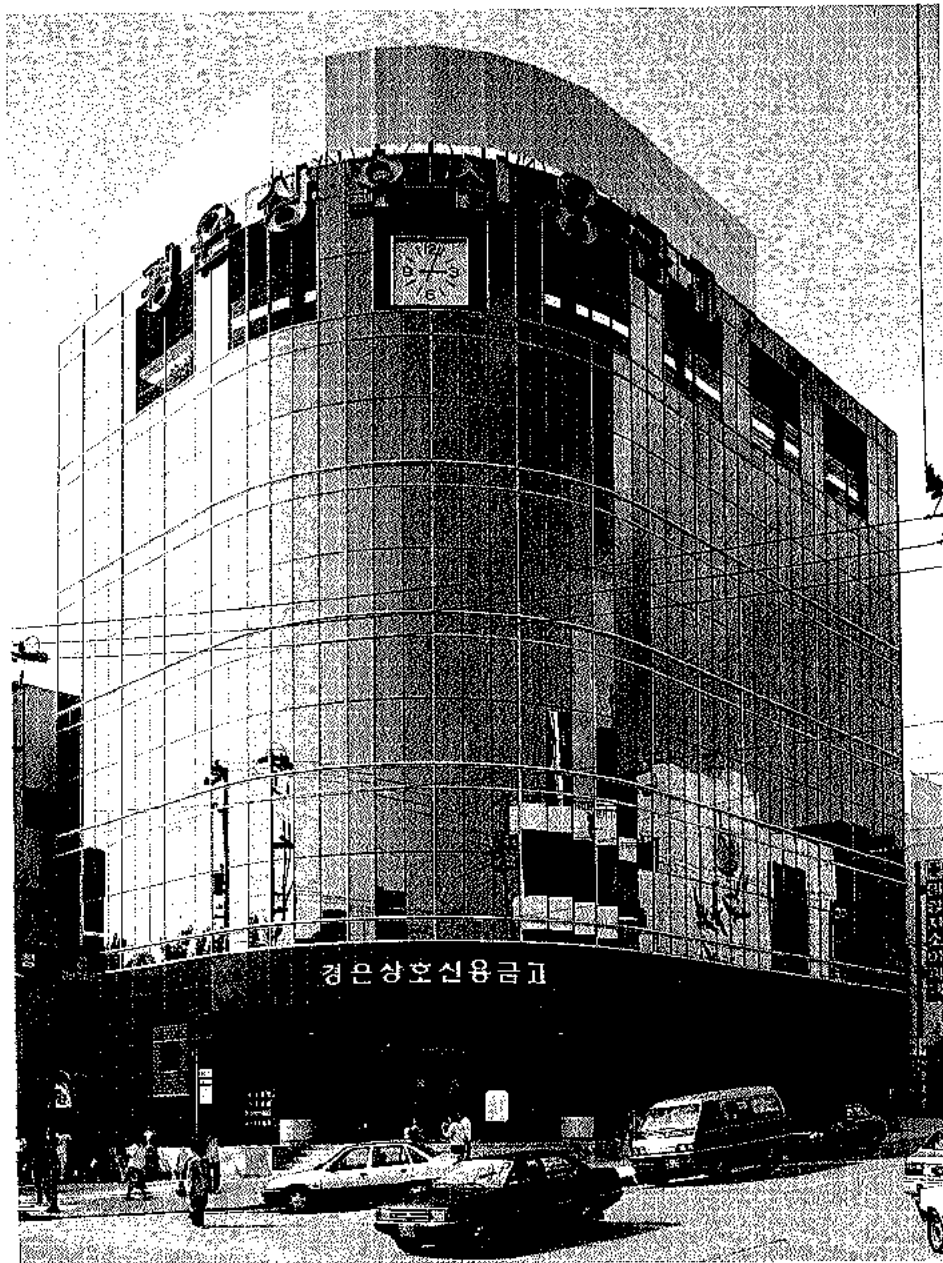
11

0 3 6 9

경은상호신용금고

Kyungeun Mutuality
Credit Association

대지위치 / 인천시 남구 주안동 197-20
지역·지구 / 상업지역, 2종미관지구, 방화지구
대지면적 / 554.00㎡
건축면적 / 420.24㎡
연면적 / 2,782.31㎡
건폐율 / 75.86%
용적률 / 356.4%
규모 / 지하 2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22대
외부미감 / 마천석 버너마감, 18mm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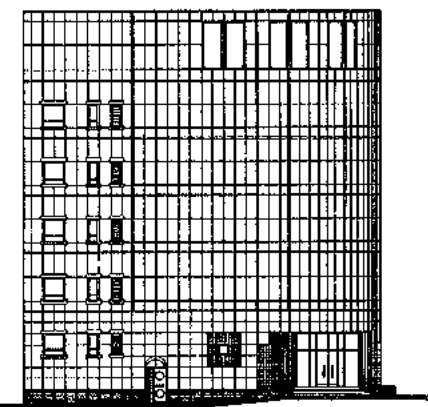
설계소묘

본 건물의 대지는 인천의 주안 신개발지의 연속된 가로에서 끝나는 부분쯤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조건으로 해서, 건물은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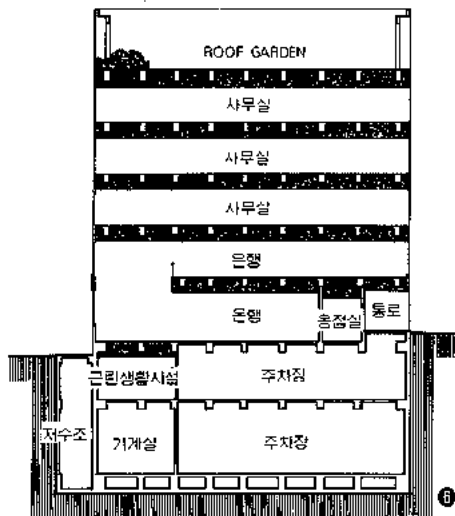
처음 계획시에는 대지형태에 관계없이 직사각형의 형태를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곧 모퉁이 대지형태와 일치시켜 전면으로 바깥 끌어냄으로써 블록 전체의 코너의 역할을 강하게 부각시키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

반사유리의 채택은 최근의 추세를 따른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건축주는 한수 더더 건물 전체가 진한 청색의 이미지를 갖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따라서 하부는 청색의 알루미늄으로 상부의 반사유리와 걸러를 맞추었는데, 이 점이 성공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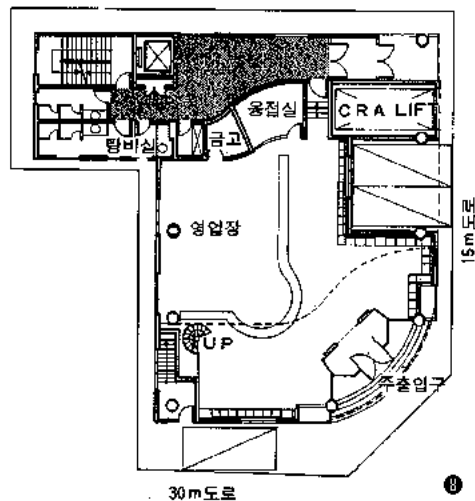
대지가 너무 좁고, 기타 상업적인 요구(신용금고로서 1층 객장의 최대면적 확보)로 인해 주차·조경, 1층 부분의 오픈스페이스 등의 Vocabulary는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었다.(건폐율 80%는 서울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이니까.)



崔東奎 /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
Designed by Choi, Dong-K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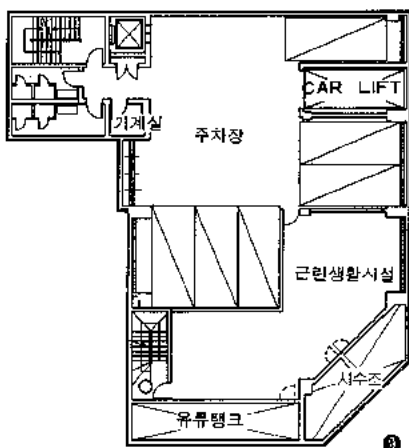


인접대지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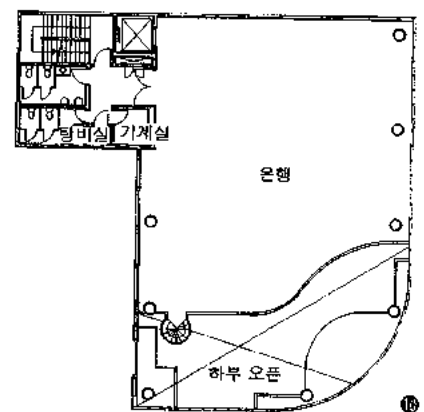


7



9

- ① 전경
- ② 정면도
- ③ 주출입구 내부
- ④ 기준층 엘리베이터실
- ⑤ 주출입구 상세
- ⑥ 단면도
- ⑦ 영업장 전경
- ⑧ 배치 및 1층평면도
- ⑨ 지하층평면도
- ⑩ 2층평면도



10

K빌딩

K.H.S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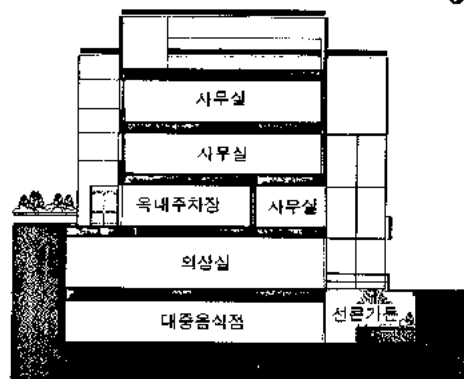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6-12
지역·지구 / 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4종미관지구
대지면적 / 538.3㎡
건축면적 / 267.96㎡
연면적 / 1,409.97㎡
건폐율 / 49.77%
용적률 / 204.22%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 9대(옥내 6, 옥외 2)
외부마감 / 외벽-노출콘크리트외 에폭시도장
창호-칼라 알루미늄+칼라페아그라스

설계소묘

대지와 도로가 경사진 자연적인 지형조건에 단순한 접근방법의 모색이 선결과제로 요구되는 계획이었다.

지역적인(장소성)면에서 패션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건축주)의 패션사육에 대한 기대심리 및 욕구충족을 단순한 면에서 찾으려 노력해 보았다.

작은 규모이면서 쉽게 다부어질 수 없는 주변여건과의 조화, 그런 속에서의 은은한 독창성에 대한 내재욕구, 패션거리의 흥미로운 여운을 줄 수 있는 멋의 표출, 친밀감을 발산하는 평면과 입면의 일체감 있는 표현이었으면 하는 목적에서, 평온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정면의 파사드는 외부와의 단절이 아닌 대문과 같은 정겨움으로, 트인 작은 안마당과 같은 쉼터를 유도 하였다. 단순한 정면의 면처리에는 다소 무거워 보일지도 모르나 두개의 매스로 처리한 창호는 작은듯 하면서도 작아보이지 않는 건물의 인식을 위한 포인트로 제시시켜 하였으며, 본체획이 오래도록 아름다운 패션거리의 한 단면을 담당하였으면하는 바람이다.



金軟培+金鎬慶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나라

Designed by Kim, Yean-Bae & Kim, Ho-K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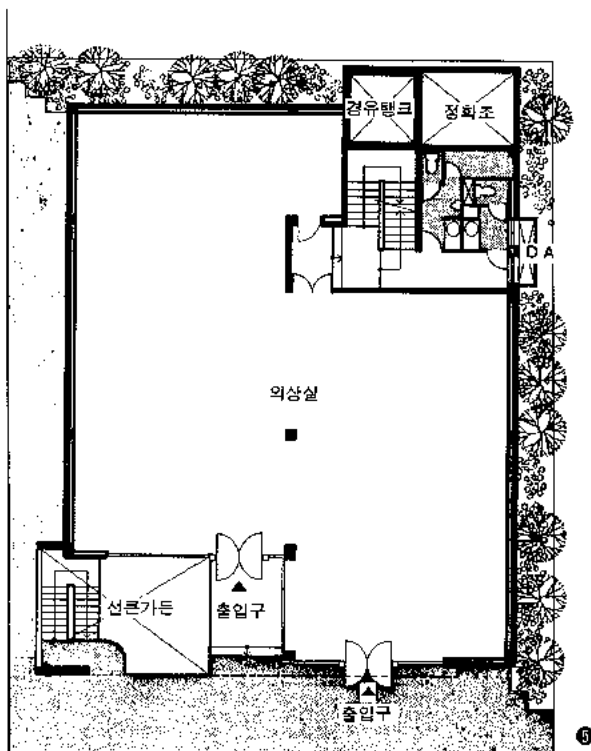


- ① 주출입구 상세
- ② 전경
- ③ 주단면도
- ④ 정면파사드
- ⑤ 배치 및 1층 평면도
- ⑥ 기준층(3, 4층) 평면도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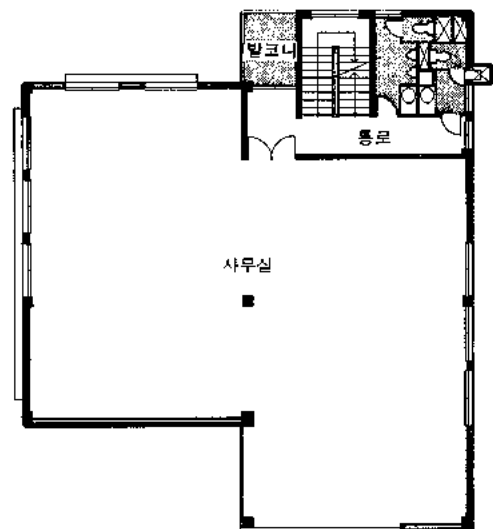


4m도로



35m도로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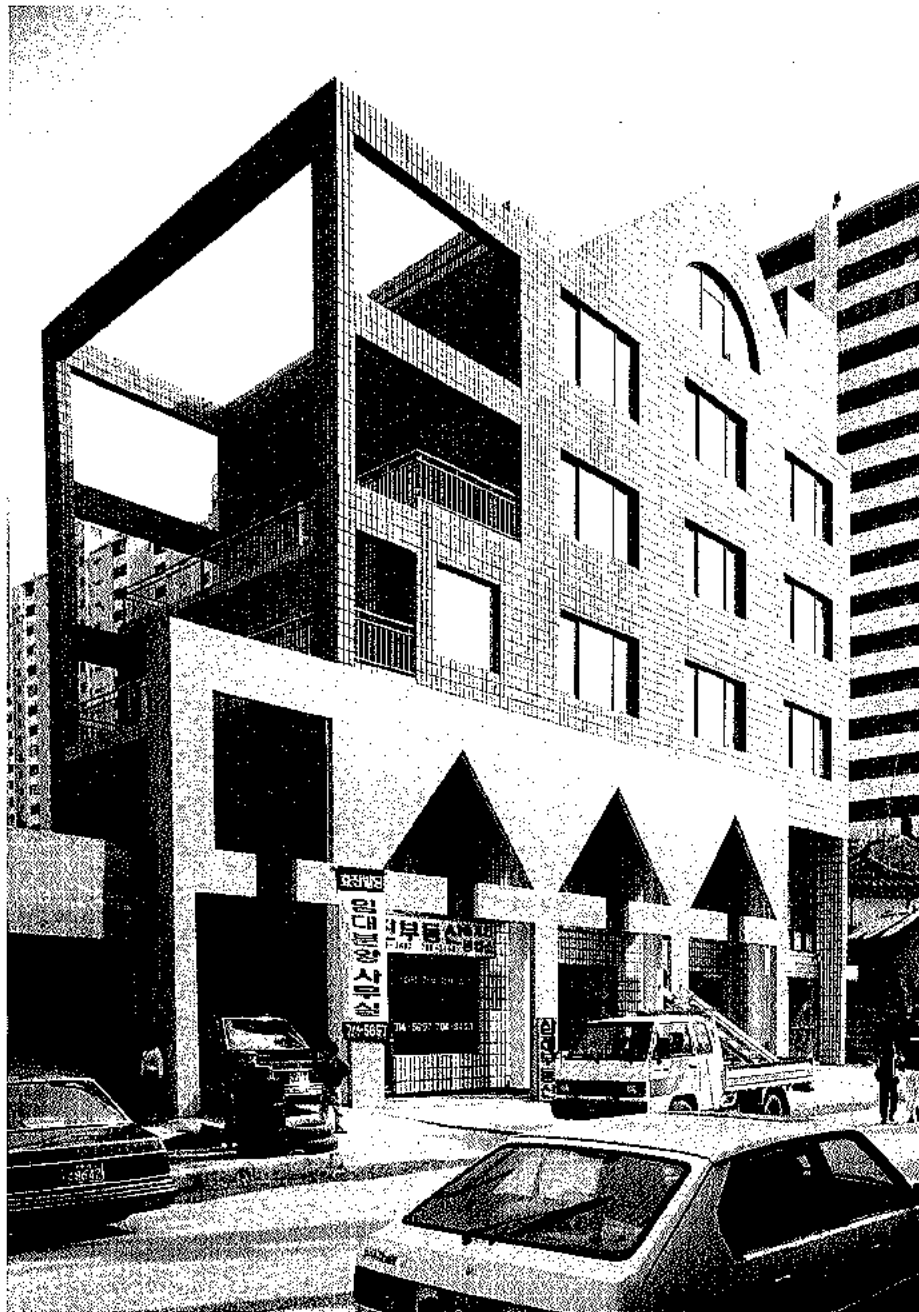


⑥

효진빌딩

Hyojin Building

대지위치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5-14
지역 · 지구 / 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403.9㎡
건축면적 / 188.4㎡
연면적 / 1,120.0㎡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외부마감 / 외부용타일 및 에폭시 페인트



설계소요

여의도에서 마포대교를 지나 시내로 향하다 보면 마포 재개발 지역의 고층 오피스군을 만나게 된다. 그 사이로 끼고 돌면, 웅기 웅기 있던 한옥 및 구가옥이 재개발로 신축된 고층 아파트 콘크리트 숲을 만나게 되며, 15m로 확장된 도로에 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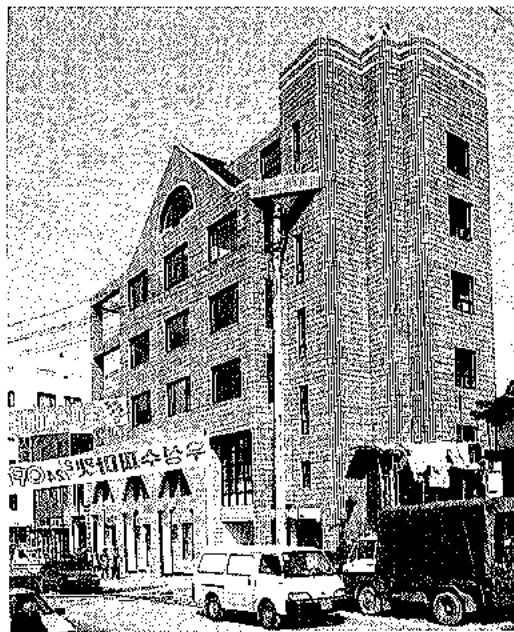
주위는 타일로 마감된 저층 오피스군이 무표정하게 서 있고, 도로 뒤흘은 한옥 및 구옥이 있으며, 점차 소형 빌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곳이다.

본건물은 소형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아파트 주민이 주로 이용할 것이며, 전면 도로에서의 주위 건물 및 기존 주택과의 어울림을 생각한 형태로서 시도하였으나 시공시 외부색상의 선택이 여의치 않은 점이 아쉽다.

趙中衍 / 종합건축사사무소 원
Designed by Cho, Joong-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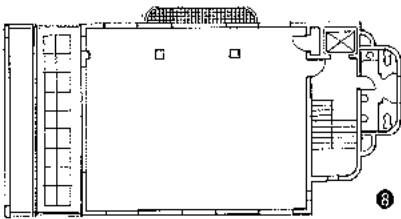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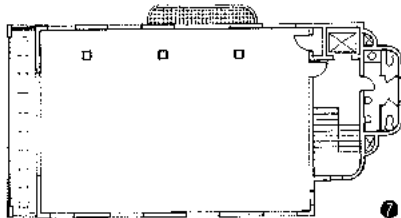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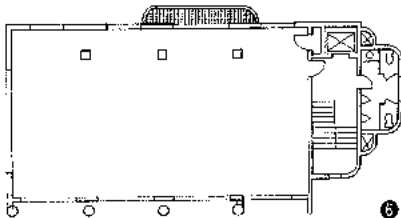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외벽상세
- ③ 배면전경
- ④ 역소노메트릭
- ⑤ 배치및 1층평면도
- ⑥ 2층평면도
- ⑦ 3층평면도
- ⑧ 4,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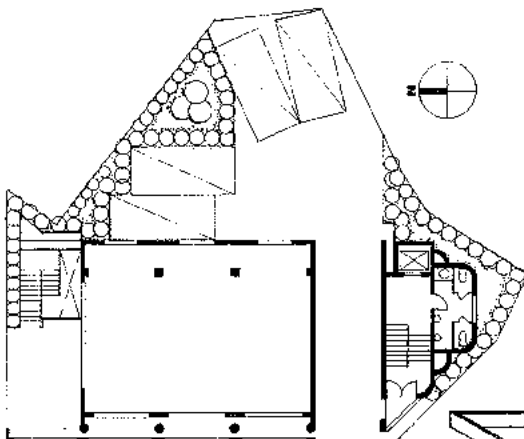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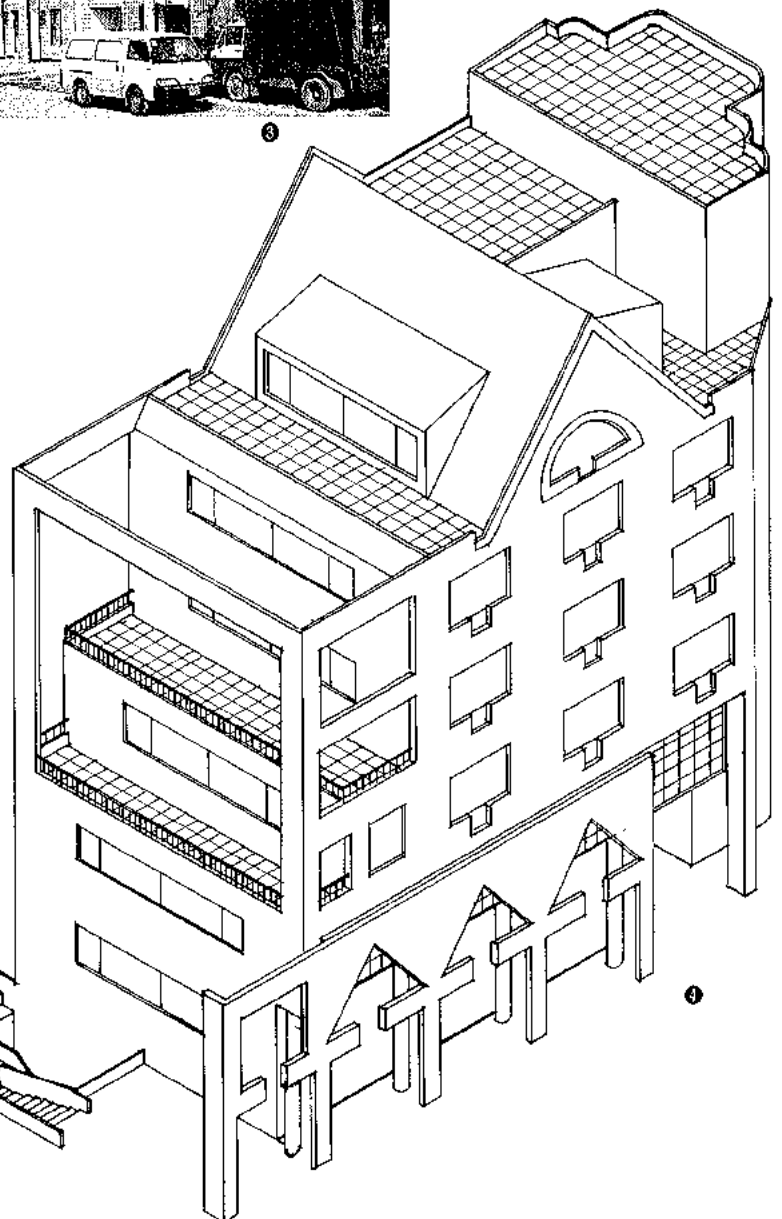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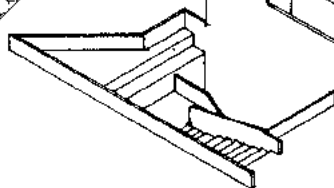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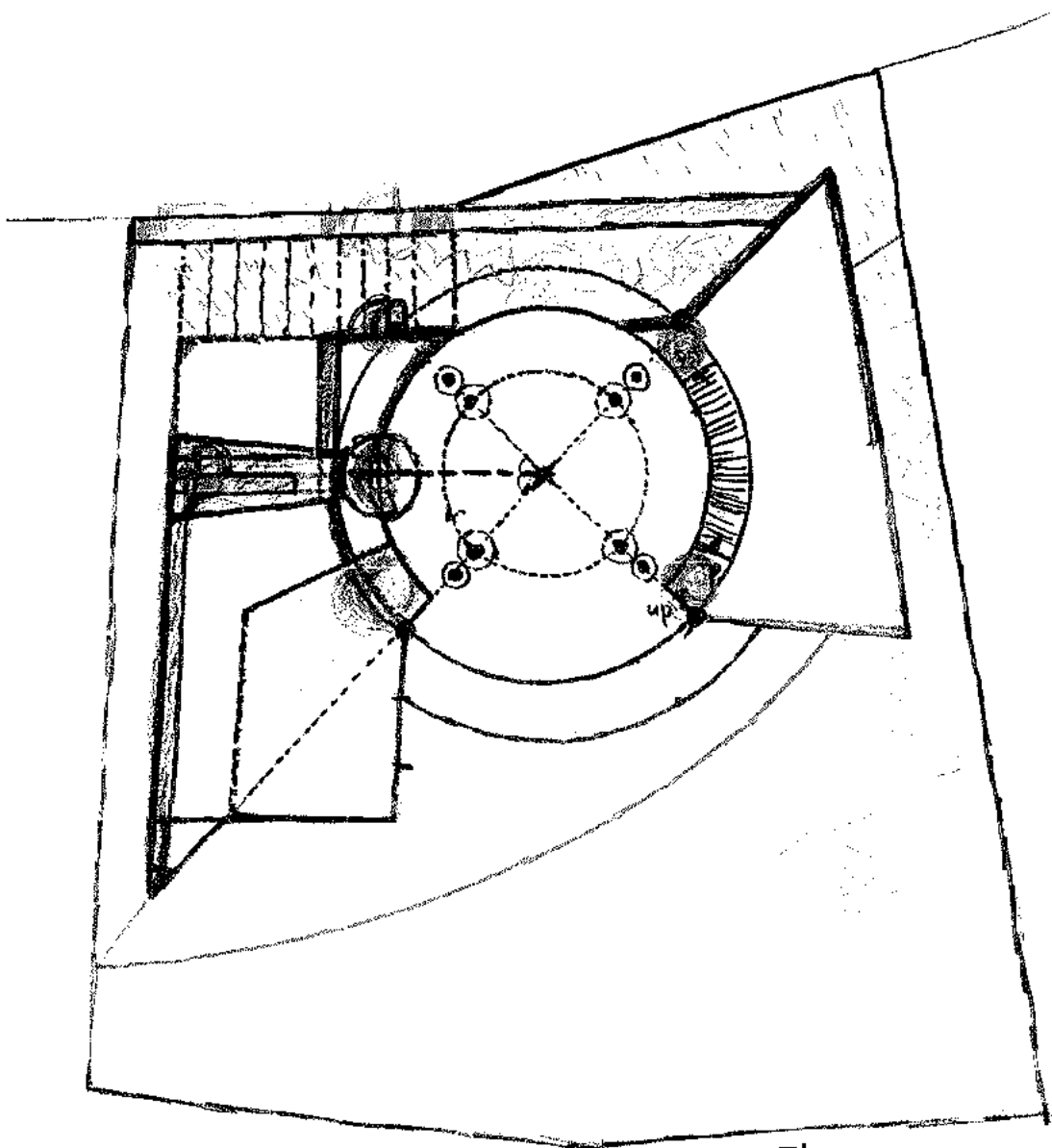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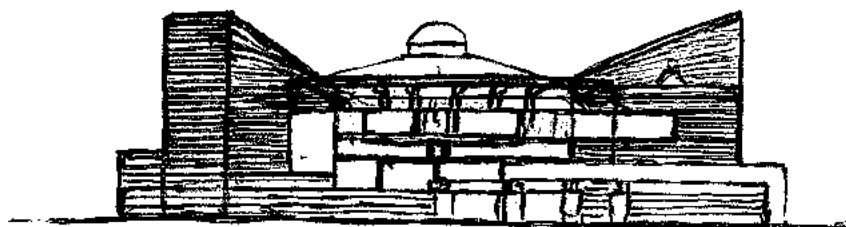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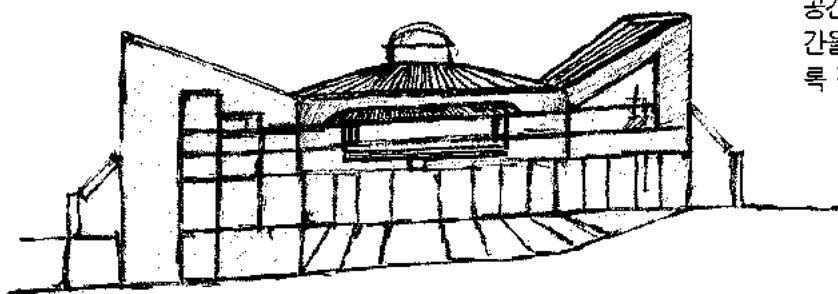
8



1



관 악산이 남측으로 바라보이는 190평 땅에 세워질 갤러리를 겸한 주택이다. 손님이 많아 가족의 장소와 손님의 장소를 두 원형으로 분계하고 사이에 서로가 바라보이며 만나게 되는 원형 공간을 두고 관악산이 정원을 통해 집안의 마당같은 이 원형 공간을 중심으로 후원으로 이어지는 공간적 해후를 느낄 수 있도록 각방을 주위에 겹쳐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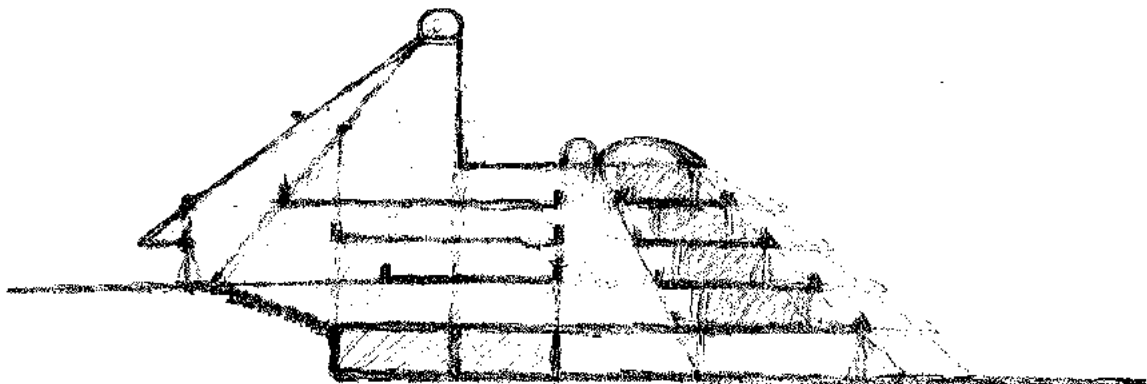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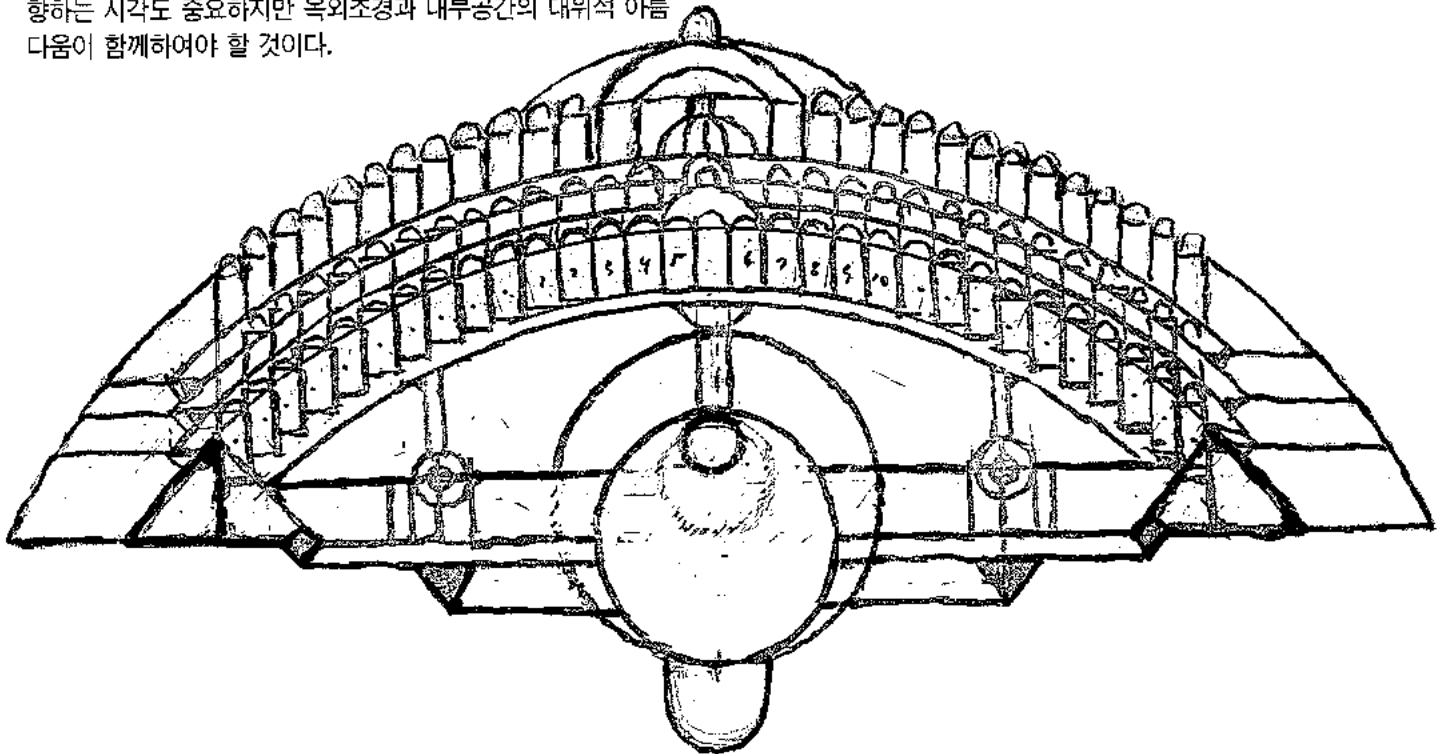


나의 스케치

계획안 2題

金錫澈/(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텐

제 주도에 영화박물관과 함께 세워질 카지노 호텔안이다. 모든 방은 바다로 향하고 큰 원통 공간속에 공공공간이 모여있고 카지노가 상부에 바다를 바라보며 원추형으로 돌출한다. 해안 경승지의 아름다움을 방마다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바다로 향하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옥외조경과 내부공간의 대위적 아름다움이 함께하여야 할 것이다.



'90全國建築士大會 開催 案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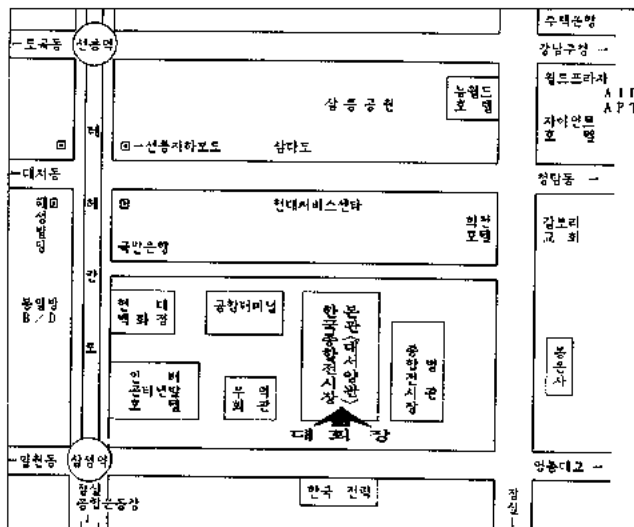
본 협회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오는 3.22~23일 양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서양관에서 전국 3,500여 회원 및 건축관련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90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며, 본 행사에 배우자동반 참석을 적극 권장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있으시길 바랍니다.

기간

1990. 3. 22(목)~23(금) [2일간]

장소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서양관 (본관3층)



목적

- 대회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정보 교환 및 연수
- 건축사의 지위향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건축사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단합
- 건축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 건축문화의 지역적 균등발전 도모

주제

'건축환경과 국민의식'

건축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구분을 두지않고 역사에 길이 남는 문화적 유산들과 거대하고 첨단적인 기술이 반영된 현대적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해야될 수 없이 다종다양하다. 이렇게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을 조성하는 건축물의 대부분이 우리 건축사의 지혜와 정열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만호 주택건설 조성에 온갖 힘을 쏟고 시책방향과 건설이념을 범국민적으로 구현하고 부주택자와 근로자의 주택보급 원화를 위한 지원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에서 우리 건축사의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90년대의 첫해를 맞아 국가발전과 시대여건에 부응하는 시책개발 및 장기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축업무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의 첫 해를 다짐하는 '90 전국건축사대회를 맞이하였다.

건축이 곧 시대의 사회상과 역사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건축가는 역사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이 그 생명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더구나 건축물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세워진 건축물은 만인의 주시속에 역사적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건축은 설계, 시공, 감리업무가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이고 기능적일 때 그 몫을 다한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는 건축기술에 있어 미래지향적 연구와 문화 또는 사회건설의 선각자로 시대적 소임과 역사적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사회는 수요공급의 법칙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좋은 건축, 훌륭한 작품이 되려면 사명감이 있는 건축가의 자질과 책임감이 중요하고 건축을 이해하는 건축주가 있어 충분한 시간과 필요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서울의 오대궁을 비롯하여 전 국토에 산재한 많은 유물들이 선대 건축인의 노력의 결정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건축이 인간생활과 국가발전에서 떨어질 수 없으므로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회의 건강한 재건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위환경에 잘 맞도록 건축공간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성있는 건축활동을 새롭게 마련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은 사회 구성원간의 동반이란 생각이 성숙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환경은 조성된다.

21세기의 태평양시대의 주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건축사는 가일층의 노력과 국위선양의 선행자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국민안은 의·식·주가 해결된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건축환경과 국민의식”

—주거환경과 우리사회—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행사일정

일 자	시 간	행 사 내 용	장 소	비 고
제 1 일 3.22 (목)	10 : 00 ↓ 13 : 30	전국 대의원 총회	종합 전시장 (국제회의실)	
	13 : 00 ↓ 14 : 30	대위원 중식	종합전시장 (구내식당)	
	15 : 00 ↓ 16 : 55	전국 건축사 대회 개 회 식	종합 전시장 (올림픽아홀)	
	16 : 55 ↓ 17 : 00	결의문 채택		
	17 : 00 ↓ 18 : 00	특별 강연회		
	18 : 00 ↓ 22 : 00	건축인의 밤		
제 2 일 3.23 (금)	10 : 00 ↓ 12 : 00	특 별 강 좌	종합 전시장	
	12 : 00 ↓ 12 : 50	중 식	(올림픽아홀)	
	13 : 00 ↓ 14 : 20	특 별 강 좌	(국제회의실)	
	14 : 40 ↓ 16 : 30	공개 토론회	(대회의실)	



특별강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연 사	비 고
3.23 (금)	10:00 ~ 12:00	특별강좌	올림픽아홀 (3층)	건설부 (주택국장)	슬라이드 검용
	12:00 ~ 12:50	중 식			
	13:00 ~ 14:20	제1강좌 ○주제: 우리나라의 근대건축 접목 과정	국제회의실 (4층)	김진일 (한양대교수)	
		제2강좌 ○주제: 실무에서의 CAAD적용		서동AI사업부	
		제3강좌 ○주제: 건축과 풍수지리설		박시익 (선건축 대표)	
			대회의실 (4층)		

공개토론회

- 일 시 : 1990. 3. 23(금) 14:40~16:30
-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올림픽아 홀
- 주 제 : 200만호 주택공급정책을 위한 건축계의 제안

○토론내용

과 제	발 표 자	토론자	비 고
기존도시의 주택정책 개선	이 영 회 (본협회서울지부회장)	조덕규 김장철	건설부 주택국장 정림건축 회장
신도시와 대형주택단지	박 찬 무 (명지대 교수)	주종원 여홍구	서울대 교수 한양대 교수
주택의 대량 생산화 방향	장 상 길 (현대기술개발 부장)	이병택 전준영	현대산업개발 전무 (주)우성건설 이사

☆교 통 안 내 ☆

- ◇ 지하 철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
- ◇ 일반버스 : 21, 56-2, 63-1, 65, 141-1, 571, 710
- ◇ 좌석버스 : 30, 33, 37, 64, 600, 773

나 자신부터...

나날이
불어나는
자동차, 한정된
도로망에 의해 곳곳의
주차난 또한 심각하지 않은가?
나날이 상승하는 지가에
더 많은 건축면적 확보를 위해
요구해 오는 건축주의 욕심과 강화되는
주차관계 법규의 심반원 의견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답답한 가슴속엔 자동차 때문으로
꼭 차있는것만 같은
느낌이다.

閔承烈 / 종합건축사사무소 빛

90년대의 이른 봄이 우리의 삼천리 금수강산에 찾아왔다. 방방곡곡 어디를 찾아 가든지 우리의 산천은 아름다운 자태를 자아내고 있으며 계절의 변화가 그 신비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다.

따뜻한 봄날!

이제 야외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잦아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거처간 곳의 뒷모습이 예년처럼 추함을 남기고 가지나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때문에 수년전부터 자연보호라는 캠페인이 매년 벌려져 왔으며 웬만한 사람들은 이 캠페인에 한번씩 동참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귀중품에 대해 그 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물품을 소중하게 간직하듯이 우리의 이 금수강산을 우리 스스로가 소중히 기르고 간직 하여야만 하겠다. 우리가 버린 오물, 우리가 망가뜨린 자연이 他人에 의해 청소되어지고 원상복구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시민정신을 고취시켜야 할 때다.

우리의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점점 선진화 되어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손으로 기존 자연을 훼손하면서 건설계획에 참여해야 하는 일량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손이 거처간 인위적인 자연의 차이점을 누구나가 쉽게 느낄 수 있다. 즉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차이점을 쉽게 인지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파괴해 놓은 자연을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는 절대로 在現 할 수 없음을 잘 알고있다. 이 진리앞에 우리는 좀더 숙연한 자세로 건설계획(토목·건축기타)에 임했으면 한다. 간단히 생각 하였던 것이 차후 감당할 수 없으리 만큼이나 확대훼손 되어야 하는 파도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덧붙여 자연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건설계획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요사이 상수도 보호권역에 대해서도 난립되는 건설로 인해 자연훼손 뿐만이 아니라 상수도 오염문제까지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음이 여러번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다. 상수도 보호권역은 우리 실수의 근원이요 원천인데 이를 우리가 파손하고 우리가 오염 시킨데서야! 산 좋고 물 좋다는 우리나라가 석수문제로 이렇게 온 세상이 떠들썩해서야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언제부터 우리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흘러 나오는 물을 그대로 먹지않고 끓여 먹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약수터로 가서 물을 길러 갔던가! 집에서 생수를 싣고 다니는 차량은 정말 우리의 새로운 풍속도가 아니고 무엇일까? 갑갑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상품의 유통과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잘 만들어진 제품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도 되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듯이 상수원에서 공급되는 훌륭한 식수의 유통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깨끗한 식수의 공급과정중 건축물의 입구에서 사용한 물의 출구까지의 과정 중에서도 혹시 오염되는 원인과 그 원인을 배제할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볼 만하다. 地下市水 탱크에서나 屋上 물탱크에서 상당기간 동안 정체 되었던 물을 우리는 그릇에 받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탱크자체의 방수가 흐트러져 혹시 外部의 오염된 물질이 침투 하거나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배관계의 부식으로 인해 이물질이 그대로 식수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사용한 오수가 배출된후 그 흐르는 오수가 누수됨이 없이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배수 되는지 우리 스스로 검토해 보자. 혹시 식수원에 오수가 그대로 방출 되고 있거나 혹은 관계법규의 허용치에 미달된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방출되고 있지는 않는지 검토해 보자. 건축물 시공때 부터 우리 스스로가 급배수의 과정을 엄격히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막히지 않은 배관을 통해 물이 잘 흐르듯이 우리의 도로에 자동차가 막히지 않고 잘 통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통체증.

정말 답답하기 이두 말 할 수 없다. 이 단어 이미 지긋지긋한 언어로써 생각하기조차 싫다.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캠페인 또한 대단히 활발하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부당국의 고심 또한 다른 어떤문제 못지않게 신경이 쓰이는 문제인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출근시 교통에 관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게 습관화 되었다. 운전석에 앉으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어느도로를 택하여 몇차선으로 갈까라고 머리속을 정리하는게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도로상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만 가니 정말 해결책은 없을까?

몇해전 유럽 여행중 파리를 방문 했을때 자동차 때문에 고생했던 생각이 난다. 풍피두 센타 견학을 마친후 고전건축과 풍피두 센타로 둘러쌓인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신나게 기타치고 뛰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대학로를 생각해 보았다. 문화적인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 보다 발달하고 개방감이 많음을 느끼면서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 잡으러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다. 불어로는 전혀 얘기를 하지 못하는지라 지역과 Hotel명만을 얘기 했으나 계속해서 거부만 당했었다.

나의 마지막 여행 경유지인지라 피곤도 잔뜩 겹쳐 짜증스럽기만 했다. 한시간 정도에 약 20여대의 택시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한 나로서는 더 이상 택시를 잡는데 대해서는 불가능 함을 느꼈다. 나는 우리나라의 교통문제도 비슷함을 느끼면서 다른 방법을 찾기위해 젊은 대학생에게 나의 숙소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묻게 되었다. Metro를 이용 하라는 것이다. 바로열 지하철역이 있지 않았던가. 메트로 앞에 있을때 한눈에 짝 들어온 그네들의 지하철교통망이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행자가 3번을 바꿔 타면서도 불편없이 목적지에 잘 도착 할 수 있도록 지하철도망이 마련되어 있는 이 나라의 지하철교통망에 감탄을 연발하였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낭비되는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을까라고 매번 느낄때 마다 파리지하교통망이 자꾸만 생각난다. 지상교통을 지하로 끌어 들여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많은 지하철 노선을 기대해 본다.

작년5월 교통사고로 인해 이세상을 타계하신 매형이 생각한다. 순식간에 아빠를 잃은 조카들이 자꾸만 생각한다. 일년에 만명이 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이 끔찍한 수치를 생각해 볼때 순간순간적인 교통정책에서 보다 안전하고 장기적인 지하철교통망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건의하고 싶다.

나날이 불어나는 자동차, 한정된 도로망에 의해 곳곳의 주차난 또한 심각하지 않은가? 나날이 상승하는 지가에 더많은 건축면적 확보를 위해 요구해 오는 건축주의 욕심과 강화되는 주차관계 법규의 상반된 외견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답답한 가슴속엔 자동차 매연으로 꽂 차있는것만 같은 느낌이다. 각 시마다 요수풀이나 하듯이 주차대수를 관계 법규에 맞추어 배치하는 것이 건축계획의 일치 관문인 현 시점에서 보다 자유스럽게 주차배치에 관계없이 마음껏 계획할 수 있는 대책 또한 없을까 항상 아쉬기만 하다. 일정규모의 블록을 형성하여 각 건축주가 건축을 할려면 그 대지내에서 일정 주차장을 해결하는 것 외에 기부채납의 방법으로 주차장 건설비를 마련하여 인근 지역에(단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야만 함) 초대형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일인가? 지상도 좋고 지하도 좋겠다.

4시 종로3가 에서 Meeting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갈까? 지하철 역 근방에 주차하고 3호선을 타야겠다. 내 차가 시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대 분의 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면서...

建築設計審議制度의 背景과 그 方向

建設部 技術審査官室

1. 배 경

건설부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을 심의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더욱 내실화하여 건설기술의 수준향상과 국제경쟁력 배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989년 5월 1일 공포된 건설기술관리시행령에서는 우선 설계심의대상공사를 아래와 같이 축소 조정하였다.

우선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종전의 10억원이상의 공사에서 30억원 이상의 공사로 조정하여 건축공사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토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종전의 50억원이상의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조정하여 지방화시대에 대응토록 함은 물론 지방위원회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각지방의 특색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심의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금년부터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익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재확인의 기회를 가질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밖에도 이제까지는 사실상 설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역사성이 있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여 당해 건축공사를 허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심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설계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하여, 역사성이나 문화예술성 또는 공익성이 높은 건축공사는 필요에 따라 각분야 사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하는

제도가 틀을 잡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설계심의의 제도는 건축사가 설계한 창작품을 다시 심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행정으로 인식되는 경향 또한 없지않다. 그러나 다년간의 설계심의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설계중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비사항이 설계심의 과정에서 많이 적출되고 있고 직접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 전문가의 아이디어도 많이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때로는 현실적이면서도 효용성이 높은 대안이 개발되어 설계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볼때, 설계심의는 규제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助長行政임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처리기간이 심의를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이기 때문에 건축공사의 시행이 설계심의로 인하여 그만큼 지연되는 것으로 간파하는 경향도 있으나 중앙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설계심의는 건축허가의 수속중에도 설계심의를 병행할 수 있기때문에 공사의 시행에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다.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는 발주자의 의지가 설계에 많이 반영되어왔다. 물론 공공건물에서도 발주관서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직이 건축공사 발주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허다하여 건설부에서는 이와같은 공공의 대형건물들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설계심의를 발전지향적인 행정으로 내실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2. 방 향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대략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 건축계획의 적정성

특히 금년부터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익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재확인의 기회를
가질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설계심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

- 주차장의 면적부족 및 주차장 배치계획의 불합리
- 공연장등 다중의 출입구에 화강석 물갈기로 마감하는 사례
-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Ramp계획의 누락
- 건축음향계획의 불합리
- 평면계획상 동선처리의 미흡
- 기초구조계획시 부동침하 고려 미비
- Deep Beam에 대한 보강방법의 불합리
- 내진구조계획 불합리

- 건축구조의 안정성
- 적용공법의 타당성
- 기계설비의 계획 및 시공의 적정성
- 전기설비의 계획 및 시공의 적정성

설계심의회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심의하고 있다.

다만, 총공사비가 30억위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설계만을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설계심의회와 실시설계심의회를 구분하여 심의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설계단계에서 배치와 평면계획등 기본적인 항목을,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구분 심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설계심의회시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없어 실시설계심의회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심의는 면제되고 있다.

이제까지 설계심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향후 설계도서를 작성할 경우에 이를 감안하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 주차장의 면적부족 및 주차장 배치계획의 불합리
- 공연장등 다중의 출입구에 화강석 물갈기로 마감하는 사례
-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Ramp계획의 누락
- 건축음향계획의 불합리
- 평면계획상 동선처리의 미흡
- 기초구조계획시 부동침하 고려 미비
- Deep Beam에 대한 보강방법의 불합리
- 내진구조계획 불합리

설계도서가 작성되면 발주기관에서는 중앙심의회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심의요청

심의요청은 해당공사의 심의요청서와 중앙심의회위원회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10부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는 발주자의 편의를 위해서 요청 당시에는 우선 1부만을 제출하여 보완사항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보완이 끝난후에 필요한 부수만을 작성하여 중앙심의회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서류작성의 중점을 피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기하였다.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규정(건설부훈령 제787호)에 의한 설계설명서, 구조계획서, 토질조사보고서 및 각종의 설계도면으로 구성된다.

다. 심의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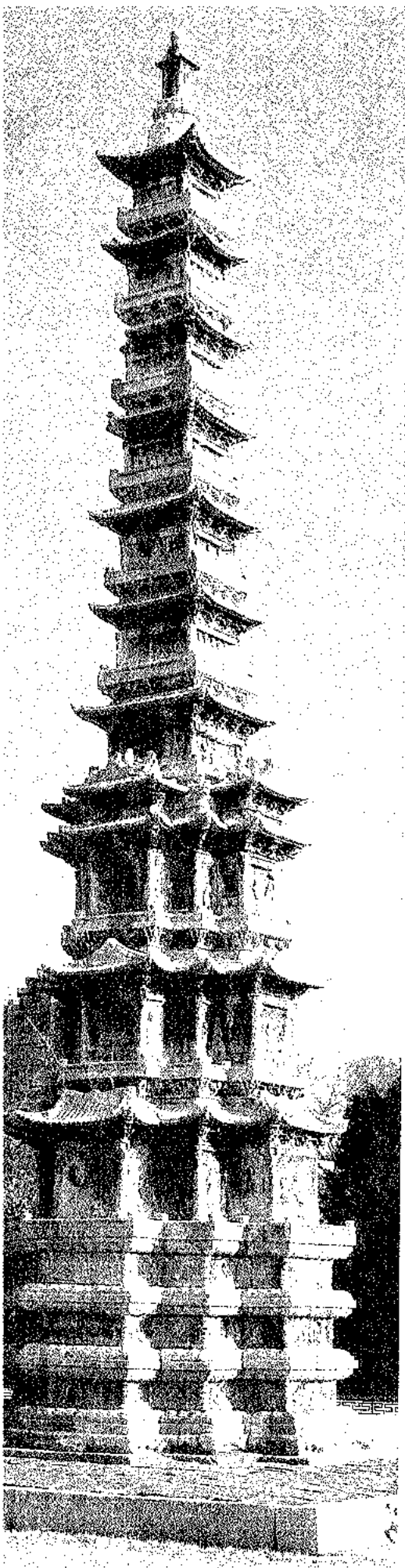
심의의결은 아래와같이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심의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이 경우 기본설계심의회시 실시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받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후 중앙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설계심의회와 실시설계심의회를 구분하여 심의하고 있는 바, 이는 기본설계단계에서 배치와 평면계획등 기본적인 항목을,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구분 심의하고 있는 것이다.



高麗時代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Korea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6. 고려시대의 塔婆 및 浮屠

1. 탑파

고려시대의 탑파는 재료에 따라 목탑과 석탑 그리고 塼塔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형식에 따라 백제탑의 계승형과 신라탑의 계승형 그리고 새로운 전형적 형식과 특수형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1) 목탑

고려의 목탑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조선시대의 목탑도 충북 보은 벽주사 팔상전과 전남 화순 쌍봉사 대웅전이 있는데 이 중 후자는 1984년에 애석하게도 신도들의 부주의로 불이 나 없어진 것을 그 후 다시 복원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고려시대의 목탑의 맥을 간직하고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화재 후 기단발굴 조사에서 고려시대의 상감청자가 출토되었고 쌍봉사가 고려 문종때(1068년)에 창건된 절이라는 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 고려의 목탑형식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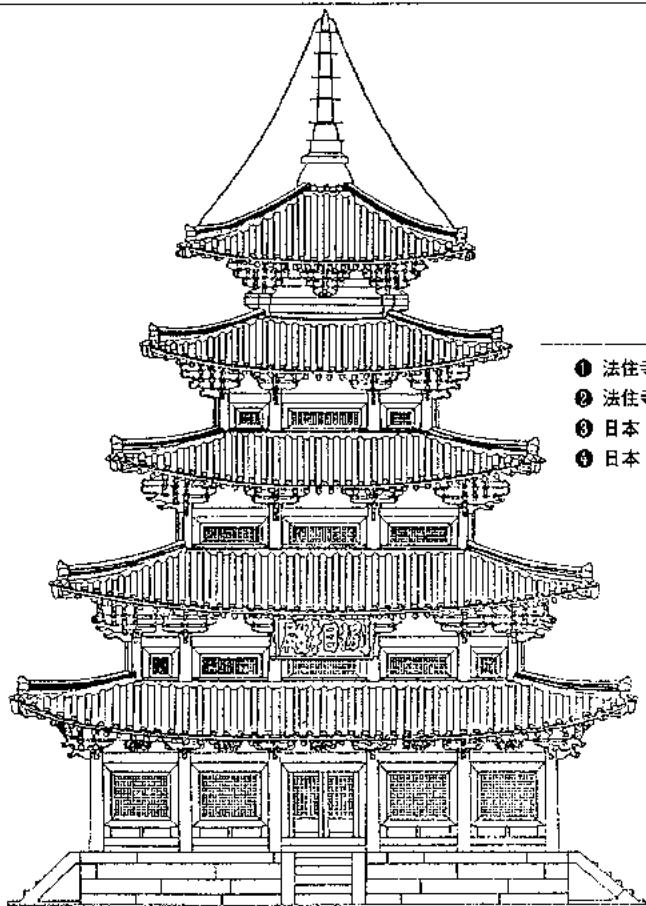
믿어진다. 다만 여기서는 사방 單間의 간소한 형식을 하여 지상에 心柱(탑 중에서 세우는 기둥)가 없다. 법주사 팔상전의 경우는 정면과 측면이 각 5間的 5층으로 세워진 목탑인데 여기에는 건물 중심에 心柱와 四天柱(심주 주위에 높이 세워지는 4개의 기둥)가 있어 형식은 古代목탑의 특징을 갖추고 있지만 여기서는 심주를 5층 상륜부까지 올리고 사천주는 4층까지 올려 세웠으며, 內陣柱는 3층까지 올려 세운 형식으로 즉 변주에서 내진쪽으로 들어가며 차츰 기둥이 상층까지 연속되는 높은 기둥을 사용한다. 그러나 쌍봉사에서는 각 층의 기둥이 별도로 세워져 각 층의 구조를 따로 꾸민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單間구조라 필연적이라 생각되지만 사실은 일본의 法隆寺 5층탑이나 法起寺 3층탑 등 古式의 탑은 3칸 사방인 평면인데도 이와 같이 층별 별도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古代 木塔형식도 일본과 같은 各層구조 형식인지 아니면 연속구조 형식이었는지 앞으로 연구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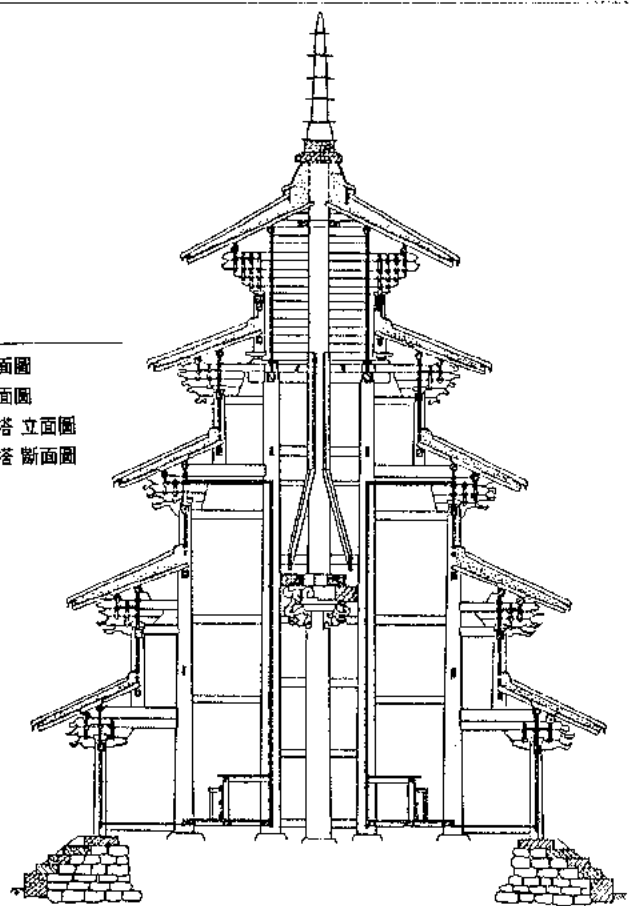
고려시대 목탑에 관한 기록으로 <高麗史>, <高麗圖經>, <高麗史節要>, <高麗古都微>, <東國李相國集>, <朝鮮佛教通史> 등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데 이 중 木塔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탑명은 태조가 신라통일을 이룩한 황룡사 9층탑을 본떠서 세운 개경(개성)의 7층탑과 서경(평양) 重興寺의 9층목탑이 있고 開國寺탑, 금강사탑, 演福寺(普濟寺)탑¹⁾, 慧日重光寺탑, 興天寺탑, 남원의 萬福寺탑 등의 기록이 있다.

한편 목탑의 遺址로는 남원에 있는 만복사지의 목탑터와 개성의 興王寺址 목탑터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佛日寺에 있는 4방 3칸의 건물터 등이다. 이 중 우리가 볼 수 있는 목탑지는 만복사지의 것 뿐이고 그 외에는 북한에 있는 것이다.

만복사지는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절터로서 1979년부터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절터의 대부분이 밝혀진 것이다.



① 法住寺 捌相殿 立面圖
② 法住寺 捌相殿 断面圖
③ 日本 法起寺 三重塔 立面圖
④ 日本 法起寺 三重塔 断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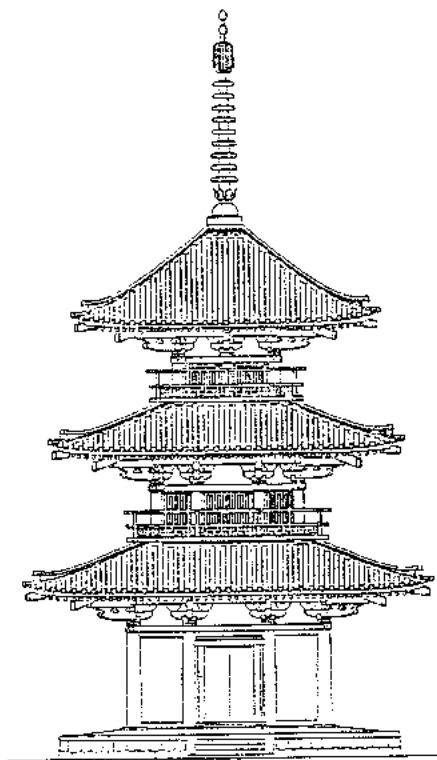


기록"에도 잘 설명되어 있듯이 서쪽에 2층 금당이 있었고 동쪽에는 5층목탑이 있어 소위 西殿東塔의 배치를 보이고 있으나 후에 가람이 확장·개변되었음을 현존하는 석탑과 많은 건물지로 알 수가 있다.

목탑지는 정면과 측면이 다같이 5칸으로 되어 주칸의 거리는 약 1.8m이다.

목탑지에는 심초석이 없고 초석은 원형 주좌를 갖는 원형초석으로 익산의 미륵사지 회랑초석과 거의 같은 모양을 한 초석인데 다만 주좌의 운두가 훨씬 높은 것이 다른 점이다. 초석의 배열은 바둑판 위에 바둑을 뽕뽕히 늘어놓은 식의 짝 짝인 배열이다. 기단은 한 변이 약 13m이고 기단의 꾸밈은 지대석과 면석 그리고 감석을 탕주와 같이 짜아 만든 기단으로 그 높이가 약 1m 정도이다. 목탑지의 남쪽과 북쪽변의 중앙에는 계단이 놓였는데 그 내폭이 약 88cm이며 다릴판 높이가 17cm, 그 넓이는 24cm이다. 특이한것은 계단邊石이 4분의1 圓弧形을 이루고 있는데 그 뒷면에는 불룩하게 물당을 한 선을 보인다. 이렇게 원호형을 이룬 계단면석은 흔히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에 사용했는데 청평사의 고려시대의 기단과 회암사지의 기단등지에서 실례를 볼 수 있다. 이 목탑지 앞에는 석등지가 놓였는데 8葉覆蓮의 基部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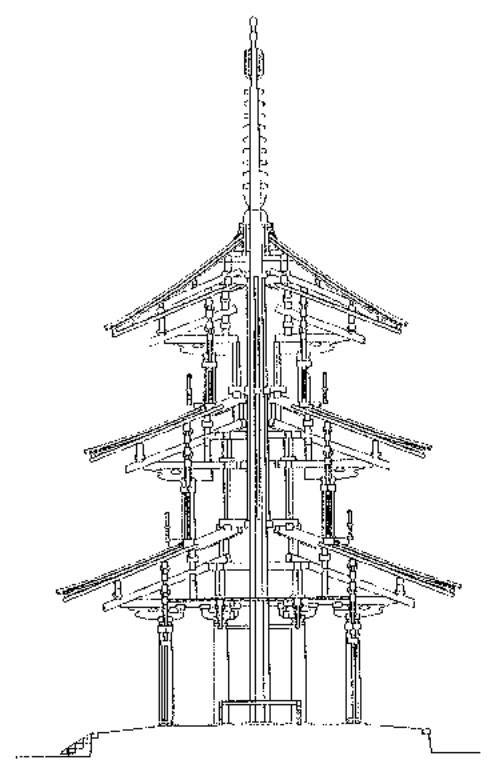
홍왕사는 고려 문종때(1067년)에 창건된 절인데 일정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가람은 횡으로 3區를 이룬 가람인데 중앙구에



③

2탑식가람을 이루어 거대한 금당지 앞 양편에 2개의 8각탑지가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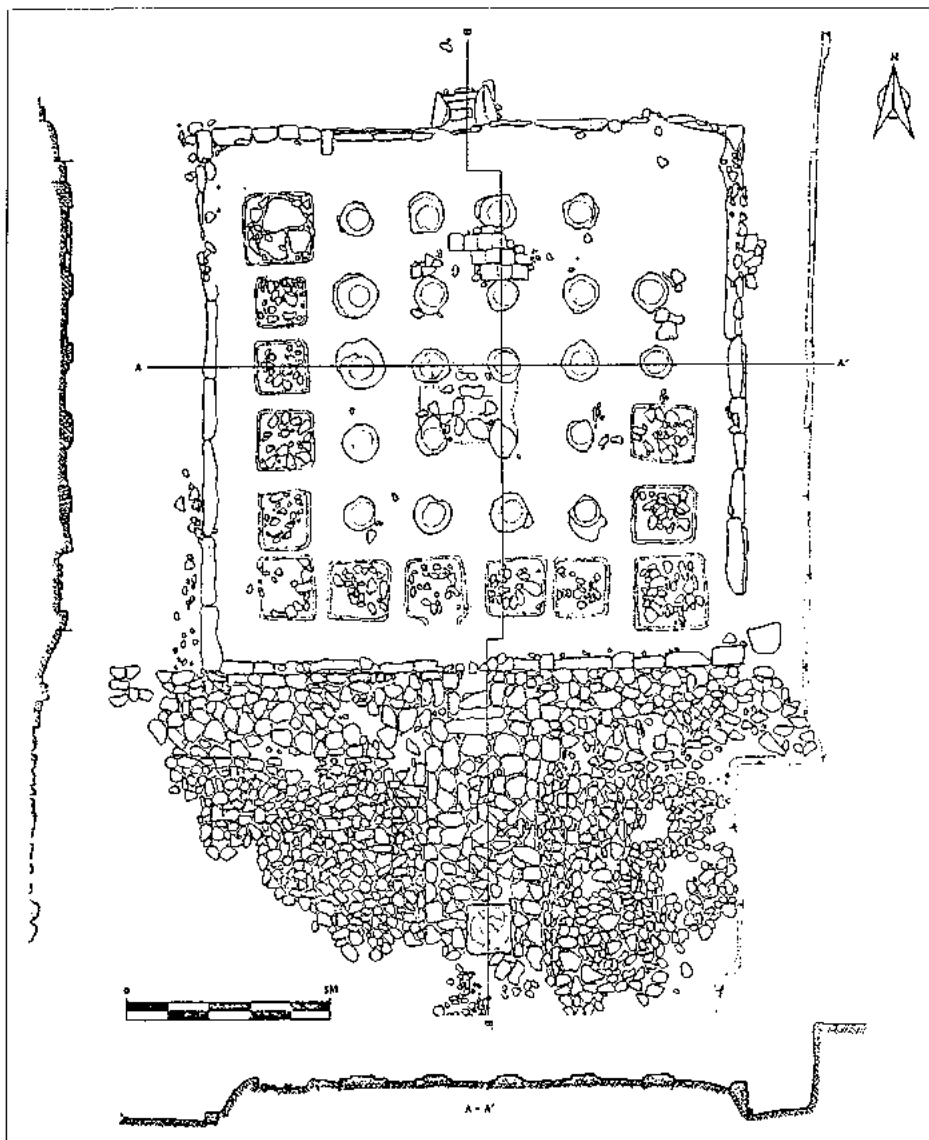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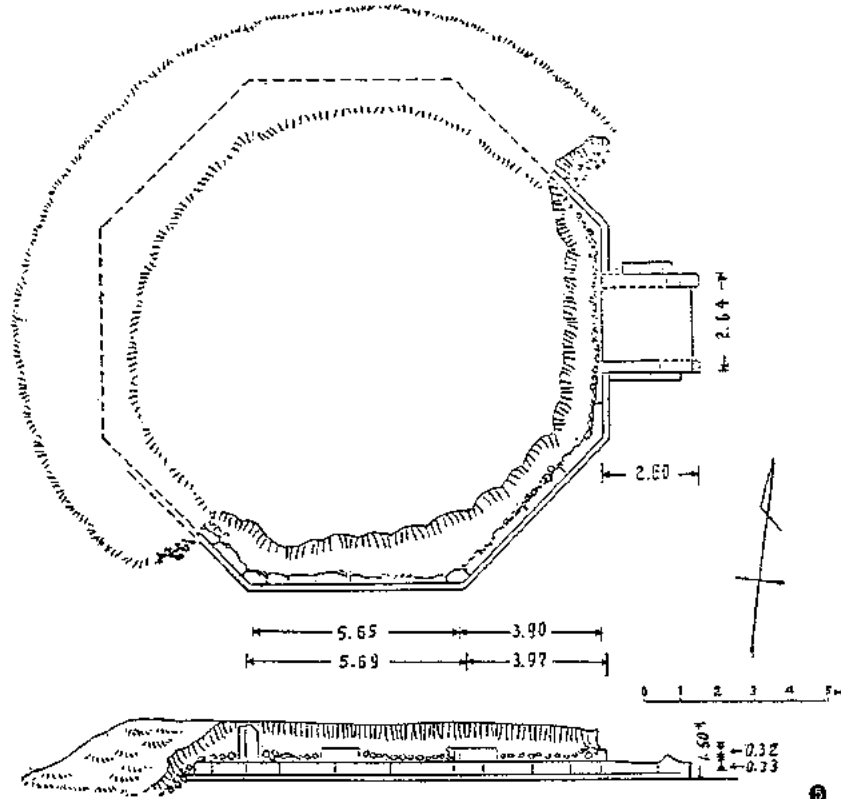
이 목탑지에는 정8각형의 석조 단을 이룬 기단을 짜았는데 시대석과 그 위에 3단으로 쌓아 이룬 기단이다. 이 기단의 각면에는 뿔기둥이 세워져 그 높이는 약 96cm여서



④

기단은 이보다 높았을 것이다. 8각 기단의 한 변 길이는 5.69m이고 전폭이 12.73m이며 양탑지 간의 거리는 63.5m라고 한다.³¹⁾

고려시대에는 이 외에도 황룡사의 9층탑을 증수한 기록 등으로 보아 목탑을 다룬 기술이 대단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2) 석탑

고려시대의 석탑은 사용재료로 보아 화강석을 사용한 것과 청석(점판암)으로 된 것 또 대리석으로 된 것 등이 있지만 보통 화강석으로 된 것이 주종을 이루고 그 외의 재료로 된 것은 특수형식의 석탑이 많다.

다음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는 앞서 기술한 백제계의 형식을 따른 것과 신라계의 형식을 따른 것, 그리고 전형적인 새로운 형식과 특수한 형식의 것 등이다. 백제나 신라의 계승형식은 시대적으로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백제古地에는 백제계승식이, 또 신라古地 또는 기타지역에는 신라의 계승식이 많이 분포되어 마치 지역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다.

백제 계승형식은 악산 마루사지 서탑이나 정암사지 5층석탑 등 백제석탑의 특징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약간씩 변형을 이룬 형식이다. 이들의 대체적인 특징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옥개석이 비교적 얇고 넓으며 양쪽을 두고 옥개받침단이 3단이거나 1~2단을 하였는데 옥개받침은 경우에 따라 옥개와는 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단은 형식이 간소화된 빈약한 기단을 갖는다.

둘째, 목구조에 가까운 형식으로 컷기등과 탑신이 별적으로 되었거나 기등에 돌림을 두어 밑이 넓고 위가 좁게 하여 목구조와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셋째, 이들은 백제의 古地인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실례로서는 전라도 지방의 것으로서 익산 왕궁리 5층석탑, 정읍 은선리 3층석탑(이 경우는 옥개의 양쪽이 거의 없음), 김제 귀신사 3층석탑 등이 있고 충청도 지방에 무량사 5층석탑과 장하리 3층석탑, 서천 비인 5층석탑 등을 들 수가 있다.

다음 신라계승 형식의 대체적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대인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을 이어받은 형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옥개석이 약간 두꺼워지고 낙수면이 가파르게 변하며 옥개 받침단은 3단 또는 4단이지만 옥개석과 별석이 아닌 같은 돌로 이루어진다.

둘째, 기단이 신라의 전형적인 상·하층 2층기단을 조립식으로 짜은 엄격한 형식에서 벗어나 기단이 간소화되어 장대석을 계단식으로 놓거나 기단면에 眼象 또는 神像

등을 각한다.

셋째, 지역적으로 신라古地인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석탑의 실례로서는 경북 예천의 개심사지 5층석탑, 경기도 광주 춘궁리 3층석탑, 경북 철곡에 원적을 두고 지금은 경북궁에 있는 정도사지 5층석탑 등을 들 수가 있다.

신라의 계승형은 이 외에도 塼塔을 이어서 새로운 模倣석탑과 전탑이 있는데 그 실례로서 강원도 정선에 정암사 수마노모전 7층석탑, 경기도 여주 신록사 다층전탑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신라의 둔중한 체감형과는 달리 고졸한 다층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 고려의 새롭게 발전시켜 전형적인 형태의 하나로 만든 형식으로는 개성에 원적을 두고 현재 경북궁에 있는 남계원사지 7층석탑과 같이 기단형식을 강대한 돌을 사용하여 간소하게 꾸미고 탑신과 옥개석을 각각 한매돌로 이루어 통일신라말의 석탑구조와 유사하게 한 것이나 두툼한 옥개석에 양곡을 두고 고졸한 형식을 이룬 새로운 형식이다. 이 형식은 서울 흥계동 5층석탑이나 남원 반복사지 5층석탑과 강원도 양양 낙산사 7층석탑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탑신 밑에 괴임돌을 넓게 밖으로 돌출시키는 형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고려석탑 형식에서만 특징적으로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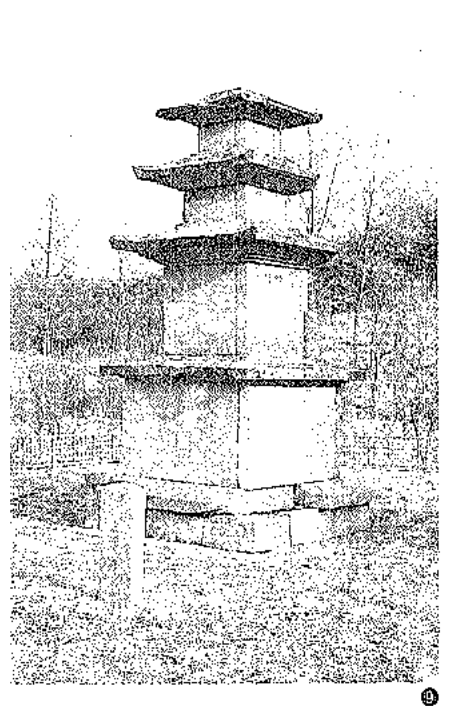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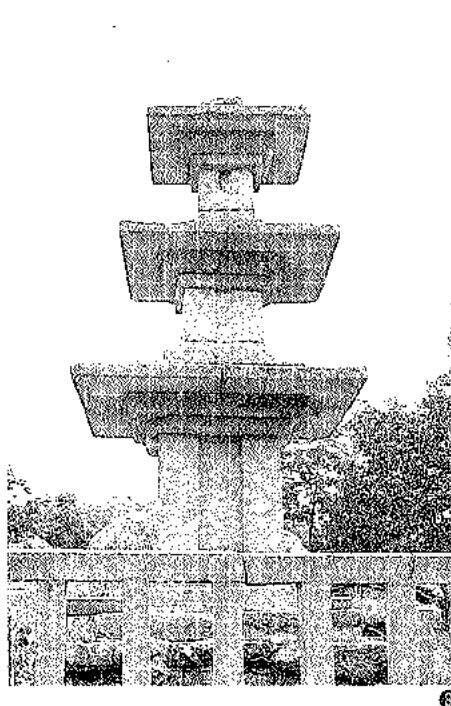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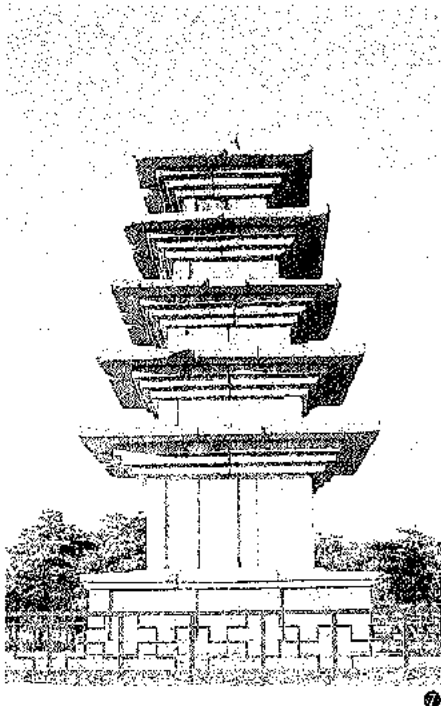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고려석탑의 전형 형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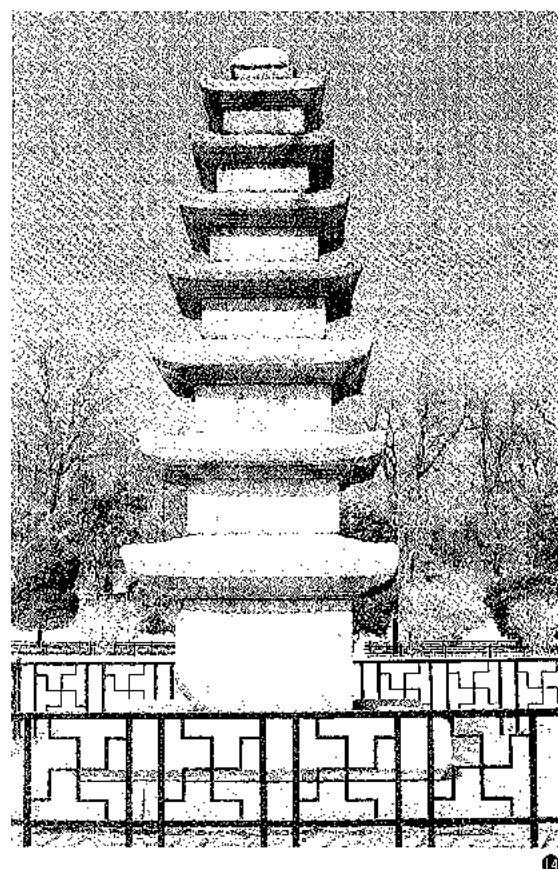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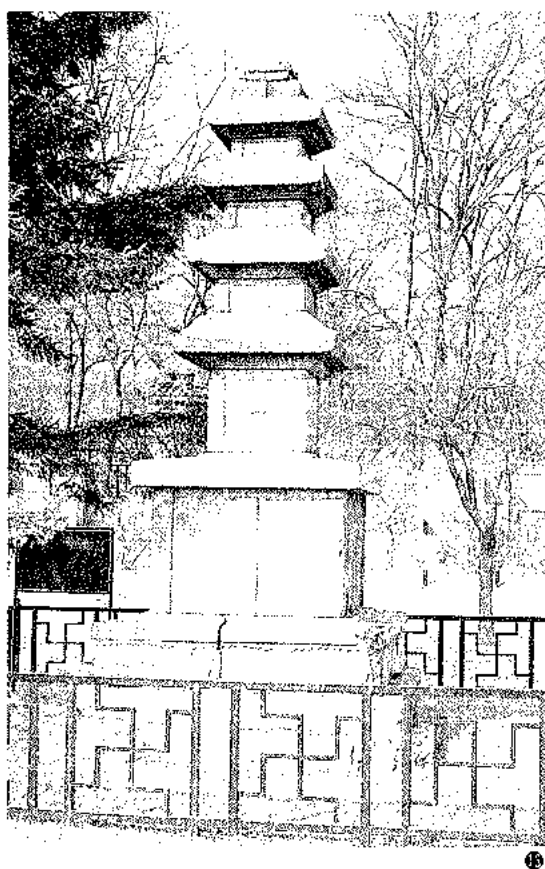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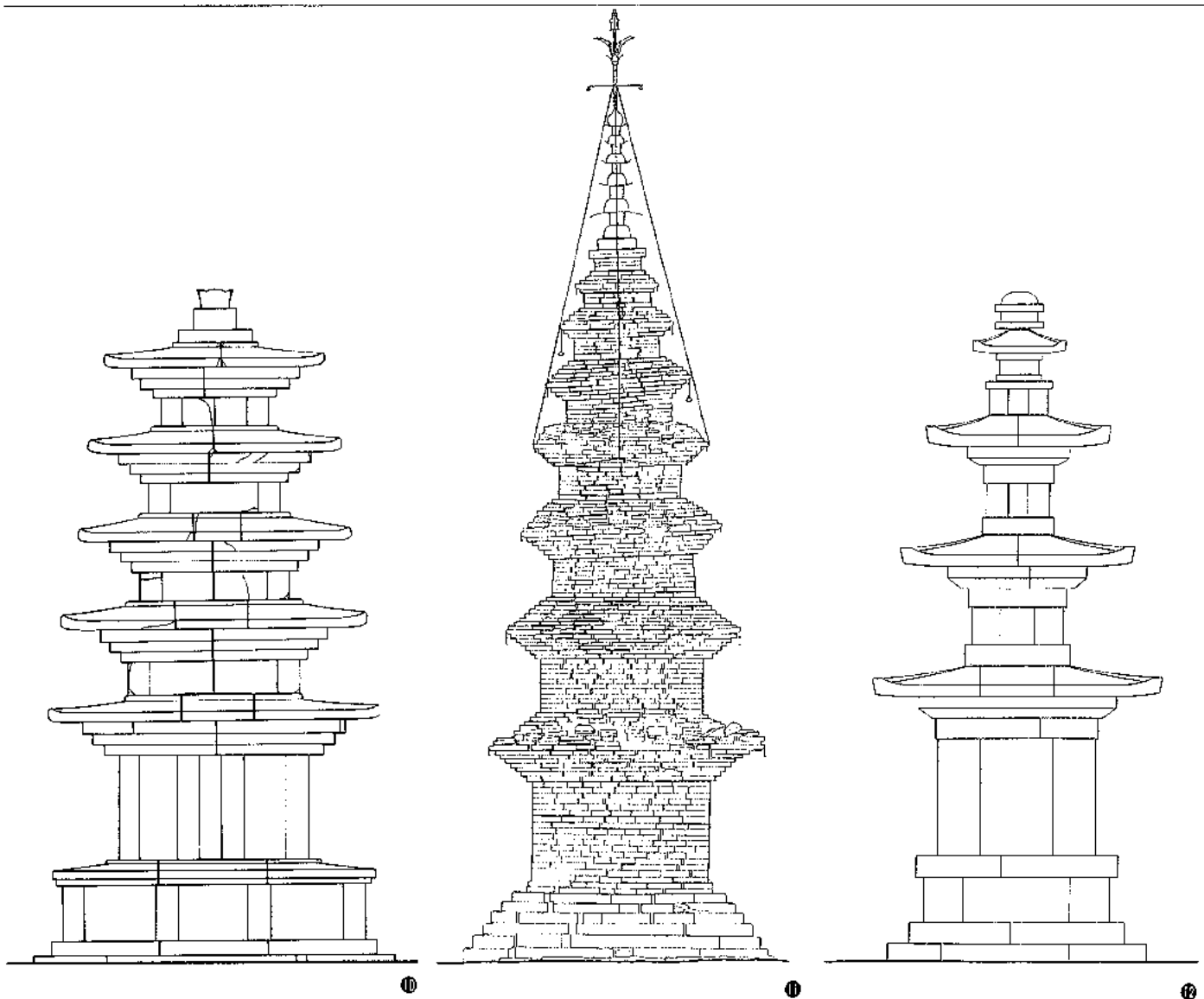
고려의 석탑은 이외에 특기할 것은 특수형의 석탑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는 형태가 6각 또는 8각으로 된 다층석탑과 탑신과 옥개석이 원형으로 된 석탑 그리고 경천사지 10층석탑과 같은 일반형석과는 전혀 다른 석탑들이 있다. 이러한 특수형태의 탑들은 사용재료도 청석이나 대리석 등 특수 재료를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들 재료는 물려서 조각을 하거나 가공을 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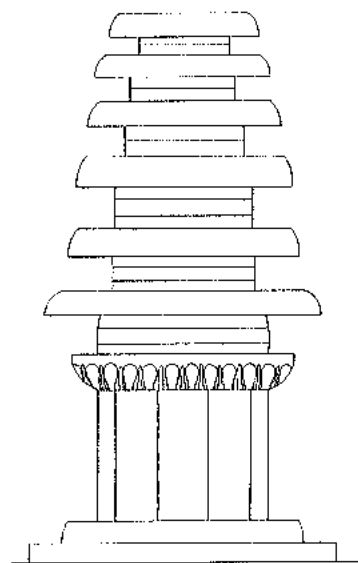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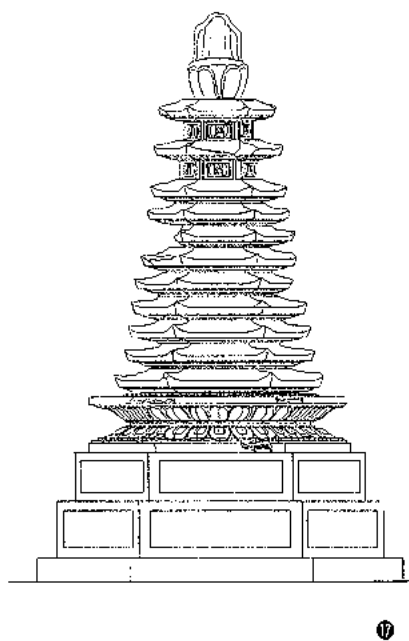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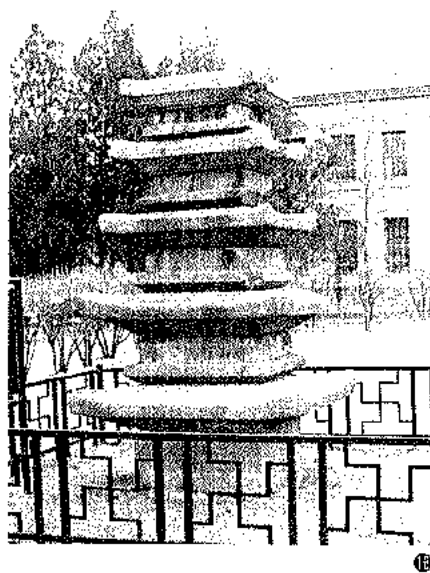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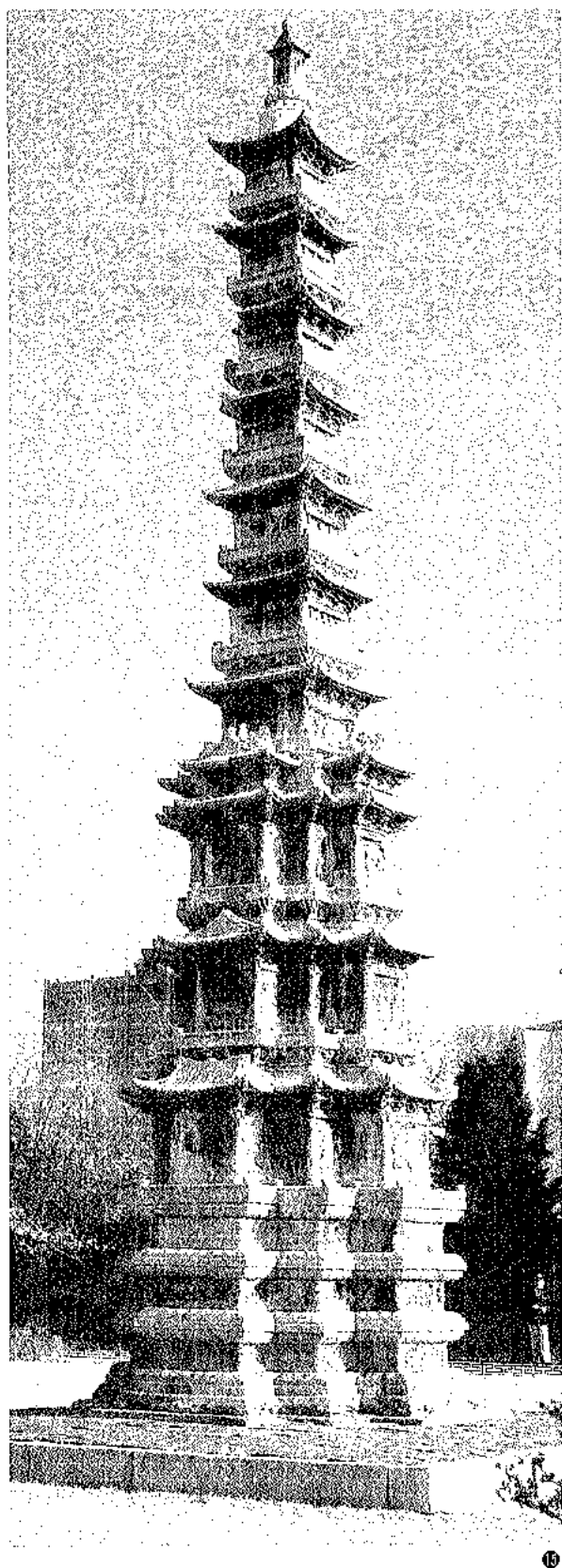
6각형의 탑으로서의 금산사 다층석탑이 있고 8각으로는 유명한 강원도 월정사 8각9층석탑, 평안도의 보현사 8각13층석탑 등이 있으며 북한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 전라남도 화순 운주사에는 천불과 천탑이 있는 곳이다. 이곳의 탑들은 원형과 4각형 등의 특수형을 보이는 또하나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 현재 경북궁 경내에 있는 경천사지 10층석탑은 중국 元대의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형식이라 하는데 사용재료는 회색의 대리석이다. 기록에는 13층탑으로 표현되고 있다. 실제 '亞'자와 '11'자의 복합적 평면을 한 지대석 위에 같은 형의 3층으로 표현된 기단을 이루고 이 위에 난간을 돌리고 역시 같은 평면의 탑신을 두었는데 이 탑신의 각 모서리에는 원형기둥과 창방, 평방 위에 출목을 둔 고려의 전형적인 다포작을 조각하여 나타내고 그 위에 팔각지붕을 섬세하게 조각하여 서까래와 기와끝을 그대로 잘 보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면은 38층까지 계속되다가 4층에서부터는 정방형의 평면을 한 탑신과 옥개부로 이루어져 10층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2층부터는 탑신의 하부에 난간을 돌리었는데 이 밑에는 난간을 받치는 포작을 꾸미어 일본의 범룡사 금당의 난간을 연상시킨다. 이들 각층의 측부에는 불상과 탑 그리고 神像 등을 아름답고 섬세하게 浮彫했는데 대리석인 탓으로 부식이 심하여 많은 손상을 입었다. 특히 어떤 부지한 일본인에 의하여 일본에 불법반출 했다가 다시 돌려지는 동안 많은 훼손이 있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석탑이 또하나 있는데 현재 종로2가 3.1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석탑이다. 이 탑은 조선 세조때(1467년)에 경천사지 10층석탑을 모방하여 세운 것이다.

- ① 興王寺 木塔址 發掘平面圖
(白性都博士 頌壽紀念論文集에서 轉載)
- ② 萬福寺 木塔址 發掘平面圖
(萬福寺址 발굴조사보고서에서 轉載)
- ③ 益山 王宮里 5層石塔
- ④ 扶餘 長蝦里 3層石塔
- ⑤ 廣州 春宮理 3層石塔







- ⑩ 盆山 王宮里 5層石塔 立面圖(文化財研究所 所藏)
- ⑪ 淨岩寺 水瑪瑙塔 立面圖(文化財研究所 所藏)
- ⑫ 庇仁 5層石塔 立面圖(文化財研究所 所藏)
- ⑬ 淨兜寺址 5層石塔
- ⑭ 開城 南溪院寺址 7層石塔
- ⑮ 敬天寺址 10層石塔
- ⑯ 서울 弘濟洞 5層石塔
- ⑰ 金山寺 六角多層石塔 立面圖(金山寺 실측조사보고서에서 轉載)
- ⑱ 雲舟寺 圓形多層石塔 立面圖(雲舟寺 고적조사보고서에서 轉載)

- ⑬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
- ⑭ 興法寺 藤居和尚塔
- ⑮ 淨土寺 弘法國師 實相塔 및 塔碑
- ⑯ 金山寺 石鐘 平面圖 및 西側面圖(金山寺 실측조사 보고서에서 轉載)
- ⑰ 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 立面圖(文化財研究所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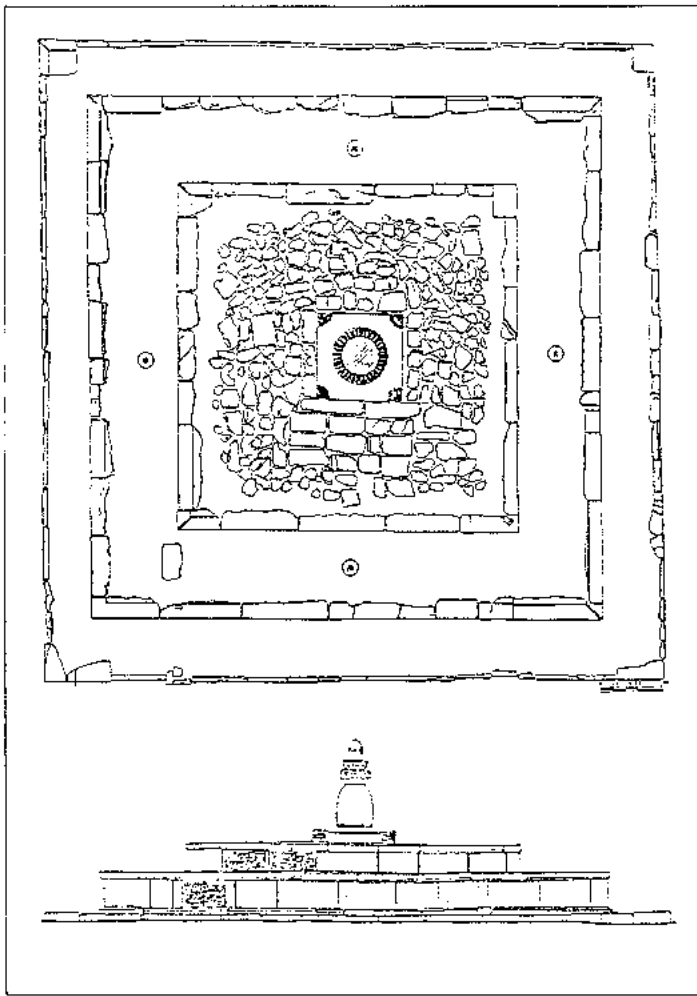
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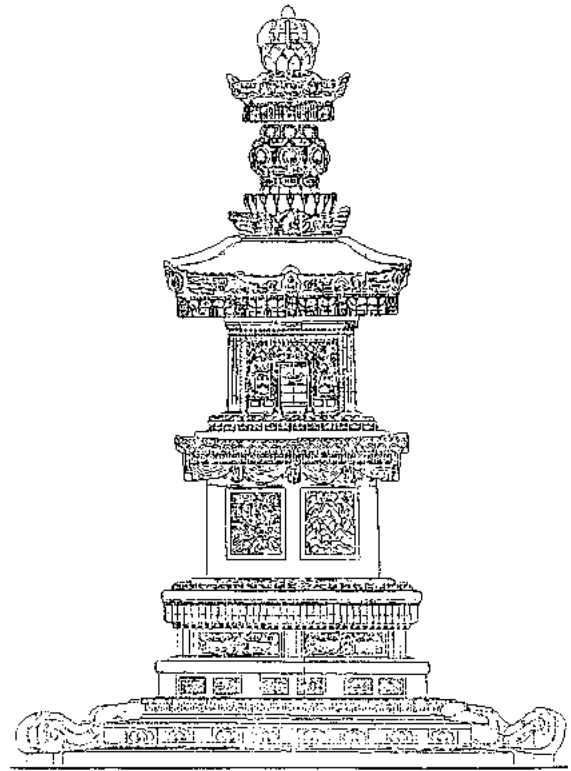
⑰



⑯



22



23

2. 浮屠

부도는 Stupa 즉 탑파의 다른 말로도 쓰여져 원래는 불타와 같이 Buddha를 번역한 것이라고도 한다.²⁾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부도라 함은 이름있는 스님의 사리를 묻은 墓로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도는 대체로 신라말 신종이 흥하고 조사들의 사리탑 건립이 유행되면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신라시대의 부도의 형태는 비교적 소박한 모아의 八角願堂形을 이루어 이것이 고려대에 들어서 더욱 유행하며 조각이 화려하고 복잡하게 되다가 차츰 석등형으로 가늘게 되기도 한다.

8각원당형 부도의 일반적 구성은 방형지대석에 8각의 하대석과 중대석 그리고 상대석 또 8각의 탑신대좌와 탑신 그리고 8각의 옥개석과 그 위에 상륜부를 둔다. 이와 같은 구성은 고려때의 8각원당형 부도도 같다. 다만 우리나라 현존 부도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흥법사 염거화상탑(844년경)에서는 상·하대석 중대석 그리고 8각탑신석에 안상과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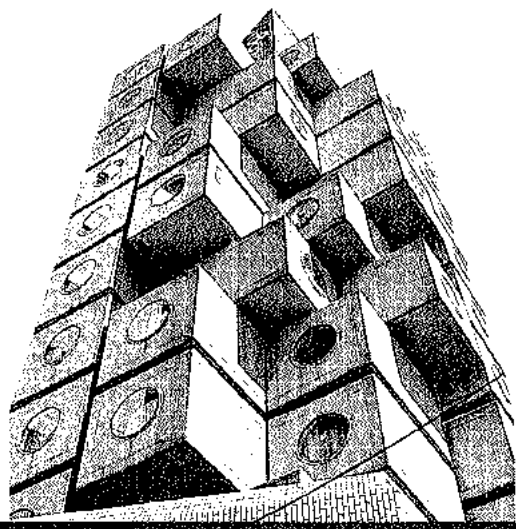
신중상, 연화 및 사자상 등이 부조되고 옥개석은 서까래와 기와꼴 등이 섬세히 조각되었지만 복잡한 느낌은 별로 없다. 이러한 특징들은 약간씩 변화는 있지만 쌍봉사 칠감선사탑이나 실상사 중각대사유료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8각원당형 부도의 실례로는 고려 초기의 것으로 상륜부까지 잘 남아 있어 아름다운 전남 구례의 연곡사 동부도와 북부도가 있고 경북대학의 부도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신라 계승의 형식은 차츰 원형으로 또는 내모형으로 변하기도 하고 대석에 구름문과 추녀 위에 크게 장식한 귀꽃또는 라는 형식을 취하여 그 실례로서 실상사의 부도와 불국사 사리탑, 보원사지 법인국사보승탑 등의 발달된 8각원당형 부도가 있는가하면 강원도 원성에 원적을 두고 현재 경북궁에 있는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과 경북궁 내에 있는 성토사흥법국사실상탑 등의 특이형이고 화려한 부도도 있다. 전자는 지대석과 기단에서부터 네모의 평면을 한 화려한 조각을 늘어뜨린 2층의 4각탑이고

상륜부에는 4각노반과 원의 양련 그리고 8각의 보개 등을 조합하였다. 후자는 4각 지대석과 8각의 하대석 그리고 복련으로 된 복련석과 중대석, 그 위에 원형의 양련과 구형의 탑신 그리고 8각의 옥개석 등이 마치 조각작품과 같은 인상을 주는 아름다운 부도이다.

끝으로 고려시대의 부도 중에는 石鐘形의 부도가 있어 이것은 조선시대까지도 많이 유행되었는데 그 실례로는 금산사 석종과 통도사 금강계단, 신록사 복제존사 석종 등이 그것이다. 위의 석종형 부도는 큰 석조기단을 마련하고 있어 엄격한 신성구역으로 구획한 것이다.

註)

- 1)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개성 演福寺가 옛 이름으로 普濟寺라 함.
- 2) 東國輿地勝覽 卷第三十九 南原都護府 佛宇條.
- 3) 黃壽永, 高麗興王寺址의 調査, 白性都博士 頌壽記念論文集, 東國大學校, 1959.
- 4) 藝術院, 韓國美術史, 1984, p. 369.
- 5) 鄭永鎬, 新羅石造浮屠研究, 新興社, 1974.



메타볼리즘과 일본현대건축

Metabolism &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일본 건축가들의 독립선언은 그들이 새로운 장르에 확신을 느끼기 시작한 1960년 토오쿄오의 세계 디자인회의였다. 그것은 일본을 세계 건축의 한 가운데로 끌어 들어려는 신중한 시도였으며, 그것은 새로운 운동을 집중시키는 데 상당히 성공했다. 그 정점에 자체를 메타볼리즘(Metabolism) 그룹이라 부르는 협회가 형성되었다.”

로빈 보이드(Robin Boyd)

1. 연재를 시작하며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가 일본을 이야기 할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몇가지를 음미할 수 있다. 그것은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국가이고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사회·경제·문화 분야등에서 상호 많은 영향을 주고 받는 밀접한 관계이면서도 과거 역사의 그림자로 인해 동반자식 관계로 인식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본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몇년전에 필자는 T.V에서 일본에 관한 특집을 시청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프로를 시청한 느낌 역시 그들의 한국 옆에 있음에 비해 너무나 미미한 국내 실정을 목격했을 뿐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적대적 어귀를 떠올릴 것도 없이, 우리는 현대계에서 숙명적으로 일본을 무시할 수 없으며,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냉철한 시각으로 일본과 일본현대건축의 실상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일본에 대한 지식이 미천하나 몇 해전부터 일본을 계속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방문하여 관심을 갖고려고 한다.

그러나 일본현대건축에 대한 연재의 접근은 너무 고답적이고 학술적인 측면 보다는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필자가 순회했던 일본현대건축의 상황을 주제별로 정리, 개재할 예정이며 이 연재가 독자들에게 일본과 일본현대건축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 일본과 일본현대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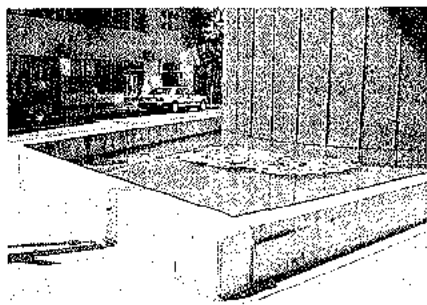
일본 국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가 나온 곳”이란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일본은 과거 대영제국이 한때 해가 지지않는 나라로 불리울 만큼 번영했던 국가였던 것처럼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면적이 한반도 면적의 약 1.7배인 37.8만km².

인구가 남북한 인구의 2배인 1억2천2백7십만인, 면적이나 인구상으로는 소국인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 2만3천3백93달러(88년 12월 현재)로 우리나라의 6배인 경제대국이다.

또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지진다발국가인, 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도 목조나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등 일체적 구조라야 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안도 타다오(安藤 忠雄)등의 건축에서 보여지는 노출 콘크리트에 의한 건축물들이 일본에서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5월말 우기후 고온다습하고 강우량이 많은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목욕문화가 발달해 있고, 이 문화가 주거건축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1968년 메이지(明治)를 중심으로 선정부가 수립되고 신헌법인 메이지 유신(明治維新)과 1853년 미국에 의한 강제적 개항에 의해, 쇄국정책을 펴던 우리나라와는 달리 서구문화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근대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결정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다른 위치에 서게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건축쪽으로 눈을 돌려 건축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건축으로의 가점을 무라마쓰(村松 貞次郎)등은 1950년으로, 스즈키 히로유키(金鈴木 傳之)는 1955년으로 보고 있으며 순수 역사적 측면에서 후지와라 아키라(藤原



2

- ① 시즈오카 신문·방송 동경지사 전경
- ② 원형 코어와 연못. 연못에는 연꽃이 떠있다.
- ③ 알루미늄 캐스트로 된 원형 코어와 코어에 캔디레버로 매달린 사무실들

彰)는 1945년의 패전으로 보고 있으나, 서구인인 로빈 보이즈나 보톤드 보그나(Botond Bogнар)는 메타볼리즘의 생성기기가 된 1960년을 그 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메타볼리즘이라는 일본의 건축움직임이 일본 국내보다는 서구에서 일본현대건축을 강하게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스즈끼 히로유키의 분류를 통해 일본현대건축을 시기적으로 구분해 보면, 1) 황금전설기 : (1955~64) : 1960년의 메타볼리즘의 생성과 1964년의 도쿄오 올림픽이 일본현대건축의 기폭제가 되었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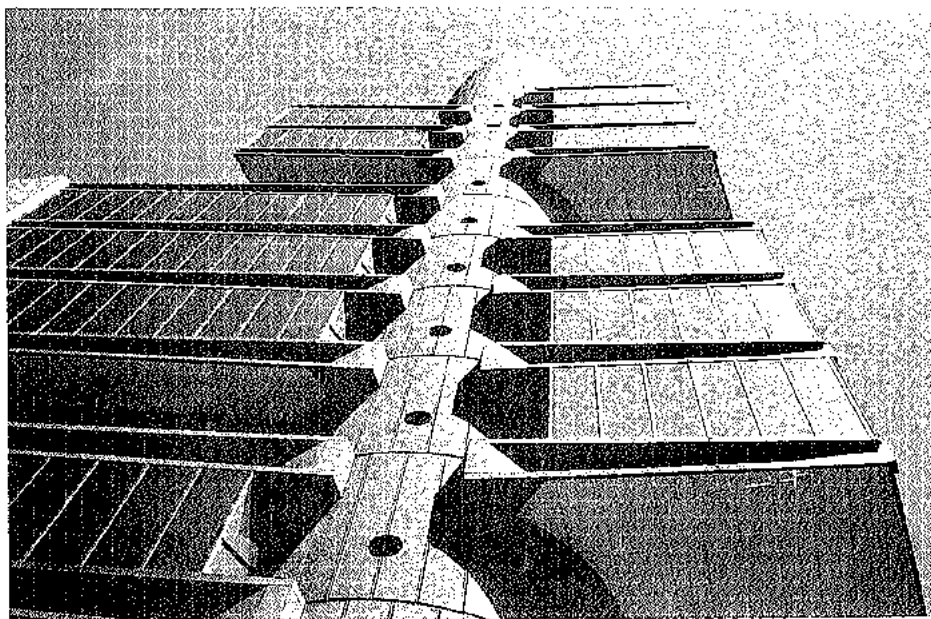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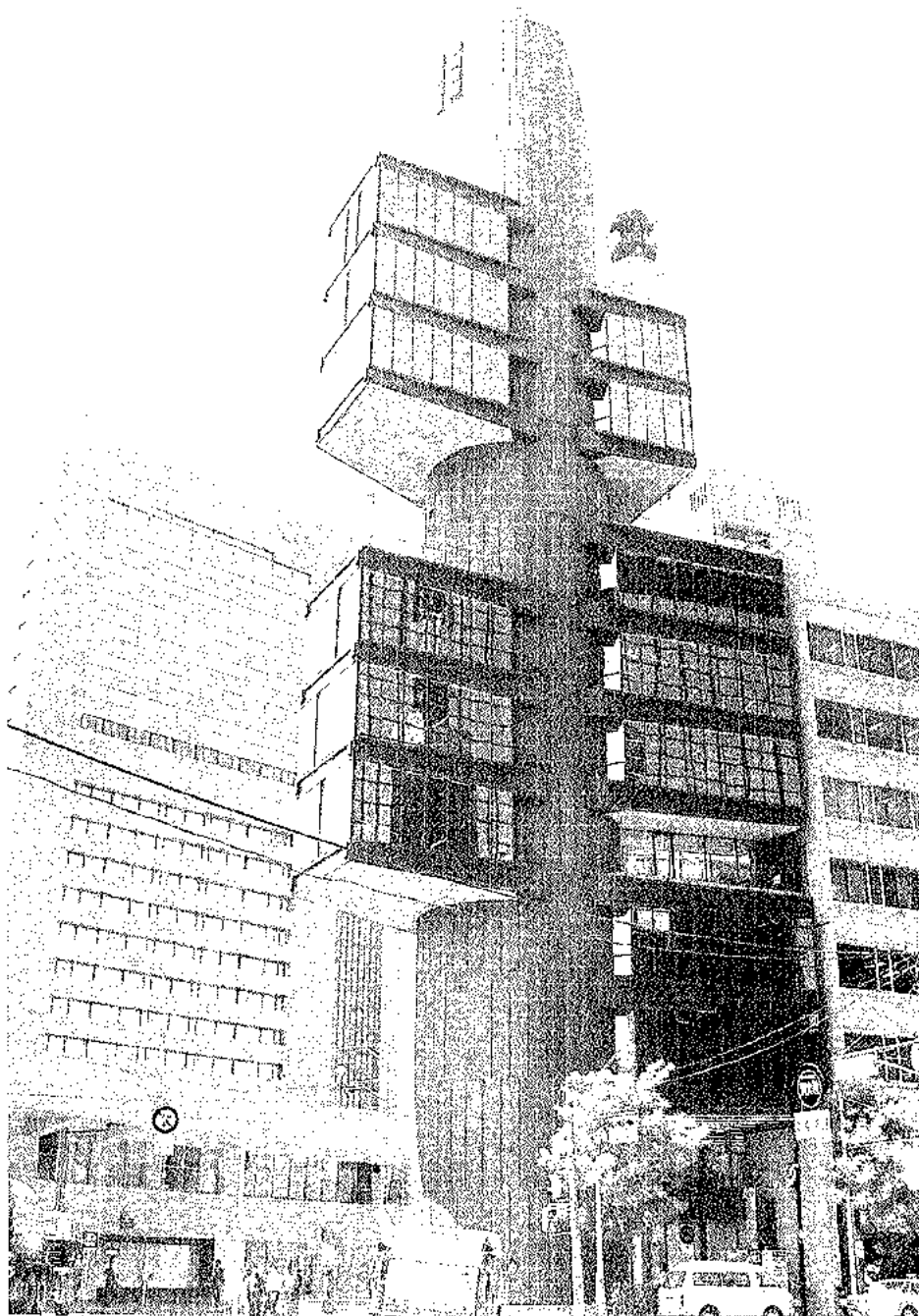
2) 모탈의 시대(1965~73) : 1970년 오오사카 만국박람회에 의한 메타볼리즘 이론의 적용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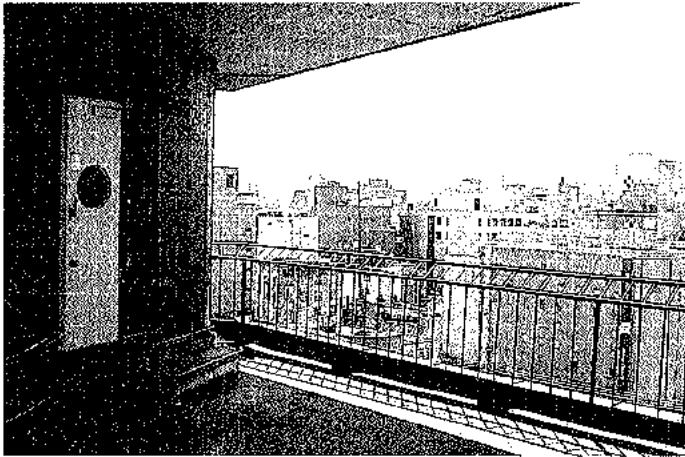
3) 건축의 성숙기술화(1974~84) : 포스트 모던, 하이 테크, 지역주의 등 다양한 입장에서 의 활성화 시기로 거론하고 있다. 이 시대적 구분에서 일본은 일본내의 국제적 행사였던 60년의 세계디자인회의, 64년의 도쿄오 올림픽, 70년의 오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건축적인 도약의 계기로 활성화시켰다는 점이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일본현대건축의 전환기를 마련한 메타볼리즘의 배경과 이론 및 대표적 건축가와 대표작은 어떤 것인가?

3. 메타볼리즘의 이론과 대표적 건축물

1960년 도쿄오에서 개최된 세계디자인회의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통일된 주제를 제기하기 위해 “나의 작품, 나의 이미지”라는 과제를 참가자에게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때 제시된 것이가와조에 노보루(川添 登), 구로가와 및 산업디자인





4

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하던 중 가장 강력하게 대두한 것이 「해상도시」와 「탑상도시」를 통해 주장한 기꾸다께(菊竹 清訓)의 「교환의 이론」이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일본과 직접적인 관련을 지을 수 있는 동양적 윤회사상, 그리고 60년 초 현대건축이론과 부합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이 이론을 메타볼리즘(Metabolism : 신진대사)으로 명명하게 된다.

이 메타볼리즘을 전개시키는 주요 구성원은 오늘날 현대 일본건축계를 이끌어 가는 가와조에, 기꾸다께, 구로가와 기쇼오(黒川 紀章), 마키 후미히코(槇 文彦), 오오다카 마사토(大高 正人)로 구성되었다. 이소자키 아라타(磯崎 新)는 초기에 이들에게 동조하였으나 정식 구성원은 아니었고, 이 그룹을 배후에서 후원한 것은 단게 겐조(丹下 健三)이었다.

메타볼리즘의 이론은 초기단계에는 독창적이기 보다는 60년 초 요나 후리드만(Yona Friedman)의 「움직이는 건축」, 알도 반 아이크(Aldo van Eyck)의 「성장하는 건축」, 루이스 칸(Louis I. Kahn)의 「주공간과 보조공간」, 아키그램(Archigram)의 「플러그 인 시티(Plug in City)」의 개념을 차용하는데 머물렀으나 박람회건축등 현실적 프로젝트에 적용시키면서 독창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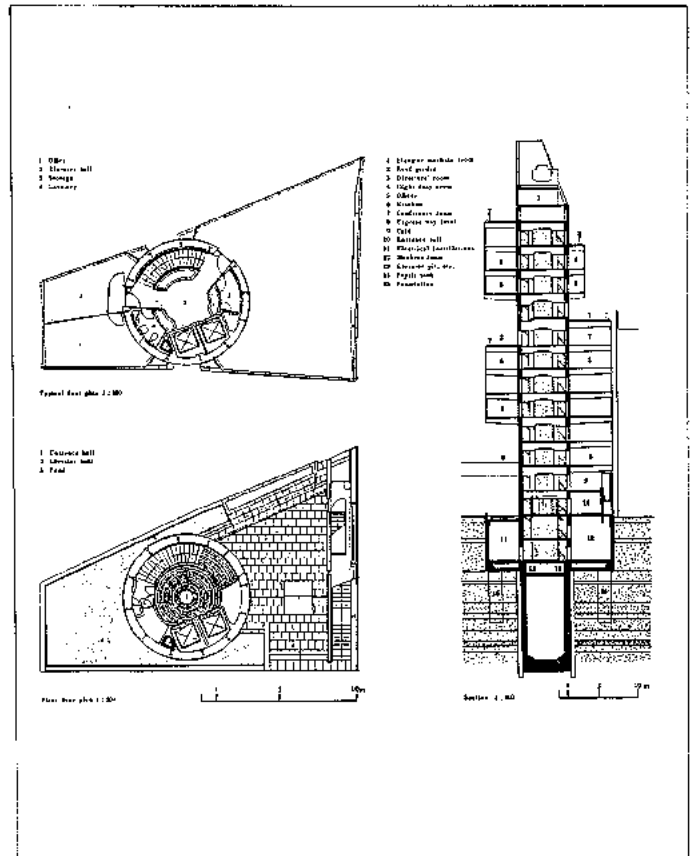
도시나 건축은 군화(群化)와 성장의 프로세스이고 그 프로세스 내부에 결합, 효율, 자극의 반응에 의해 전개된다는 가정으로 출발한 메타볼리즘은 현대사회의

혼란과 복합적 양상에서의 탈피를 위해 도시와 건축에 질서를 부여한 시스템의 고안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가장 완벽한 신진대사시스템을 지닌 것이 생명체라는데 착안하여 생명체의 신진대사시스템을 도시와 건축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따라서 디자인의 착상단계에 있어 조작을 자극하는 모멘트가 되는 개념으로

- 군화(엔트로피, 단위, 확률, 다양성)
- 결합(콘넥터, 중합, 공존, 매개, 교환, 증폭, 절단의 개념)
- 성장(증식, 교환, 분열, 파괴의 개념)
- 효율(속도, 밀도의 개념)
- 자극(촉매의 개념)
- 유동(정보유통의 개념)

을 이용하여 원형(原型), 전형(典型), 유형(類型)의 단계로 발전시키는 방법론을 채용하였으며, 이것의 구체적 사례로는 도시의 시스템을 디자인 할 경우, 인간의 척추가 신경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라는 점에 착안, 척추의 선형과 마디구조를 유추한 도시시스템을 디자인한다든지 고층주거를 디자인할 경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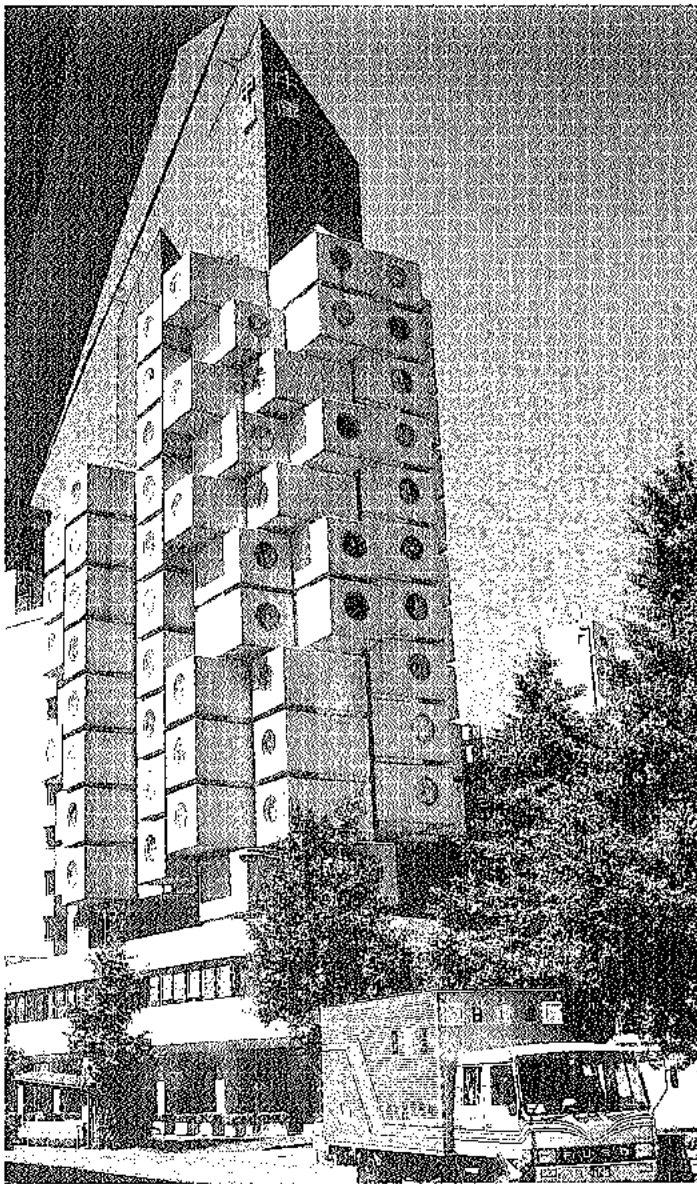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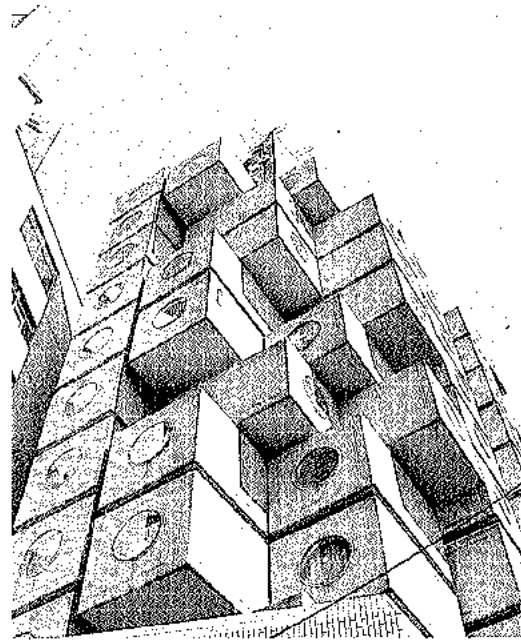
옥수수를 인용, 옥수수의 알갱이는 주호, 줄기는 전기, 물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코어로 가정하여 디자인하는 방법이며 이렇게 디자인된 도시계획은 단계의 「토오쿄오 계획 - 1960」이고 건축물은 구로가와 실재의 나가진(中銀)캐슬 타워빌딩(1972)이다.

이외에도 메타볼리즘 이론은 전통이론의 해석에도 열중하였다.

메타볼리즘의 대표적 건축가는 후원자인 단계를 비롯한 초기의 5명의 주요 구성원이요, 대표적 건축물로는 단계의 야마나시(山梨)문화회관(1961), 시즈오카(静岡)신문·방송 동경지사(1966~67), 오오사카만국박람회 마스터플랜(1966~70), 구로가와와 전술한 건축물, 오오사카 소니 타워 빌딩(1976), 국립민족학박물관(1977), 기꾸다께의 스카이 하우스(1957~58), 오키나와(沖縄)해양박물관의 아쿠아폴리스(1975)와 마키의 다이칸산(代官山) 집합주거(1969~79)등을



- ④ 옥상정원에서 바라본 토오쿄오. 이 건물 바로 옆에 신칸센이 지나고 있다.
- ⑤ 기준층평면도 (左上), 1층평면도 (左下), 단면도
- ⑥ 나가긴 캡슐 타워 전경. 검은색의 타워형 코어와 캡슐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 ⑦ 불규칙하게 적층된 인상을 주는 캡슐은 아키그램의 플러그 인 시스템에 의해 자극받은 것이다.
- ⑧ 저층부와 캡슐들과의 관계. 저층부와 캡슐의 하이테크 이미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거론할 수 있다.

필자는 이 건축물중 단계의 시즈오카 신문·방송 동경지사와 구로가와와 나가긴 캡슐 타워빌딩과 소니 타워, 기쿠다계의 토토(ToTo)파빌리온을 방문하였으나 기쿠다계의 건축물은 다른 건축물에 비해 메타볼리즘의 영향이 적어 생략하였다.

4. 시즈오카 신문·방송 동경지사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메타볼리즘을 대표하는 건축가와 그들의 건축물들이 토오쿄오의 제일 변화가 긴지(銀座)에 집중해 있다.

토오쿄오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단계의 시즈오카 신문·방송 동경지사(1966~67), 구로가와와 나가긴 캡슐 타워, 기쿠다계의 토토 파빌리온이 현대 일본건축계에서 이들의 위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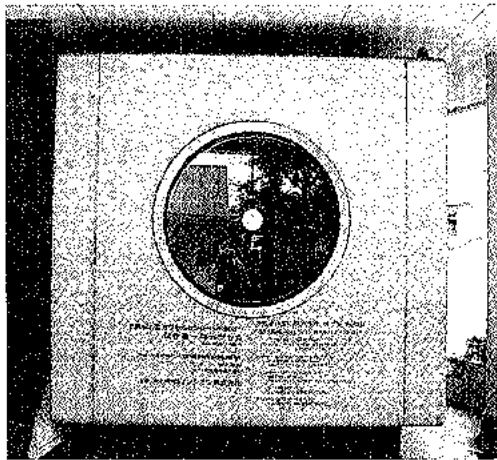
이 지역은 전술한 메타볼리즘 건축가들의 작품 외에도 오시노미 구니히데(押野 邦

邦英)설계의 야에스(八重州)복센터(1978), 이소자키의 후쿠오카(福岡)상호은행 동경지점(1971), "건축의 외부공간"을 저술한 아시하라 요시노부(芦原 義信)설계의 소니 빌딩(1966)등도 위치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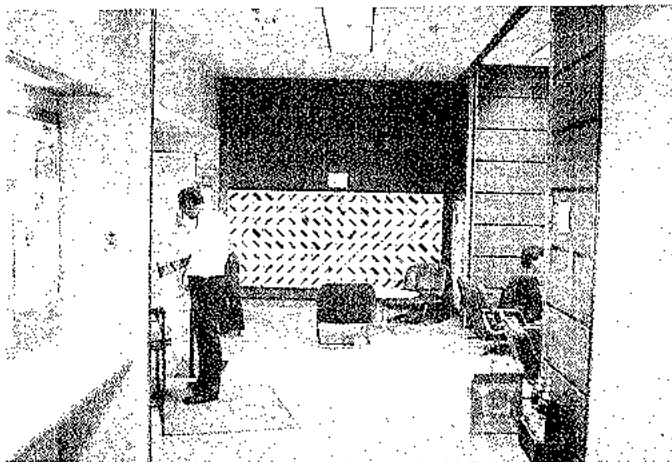
메타볼리즘의 후원자였던 단계는 토오쿄오계획 - 1960등에서 이 이론의 골격을 시험한 바 있다. 그가 설계한 시즈오카 신문·방송 동경지사는 긴자의 협소한 3각형 부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바로 옆에 신칸센(新幹線)과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이런 입지적 조건과 도시적 스케일의 건축물이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이 건축물은 수직형 구조로 디자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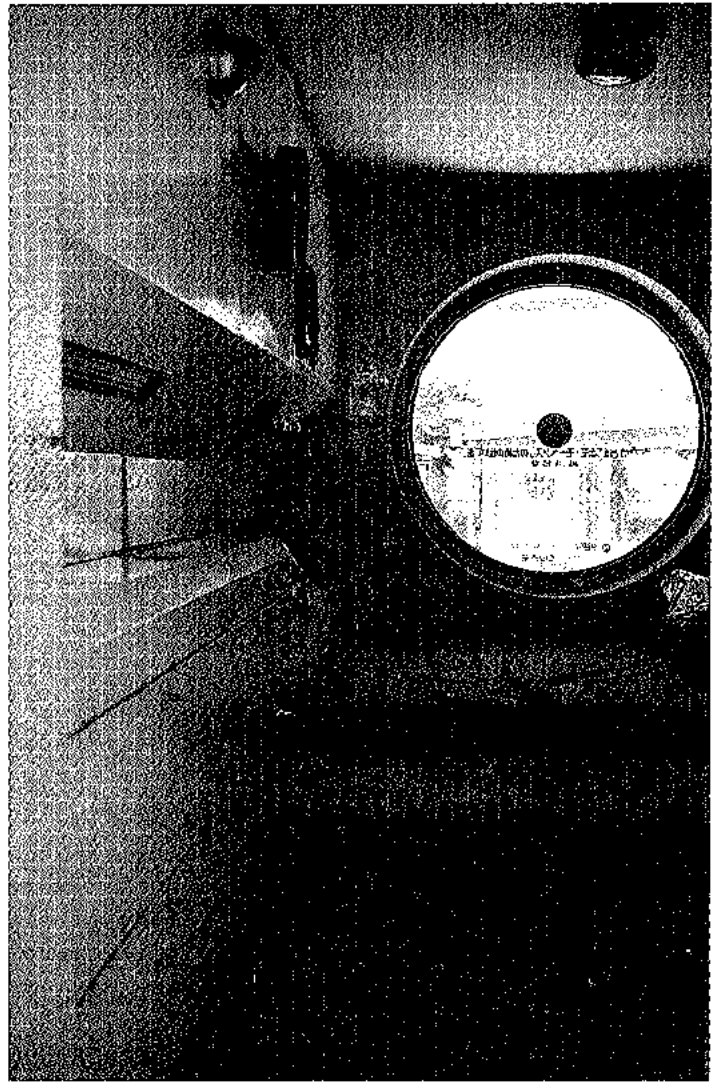
도시적 스케일에서의 랜드마크적 특성을 표현해야하는 디자인적 요구는 원형 코어로 구성하여 삼각지에서의 구심적 성격을 강조하고 신칸센이나 고가도로에서 보았을 때, 탑형의 강렬한 이미지를 발신하는 것을 필요로 한 것이다.



⑧



⑨



⑩

기본개념은 원형 코어가 식물의 줄기로, 이 코어에 매달린 사무실들이 앞으로 가정되었다. 즉 식물의 줄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분의 수직통로라는 점을 이용, 이 건축물의 원형 수직코어를 계단실, 엘리베이터, 화장실 및 제설비를 내장한 에너지의 수직동선결 구조체로 디자인하였다. 이런 개념은 단계가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며 이미 야마나시 문화회관에서 시행했던 수법이며 이후 그가 설계한 건축물에서 자주 표현되고 있다. 고가도로가 이 건축물을 주위로 선회하는 저층부 입구로 접근하면, 기단부에는 원형 코어를 둘러싼 조그만 연못을 발견하게 된다. 이 연못은 이 건축물 유일의 경관적 요소이며 이 원형 코어의 형태를 명확히 하는 연출장치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연못에

떠있던 연꽃은 삭막한 도시 경관 속에 아이러니컬하게까지 느껴졌다.

이 건축물 1층 홀에 들어서면 세계에서 지가가 높기로 유명한 이 도시의 상황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각 층의 코어 역시 비좁기는 마찬가지였으며, 구조는 아오끼(青末 繁) 설계로 캔디레버로 지지된 사무실은 마치 아키텍트의 플러그 인 시스템을 연상시키고 있었다.

코어 외벽이 짙은 갈색의 알루미늄 캐스트로 마감된 이 건축물은 코어에 캔디레버로 지지된 사무공간의 옥상부분을 휴게공간이나 옥상정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올라가 보니 풀 한포기 없이 상당히 삭막하게 처리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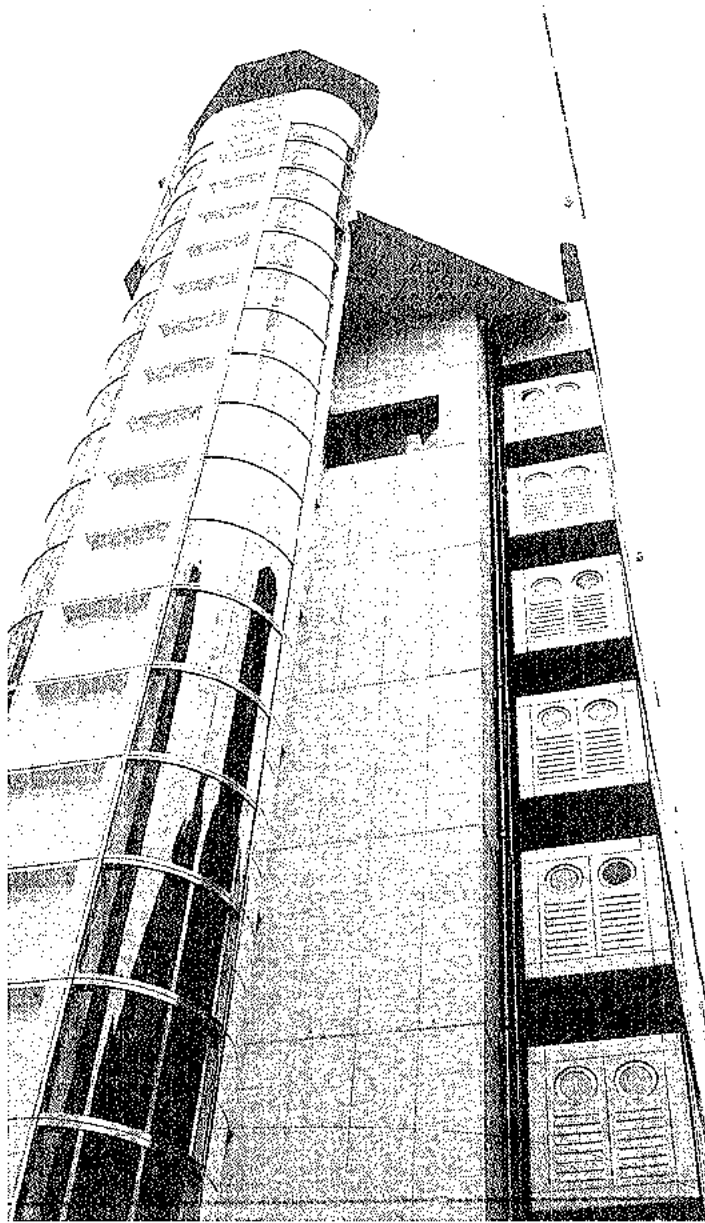
이 건축물은 메타볼리즘에 의한

이론적용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폐적한 공간의 창조라는 측면보다는 도시공간에서 생존하기 위해 입지적 조건의 불리함을 딛고 일어서려는 건축적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5. 나가진 캡슐 타워 빌딩과 소니 타워

단계의 건축물과 구로가와와 나가진 캡슐 타워(1972)는 고속도로용 고가가 연장된 200m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가진 캡슐 타워는 완공년도에서 알 수 있듯이 메타볼리즘의 개념이 더 확실하고 세련되게 처리되어 있다.

즉 단계의 건축물이 외형적인 분위기로만 플러그 인 시스템(전기용 플러그처럼 탈착이 가능)인데 비해 캡슐 타워에서는 캡슐들을



- ⑨ 1층 외부에 전시된 캡슐
- ⑩ 1층 로비부분
- ⑪ 캡슐내부, 콤팩트하게 모든 시설이 내장되었다.
- ⑫ 소니타워 전경
- ⑬ 층별로 전문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 ⑭ 소니타워 저층부, 플러그인 개념으로 디자인된 화장실이 보인다.



하이텐션 볼트에 의한 캔티레버 샤프트로 고정시키는 완벽한 플러그인 개념의 실현인 것이다.

외형적으로 일견 불규칙하게 적층된 캡슐들이 매달려 있고, 이 캡슐들이 매달린 코어는 검은 색의 타워로 만들어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형태적 구성에 시각적 중심점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반부인 저층부는 외부가 타일로 마감되어, 상층의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표출하는 캡슐들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 캡슐들의 구성에 대해 구로가와가

“부분과 전체가 등가를 가지는 새로운 관계중에서 부분의 조합이 항상 전체상을 제시하는 건축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기본은 건축창조의 주체를

주민에게 동으로써 건축가는 단순히 제공자로 존재한다는 시도인 것이다...

또한 건축을 신진대사의 리듬으로 생각할 때, 인프라스티컬러라는 고정된 구조에서부터 캡슐 또는 서브스트럭처등과 같은 변화 가능한 구조에 이르기까지의 위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와 같은 서구적 위계를 거부하고, 구조체 자체를 단위로서 분해하여 캡슐과 동등한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EXPO' 70 타카라 뷰탈리온(1969)에서 전개된 개념이 이 건축물과도 일치하고 있다.

건축물 1층 외부에는 캡슐 단위유니트를 전시하고 있었으며, 허락을 얻어 실내를 구경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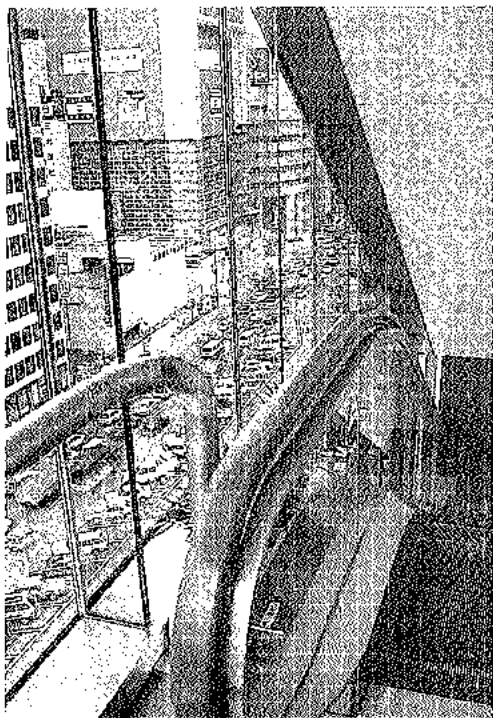
아키그램은 이 개념을 제안했지만, 실현한 것은 일본의 메타볼리즘그룹이라는 사실이

건축과 사회적 후원이 이루는 유기적 관계를 보여주는 예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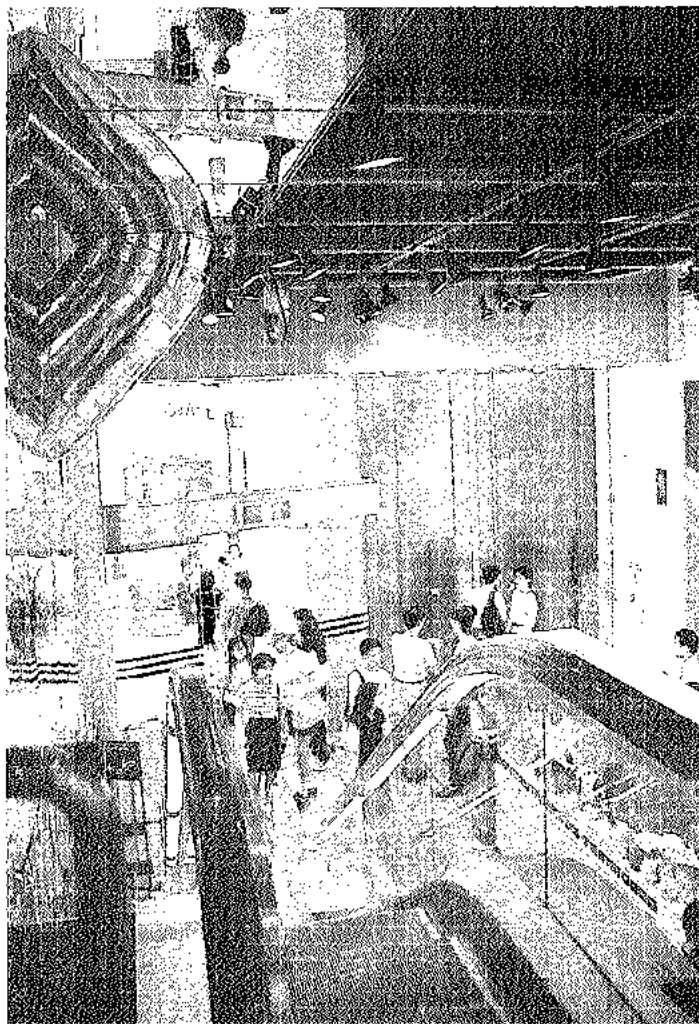
콘테이너와 같은 공정으로 양산된 돔 캡슐을 보면서 70년대의 시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정교한 건축기술과 함께 구로가와가 예견한 미래주거는 컴팩트하지만 삭막하다는 것이다.

이 건축물의 기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세컨드 하우스와 호텔기능으로 1층 로비에서는 오히려 하이테크한 느낌이 없었다. 이런 하이테크한 건축물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한 로이드 보험회사의 홀에 설치된 고전적인 시계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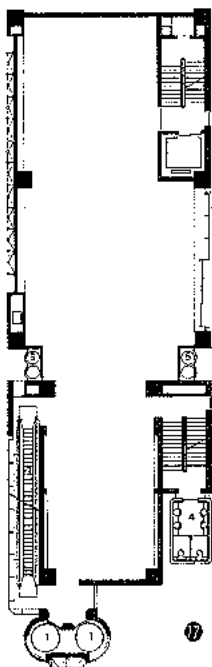
아무리 내부공간이 하이테크 일변도로 나가더라도 과거의 체취가 느껴지는 시계탑만은 하이테크로 디자인하기에는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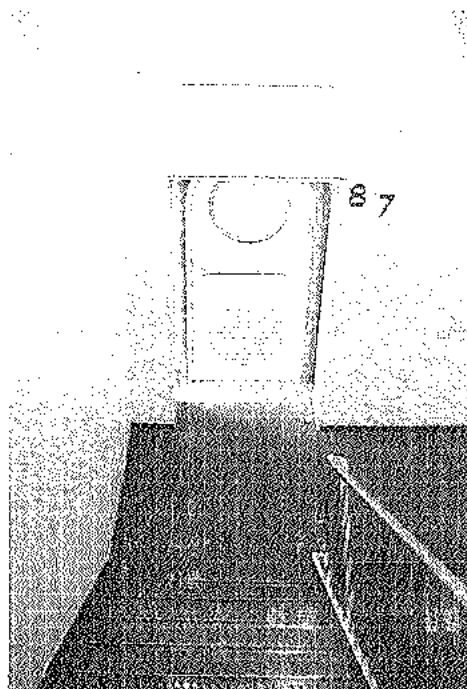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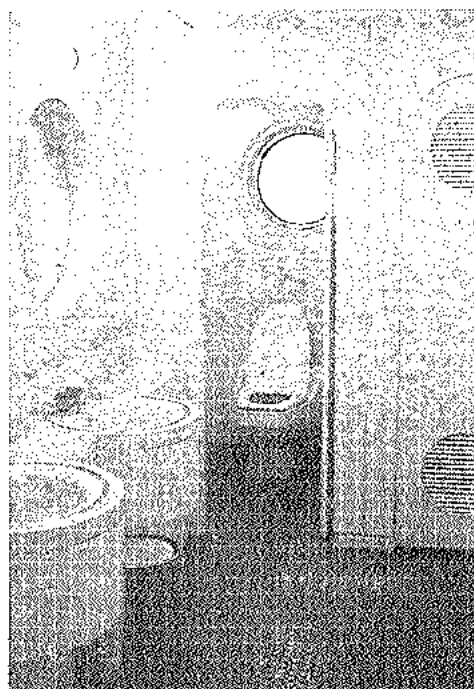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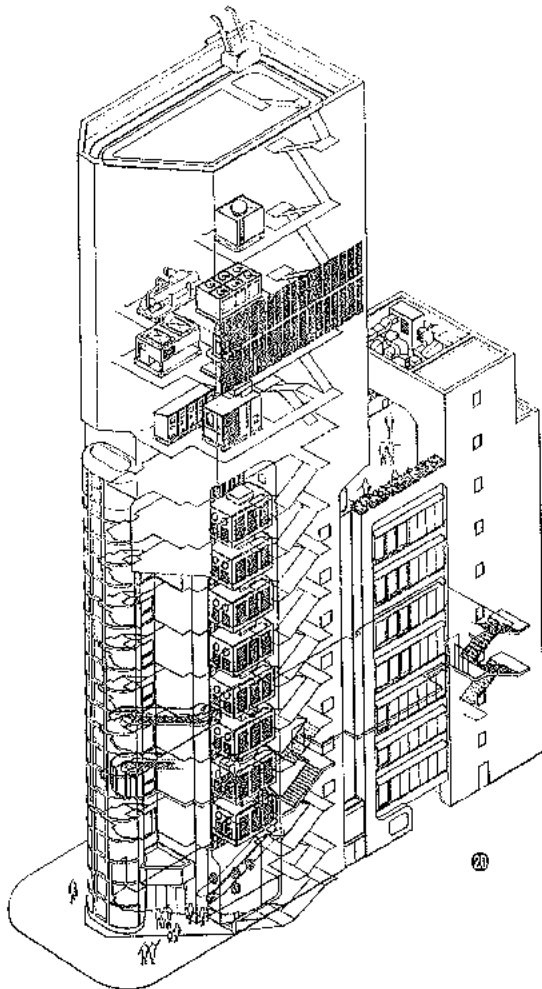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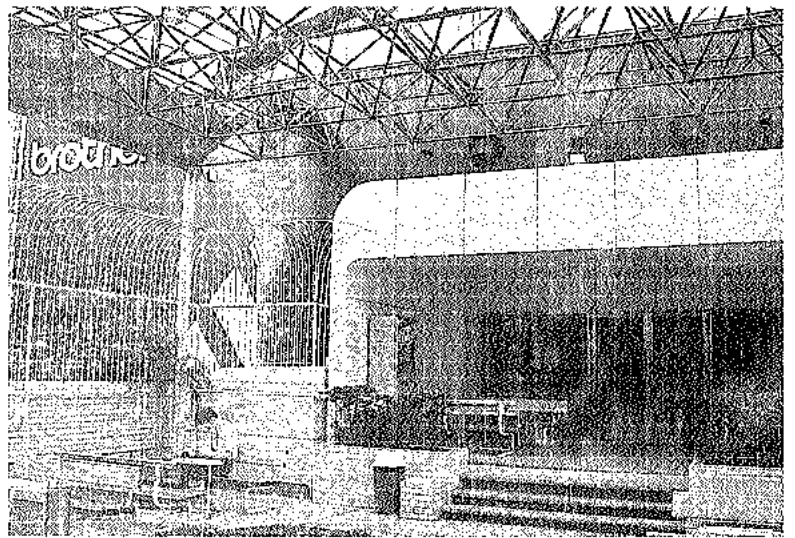
18



19



- ⑪ 에스카레이터에서 바라본 신사이바시
- ⑫ 1층의 엘리베이터 홀 부근
- ⑬ 기준층평면도
- ⑭ 계단실에서 바라본 확장실 입구
- ⑮ 확장실 내부
- ⑯ 아이소메트릭
- ⑰ 옥상의 휴게공간



인간들이 탈 하이테크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소니 타워는 오오사카의 대표적 쇼핑지역인 신사이바시(心齋橋)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는 다이마루(大丸)등 백화점과 파르코같은 전문 상점등이 줄지어 있는 번화가이다.

이 건축물은 각 층이 전문상가로 이루어진 상업용 판매공간으로 비교적 각개층 편적이 적다. 따라서 국내의 백화점처럼 매장중앙에 에스카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가 아닌, 수직동선인 에스카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을 한쪽으로 붙여 판매공간을 최대화하고사 계획되었다.

이런 입지조건인 협소함으로 인해 기본 동선의 구성은 엘리베이터를 이용, 각 층으로 올라가서 에스카레이터를 이용하여 신사이바시 거리를 바라보며 내려오게 계획되었다.

이 건축물 형태의 이미지는 소니하던 “워크 맨”이라는 이미지처럼 건축물이라는 느낌 보다는 컴팩트한 전자기기의 이미지로 디자인되었으며 특히 수직동선인 에스카레이터를 외벽부분에 설치, 에스카레이터에서 유리를 통해 외부를 바라보게 디자인되었으며, 수직동선과 화장실이 이 대형 전자기기의 형태에 액센트를 부여하고 있다.

나가킨 캡슐 타워가 주거의 나무로 가정되었다면, 소니 타워는 카루나케이션의 상징적 건축물로 인식되어 정보의 나무로 가정되었으며 나가킨 캡슐 타워에서 캡슐에 차중되었던 메타볼리즘의 이론이 이 건축물에서는 인공적 생명체에서 보여지는 에너지의 흐름이 더욱 형태화 시각화된 것이다.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로 최상층에 오르면 간단한 옥상휴게공간이 있고 이

휴게공간에서부터 에스카레이터로 오오사카 거리를 바라보며 내려오게 되어 있다. 계단실과 화장실은 같이 붙어 있으며 이 건축물에서는 화장실이 캡슐로 디자인되고 있다.

60년대의 이문화 단계 및 성숙화 단계를 거쳐 1970년 오오사카 박람회에서 개최되었던 메타볼리즘은 오오사카 만국박람회를 마지막으로 해체되었으나, 메타볼리즘에 의해 일본현대건축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메타볼리즘의 주요구성원이 일본현대건축계의 대표적 건축가로 부상한 현재상황에서 볼 때, 이 운동을 단순히 실패한 운동이라고만 볼 수 없게 되었으며 메타볼리즘은 우리나라 현대건축계의 이념부재현상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국내 건축계가 분발해야될 때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채광수법으로서의 아트리움(2):

그린하우스 효과와 도시디자인 요소

*Atrium as Energizing Daylighting System(2) :
Greenhouse Effect and Urban Design Factor*

■ 그린하우스 효과

여기서는 그린하우스의 실내측에 태양열이 모이는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트리움 건축의 스토리에 글래스하우스의 발전이 미친 역할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아트리움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린하우스의 출현과 발전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린하우스의 기술은 보편적인 건축기술보다 훨씬 먼저 진행되었으며 현재의 이용법도 좋은 참고가 되고 있다. 유리를 건물외피로서 사용하는 상징주의는 전통적으로도 사용되었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상징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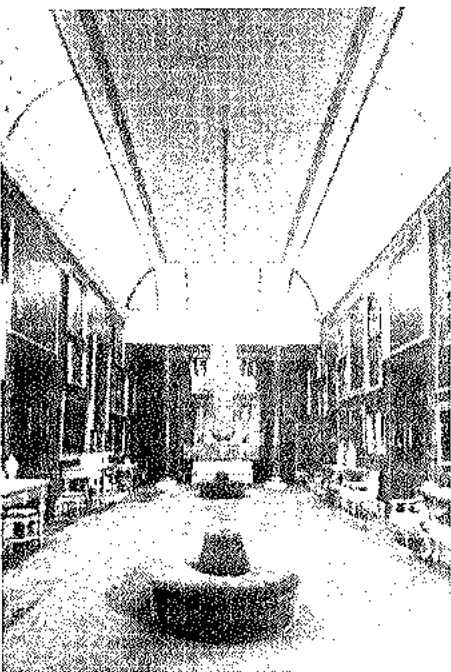
그린하우스(greenhouse), 글래스하우스(glasshouse), 온실(conservatory) 혹은 겨울정원(wintergarden)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전원, 실내와 실외의 모순관계에 중점적인 상징을 두고 있다. 식물축성 재배하우스와 대저택의 회랑공간이라는 두 건축의 발전은 19세기 초에 서로 영향을 미쳤다. 회랑은 약천후 속에서 프라이비트한 산책을 위해 만들어진 실내공간으로서, 튜너시대에는 좁고 긴 공간으로 한쪽 옆은 창문으로 되어 있었고, 공원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집 안에서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장소였다. 18세기까지 회랑은 미술품 수납장소로서 중정형식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로마의 가든정원이나 아트리움을 상기시키는 형태를 하고있었다. 그 시대에 회랑과 정원은 번거로움으로 부터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인식되었다. 또한 그 무렵에는 창으로 부터의 전망보다는 천창으로 부터의 천공광이 보다 더 선호되었다. 원예용으로 개발된 새로운 유리기술에 의해 이러한 천창은 쉽게

건설되었으며 또한 대담하게 개구부를 취할 수도 있게 되었다.

공공건축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곧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회랑과 정원은 개인의 도피장소로부터 사람들이 산책하며 치료를 위해 「자연」과 접촉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 그 시절의 매우 일반적인 풍습으로서 유리건물은 회랑/정원임과 동시에 곧 방으로 간주되었다. 갖가지 기능——시장, 미술관, 점포——으로 이용됨과 동시에 건강한 산책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리고 당연히 정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식물이나 장식이 그 안에 설치되었다.

그후 아트리움의 개념은 형태를 바꾸어 주택으로 다시 되돌아 왔다. 즉, 영국의 중산계급(부르조아지)은 교외에 살면서 주택에 유리온실과 베란다를 부착하여 면적을 넓혔다. 그리고 대륙의 부르조아지는 아직 방어하기 쉬운 도시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 대신 집합주택의 계단실을 유리로 만들었다. 온실은 이 시대에 주택 속으로 깊숙히 침투해 가면서, 식당 문을 지나면 갑자기 아늑한 정원이나 숲으로까지 탈출할 수가 있었다. 빅토리아시대의 퍼블릭한 식사공간은 때로 그러한 주제를 따르기도 하였으며, 손님은 번거로움을 피해 실제로 정원에 가 있었다——유리로 된 光天井, 격자의 장식벽과 거대한 식물은 그 과정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것들이었다. 환상적인 외래식물의 세계로서 온실은 낭만적인 정신적 도피장소가 되었으며 수많은 소설과 희곡의 무대가 되었다. 디즈레일리의 등장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대사를 외운다. 「온실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림1).

1년내내 실내정원에는 사람들의 상상을 환기시키는 힘이 넘쳐 있었다. 이것은 휴식을 주며 자연세계로 향하는 상상 속으로의 도피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나아가서는 공공장소에서도 마음속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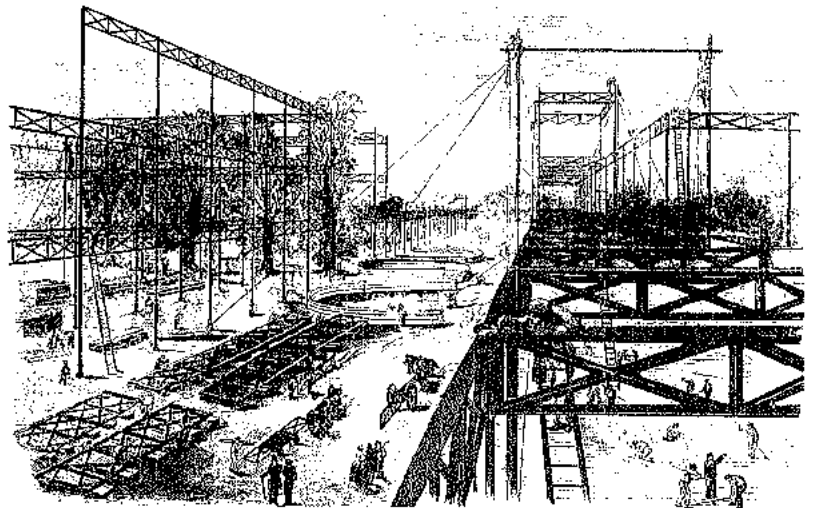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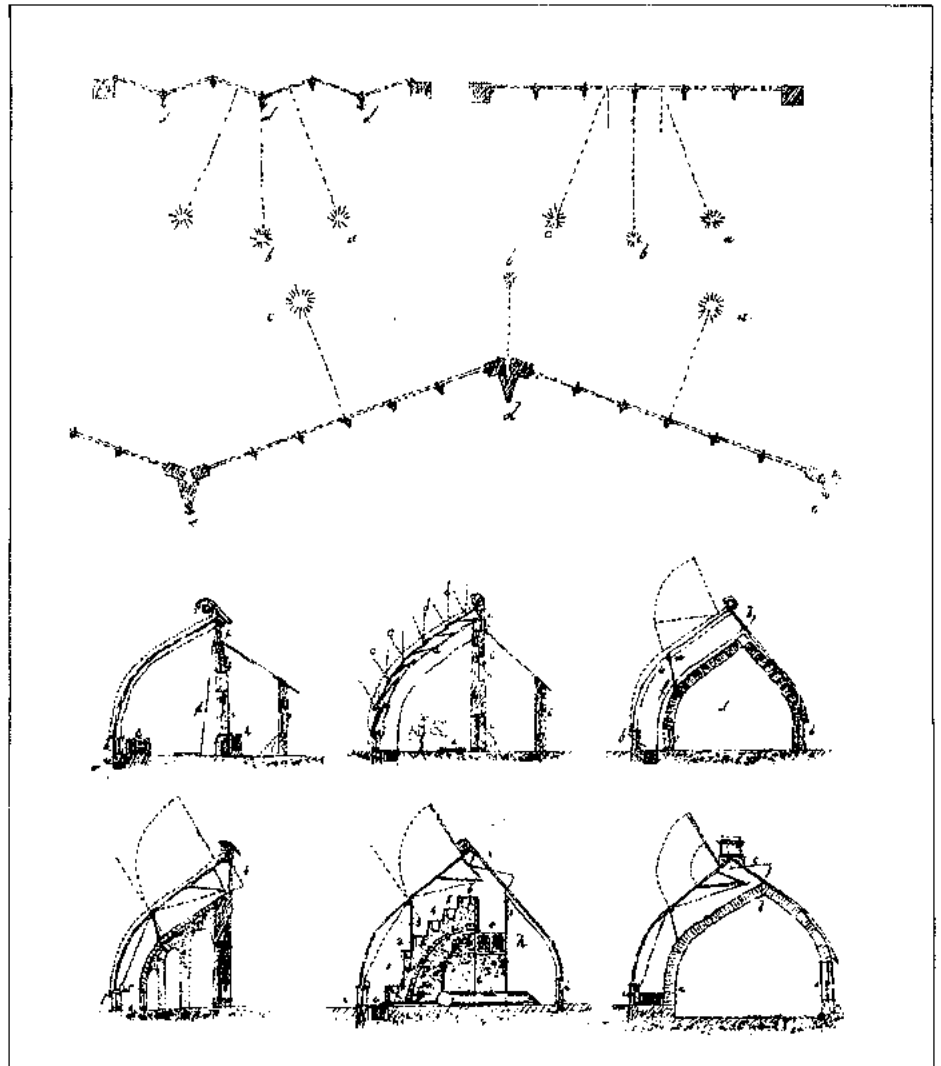


프라이버시를 실감나게 해 주었다. 이러한 이상형, 비밀, 도피 및 꿈의 이미지는 오늘날의 아트리움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

글래스하우스의 기술적 발전은 건축의 산업화와 인공적인 기후제어의 성공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 원예가의 기술이 종래의 건축에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네덜란드의 축성재배 후레임은 기본적인 자연형 태양열 축열기술, 차양장치, 단열 셔터, 블라인드 및 보조난방 시스템을 발달시켰다. 세기가 바뀔 때까지 영국의 신사계급(귀족다움의 상류층)들은 식민지에서 발견한 외래식물을 유리 속에서 재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실험하기에 충분한 funds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며, 열면 논의들 통해 커다란 유리용기(容器)의 아이디어에 도전했다.

이러한 경험주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John Claudius Loudon으로서, 그는 새로운 기술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실험자·발명가로서 그리고 저자로서 글래스하우스의 건설을 크게 추진했으며, 글래스하우스에서 발생하는 결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수평유리 대신에 경사유리를 권장했다. 또한 유리를 파도형으로 배치할 것도 제안했는데 이것은 결로 대책일 뿐만 아니라 태양열을 보다 많이 실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늦은 아침과 이른 오후에 일광을 잘 받아들이 수 있도록 유리를 경사지게 하면 유리를 통한 투과손실이 최소가 되며, 정오 전후의 강한 일광을 연속적으로 3시간 동안 받아들이 수가 있다. 그는 회고 강도가 큰 부재로서 유리를 지탱할 수 있는 延鐵製 창틀의 개발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용시켰다(그림2).



- ① 「온실없이 살아가는 수 없다」 영국 서포크주, Somerleyton Hall, 1855년
- ② 루돈은 그린하우스 설계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그린하우스 전체의 형태와 태양광을 보다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경사지게 유리를 설치한 아이디어(1817년)
- ③ 최초의 근대 아트리움 슈롭셔주, Attingham Park의 회랑, 존 나슈설계, 1806년
- ④ 산업화된 그린하우스의 건설 팍스톤의 수정궁 건설 공사, 1850년

루돈의 1817년 설계는 글래스하우스의 상부 및 하부에 필요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실내의 열을 유지하기 위해 캔버스 천을 사용할 것과, 뒷벽에 열저장 부분을 설치하고 난방장치도 준비할 것을 제시하였다. 외래식물이 말라죽지 않게 하기 위한 집중난방기술, 난방 및 환기에 대한 자동제어 기술은 그 뒤 차례로 발명되었다. 식물의 쾌적성에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 이 고도의 기술은 1914년 Willis Carrier가 공기조화를 발명·도입할 때까지 재래의 건축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상의 원리를 이용한 최초의 대규모 온실은 1827년 요오크셔주 브레튼홀에서 완성되었다(그림3). 설계는 베일리형제였는데 루돈은 저술에 전념하고자 그들에게 설계 권리를 양도하였다. 이 아이디어는 식물재배에 재빨리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에도 이용되었다. 불과 7년 후에는 D. Bailey와 E. Bailey가 설계한 커다란 온실이 런던 옥스포드 대로 판테온 바자에 만들어졌다. 그것은 「유행하는 유리」로서 지금까지의 도시에는 없었던 만남과 산책의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철과 유리의 기술은 재래의 건축에도 즉각 적용되었다. John Nash는 후리메이슨(freemason) 관계를 통해 슈로프셔의 체첸업자로 부터 철을 만드는 비밀을 입수했다. 1805년 나쉬는 초대 바위크경인 Noel Hill로부터 아팅검 파크에 회화회당을 첨가하도록 의뢰받자, 그는 로마풍의 아트리움 형식으로 된 방 위의 수평천정과 활모양으로 독특하게 생긴 천장을 지탱하기 위하여 철제 리브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건축에 유행했던 중정천정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실내의 살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찰스 배리경이 동일한 원리를 리폼클럽(1837년)에 적용하였듯이 그는 이 분야의 오리진일 건축가로서 인식되고 있다.

1851년의 만국박람회를 위해 고안된 수정궁은 공업화건축의 스타트를 상징했다고 할 수 있다(그림4). 여기서 Paxton의 천재성은 적은 종류의 양산 부재로서 신속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세련시킨 것이다. 그가 만들어낸 이러한 기술은 산업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주철업자들은 부재의 키트를 이용하여 건물을 조립·완성 시킬수 있는 건축시장을 국내외에 조성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손으로 하는 수작업으로서 아이디어는 디자인어와 그 동료들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그러나 그 개념을 실현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실현이 곤란했으나 1845년부터 1850년 사이에 정세는 바뀌기 시작했다. 즉, 세법 개정으로 인해 유리의 국내생산이 장려되는 한편 특허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후자의 변화는 만국박람회를 위해 준비되었는데, 이것은 공학적 개념의 비밀범위를 축소시킴으로서 이러한 개념들이 확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이러한 개념들을 정통과 건축가들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장 홀, 아케이드, 야외음악당, 역사, 공장 및 작은 다리들이 영국 및 대영제국의 각지에 건설되었다. 맥파렌에서 발행하는 글라스고우의 대규모 주철업자 중의 하나인 鑄鐵部 카탈로그에는 여러 훌륭한 아케이드에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유명한 만체스터의 바톤 아케이드도 포함되어 있었다(그림5). 동일한 산업이 미국을 유리와 철로 뒤덮었다. 이들 부재시스템의 단순성은 공업화와 함께 하기보다는 공업화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오늘날의 디자이너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Konrad Wachsmann과 Buckminster Fuller는 팍스톤의 계승자이지만 그 주류는 되지 못했던 공상가이다.

빅토리아시대의 글래스하우스 기술이 만든 최대의 실내공간은 철도역사와 박람회 건물이었다. 이들 실내공간은 때로 단일 스펀안에 몇 에이커에 이르는 넓이를 만들어내곤 했다. 철도역사에 설치된 유리와 철로된 구조물은 영구적인 것으로서, 철도 홀을 난방되지 않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공간으로 만들어냈다. 여기에 부속된 레스토랑, 사무실, 호텔 등은 역사의 끝이나 한쪽편에 재래적인 건물형태로 배치되었다. 양자의 관계는 때로 임기응변적으로 진행되어 지붕곡선이 전통적인 건축의 파사드를 잘라내기도 하였다. 예를들면 세인트 판크리스역을 설계할 때는 건축가와 기술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 거실어 철도 홀을 내려다 보는 이러한

건물들은 오늘날 여러가지 아트리움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선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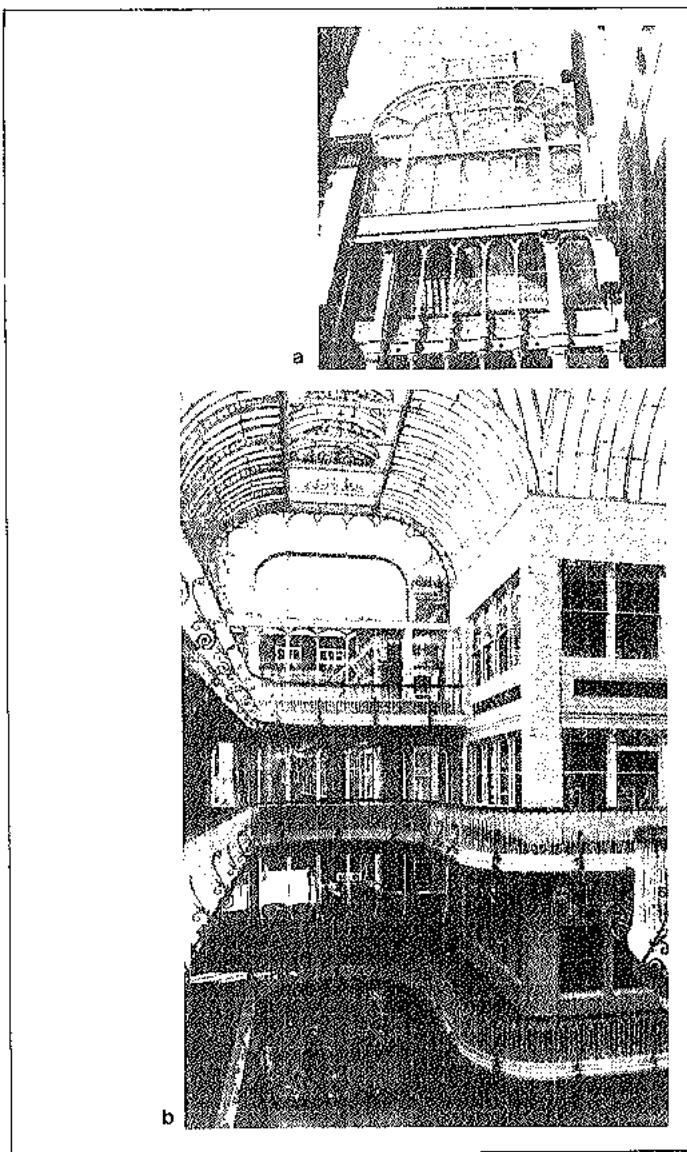
●건축으로서의 글래스하우스

현대의 윈예온실은 경량의 알루미늄 프레임과 1세기에 걸쳐 완성된 특허 유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종래 외장의 3분의 1 가격에 해당하는 매우 싼 값이다. 이 사실은 케임브리지대학의 존 힉스와 그의 학생들이 글래스하우스가 종래 주택에 대해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시도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그들은 1969년에 만든 정형적인 맥시멈 스페이스 하우스(MSH)와 유사한 사무소 구조체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MSH는 거주공간과 정원공간을 여유있는 공간속에 자유롭게 혼재시킬 수 있었다(그림6). 즉, 이 주택은 단일주거 혹은 글래스하우스의 거주자들이 가져야 하는 커뮤니티로서 넓고 이상향적인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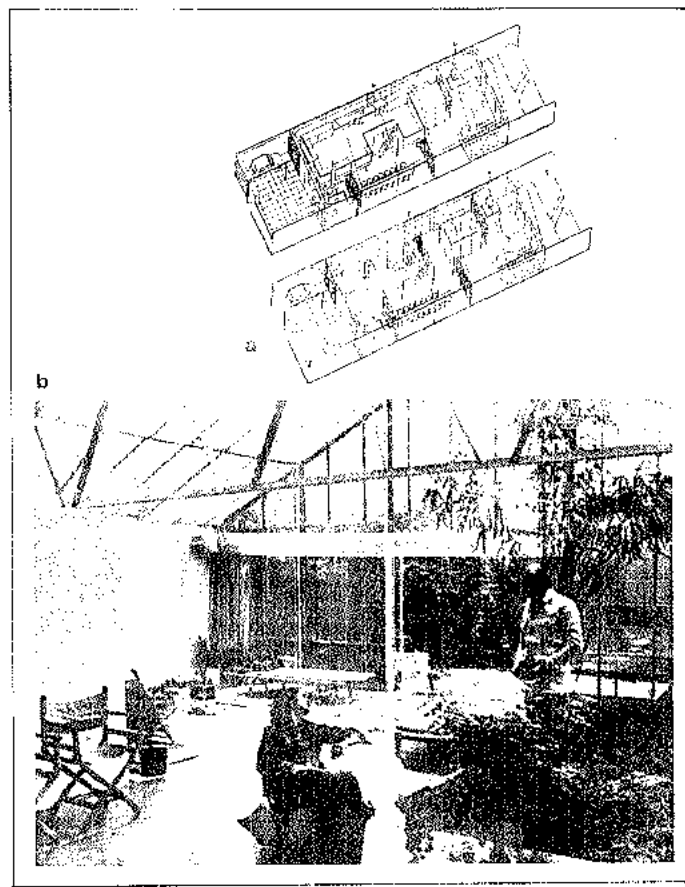
정확한 온도, 습도, 그리고 필요한 CO₂ 농도로 실내공기를 유지하여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플라스틱 외피는 공기로 지지되는 섬유구조의 선구가 되었다. 지금은 보다 더 영구적인 구조물로서 실용화되는 과정에 있다. 런던서부 파딩턴역 근처의 작은 식물온실은 1980년에 큰 관심을 모았다. 그것은 Terry Farrel 설계사무소가 윈예센터의 일부로서 클리프톤 유아보육원을 설계한 것이다(그림9) 이 건물은 새로운 이중 단열 구조로서 구부리면 견고해지는 폴리카보네이트판을 사용했다. 이 건물의 곡선적인 형태는 인상적이었으며, 여름철 기후제어 장치로서의 솔라 글래스도 흥미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큰 관심을 모은 것은 Farrel과 Ralph Lebens가 동시에 제안한 아이디어로서, 이것은 온실을 사용하여 종래의 건물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완충공간의 사고방식」이라는 이 논문은 그린하우스의 사상·기술과 재래 건축과의 상호작용을 다룬 뛰어난 실례라 할 수 있다.

●아트리움으로서의 글래스하우스

글래스하우스로서 완전한 건축은 아직 별로 많은 않지만 아트리움의 개념에 글래스하우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가장 상상력이 넘치는 아트리움



5



6

설계자는 때때로 건축가이면서도
造園디자이너인 경우가 많다. Frederik
Gibberd정은 영국의 아트리움건축
선구자로서 건축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뛰어난 조원디자이너이기도 하다.

어떤 디자이너들은 그린하우스 기술의
이용과 실내의 식재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뛰어난 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Kevin
Roche와 고 John Dinkeloo의 작품이다.
1963년 Eero Saarinen을 이어받은 이래로
그들의 작품은 압도적으로 유리에 덮혀
있었으며, Dan Kiley의 조원설계를 통하여
화려하게 식물들을 실내로 끌어들었다. 뉴욕의
포드재단빌딩(그림11)은 아트리움건축의
기념비적인 해인 1967년에 완성되었는데, 이
해에는 리젠스 하이아트와 케임브리지대학
역사도서관도 완성되었다. Roche와
Dinkeloo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증개축에서는 유리 파빌리온, 피라밋,
식재중정 등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아트리움 설계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가
검토되었다. 인디애나주 컬럼버스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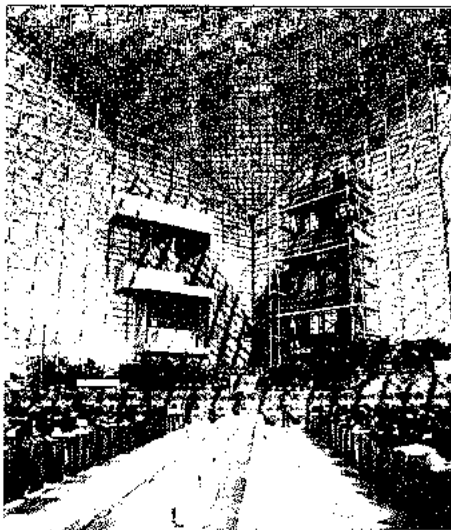
어윈은행의 증축은 전형적인 온실
아트리움으로서 아트리움은 두 건물을 잇는
공공통로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
D.C. 국립수목원에 대하여 그들은 거대한
재기형 글래스하우스를 사용하여 몇 개의
해안선 환경을 모두 덮어버리려는 설계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1978년에 완성된
알이노이주 물린에 있는 존니아社 제 2기
사무소 공사 (흔히 Deere West로
알려진)에서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건물의 아트리움 정원은 서정적으로
설계되어 마치 전시장소 처럼 손질되어
있다.

포드재단본부는 아트리움 안에 대규모
식재를 하는 시도가 되었다. 12층의 L형
사무소건물은 별로 볼품이 없는 42번가와
발전소 광경을 외면하고 중정의 두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지는 상당히 경사가
심하여 1개층은 그대로 정원부분으로
남겨두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는
복도 통로를 지나가게 되어 있다.
아트리움에는 아자나무를 재배하는 온실처럼
식물을 촘촘하게 심었기 때문에 사무실의

절반 정도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프라이빗한 세계가 조성되었다.

Deere West에서는 옆으로 퍼진 2층이
자연적으로 기복이 있는 지상레벨 바로 위에
떠있다(그림 12). 3층은 그 아래 정원 레벨로
들어와 있으며 레스토랑 등 사원용
복지시설로 이용된다. 크고 긴 중정정원은
「장기작」 모양의 아치형 유리지붕 아래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치 화사의
고객인 농민들의 헛간 형태를 연상시킨다.
모든 시설은 정원을 향해 열려 있으며,
점심시간에 산책할 정도로 충분히 넓을 뿐만
아니라 한 여름의 뜨거운 기후나 또는 눈 쌓인
한겨울의 기후속에서도 자연을 즐기게 해
준다.

식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트리움의 시각적인 성공이 종종 결정된다.
식물에 필요한 많은 빛과 식재에 의해
나타나는 색채와 질감을 사무한 공백을
상기있는 중심으로 바꾸어 주고 이용자를
매료시킨다. 캐나다의 건축가 Arthur
Erickson은 그린하우스를 미학적으로
이용하는데 보보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아더



에릭슨은 밴쿠버의 법원과 오타와의 캐나다은행을 설계하면서 아트리움에 아름다운 식물을 배치하였다. Barton Meyers는 아트리움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주택의 중정은 12m의 표준치수로 된 유리 강화 폴리에스터 수지(GRP)로 된 지붕이 그린하우스 위를 덮고 있다. 그는 또한 알버타대학의 HUB계획을 설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대학캠퍼스를 횡단하는 지붕 달린 가로(街路) 양쪽이 학생기숙사의 열이 되게 하였다. 여기에서도 그는 그린하우스 지붕을 사용하였다. 또 하나의 멋진 계획은 토론토의 돈 밀스에 있는 Atria North이다(그림 10). 건축가인 Ron Thom은 실 깊이가 긴 사무소건물 중앙에 그린하우스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풍부한 천공광을 실내에 유입시켰으며, 또한 많은 직원과 고객이 지나다니는 지하 주차장의 나선형 통로를 포장하고 나무를 심었다.

특히, 건축에 있어서 사람과 식물사이의 감정이입은 비교적 새로운 발상이었다. 건축을 장식하는데 공인기준이 없는 시대에 있어서 살아있는 식물의 존재는 사람과 건축환경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식물의 존재는 사람의 사기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도시 공기 안에 있는 양이온의 악영향을 약화시켜준다고 한다. 자신의 작업책상에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아트리움은 자연을 건축안에 큰 스케일로 도입하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따라서 그린하우스의 철학적, 상징적, 기술적인 효과는 이해되어야 하며 존중되어야 할 하나의 힘이라 할 수 있다.

■ 도시 디자인 요소

● 도시의 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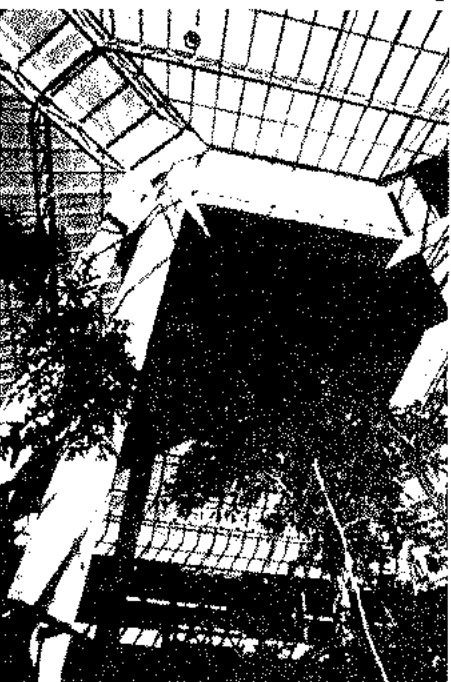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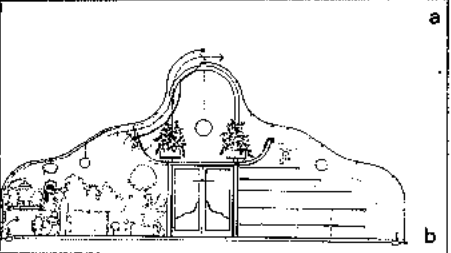
이미 골격이 형성되어 있던 대부분의 서양도시에 있어서 현대적인 도시개발은 하나의 재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미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진 가로와 광장, 그리고 도심부를 종횡으로 달리는 갖가지 도로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새로 자어지는 건물은 기존의 건축선이나 공간의 일체감을 무시하면서 이질적인 요소가 되었다. 타워형태와 판자형태의 건물이 높이 솟았으나 건물 아래의 오픈 스페이스에는

강풍이 몰아쳤다. 타워는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적 가치를 무시하며 기존의 랜드마크에 도전하였다. 대규모 도시재개발은 어느 블록의 전체나 혹은 몇 개의 블록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안을 지나다니던 보행자의 통로를 막아버렸다. 이 모든 것은 많은 도시가 스스로의 손으로 개발하던 초기에 일어났다.

그 책임을 초기의 현대 건축가나 도시계획가의 이론만으로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르코뷔제, 그로피우스, 힐버자이머 및 기타 사람들은 20세기 초기의 음산하며 잡다한 연기투성이의 도시에 반발하면서, 모든 사람이 태양과 공간과 푸르름을 일상생활에서 향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나 정원도시운동과 같은 교외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도시의 높은 인구밀도를 인정하였다. 그들의 해답은 넓은 공원에 마천루를 세우는 것이었지만 가로나 문화에 눈길을 돌릴 틈이 없었다. 미처 과거로 눈길을 돌릴 틈도 없이 모든 것은 멋진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제거되어야 했다.

스튜디오의 바깥인 현실세계에서는 단편적인 아이디어와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건축을 이끌어 갔다. 본질적으로 전통적인 도시와 르코뷔제적 이상 사이에 대화가 탄생될 가능성은 없었다. 이미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에 자유롭게 타워형을 세운다는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것이었다. 1916년에 제정된 뉴욕의 지역계획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면서 지그재그적인 도시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정도 수정되어 새로운 어메니티광장을 건물 아랫부분에 만들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스카이라인은 빈약해졌고 어메니티는 대개 소용이 없었다 — 지난 날에는 강력한 가로였던 곳이 음산하고 강풍이 불었다. 숨통이 트일 장소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압박감을 주는 장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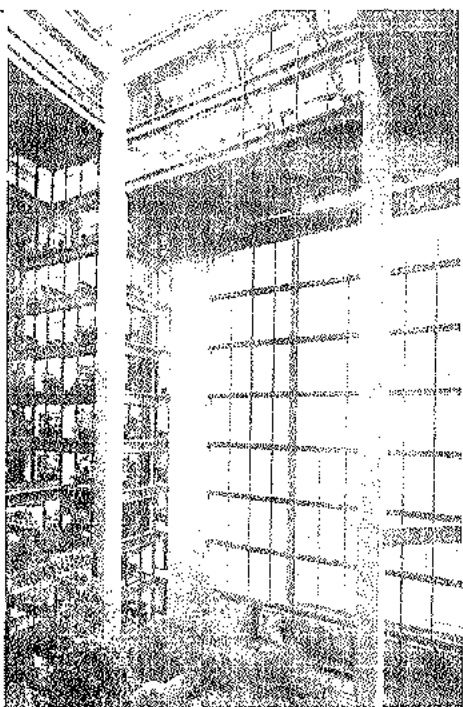
건축 자체에서도 그 아이디어는 실패로 끝났다. 보다 많은 자연광과 자연공기를 실내에 유입하기 위하여 건물을 적절히 각도와 평면형태로 새웠다. 빛에 대한 규칙이 제안되어 되도록 빛을 많이 실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큰 창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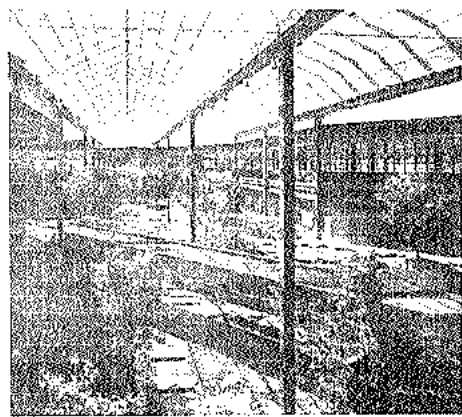
그러나 상업용 건축물에 있어서 그것은 의미가 없었다. 오히려 건물내부는 창으로부터 발생하는 눈부심과 열(熱)로 채워졌으며, 온도를 제어하는데 도움을 주는 벽의 열용량마저 상실되고 말았다. 채광적 측면에서 볼 때도 큰 창은 비생산적이었다. 예나하면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창 유리에 차광필름을 부착하므로써 인공조명을 계속 켜둬야만 하였고 때문이었다. 큰 창은 환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고층건물에서는 통기와 열손실이 심해 도저히 창을 열 수가 없었다. 이美學은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어메니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건설적인 반응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아트리움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던 1960년대 중반에 나타났다. 포트만이 최초의 리젠시 하이아트를 설계하고, 세인트 존 윌슨이 리버풀 시빅센터를 설계하던 무렵 케임브리지대학에서는 윌슨의 동료들이 흥미있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Sir Leslie Martin 교수와 Lionel March는 1966년 4월에 「토지이용과 건축형태(Land Use and Built Form)」라는 책을 출판했다(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이 책은 중정형식이 타워형태나 슬라브형태보다 토지이용이 효율적임을 보여 주었다. 면적이 동일한 더 모양의 Fresnel 사각형을 예로 들면 부지의 경계로부터 후퇴하여 층을 올릴수록 토지와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의 외주에 건물을 배치하면 같은 바닥면적을 얻는데 저층으로도 충분하였다(그림 14). 서구적 발상—자유롭게 서있는 견고한 궁전이나 타워—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동양적인 발상—중간이 빈 정원(중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수학적 대안의 비교라는 문제로 귀착되었다. 여기서 프레셀 사각형의 각 고리면적이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지각상의 문제이다. 이것은 예컨대 케임브리지의 칼리지 건물에 둘러싸인 정방형 잔디가 칼리지 외주의 보다 면적보다 작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과 같다. 세기 중반의 도시계획가에 의해 만들어진 세트 백, 가장자리 및 플라자는 높은 건물에 대한 수학적 보전공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11



12

⑤ 카탈로그에 나타난 아케이드 건축 영국 맨체스터의 바본아케이드, 1871년, Corbett, Raby 및 Sawyer 설계, 맥판덴 鋳鐵部 카탈로그에 있는 표준부채로 만들어졌다.

⑥ a. 맥시멈 스페이스 하우스 영국 캠브리지, 1980년, 존 리스지도에 의한 연구 프로젝트, 이 건물은 상업용 그린하우스구조 안에 세워졌다.

b. 맥시멈 스페이스 하우스의 엑소너메트리

⑦ 도시의 옥상 설치용 그림하우스 1980년 에덴크란츠 설계사무소에 의한 도면, 뉴욕의 건물옥상에 야채를 재배할 수 있는 그린하우스를 부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이 그린하우스는 바로 밑의 건물에 대해서는 완충공간으로 작용하고 스스로도 열의 균형을 유지한다.

⑧ 건축으로서의 크리스탈하우스 Crystal Cathedral,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 1980년 존슨과 버지 설계, 자연 환기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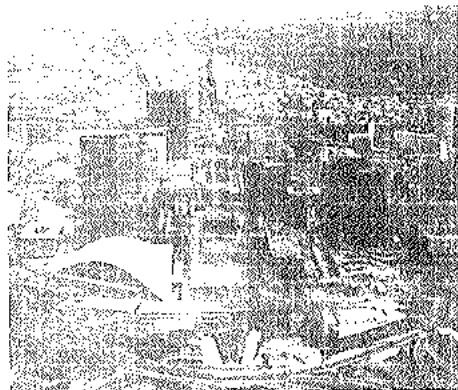
⑨ a. 클리프튼 너서리 런던, 1980년 테리 파웰 설계사무소, 기존 건물에 대한 완충공간으로서 보다 폭넓은 이용에 대한 원형임.

b. 클리프튼 너서리의 단면

⑩ Atria North, 토론토 톤 톤 설계, 저층사무소 빌딩의 중정. 방문자와 직원을 아래쪽 주차장으로부터 이 정원을 지나 건물로 들어가게 된다.

만일 가장자리를 따라 한바퀴 돌면서 건물을 세우면 당연히 큰 중정과 낮은 건물형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은 Ville Radieuse의 개발형태를 사후에 다시 옹호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가로를 따라 건물을 배치해도 타워형태와 마찬가지로 공간, 일광, 및 푸르름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경제적이고 보다 쾌적한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이용과 건축형태」의 이론은 영국과 유럽에서 주택 및 도시개발에서 고층건물의 붐에 반대할 수 있는 논의의 근거가 되었다. 대형 부지에서 처음으로 그 이론을 사용한 디자이너는 작은 규모에서도 아트리움을



13

⑪ 포트재단본부 뉴욕, 1967년, 로차와 던켈루 설계, 현대 아트리움시대의 기초가 된 건물 가운데 하나

⑫ Deere West의 정원 존 디어사 본사, 일리노이주 모던, 로차와 던켈루설계, 실내정원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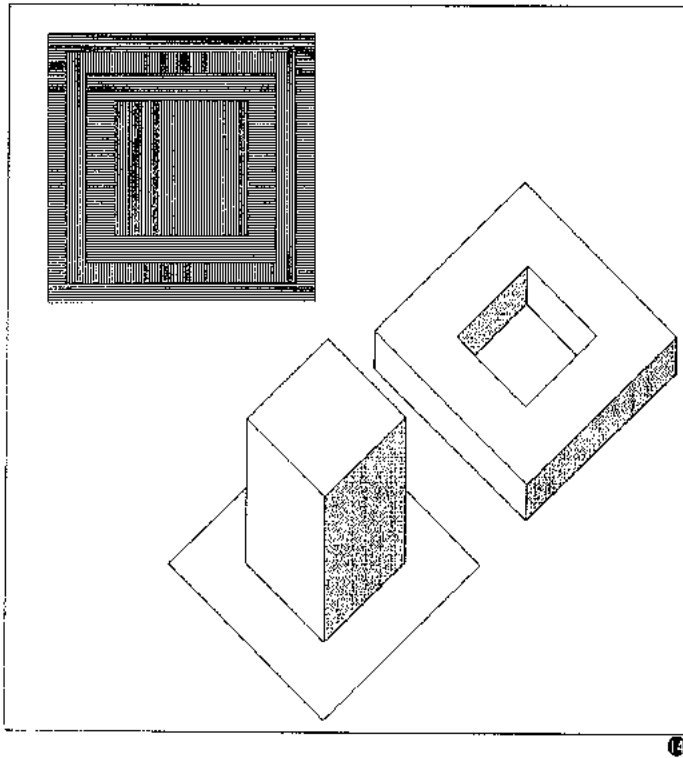
⑬ 新舊 피리 19세기 파리의 일채감과 조화되거나 쾌적한(원경)은 노출시킴, 부조화와 불쾌함은 라데판스에서 배제됨.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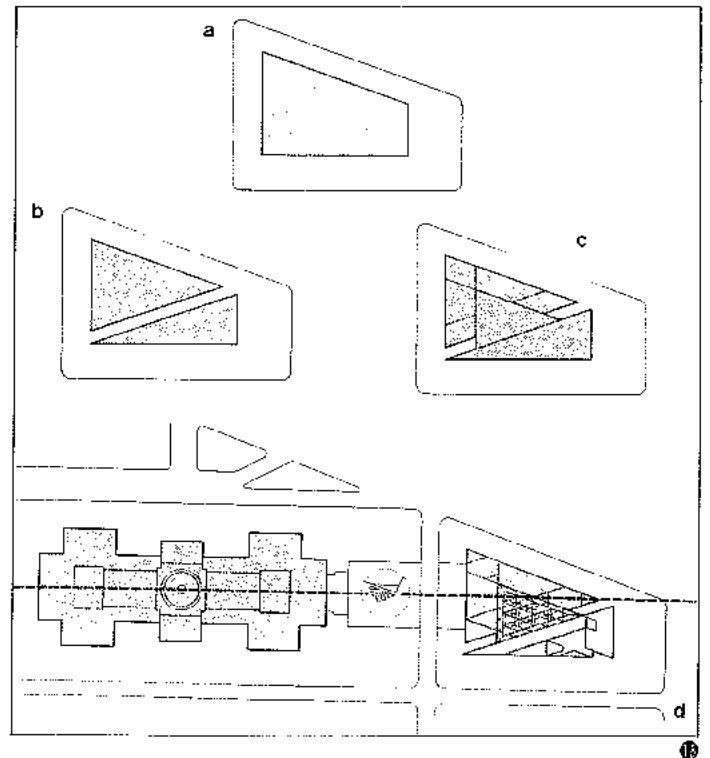
Frederick Gibberd는 런던의 아본빌 그레이트 코트를 6층 건물로 했는데 만일 그 이론을 알지 못했다면 15층의 타워형태로 세웠다고 한다. 기버드는 이어서 스트랜드의 카우츠은행을 비슷한 원리로 설계했다. Richard MacCormac은 남부 웨일즈의 뉴 포트에서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에 여러개의 아트리움을 가진 사무소건축 개념을 도시디자인 및 에너지 절약수법으로서 전개했다.

●곤란한 부지의 이용

형태가 복잡하고 일반적으로는 다루기



15



16

힘든 부지를 아트리움 건물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아트리움은 도시 디자인에 큰 효과가 있다.

워싱턴 DC에 좋은 사례가 있다. 워싱턴에서는 건물높이 제한이 엄격하다. 즉 폭 110피트인 가로는 130피트까지, 그리고 폭 90피트인 가로는 110피트까지 높이가 허용된다. 1910년에 제정된 이 법규 때문에 모든 건물에는 소방차 사다리를 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물 즉, 의식당에서의 전망이 확보된다. 또한 용적률은 1000%이므로 대부분의 건물은 12, 13층이 되면서 부지를 가득 채우며 가로 전면의 벽면선이 가지런해졌다. 미국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엄격한 법규계약때문에 부정형 부지는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부정형 대지는 J'Enfant의 가로구획으로 인해 종횡으로 달리는 일반 가로와 방사상 가로가 교차함으로써 수 많은 켜기형 부지가 생기게 되었다.

문제의 부지는 물, 펜실바니아 가로 및 4번가로 둘러싸인 켜기형이었다. 이 부지는 국립미술관의 증축으로 새로운 건물은 물을 따라 현재의 갤러리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펜실바니아 가로가 의사당의 직접적인 영향 범위에 들어가므로 모뉴먼트로서의 역할도 지녀야 한다. 아트리움을 도입하면 부지의 형태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그것은 부지의 형상이 강력한 건축형태를 만들기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IMPei는

1978년에 완성된 이 건물의 문제해결을 하기에 앞서 먼저 부지를 돌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에 여각 삼각형을 할당하여 2개 가로의 교차를 강조했다. 한쪽에는 갤러리를 배치하고 다른 한쪽에는 연구센터를 둠으로써 아트리움은 양자를 잇는 2등변 삼각형이 되었다. 결국 이 건물은 드라마틱한 효과와 도시경관에 의해 명작이 되었다(그림 15, 16).

또한 1973년 Vincent kling이 설계한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본부는 높이 제한으로 나타난 조적조의 증후함을 인간적인 것으로 바꾸므로써 아트리움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건물은 간부직원을 위한 것으로서 간부들은 대부분 창가에 배치되는 개실(個室)을 요구했다. 따라서 허용 바닥면적의 3분의 1은 중앙에 중정을 설치하고 볼록 전체를 외주부화함으로써 창가를 중요시하였다. 그 결과 개실형식의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깊이가 얇은 공간을 만들수 있었다. 중정을 「내다보는」것은 길거리를 내다 볼때 나타나는 전망보다 훨씬 쾌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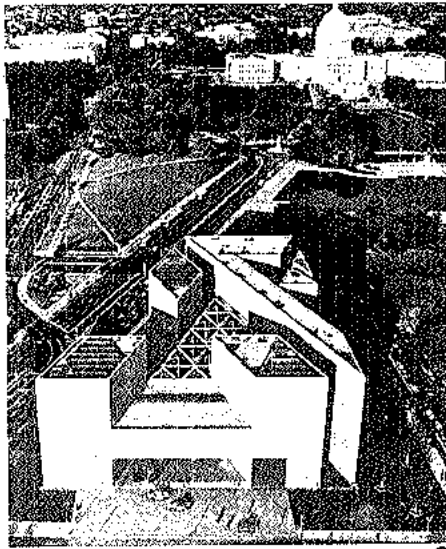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종류의 격자모양 가로 패턴이 부딪히기 때문에 마켓거리를 따라 삼각형 부지가 여러 개 만들어진다. 그중 대부분은 지금 「타워와 플라자」형태로서 개발되어, 북쪽 가로쪽에는 작은 토막 공간이 생겨나 있다. 그 마켓거리가 물가에서 끝나는 지점에 존 포트만은 특적인 건물, 엠버카데로 하이아트호텔(1974)의 수직벽을 세웠다(그림

17). 이것은 엠버카데로 센터의 일부로서 센터 자체는 또 다른 격자패턴 위에 놓여 있다. 포트만은 두 개의 격자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인 과제를 아트리움으로 해결 하였다. 패이와 마찬가지로 포트만은 삼각형 중정 주위에 공간을 배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면은 수직으로 유지하는 한편 세번째 면은 거대한 달개지붕으로 만들었다. 동굴과 같은 인테리어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면서 그곳을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인간을 위한 장소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부정형 부지의 효율적인 처리를 제외하고라도 아트리움건물은 도시디자인의 주요한 요소로서 도시에 보행자 공간을 연출한다. 아트리움 건물은 보행경로임과 동시에 목적지로서 그야말로 도시공간이기도 하다. 보행경로로서 가구 블록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제공해 줌으로써 예전도시의 복잡한 상황을 재생시키고, 또한 보행자 통로가 도로의 상하에 전개되는 것을 촉진시키고 있다.

미네아폴리스에서는 보행자 통로시스템이 지반면보다 1층 만큼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스카이웨이」시스템은 도심의 10개 주요 가구(街區)를 이으면서 겨울철을 모르는 보행자 환경을 형성해준다. 주요 집포, 사무실 그리고 주차장은 모두 이어져 있다(그림 18). 이들 가구는 니콜레트 몰의



16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물은 조원계획이 잘되어 있으며, 자동차로서는 버스만 다니고 기후가 좋으면 보행자도 왕래한다. 니콜레트 물에는 필립 존슨과 존 버지가 설계하여 1975년에 완성된 IDS센터가 높이 솟아 있다. IDS센터에는 지금까지 세워진 것 중 가장 훌륭한 크리스탈 코트라 불리는 공공 아트리움이 있다. 이것은 진짜 이탈리아 광장처럼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을 크게 매료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산책하고 다른 사람을 관찰하며, 먹고 마시고 쇼핑을 하며 이리저리 걸어다닌다. 이것은 미네아폴리스의 도시광장으로서 다른 옥외광장보다도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 이유는 단지 가혹한 기후때문만은 아니다——물론 이것은 미네아폴리스 최초의 실내형 쇼핑 몰로서 아트리움 건물의 한시대를 구획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오히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이 다중 공간은 이탈리아의 구릉 도시에서 광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개한 이래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유용하면서 무대와 같은 분위기를 지녀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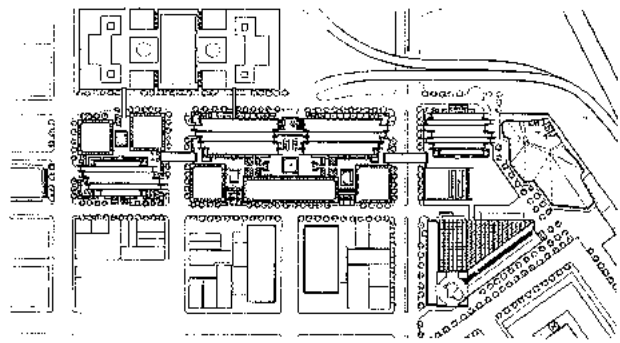
텍사스의 휴스턴에서는 보행자 교통시스템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지금은 가로 아래의 레벨도 이용되고 있다. 지역규제법이 없는 도시에서 이것은 새로운 건물의 외관에 별로 방해는 하지 않지만, 그 경로 자체가 별로 매력적인 것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몇 개의 건물에는 보행자 통로 레벨까지 개방된 아트리움이 설치되어 보행자에게 평안함을 던져주고 있다. 이

거리에 1976년 존슨과 버지는 펜조일 플레이스를 세웠다(그림 21). 이것은 트윈타워의 복합사무소 건물로서 타워 아래부분에 삼각형 아트리움이 놓여 있다. 이 건물의 가로 층은 지하레벨까지 개방되어 있다. 조인트 벤처 설계사무소에서 계획한 고층사무소 건물인 1100밀발 스트리트는 보도와 지하레벨을 함께 수용하고 있다. 건축외피는 4층 부분에서 타워로부터 떠나 건물 주위의 보도 가장자리 등이 있는 데까지 퍼진다. 사람들은 공기조화가 이루어지는 스커트 안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시스템 요소로서의 아트리움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공의 장인 아트리움 건물도 있다.

레이몬드 모이야마가 1976년에 만든 온타리오주 스카보로의 시빅센터(그림 19)는 리버풀에서 콜린 세인트 존 윌슨이 하려던 것을 실현하였다. 벽이 없는 데코모양의 사무실에는 중앙 아트리움을 통해 갈 수 있다. 이 중앙공간은 원형으로 원주의 4분의 1은 외부 공원을 향해 개방되어 있다.

이 공간은 도시의 조점으로서 결혼식에서부터 정치집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행사에 이용된다. 뉴욕의 미드타운에 있는 Citicorp 아트리움은 작은 공원파도 같다(그림 20). 휴 스타빈스와 에메리 로스에 의해 1978년에 완성된 이 건물은 부지 중앙에 있는 코어와 4개의 기둥 위에 거대한 타워가 떠있는 형태이다. 건물의 한쪽에는 옥외광장이 있는 켈리형의 교회와 타워를



17

16 a. 토지이용과 건축형태의 연구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플레스빌 사각형을 대상으로 한 연구. 사각형의 중심은 공동이고 각 부분의 면적도 동일하지만 바깥쪽으로 감에 따라 미의 폭이 좁아진다. 눈으로 볼 때는 중앙의 정방형과 주위를 둘러싸는 띠의 면적이 같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정방형이 주변의 띠보다 넓어보인다.

b. 두 부지에는 동일한 부피의 건물이 서있다. 타워형은 부지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4분의 3은 빈터이다. 중정형식은 반대로 4분의 1이 빈터(중정)이며 높이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17 워싱턴 D.C.의 내셔널 갤러리 東館 1978년, LM:Pei 설계

a. 가로로 둘러싸인 부지는 특징이 없는 9각형이다.

b. 케이 아이디어의 홀로그램은 1941년에 만들어진 西館의 축선을 기준으로 마름모꼴을 돌로 나눈 것이었다. 큰 삼각형이 켈리리, 작은 삼각형이 연구센터이다.

c. 세번째 삼각형인 아트리움을 걸쳐 양자가 일체화된다.

d. 완성안, 안정감있으면서도 다이내믹한 형태

18 東館을 상공에서 바라보면 멀리 의사당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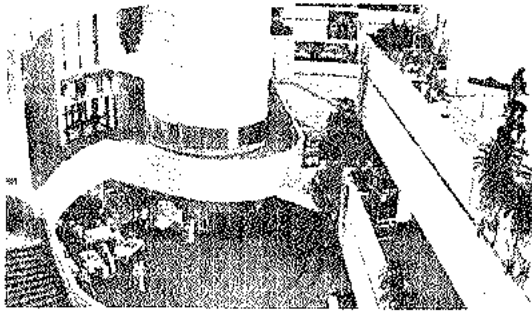
19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엔바카데로 센터 평면 존 포트만 설계사무소. 하이아트호텔은 아래 오른쪽, 도시 길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곳에 위치하며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아래부분에 있고 반대쪽에는 7층의 중정건물이 타워를 감싸 안고 있다. 아래쪽 2층인 지하철과 지표면 레벨에는 전문식품점이 있고 식재된 파티오와 갤러리로 둘러싸여있다. 이곳 타워바닥에는 금속네트제 테이블과 의자가 갖추어져 있으며 손님들은 아니든 자유롭게 앉을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상급자향의 레스토랑과 센터와 같은 것으로서 상업적으로도 도시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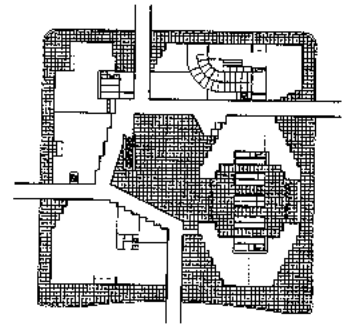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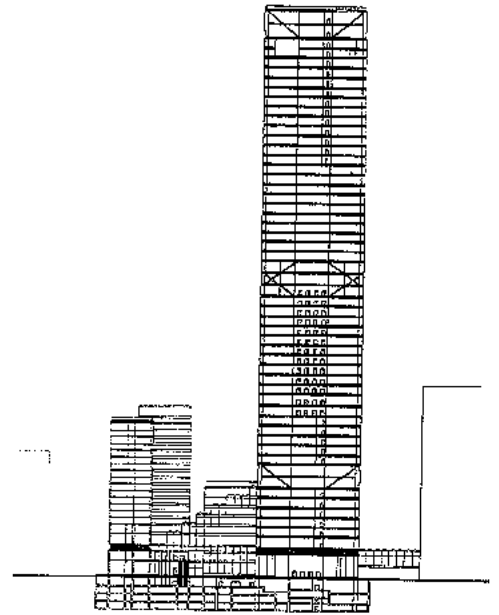
뉴욕 파크가로의 케미컬뱅크 빌딩에서 실시한 아트리움의 개축 사례를 보면, 여기에서는 바람이 싹뻗던 타워 아래의 광장을 유리로 덮어 기단형 아트리움을 만들었다. 설계는 해인즈, 룬드버그와 웨일러로서 1981년에 완성되었다.

● 내부지향의 위험성

아트리움 건물이 도시환경에 기여하기는 커녕 해를 끼칠 수도 있다. 특히 완전히 내부지향으로 만들어져 가로에 대해 무표정한 경우에는 많은 폐해를 줄 수도 있다. Portman, Caudill Rowlett와 Scott(CRS), Skidmore, Owings와 Merrill(SOM) 등 다른 곳에서는 훌륭한 설계를 하고 있는 건축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가로는 단지 자동차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용적일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함으로써 가로환경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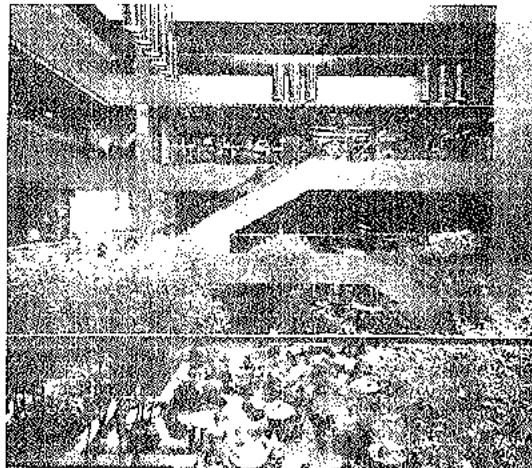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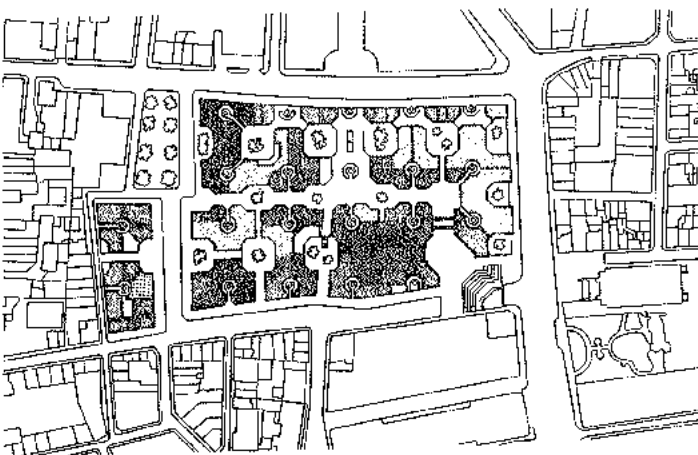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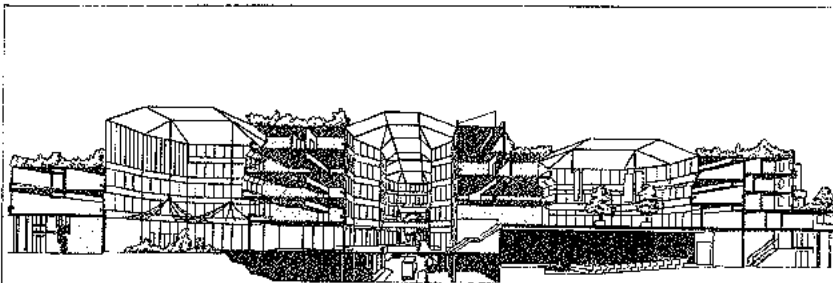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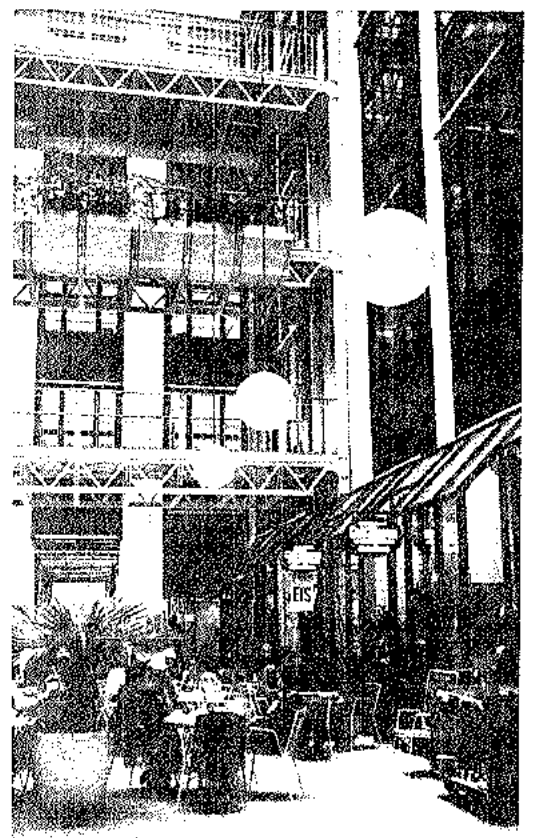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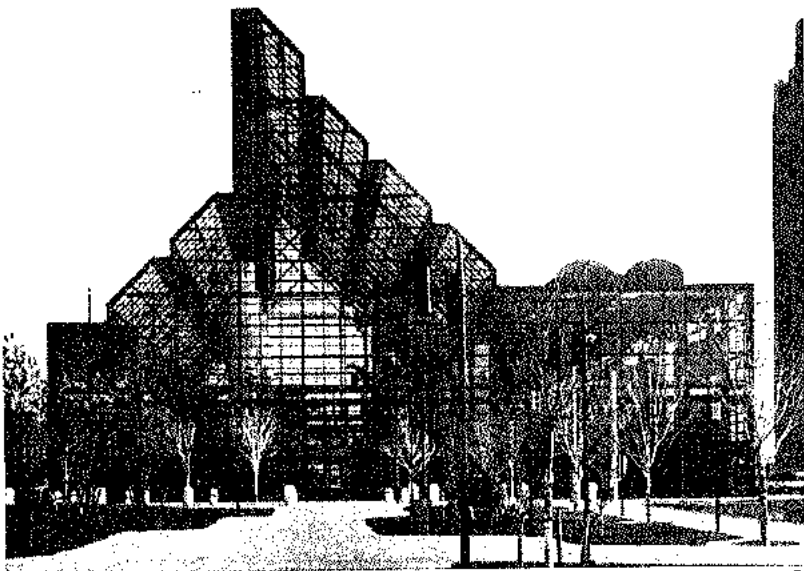
20



23



22



- ⑬ 미네아폴리스의 IDS센터 존슨/버지 설계 1972-75년, 단면 및 스카이에이 부분의 평면.
- ⑭ 온타리오주 스카보로의 시빅센터 레이몬드 모라야 마설계, 1976년, 타운을 안의 도시광장
- ⑮ 가까운 켈리공원과 밀접되는 실내 공원 뉴욕, 시티 코프의 마켓, 휴 스타빈스 설계, 1978년.
- ⑯ 휴스턴의 켈조일 플레이스 아트리움 로버 존슨/버지 설계 1976년, 서늘한 오아시스
- ⑰ 키우프만 하우스 서독 함브르그, 여기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여러개의 아트리움 건물과 아케이드 건물이 도심 한도풍이에 세워졌다. 가로에서 기후로부터 보호된 생활이 가능해졌으며 경계가 재생되었다.
- ⑱ 혼합용도의 複數型 아트리움 동부 런던, 스키타필드의 큰 부지를 대상으로 리처드 맥코맥의 1980년 계획안, 평면과 단면을 통해 건축이 어떻게 각 중정과 관계를 유지하며 또한 중정이 거리레벨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 ⑳ Winter Garden, Niagara Falls, 뉴욕주 시저 켈리 설계, 주위 건물을 기다리고 있는 아트리움.

●도시재생 촉매로서의 아트리움

지금까지 설명해온 프로젝트는 대부분 각 도시의 중심부에서 극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루에이 1950년대에 만든 로체스터의 미드타운 플라자 이후 도시 중심부를 재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효과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IDS센터는 미네아폴리스를, 그리고 이이튼센터는 토론토의 한 모퉁이를 재생시켰다.

1960~70년대에 재활성화된 도시로서 대표적인 예는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이다. 공항(하트필드 공항)과 항공회사(델타 항공)의 적극적인 공동 개발로 사람들이 놀랄만한 호텔과 회의·전시시설을 정비(피치트리센터와 옴나센터)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 이제 아틀란타는 미국의 컨벤션 비즈니스에서 제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본사가 차레로 입주하고 있다.

피치트리센터는 존 포트만의 이상이었다. 그가 설계한 머천다이즈 마트는 1961년에 영업을 개시했다. 그 뒤로 20년 동안 6개의 도시가구가 공공공간과 기능패턴을 복합함으로써 활성화되었다. 공공공간의 질을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피치트리센터는 성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포트만은 이전의 보통 개발자보다 훨씬 상위레벨을 지향하여 독특한 환경을 창조하였다. 그가 설계한 공공 아트리움은 코던 작던 간에 모두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경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포트만은 처음부터 아트리움을

도시광장으로 생각하여 분수와 조각을 설치하고 카페를 만들었으며, 회의실이나 거주공간(호텔의 객실)으로부터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유일한 비판은 도시 가로쪽 처리에 대한 모순일 것이다. 많은 상업생활은 내부 세계로 한정되고 있고, 가로는 인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단지 서비스기능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포트만은 상업개발을 할 때 그때까지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레벨을 설정했기 때문에 경쟁상대도 같은 레벨에서 승부를 겨루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건축용도를 혼재시킬 수 있다는 아트리움의 촉매적 가능성이 아틀란타에서 처럼 대규모에만 적합한 것은 아니다. 작은 규모에서도 다목적 용도를 개발할 수 있다. 1980년 Richard MacCormac은 런던 동부의 부지에 대한 스터디에서 그것을 증명하였다. 이 스키타필드계획(그림 23)은 케임브리지대학의 토지이용과 건축형태 연구그룹이 생각해 낸 「中庭型配列」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중정의 크기는 작지만 전통적인 4,5층 건물에서 자연채광하듯이 충분한 만큼의 실 깊이를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부지에는 3열의 아트리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중앙 아트리움은 물로 사용되기 위해 서로 연결되었으며 주변 아트리움은 보다 더 사적인 목적이나 공동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래 층에 상업공간이 있으며, 특히 남쪽 「표면쪽」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 그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베네치아의 보행자 네트워크 이미지에서 추출하였는데, 베네치아에서는 보행경로가 운하의 반대쪽에 있듯이 여기에서는 교통이 심한 가로를 등지고 배치되었다. 면적의 많은 부분은 공공목적과 기업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야속하고 소탈한 환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융통성이 있는 크기의 공간을 저장 가까이 준비하고, 이를 다시 작게 나누어 주목 받을 만한 갖가지 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소형 아트리움의 수법은 많은 토막으로 남겨진 부지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가구 안에서 공간으로 빛을 받아들임으로 많은 도시 부지에서 경계선 부근에는 채광할 수 없다는 제약을 해결해 주고 있다.

아트리움의 개념 속에는 이와 같이 강력한 도시디자인 수법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도시에서 그 도시의 특성이 소멸되려는 현상을 아트리움으로서 역전시킬 수가 있다. 아트리움은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창조하며 도시의 재생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도심은 사회적·문화적으로 매력적인 경우에만 존속될 수 있다. 단순한 편리성 만으로는 일렉트러닉스 시대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도심은 정보통신망이 가득한 주택으로부터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문명요소로서 필요한 것이므로 고도로 세련되어야 할 것이다.

작은 거인 — 리처드 마이어 (사진 1)

확고한 건축가만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수용할 수 있다

Overseas Contemporary / Richard Meier



1

“어쩌면 다소
편협되고 (계면적은
웃음으로)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전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없다면 이
고달픈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소 편협되고 (계면적은 웃음으로)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전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부심이 없다면 이 고달픈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이어가 제3 TV에서 방영된 “인간과 건축 : 최종화-건축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 한 말이다. 시대상황이 달라지고 사회가 복잡해져서, 건축가의 의도는 건축과정중에 희석되기 쉽다. 건축가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고객의 입김은 커졌다. 현대에 들어 건축가의 영향력은 그 이전의 시대보다 감소했고, 돈있는 사람만이 좋고 비싸며 훌륭한 건물을 소유할 수 있고,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을 제외하고, 건축가가 실제 사용자를 만나볼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완공된 뒤의 일이다. 건물이 개관되어 일반 시민에게 선보이기 전에 이미 고객에게 선보여야 하며, 그들의 마음에 들어야만 한다.

건축가는 도면그리는 사람으로 전략해 가는 것이 미국의 현상이며 유럽으로 확산되는 경향이기도 하다. 고객들은 필립 존슨 같은 1류건축가의 이름이 필요해서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며, 실제 시공은 건설회사등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가 흔해 졌다는 지적을 TV 인터뷰에 나온 유명건축가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적 특성, 복합적 성격을 파악하고, 건물과 거리와의 관계,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건물을 설계해야 하는 진정한 건축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설계를 한다는 것이 주어진 예산이나, 짜여진 틀 안에서 하는 일이므로 수많은 제약과 난관이 따르기 마련이며, 법이나 사회규범이 막강한 장벽이 된다. 성격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만이, 그리고 복잡한 설계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고의 비평가는 시간이며, 훌륭한 건물은 시간이 끌려갈 것이다. 비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시대에 따라 비평기준도 달라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 완벽해야 한다는 잘못된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루이스 헉스터블은 말한다. 건축은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하는 예술이다. 어느 건물이든 결점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건물의 외관만을 보고,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건축물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설계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보이지 않는 구조가 건축가의 의도대로 맞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

“건축이란 다소 더러운 사업이다. 사업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항상 훌륭한 건축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리처드 마이어.

한때 마이어는 르 꼬르뷔제의 사보아주택의 모형을 그의 거실에 소장한 적이 있었다. 르 꼬르뷔제는 50세가 넘어서, ‘건축가는 진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필립 존슨은 뉴욕화이트 5명의 건축가를 보고는 아래와 같이 묻고 있다. 말년에 들어 자신의 1920년대의 작품을 그토록 중요한 르 꼬르뷔제는 마이어를 비롯한 ‘뉴욕화이트’의 작품들을 보고 무어라 말할까? 작품의 모델로서 자신의 20년대 작품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서는 뭐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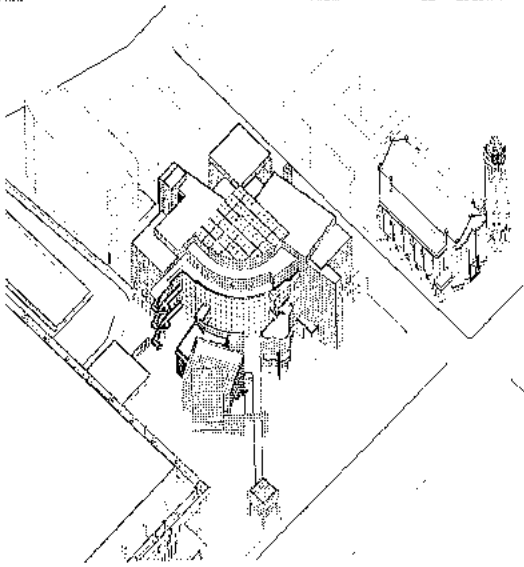
1. 대표작

“나는 건물만들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 자신이 예술가보다는 巨匠建築家(마스터빌더)로서 평가받고 싶다. 나는 이것이 건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건축역사는 나의 작업에 지속적인 영감을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어떤 작품이든 그것은 과거의 인식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론 영원성과 연속성에 의해 계속 강화된다……. 나의 근본적인 관심사들은 공간, 형태, 빛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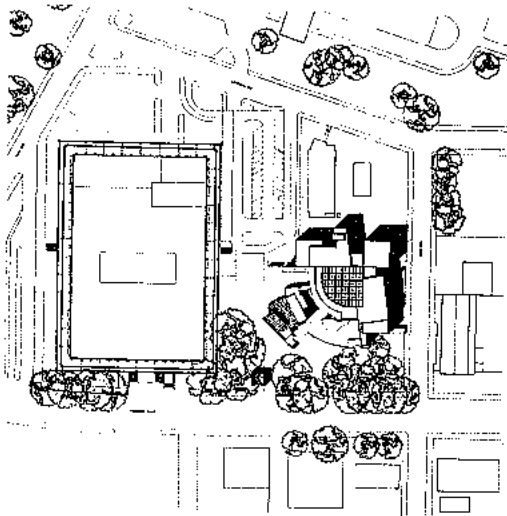
누구나 마이어의 주택작품이 “가정처럼 편하거나 안락한” 주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곡면과 평면의 벽으로 이루어진 매스로 된 흰색의 순박한 형태는理智的인 건축일 것이다.⁴

마이어는 고객에게 기능적이거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건축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건축가의 목표로 여기는 것 같다. 마이어의

威仁洙
물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Seong, In-Soo



2



3

작품에서 대표작을 들라면 렘브란트나 나 데이비드
겔로웨이의 지적대로 5개의 작품을 들 수 있다.”

a. 스미스 주택 b. 더글라스 주택 c. 아테네움
d. 하이 미술관 e.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 등이다.
이중에서도 하이미술관은 자신이 속한 미국사회에서
필요한 형태를 창조했다는 점에서,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은 독일의 지역적 맥락으로부터 만들어진
대표적 건물이 아닌가 한다.

a. 하이미술관(사진2~7)

이전의 역사시대에서 미술관이란 부의 척도,
戰功의 댓가로서 개인적으로 소장되고, 왕궁 위주로
수집되어 왔다. 대부분의 유럽의 유명한 미술관들은
궁전이나 대저택을 개조한 것인데, 그곳의 오래된
소장품들은 전시될 때부터 대형공간 속에서
自然光아래에서 관람객을 맞았다. 루브르미술관의
경우, 프랑스王가가 16세기경부터 수집한
예술품들로부터 시작되었다. 1793년 7월 27일
혁명정부에 의해 중앙미술관이 세워지고, 1개월 뒤에
프랑스 國民會議에 의해 공개가 결정되어,
루브르宮殿의 전시실이 시민들의 환영 속에
미술관으로 바뀌었다. 비엔나미술관의 경우,
합스부르크王朝時代로부터 전해진 소장품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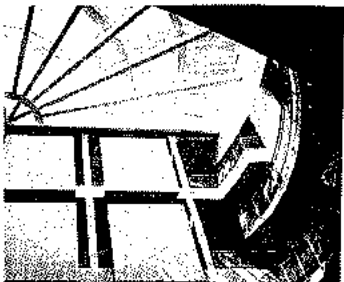
4

근거로 하여, 1862년에 옛도시 유적에 세우기 시작한
美術史博物館이 1880년 건물이 완성되었고,
1885년에 소장품이 설치되고, 1891년에 황제에 의해
공개되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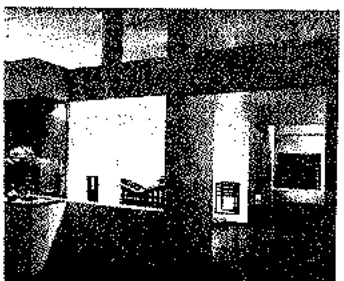
근래 공공적인 보존과 대중을 위한 전시가 중심이
되는 미술관으로 변모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술품들의 크기나, 관람객들의 기대도 바뀌어 갔다.
또 自然光은 가끔 그림에 해롭기까지 하다고
판단된다. 미술품의 진열이 그동안 역사적인
건축물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2차세계대전이후부터, 될 수 있는 한 간단히 하고,
잡다하게 많이 보여주던 전시방법에서 소수의 정리된
진열로 바뀌어, 작품감상을 위해 설계되기에
이르렀다.

하이미술관은 미술관의 전통적 개념이나 현대적
개념을 고루 섞어 최고의 시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
미술관의 특징은 미술관이 소장품을 수집, 보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적기능을 지녀야 한다는
계몽시대의 건축유형학적 전통에 충실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명상을 위한 장소로서의
미술관의 감각을 담고 미적가치를 발전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설계에서 순환, 조명, 설비나 공간적 질은
진열된 예술품뿐만 아니라 建築美를 관람객들이 직접
느낄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즉 마이어는
관람객들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건축적인 공간의
변화도 느끼면서 동시에 차분한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미술품을 볼 수 있게 노력했다. 그래서
긴통로나 아트리움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건물은 관람객에게 짐을 주거나 압도하려 하지 않고,
관람객들을 환영하고, 누구나 들어가 보고 싶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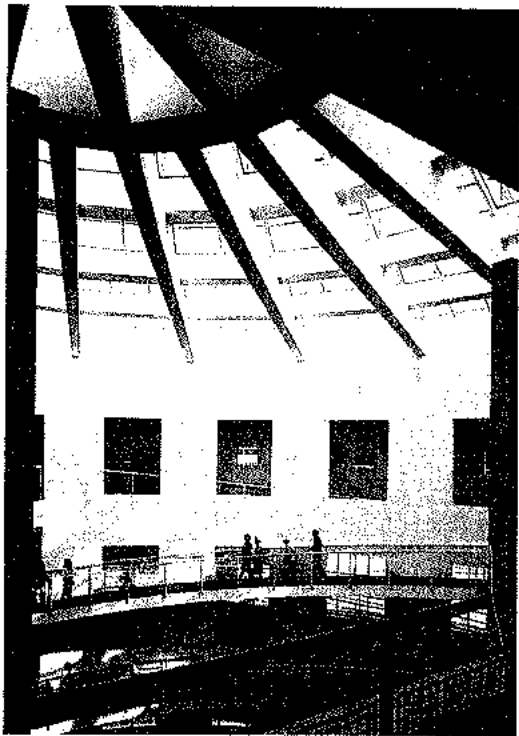
- ① Richard Meier 근영
- ② 하이미술관 엑소노메트릭
- ③ 배치도
- ④ 입구를 향하는 랩프와 전경



6



7



8

층동이 생기도록, 측벽을 따라 긴경사를 지나는 램프로부터 곡면 통로가 벽을 이룬 아트리움으로 연결되어 전시장을 돌아 보도록 되어있다.

아틀란타 시내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이미술관은 장래의 도시화장에도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4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위의 1/4에 해당하는 기념적 아트리움
- 긴 램프로 대지를 가로지른 입구
- 건물의 주요 형태적 요소이며, 순환의 주요 역할을 하는 곡면의 내부램프
- 4개의 덩어리로 구성된 다소 고전적인 양식 건물입구 왼쪽이 미술관 본관이다. 45도로 경사진 부분이 200석의 강당이며 강당은 출입과 안전을 위해 본관과 분리되어 있다.

b.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

라인강 저류인 마인강은 프랑크푸르트를 지난다. 지명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인데, 이 강 남쪽지역은 2차세계대전중 피해가 적었다. 강변 뚝에 옛 별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에서 별장들을 모두 사들여 박물관을 짓기로 했다. 이곳에는 독일 건축 박물관, 독일 영화연구소, 장식미술관등의 8개의 박물관, 미술관이 강변을 따라 서있다. 강가에는 1km가 넘는 지역이 박물관지구로 변하는 중이다. 독일 건축박물관장을 겸임하고 있는 하인리히 클로츠의

설명에 의하면,

“파리 사람들은 파리 한 부분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거대한 퐁피두센터를 만들었다. 퐁피두센터는 하나의 공간에 5개의 박물관이 들어 있다. 일종의 박물관 전시장이다. 우리는 그런식 보다는 기능이 분리된 개별박물관을 만들기로 하고, 마인강변 박물관지구에 들어서 있는 모든 집들을 개조하여 소규모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 이유는 작은 것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소형박물관은 개인적 애착감, 친근감을 느끼게 해준다.”¹⁰⁾

옛별장을 박물관으로 바꾸는 작업중에서, 옹거스와 마이어의 작품을 통해 의미있는 작업을 볼 수 있다.

옹거스는 1901년의 신고전주의 별장을 외부형태는 그대로 두고, 내부를 변경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단에 해당하는 부분에 붉은 사암으로 된 회랑을 설치하고, 양옆에도 회랑을 만들어, 건축박물관을 만들었다. 중요한 부분은 그 별장내부에 만든 현대식 박물관 시설인데, 집 속에 다시 집을 지어, 기존 건물과 연결하여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건축박물관은 강당, 도서관, 자료실이 있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한다. (사진 8)

마이어가 지은 장식미술관도 마인강변을 따라 건설되었는데, 마이어도 처음에는 별장(빌라 메츨러, 1803년)을 개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마이어는 기존별장을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새건물(기존 별장면적의 약 10배 면적)을 증축했다. 기존건물이 사각형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건물을 기존건물 주위에 입방체로 새웠다. 구건물과 신축건물은 브리지로 연결된다. 이 건물에 관해 마이어는, “기존건물에 새건물을 증축해 짓는다는 점과 주변에 나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연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유럽의 박물관들은 내부를 자연채광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창문 유리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어느 장소에 있던 정원과 시내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죠.”라고 말한다.¹¹⁾ (사진 9~13)

미술관의 설계는 어려운 편인데, 실내를 단순하게 처리하면 무미건조해지고, 화려하게 처리하면 전시품이 돋보이지 않는 편이다. 마이어의 미술관은 단조로움을 피하고, 극적인 효과를 얻는데, 작고 큰 공간이 교차하는 실내공간 처리로서 효과를 본다.

2. 마이어의 생각

a. 통일성

루돌프 아른하임이 『美術과 視知覺』에서

- ⑥ 구겐하임 미술관 내부를 연상시키는 실내램프
- ⑥ 실내의 측면
- ⑦ 내부전시장의 모습
- ⑧ 독일건축미술관 단면투시도
- ⑨ 장식미술관-앞부분이 기존 빌라메츨러
- ⑩ 배치도, 오른쪽에 강이 흐른다.

지적했듯이,

“통합된 구조로서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건축이나 예술작품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¹²⁾

이 말을 인용해 마이어가 하는 이야기는, 바닥, 벽, 기둥, 문, 창, 계단과 같은 건축의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요구조건에 따르게 되는데, 이 실용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건축을 창조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말이다. 마이어의 건축에서의 목표는 복잡하게 서로 관련된 모든 가치를 통합하는 일관된 체계를 개개의 설계에 부여하면서, 환경을 미적으로 구축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마이어는 알베르티의 미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기도 한다.

주택설계에 관해 마이어는 주택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분리개념이긴 하지만 서로 긴밀한 요소로서, 5요소를 사용한다.”

(1)프로그래밍(계획내용) : 완전한 유기체로서 주택이 필요로 하는 요구나 성능을 보여주는 機能圖.

(2)대지 : 대지가 어떻게 건물과 택지에 영향을 주는지.

(3)입구와 순환체계 : 건물이 지닌 제한을 타당하게 뛰어 넘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순환체계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서 다양하게 전개된다.

(4)체계로서의 구조 :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게 해주는 철재기둥으로 된 그리드와 이에 중합되는 목재 벽.

(5)구조형식에 기인한 벽체계에 의해 구획된 외벽이나 그 모양(Enclosure or Sk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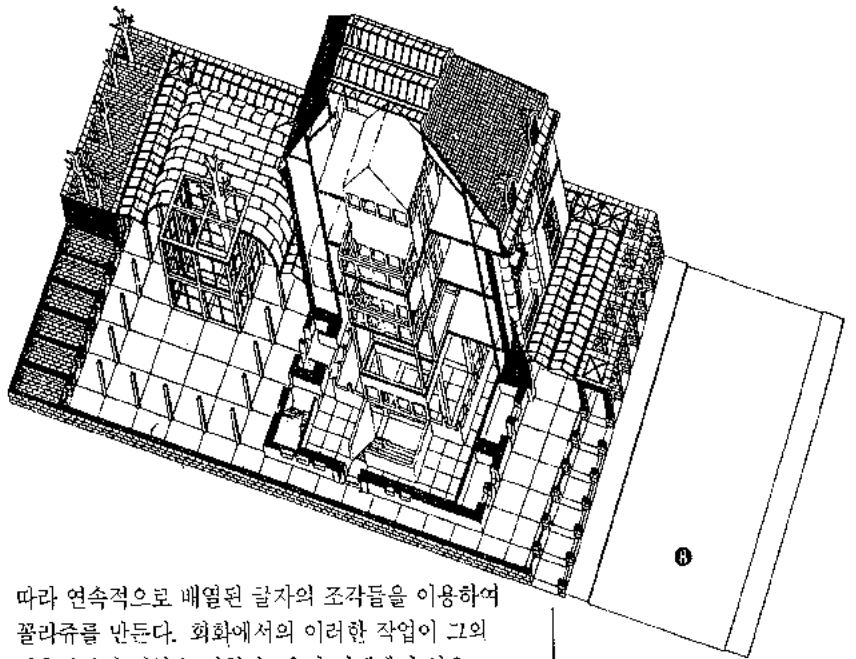
입구와 순환 체계간의, 외벽과 구조 체계간의, 프로그램과 대지간에는 변증법적인 것이 있다.” 그러나 5요소는 주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건물개획안마다 이러한 분석을 도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진14~15)

또한 주택에서 메스를 대비시키는 방법으로서, 公的空間과 私的空間으로 분류하여 외부재료를 다르게 처리함으로써, 2개의 공간이 두드러지게 대별된다.”

마이어는 건물을 크게 한 덩어리로 만들지 않는다. 그리드가 많이 있는 자기패널이나 유리를 사용하여 중첩된 형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 보다는 유럽에 도시의 크기나 거리와 흐름이 맞을 만한 건물을 짓고 있다. 고집스럽게도 동일한 재료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설계하고 있다.

b. 풀라쥬

마이어는 설계를 하지 않을 때, 2차원 평면에 그리드나 기하학적 문양에 기초를 둔 시각적 질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배열된 글자의 조각들을 이용하여 풀라쥬를 만든다. 회화에서의 이러한 작업이 그의 건축작품에 영향을 미친다. 유럽 여행에서 얻은 건축적 경험은 개념적 근원이 되었는데, 경험적 산물을 마이어의 독자적이고 신비로운 재능으로, 걸러내고 정제해서 그만의 예술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근래 유럽의 현상설계에 초청되어 당선되는 이면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대륙에서도 통용될만한 한 건축언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배경은 아마도 풀라쥬기법에 연유하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 바바랄의 다이몬스타인과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대로, 마이어는 자신의 작업방법을 풀라쥬작가의 방법과 비교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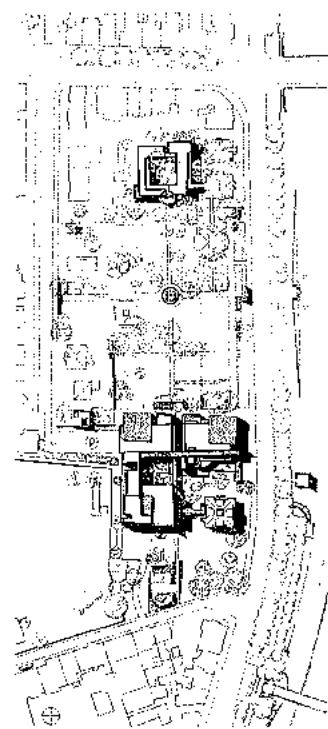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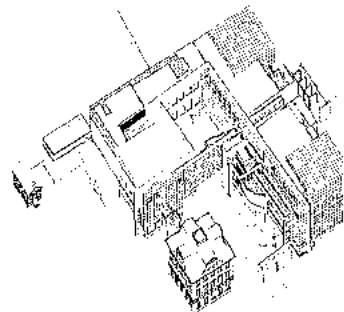
“나는 어떤 규범을 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풀라쥬를 하는 것과 같은데, 당신이 하는 일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진행이 될수록 더욱 더, 당신을 다른 세계로 안내한다. 건축에서 건축가와 고객사이에는 작용과 반작용의 설계과정이다. 풀라쥬를 통해 서로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며, 당신이 다시 생각한 내용을 더욱 훌륭하게 만들어 준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옳다고 믿을 때까지 여러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생각하며 계속 노력해야만 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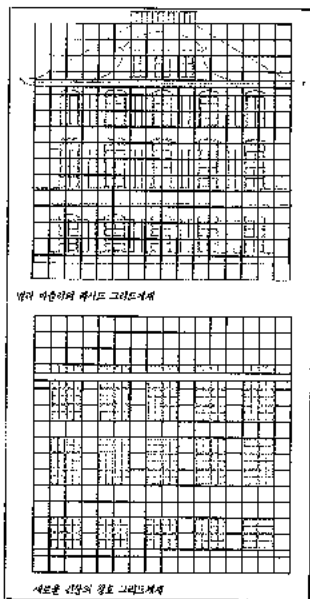
마이어의 풀라쥬는 건물 하나하나를 스케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들간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위해 했다 한다. 즉, 어떤 건물이나 건물군을 참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상적인 연구였다. 로마에 있는 미국아카데미에 상주건축가로 있을 때에도, 그곳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로마에 머물면서 느낀 것과 로마에 대한 생각을 풀라쥬로 만들었다.¹⁴⁾

c. 대안으로서의 해결과 접근

다음글은 U. I. A 세간지 建築理論 評論잡지(J. A. T. C)¹⁵⁾에 실린 리처드 마이어와 조르쥬 굴스머그와의 인터뷰를 옮긴 글이다. 이 내용을 통해 다소나마 마이어의 생각의 단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마이어의 작품은 구성주의(Construction)원리에 기초를 두었다기 보다, 기본적 형태의 미학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빌라 미술관의 레이아웃 그리드 계획

새로운 건물의 정면 그리드 계획

①

마치 르 꼬르뷔제를 뒤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인터뷰에서 마이어는 굴스버그에게 그의 건물이 어떻게 다른지, 외향적인지 또는 내향적인지, 어떻게 도시에 자리잡고 대중을 위한 기능에 들어 맞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 JG는 굴스버그, RM은 마이어, 이 내용중 ()은 필자가 설명을 추가한 부분임

JG : 당신은 미술관의 전문가이고, 전위예술에 조예가 있으므로, 나는 당신이 현재 디자인하고 있는 게티 미술관 계획안에 대한 당신의 의견에 흥미를 느낀다.

RM : 게티미술관은 아주 복잡한 계획안이다. 이 미술관은 미래의 게티센터의 일부분일 뿐이다. 게티센터는 지금의 도서관을 새롭게 중·개축하여 구성할 것이며, 예술품보존기구와 별도로 예술정보기능, 회의기능과 행정사무기능이 있는 건물로 이루어 질 것이다. ¹⁸⁾ (사진 16 ~ 17)

JG : 이 복합건물의 공간적, 언어적 특징은 무엇인가?

RM :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없다. 내가 말했듯이, 계획안은 복잡하다. 그래서, 사용가능한 대지에 맞추어 각 기능에 맞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로 일을 착수했다. 올해 중반쯤 프로그램이 끝나기 원했던, 이 단계가 지나고, 곧 계획단계로 옮겨갈 예정이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는



②

가능성이 있는 설계를 위한 어떠한 스케치도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작업자체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반대중들은 설계진행단계를 궁금해 했고, 최종형태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솔직하게 나는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아직 계획안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다.

JG : 당신의 설계스타일은 꽤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디애나주 컬럼버스에 있는 당신이 설계한 학교에 대해서는 솔직히 놀라고 있음을 시인한다. 설계 작품속에 담긴 논점은 무엇인가? (클리프턴 클리크 국민학교에 대한 질문이다.)

RM : 그 학교는 여러 이유로 독특하다. 이것은 공용 건물이다. 제한된 지역에 세운, 교육기관으로서 전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장소로 그곳에 있다. 이 계획안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요구, 예산, 대지위치, 공간구

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났던, 이전 작품의 실현방법과는 다르다. 그러나 대중은 달라진 형태를 구별하진 못할 것이다. 서로 다른 점은,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레벨의 차이일 수도 있다……. (사진 18 ~ 19)

JG : 당신은 양식개념의 용어로서, 「아테네움」의 이념을 따르는가? (아테네움은 도시 뉴 하모니에 위치한 건물명칭) (사진 20)

RM : 아마 이 질문은 건물 부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건축전반에 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다른 건물들이 어떤 의미있는 기반을 지니고 있지 않고, 그곳에는 배제된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주위에는 뚜렷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학교계획안에서 특징은 전과 다르다. 이것 역시 개인주택과도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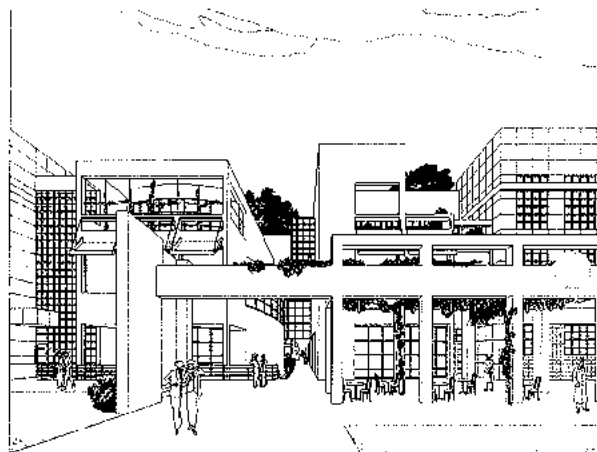
JG : 학교는 지어진 형태나, 공사기간에서도 다르고 느껴진다 왜냐하면 당신의 스튜디오에서 당신이 고객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RM : 그렇다. 주택을 설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미래의 사용자인, 건축주에게 작업과정상의 여러 측면을 모두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간이 계속 들어 맞을 지 아닌지에 대해…

JG : 당신이 설계한 새 오피스건물이 곧 코네티컷주에서 문을 열려고 한다. 도심건물로서 잘 들어 맞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브리지포드 센터)

RM : 이 15층 건물의 뒷부분에서는 브리지포드 도시의 파노라마전경을 볼 수 있다. 이 건물은 이도시중심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왜냐하면 뉴욕-보스턴 고속도로에서 보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이 건물은 도시의 한부분으로서 건축적으로 주요 지점이 된다. (사진 21 ~ 23)

JG : 이 작품으로 우리는, 당신의 지도아래 20여명의 동료 건축가와 함께, 이 도시에서 당신이 도시를 의미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는 가설을 확고한 현실로



③

- ① 빌라메츨러의 정면그리드체계와 새로운 건물의 창문분할용 그리드
- ② 복층입면도
- ③ 공원쪽에서 본 옥외카페와 장식미술관
- ④ 스미스주택의 5요소분석

보여주고 있다. 미술관에 관한 질문으로 돌아가자. 게티미술관보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장식예술미술관을 설계하는 것이 어려웠는가?

RM :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은 다른 상황이었는 데, 왜냐하면 설계경기에 입한 첫번째 경우였다. 설계 경기가 재미있긴 했지만 그결과는 건축가를 위해서나 완성된 작품을 위해서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나에게 설계경기에 초대했을 때, 외국건축가 3인(마이어, 한스 홀라인, 벤츨리+로취+스코트 브라운 팀을 말함)과 독일건축가 3인이 지명되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여서 참가하기로 했지만,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설계하면서 흥분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당선되었다. 용기를 내어 도전을 해야할 만큼 내용이 어려웠다.

JG : 건물은 초기의 당선작과 동일한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상의 변화로 인해 당선작과 완성된 작품은 서로 다르거나 심지어 바뀌기조차 하나.

RM :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설계경기용모작과 동일한 편이다. 별로 바뀌지 않았다. 당선된 후 처음에는, 공사비 문제로 단순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변경하기로 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완성했고, 프랑크푸르트 건축국에 도면을 제출했다. 그들은 나에게 초기안과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대로 좋아한다고 말했고, 왜 변경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그랬노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오히려 그대로 짓기 원한다. 당선작대로 짓기를 주장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도면으로 돌아갔다.

JG : 공사가 끝났을 때 당신의 느낌은 어떠했는가?

RM : 인상적이었다. 이것은 중요한 건축물이 되었다.

JG : 그러나 이경우에, 설계경기의 결과는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당신의 판단은 이제 달라져야 할 것이다.

RM : 이번 설계경기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인정해야 하고, 공사비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결과에 경의를 표한다. 나는 이번 일은 특별한 경우라고 본다. 적어도 내경험에 비추어 보면.

JG :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과 아틀란타 미술관 사이에 차이점은 무엇인가?

RM : 많은 차이가 있다. 두 계획안이 기본적 배치가 비슷하긴 하지만, 아틀란타 미술관은 루이지애나에 적당한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의 경우에 회화, 조각, 장식미술을 위한 일반적 미술관으로서 외부로 향하고 확장된 건물이었다. 이것을 외향적(Extrovert) 건물로 부를 수 있다. 아틀란타 하미미술관은 내향적(Introvert) 건물인데, 모습 자체도

그렇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주위에 나무가 있는 공원에는 넓은 공지가 있었다. 주위에 경치가 아름답다. 한편 아틀란타에서는, 미술관 옆에, 1960년대 지어진 커다란 예술기념센터가 괴물처럼 서있다. 대지가 포위당해 있는 편이어서 미술관은 내부를 향하고 있다.

JG : 프랑크푸르트에는 마인강변 뚝에 8개의 미술관이 나란히 있고, 미국 아틀란타에는 전체도시에 오직 하나의 미술관이 있다는 사실이 설계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RM : 어떤 면에서, 아틀란타 하미미술관에서 내부공간은, 아트리움이 주요공간인데, 도시생활의 중심지이다. 하미미술관은 프랑크푸르트의 미술관보다 더욱 사회적인 기능을 지닌 건물이다. 두곳의 상황은 더욱 다르다. 아틀란타 미술관은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만이 아니다. 이곳은 모임의 장소로 쓰인다. 독일의 미술관에서는 그런 종류의 만남의 장소는 건물들 사이에 있기 마련이다. 즉, 시내중심가와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건물들 사이에 1층에 연결된 마당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만난다.

JG : 다음에는 무슨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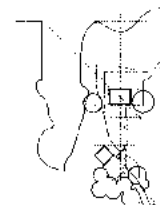
RM : 다음 일은 우선 휴식을 하며, 인생문제를 살피는 것이다. (마이어는 프로젝트를 하나씩 진행한다. 그는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사무소를 키우는 것은 작품의 질을 낮추는 것이므로, 검을 낸다. 그동안 마이어는 일과 일 중간에 대화에 초청 비평가로 교육활동을 하곤 했다.)

JG : 믿을 수 없다. 당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건 그렇고, 당신의 가구디자인에 관해 들은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는 꽤 격식을 벗어난 것들이다.

주택을 설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미래의 사용자인, 건축주에게 작업과 정상의 여러 측면을 모두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간이 계속 들어 맞을지 아닌지에 대해...

RM : 오래전에 가구를 설계했는데, 가구는 한사람의 고객을 위해 만든 것이다. 계속 여러제품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다. 처음 의자를 만들고 나서 이에 심취했던 것 같다. 모델로 6개의 의자를 제작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작업을 했다. 계속 생각하기를 의자를 만든다면, 또한 식탁을 만들어야 하고, 식탁을 만든다면 높고 낮은 여러 식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여러종류의 주택가구를 만들었다. 침대, 옷장, 벤치, 기타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언제나 한번에 한단계씩 진행을 했다. 이렇게, 서로 관련된 모든 가구를 스케치했다. (사진 24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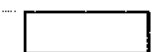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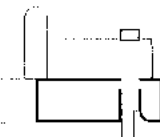
프로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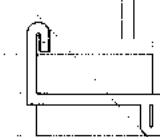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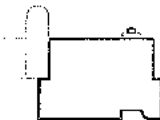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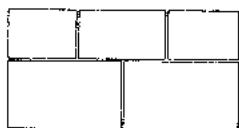
수원도



현관로지



프로그램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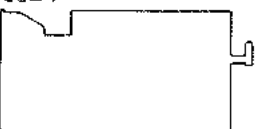
수관도



압구



엔탈로피



JG : 다양한 형태들을 모아 놓은 것처럼 말인가?
 RM : 그렇다. 내 아이디어는 우리의 완전한 환경에 맞도록한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잘 만들어졌고, 수제품이다. 가격이 비싸지만, 정당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이다. 나를 가장 매력적으로 끄는 것은 이것을 의뢰한 고객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회화와 같다. 만약 다른 사람도 흥미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만들지 않으면 된다. 이것은 건축이 만들어 지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이다.

2. 상황과 배경

독일의 건축박물관에서는 1984년 경에 『모던의 개정』(Revision of the Modern)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이 결과를 책으로 엮은 것이 「POSTMODERN VISIONS」(집문사, 1988. 이용재외판역)이며, 내용중에는 33명의 건축가를 다루고 있다. 근래 『모던의 전망』(Vision of the Modern)이라는 후속 전시회를 열었다. 아래 글은 같은 제목의 전시회 『모던의 전망』을 요약한 UIA 建築理論 評論잡지의 제목 『모던의 전망』과 같은 제목으로 쓴 하이리히 크로츠의 글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UIA 계간지인 『建築理論 評論잡지』 첫 호는 주로 서구의 構成主義 작품을 실었는데, 이중 모더니즘 흐름에 관한 크로츠의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한다. 백색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뉴욕화이트에 관해 언급이 있으며, 이책의 편집자인 조르쥬 굴스버그는 리처드 마이어가 새로운 모더니즘으로 또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a. 모더니즘

건축에 관한 논쟁속에서 모더니스트 진영과 포스트모더니스트 진영의 양극화는 건축실무에서의 최근의 발전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상황에 대해 건축가들의 생각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면성이 있는 현상을 보게 된다. — 복잡한 모던 운동의 역사적 뿌리 속에서 신념을 다시 긍정하게 하는 두 쌍의 모더니스트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교정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독일건축미술관에서 현재의 경향을 매우 명확하게 보았다. 칼스 정스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생각에 따라 주제를 선택했다.

b. 근대건축운동의 환원주의

이론가나 비평가들이 근대건축의 다양한 시도를 극도로 단순화한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근대건축의 전통에 대한 현재 뿐만 아니라 근대건축 역사를 통한 우리의 비판이 시작된다. 근대건축운동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처리한 것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축운동이 전파된 시점에서부터였다. 1932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의 히치코크와 존슨의 전시회 “국제건축양식 : 1922년이후의 건축”으로부터였는데, 당시로부터 가장 우세한 경향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을 뿐이었다. 당시에 고려된 건축사례들은 바우하우스나 르 꼬르뷔제의 건축이념을 따르는, 기초적인 매스로 구성된 산뜻한 것들 뿐이었다. 히치코크와 존슨은 네덜란드와 독일의 표현주의자 — 드 클러크, 멘델스존 — 에게는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고, 베스너, 레오니도프 등의 러시아 구성주의자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지그프리트 기디온도, 근대건축운동의 가장 영향력있는 역사가이긴 했지만, 히치코크와 존슨이 연구한 사례들을 뒤따랐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의 주요 저서인 “空間, 時間, 建築”(캠프리지, 1941)에서 19세기의 건축에서 공학에서의 공헌에 대해 처음으로 논했으며, 이것이 근대건축탄생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선언했다. 그이후에는 티토 — 그로피우스, 미스 반 델 로에, 르 꼬르뷔제, 알토 — 들이 공학을 쉽게 소화해 처리했으므로 20세기에 들어 그 공헌이 감소되어 갔다. 즉, 그들의 방법이 새로운 건축을 탄생시킨 최대한의 표현인 것처럼 여겼다.

20세기의 철골구조건설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 된 바 없었고, 구성주의 전통도 잊혀졌다. 오로지 백색파의 입방체만이 이상적인 유형으로 정착되어 갔다. 기능주의의 매력이 백색입방체의 매력으로 바뀌었으며, 새로운 미학적 기준으로 등장했다. 의심할 바 없이 많은 건축가들이 입방체나

사각의 형태로 향해 나아갔다. 그들은 히치코크와 존슨 그리고 기다온이 제시한 단순화된 프로그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c. 구성주의의 원칙

어쨌든 이동안에도, 이 “백색입체파”는 가끔 적색파나 청색파였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보아의 지붕위의 형태는 핑크빛, 밝은 청색조였고, 고전적 모더니즘은 바로 실험실을 만드는 기능주의가 아닌, 보다 더 감각적인 것이었다. 어쨌든 더욱 중요하게도, 최소한 풍피두센터가 완성된 이후, 우리가 재발견하게 되는 것은 근대건축운동의 또다른 뿌리가 임존했다는 사실이다. 백색모더니즘의 전통외에, 근대건축운동의 새로운 전개를 가능케한 構成主義가 선언된 것이다.

비록 그로피우스나 르 꼬르뷔제가 가끔 構築(Construction)에 대해 말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건물은 구조적 발전에 대한 확신을 별로 주지 못했다. 그들은 “채광을 통해 효과가 나는 형태”의 완벽한 건물표면을 보여 주었지만, 요소와 요소를 결합하여 구조를 이루는 형태의 논리나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르 꼬르뷔제가 주택을 “살기위한 기계”로 말하면서도, 실제로 지은 것은 백색의 사각과 입체로 된 것이다. 반면 벅민스터 풀러는 실제로 다이렉시언 주택으로 기계적인 주택을 창조했다.

풍피두센터는 “채광을 통해 효과가 나는 형태”가 아닌, 환원주의자의 작도법으로 된 작품이 아닌, 구성주의에 현대적 감각을 주기위해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 작품이다. 르 꼬르뷔제나 그로피우스가 숙제로 남겨준 공학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건축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構築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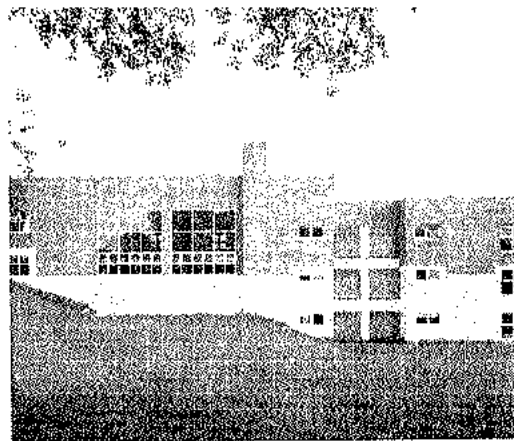
d. 현재의 백색파 모더니즘

풍피두센터에 대한 관계로 보아 뉴욕화ιβ의 백색모더니즘 특히 리처드 마이어와 파쓰미/쉴의 작품은 모던운동의 연속체에서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준다기 보다, 르 꼬르뷔제의 초기작품으로 되돌아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대건축운동의 연속체로서의 새로운 발전을 보여준다기 보다, 역사화된 반복으로 보이는데 - 과거로 돌아가, 1960년대의 잘못된 박스형태로 혼합해지기 전에 古典的 모더니즘의 理想을 다시 찾고자 하고 있다. 리처드 마이어의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관은 순수함을 위한 외식의 일종이며, 절망 뒤의 재생이라 할 수 있다. - 그런 의미에서 네오모던(Neo-Modern)이다. 영미문단에서의 모더니즘의 분류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네오 모더니즘 등으로 나뉜다고 하는 문학상의 분류와 비교해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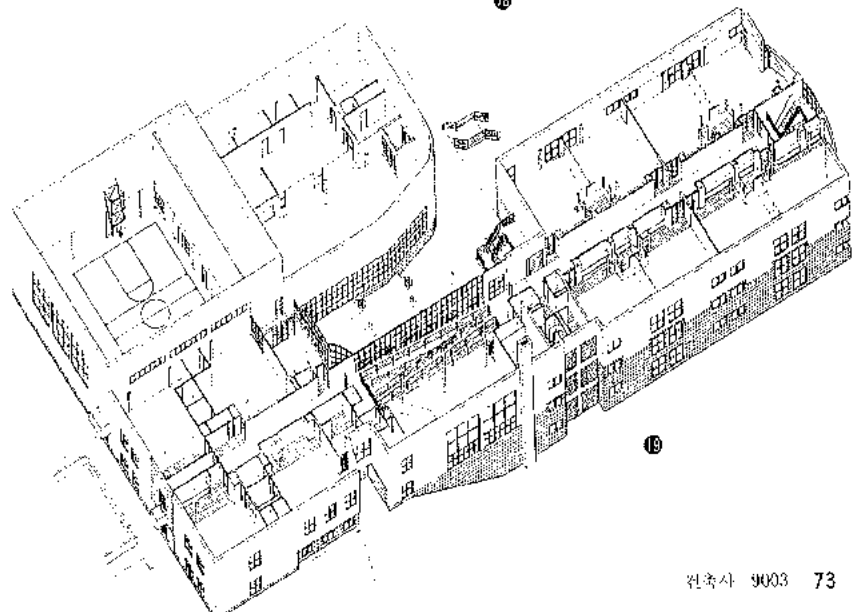
필요는 있다.” 물론 두가지 흐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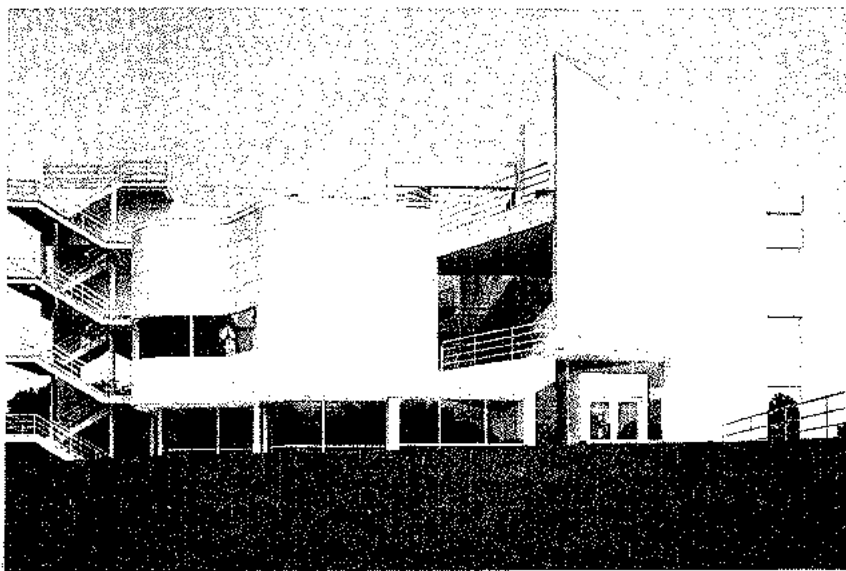
e. 근대건축운동의 자체이미지

1938년 월터 그로피우스가 하버드대학 건축학과장이 되면서, 대학도서관에서 역사에 관한 책을 치우기로 한 것은, 아마도 모던건축운동의 여러 다른 경향을 하나로 묶게된 일반적 상황을 보여준 사건일 것이다. 집착하느라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흥미를 높게 일으키기 위한 교훈적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건축은 실제로 새로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행동이었다. 고대 그리스 사대이래 전통에 대해 그렇게 급진적 단절은 일어나지 않았다. 건축가에게는 로마국제에서부터, 르네상스,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또 근대건축운동에 이르기까지, 건물이 어떠한 이론적 토대 위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패러다임(Paradigm)¹⁶으로 사용키 위한 樣式概念이 그 결과로서 만들어졌다.



- ⑬ 프레도니아대학 교육관의 5요소분석
- ⑭ 모형사진-근경
- ⑮ 모형사진-원경
- ⑯ 클리프티 클리크 국민학교
- ⑰ 국민학교 내부 모습





⑩

모더니즘은 그 자체는 과거를 모델로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며, 정말로 과거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없다. 모더니즘은 자체의 기준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여지껏 우리가 믿어 온 기준들은 그로피우스나 르 꼬르뷔제 때문에 타당했던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 디스타일(De Stijl) 그룹이나, 이탈리아 미래파, 러시아의 구성주의자들의 것이기도 했다.

시작에서부터, 자체의 기준을 발전시켜야 하는 필요 때문에, 근대건축운동은 다양하고 폭넓은 참고사례가 필요했다. 그러나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대신, 과거의 모든 건축운동과는 구별지어지는 형태로 통일된 것은 의문사항이다.

1. 새로운 기준

역사적인 先例들은 제외하면서, 아방가르드 근대주의자들은 역사적인 근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하학이나 자연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을 찾고자 했다. 르 꼬르뷔제의 '빛 아래에서의 순수한 형태'는 사각형, 육면체, 구 등의 체적을 다루어 추출된 것이다. 그것은 '樣式과 裝飾'을 타나내는 것이 아니며, 근원적인 상태로의 회귀였다. 역사로 귀환 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뛰어넘어, 순수한 형태 속에서 건축의 궁극적 가원으로 향한 것이다. 바우하우스를 포함하여 르 꼬르뷔제와 '백색'모더니즘의 여러 건축가들이 그들의 새로운 기준을 찾은 것은 바로 이러한 형태들—기술에서가 아니라—로부터였다. 어쨌든 그 형태들은 새로운 건축을 위해 유효한 바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가들이 채택했을 때, 큰 몫을 담당하기조차 했다.

1924년 초에, 『造型的 建築을 향하여』라는 책을 쓴, 테오 반 도스부르크는 건축가들에게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라, 형태를 이루게 하는 표면의 도형으로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형태, 고정된 형이라는 의미에서의 형태개념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건축 및 크게 보아 예술 전반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서 필연적이다.”¹⁰⁾

그리고 비록 네덜란드의 디 스타일 건축운동이 바우하우스와 근접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순수형태의

표면을 분할하여 건물을 세웠다.(예를 들어, 우트레히트에 있는, 리이트벨트가 설계한 슈뢰더 주택의 경우가 그렇다.) 그들은 분명히 다원주의가 정착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g. 독일의 표현주의와 소련의 혁명적 건축

루카르트형제나 부르노 다우트 같은 건축가들이 속하는 베를린 표현주의 학파는, 출발에서부터 그 시각이 달랐다. 1차세계대전이 끝나자, 그들은 형태를 빚어내는 것을 제거한 건축을 주창하고 있었다. 그러나 르 꼬르뷔제와 그로피우스와는 다르게 그들은 입체기하학에서가 아니라 자연적 광물의 형태 속에서 건축의 개혁을 위한 모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수정같은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건물은 수정과 같은 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믿었다.

소련의 혁명적 건축에 관한 첫번째 책자는, 1919년 경에 이루어진 계획안들을 싣고 있다. 이것은 큐비즘, 미래주의 뿐만 아니라, 베를린예술가회의(예술자문위원회)의 표현주의에도 가까운 것들이었다. 어쨌든, 소련은 자신만의 독특한 모더니즘 형태로 빠져들었다. 이젤레오프, 둠브로프스키는 입체파, 미래파 또는 표현주의파의 작품을 하는 동안에, 타틀린은 그의 첫 구성주의 작품으로 제3세계기념탑을 싣고 있다. 이 작품으로 인해, 건축에서의 공학의 19세기 전통이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타틀린의 작품은 — 빅토리아식 철도교량이나 에펠탑을 회고케 하는 — 레닌시대의 소련의 건축을 결정케 만든 공학적 패러다임을 발전시켰다. 이 형태의 새로움이나 전진적 형태는 혁명시대의 성향에 맞는 것으로 여겨졌다.

스탈린시대에 이르러 구성주의의 가능성은 신교전주의에 밀려났다. 오늘날 램 쿨하스, 자하 하니드 로부터 피터 쿡, 구스타프 파이할에 이르는 계열의 건축가들은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참조하여 만연된 모더니즘에 새로운 활력을 주사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다시 나타난 '뉴욕화이브'의 '백색' 모더니즘보다는, 별로 사용되지 못한 형태와 상징의 어휘는 확실히 신선해 보인다.

물론, 서구의 구성주의는 소련의 구성주의와는 구별된다. 즉, 지오데식 돔을 사용하는 빅민스티 풀러, 3차원 프레임을 사용하는 콘라트 박스만, 텐트구조의 프라이 오토, 아키그램의 유토피아, 최근의 노만 포스터와 리차드 로저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

크로츠는 새로운 흐름으로 구성주의(또는 構築)의 흐름이 있고, 이것은 산업시대 이래로 염연히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뉴욕화이브들은 그저

⑩ 뉴하모니 건물 전경
⑪ 브리지포트센터 엑소노메트릭
⑫ 모형사진
⑬ 모형사진

백색의 모더니즘을 재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 NEW YORK FIVE

대부분의 평자들은 마이어를 뉴욕화이트나 르 꼬르뷔제와 연관을 시킨다. 마이어의 작품은 아이젠만과 뉴욕화이트를 위으면서, 오랜기간 동안의 친교를 통해 태어난 작품으로 보고 있다. 즉 뉴욕화이트로부터 개인적 스타일을 출발시켰다고 본다.²⁴

마이어는 마이클 그레이스를 알고 있었는데, 그레이스는 1963년에 스튜디오를 같이 사용했고, 그레이스도 회화를 그렸다. 마이어와 그레이스는 뉴욕 10번가에서 스튜디오를 같이 사용했다. 후에 마이어와 그레이스는 프린스턴에서 1년간 같이 강의를 했다. 1964년 아이젠만이 프린스턴에 왔고, 그레이스와 같이 강의를 했다. 당시 마이어는 헤이덕이 있는 쿠퍼 유니온에서 가르키고 있었다. 그뒤 파쓰미가 프린스턴에서 강의를 했고 쿠퍼유니온에서도 강의를 했다. 그리고 헤이덕과 마이어는 오랜 친구였다. 아이젠만과 마이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아이젠만이 코넬에 있을 때 (마이어보다 몇년 먼저 왔는데) 마이어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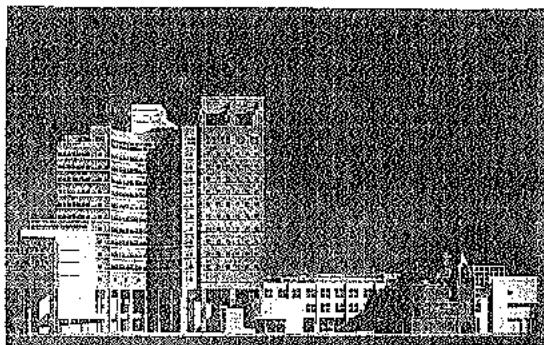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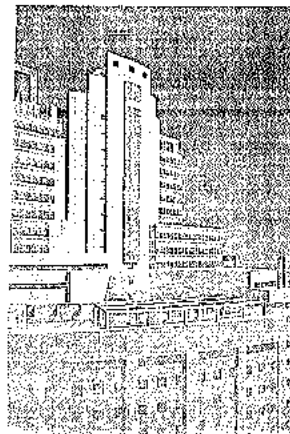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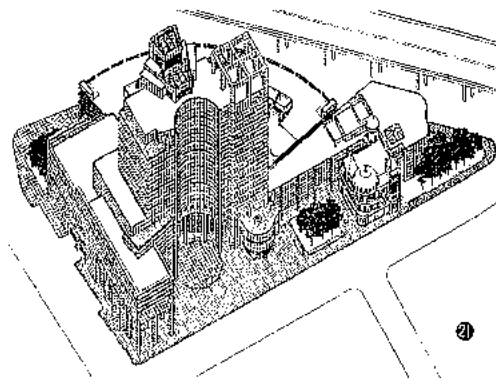
뉴욕화이트를 만들게 한 사람은 켄케스의 변함인데, 다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뉴욕에서 비슷한 생각으로 설계를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했을 상황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각자 나름대로 작품을 표현했는데, 그룹으로 보였고, 그룹이 되어버렸다.

“건축가는 각자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에 따라 설계할 뿐이며, 그래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뉴욕화이트』는 대부분 출판매체가 지어낸 가공의 이야기이다. 뉴욕화이트란 같이 심포지움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며, 각자 또는 모두가 좋은 토론을 했거나 했었다.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었다. 레이프는 사라졌다가 책자로 다시 나타났다. 작은 책자는 점점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책이 되었다. 이 책은 다소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출판매체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목을 받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만한 책은 아니었다. 별뜻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보였다가 아마도 지금은 전혀 존재치 않는 가장 보편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었다.

다섯명 누구나 말하기를 ‘아, 나는 그 그룹이 아냐, 나는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아.’

불행하게도, 원래 친구사이였는데도, 그런 이유로, 오늘날, 다섯명은 서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게 세상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그런 결과로서 생겨났는데, 또다른 그룹들이 건축적으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사진을 일으켰거나 만들고 있다. 나에게서는 정말로 대단히 흥미없는 일이다.”²⁵

그뒤 일본잡지 A + U 가 만든 ‘화이트’와 ‘그레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마이어는 가공의 개념임을 지적했다.

4. 마이어에 대한 견해

작은 기인, 그는 부분적인 요소들을 전체의 틀안에 하나로 묶는 작업을 통해 나름대로의 건축세계로 소화해냈다. 이에 대해 필자가 물어본 것이다. 그러나 그 출발은 조심스러웠다. 작은 주택의 설계로부터, 최근의 도시설계에 이르는 과정도 그러했고, 여러 미술관의 설계를 통해 깊이있는 공간연출을 하며, 또 접시나 의자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솜씨를 지니고 있는 리차드 마이어.

라이트의 낙수장을 모방해 그의 부모님을 위한



주택을 설계하고 난 후, 실망을 겪고나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코르뷔제의 슈타인주택의 공간배열원칙을 도입한다. 이로부터 그는 많은 주택을 통해, 자신만의 방법론을 마련해 간다. 기능에 의한 공적, 사적공간의 대비, 재료의 투과여부에 따른 변화로서 대규모의 유리나 격자창을 이용한 건축적인 투명성의 연출을 한다. 더우기 계단 하나에도 십여차례 이상 설득하는 노력과 끈기를 지니고.

그에게 영향을 준 건축가들로 마이어는 르 코르뷔제, 라이트, 알토, 부르셀레스키, 보로미니, 브라만테 등 모든 선배 건축가들이 각기 다른 때에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마이어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에게 뉴욕화이트나 1920년대의 르 코르뷔제에 얽혀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는 마이어다. 다른 누가 아닌. 5명의 건축가로서 시작할 때, 비슷한 면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미 파르미/시절과도 다르다. 이미 독자적인 작품세계와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유럽에서 여행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을 때부터 마음속으로는 어떤 결심과 포부가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형태적 근원들을 스스로 개발한 마이어. 건축가가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형태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건축가가 의식 속에 어떤 세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작품이 일관된 형태를 지니고, 건축 재료나 공법등이 일관된 흐름을 지니고 있다. 매스가 작게 처리된 단일 건물이나 여러개의 건물로 나누고, 덩어리가 커질 때는 그 내부에 아트리움을 두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아트리움으로 사람을 모으고 있다. 도시내의 건물에 이르러서는 아트리움이 아닌, 두건물의 벽면을 이용한 대형의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건축공간내를 의도에 따라 걸어나다게 만든다. 때로는 불필요할 만큼 긴 램프를 따라 움직이는 관객에게 그가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은 건축의 아름다움이다. 한적한 곳에서는 자연을 향하거나, 수목을 향하게 한다. 도시의 밀집공간에서는 인간끼리 마주보도록 공간을 꾸며 준다. 단조롭지 않도록 하면서, 유럽내에서 의미있는 설계경기에서의 마이어의 당선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역사와 인간에게 투철하고 확고한 건축가만이, 문화와 사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자신의 작품 속에 융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건축운동은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다. 그래도 근대운동은 건축에서 광범위한 공헌을 하였다. 근대건축운동의 학파들은 이탈리아, 미래파의 공학,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한 도시체계, 네덜란드의 디 스타일 그룹, 프랑스의

입체파, 소련의 합리주의자, 구성주의자, 독일의 바우하우스, 기능주의, 미국의 설리반, 라이트등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 많은 흐름중에 적은 부분이 그들과 우리의 시대에 품미해 왔다. 그 결과에 우리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 권한도 많지 않으면서, 변명삼아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 사회를 병들게 한것은 건축가가 아니라고. 우리가 많은 시민이 원하는 것을, 건축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짓지 못하는 것의 책임은 우리 사회에 있다.

우리는 책임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책임의 일부만을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 산업시대를 맞이하며, 인간과 사회조건에 맞는 건축이 어떤 것인지 모색을 해야할 시점에 그들은 무엇을 고민했는지? 우리가 바라보며 쫓아가던 상대인 그들이 다시 모더니즘을 되새기고 있다. 이때야 말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한국의 건축가로서, 기나긴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살펴야 할 때다. 우리도 다시 한번, 모던건축의 근원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러기 위해 우리의 정신은 그리스, 로마로 가야할 것이다. 그 벌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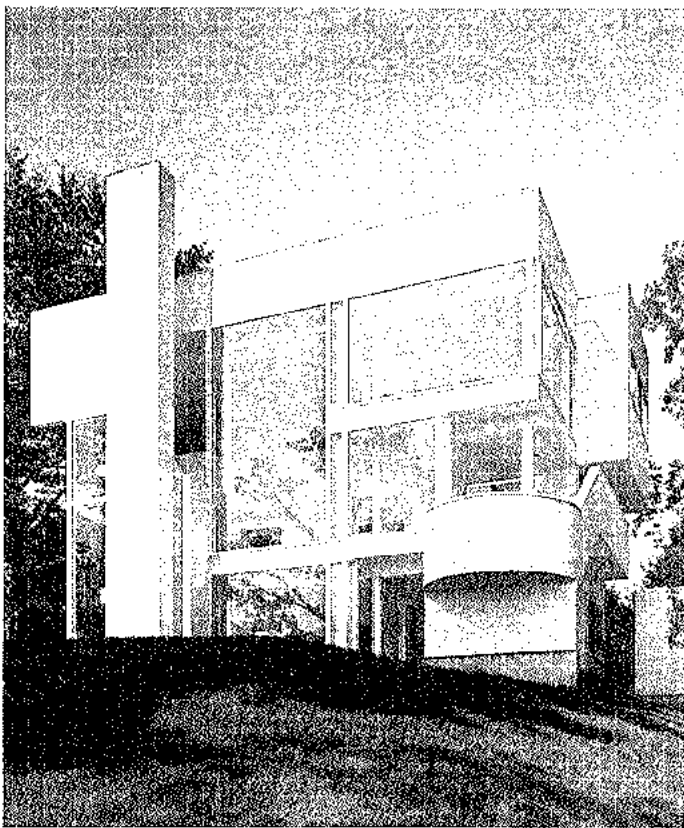
아니, 실크로드나 만주 벌판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건축은 아시아에서 시작됐고, 그리스에서 흘러넘쳤고, 이탈리아로 건너와서 완벽한 것이 되었다.”²⁶⁾

이 말은 알베르티가 자신의 建築十書에서 한 말이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와는 다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닐 것이다. 직접적이건, 간접적인 유산이건 우리에게 전해진 인간의 건축유산은 얼마나 우리가 알고 닦느냐에 우리건축의 생명력이 달려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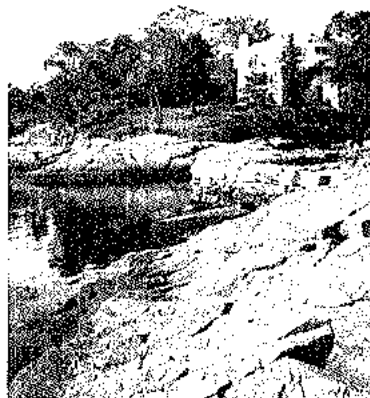
5. 활동과 작품²⁶⁾

리처드 마이어는 1934년 10월 12일, 뉴저지주 뉴아크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에 그는 항상 건축가가 되기를 원했으며, 그것은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이 계기가 된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대학에 들어가면 건축을 공부하기로 하고 코넬대학과 M. I. T 에 지원했다. 동시에 두 대학에서 입학허가가 났으나, 그는 코넬대학에서 건축공부를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인 M. I. T 를 다녔기 때문이었다. 마이어의 아버지는 공학쪽으로 편중된 M. I. T 에서 공부해서 엔지니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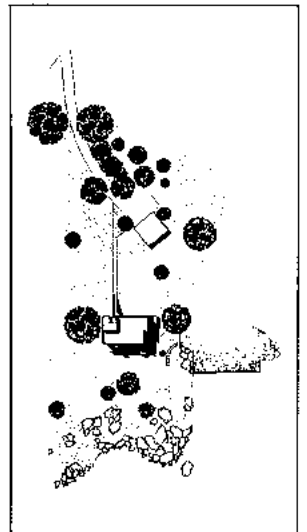
당시 마이어는 건축을 자세히 몰랐지만, 공학보다는 디자인에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코넬대학에서 공부했다. 당시 코넬대학에는 토마스



㉔



㉕



㉖

캔필드교수와 여러명의 교환교수들이 있었으며, 마이어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콜린 로우가 이 대학에 왔고 후에 로우의 영향이 지대한 학교가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넬은 강력한 흐름이 지배하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대학이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었다. 마이어는 회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이어는 고등학교시절부터 피터 아이젠만을 알고 있었다.

도제기간으로 보면 기간은 모두 5년여 기간 동안이었다.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는 마이어는 바보스러웠으며, 미국내에서 설계를 하며 살아나기 어려워 보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스미스하우스를 완성한 1966년 이후, 10년 동안 그의 성공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에게 성공이 있게 한 근원적인 힘은, 건축을 찾아 여행한 6개월의 기간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1957년 코넬대학을 졸업하고(B.A.), 1959년 1년동안 데이비스, 브로디 & 위스나에스키 사무소에 근무하였다.

프랑크 스텔라의 스승인 스티브 그린에게 회화를 배웠다. 그후 프랑크스텔라를 만나 스튜디오를 같이 사용했다. 스승을 같이 보셨으므로 수업후에 자주 맥주를 마셨다. 마이어가 일을 해야할 장소가 필요했을 때, 스텔라는, “내 스튜디오로 와, 자리가 비었으니까”하고 말했다. 그곳에서 마이어는 회화를 시작했다. 스텔라는 점점 더 큰 대형화폭을 그리기 시작했고, 스튜디오가 좁아졌다. 마이어도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므로 스튜디오를 독자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었다.

마이어는 낮에는 건축가로, 밤에는 화가로 활동했다. 얼마후 마이어는 화가와 건축가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고 깨달았다. 그래서 회화를 그만 두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마이어가 프란츠 클라인이나 디 쿠닝 같은 미국 추상표현파 화가류의 회화를 그렸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쿠닝이 마이어의 스튜디오로 찾아왔다. 작업을 위해 벽에 걸려있는 5X7, 6X8피트의 작품을 둘러보며 걸어 나갔다. 그리고 아무말 없이 나갔다. 마이어는…… 쿠닝은 마이어가 존경하기도 했고, 또 상당히 중요한 미국 화가였다. 마이어는 자신의 작품 앞에 서서, “아무리 해봐야, 쿠닝을 따를 수는 없다…”

그리고 회화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풀라쥬를 시작했다. 이것은 마이어가 전시회를 위한 것이 아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창작활동이었다. 당시 마이어의 풀라쥬는 취미 이상의, 심각한 것이었는데, 6개월간 작업을 했다. 심했을 때는 한자리에서 3개월간 20개의 풀라쥬작품을 그려 냈다. 그러나 산발적이었으며 계속 되지는 않는다.

대학 졸업하고, 설계 사무소에 다니며 그림을 그리던 생활을 청산하고 유럽을 6개월간 여행을 하기로 했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를 여행했다. 여기저기 구경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일할 기회를 얻고자 했다. 여행을 하며, 대학시절의 작품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들고 다니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일을 할 수 없는가 하고 물었다. 일을 하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는, 감사하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계속 옮겨다니다가, 파리의 르 꼬르뷔제 사무실을 찾아갔다.

1959년 당시 “브라질 집합주택”이 파리에 개관된 시점이었다. 마이어가 그의 사무실을 들어가려 했으나, 직원들이 거절했다. 그들은 꼬르뷔제가 개관기념식에 참석하러 갔고, 그는 미국인은

㉔ 기구디자인-의자

㉕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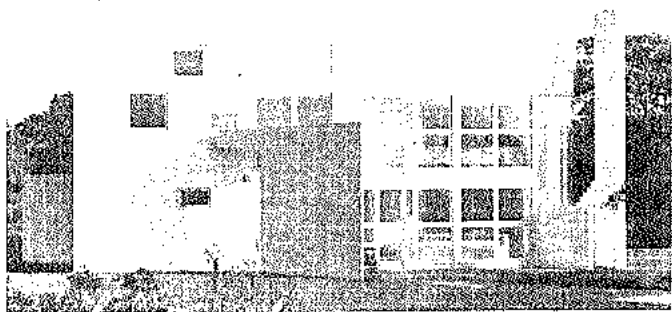
㉖ 침대

㉗ 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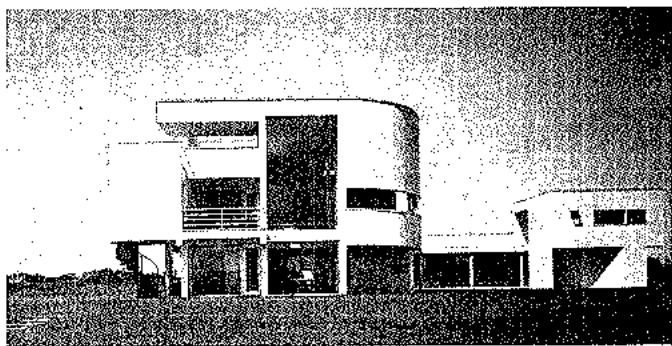
㉘ 목재로 된 스미스주택

㉙ 주위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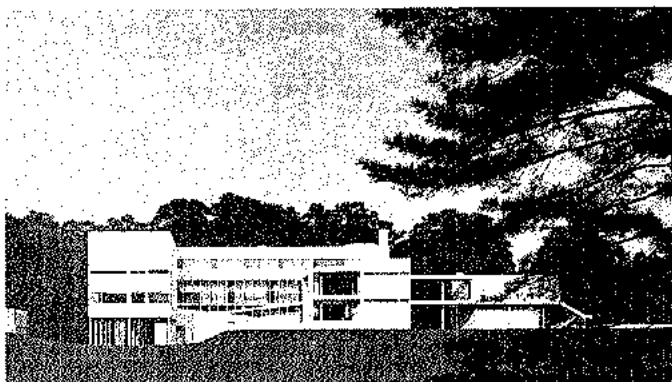
㉚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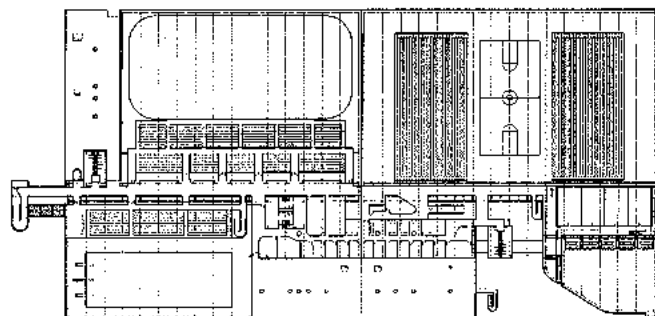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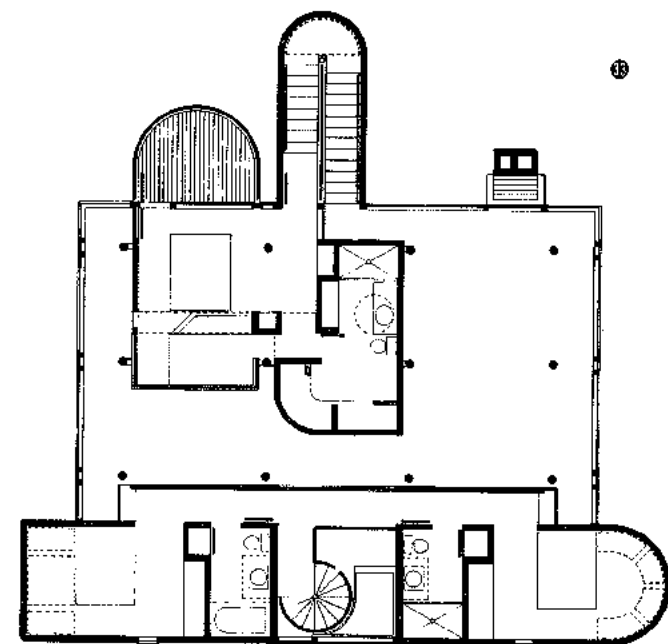
32



3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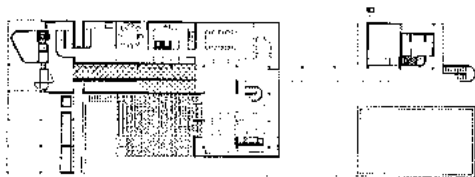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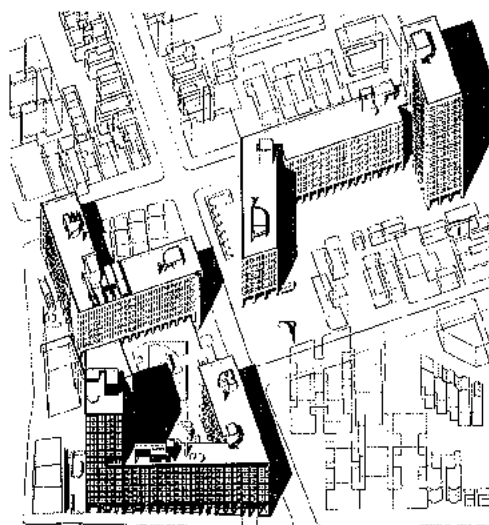
취업시키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마이어는 개관식에 찾아가서 르 꼬르뷔제를 만났다. 르 꼬르뷔제가 미국인을 싫어하게 된 사건이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과거에 국제연맹설계경기에서 꼬르뷔제는 규정으로 잉크를 사용하지 않아 실격되었고, 그를 누락시킨 것은 미국인이었다. 후에 설계를 하기로 한 국제연합 (UN) 빌딩에서는 그가 그린 스케치북은 분실되었고, 설계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에게 돌아갔다. 또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꼬르뷔제의 회화작품전을 열고자 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후에 파리 유네스코건물의 설계자가 되려고 했으나 미국인에게 설계가 의뢰됐다. 꼬르뷔제 자신이 획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중요한 기회가 항상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그 건물의 설계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 역사를 알게 되면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과 이유로서 꼬르뷔제는 그의 사무실에 미국인을 들이지 않았다. 샤프드라히 우즈 (Shadrach Woods) 이후에는 한사람도 들어올 수 없었다.

마이어는 꼬르뷔제를 만났다. 꼬르뷔제의 영어가 마이어의 시원찮은 불어보다 나았기 때문에, 둘은 영어로 이야기 했다. 유익한 토론을 했다고 마이어는 회고한다. 프랑스에서는 꼬르뷔제의 작품을 보았다. 파리를 떠나 핀란드에 가서 알토를 만나 보았다. 한달간 핀란드를 여행했다. 6개월간에 여행은 마이어에게 심오한 영향을 주었다. 건축을 배우고 있던 젊은 나이의 마이어에게 꼬르뷔제, 그리스, 아테네, 크레타섬,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영국등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영향이 심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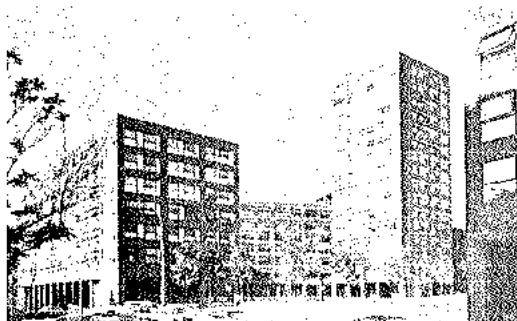


46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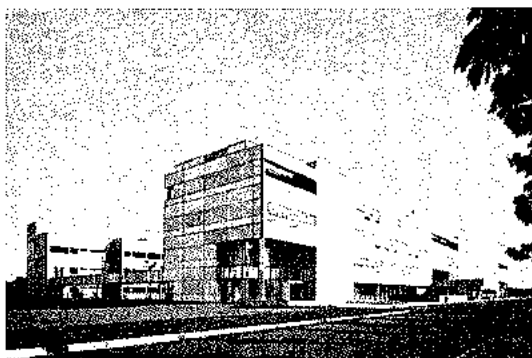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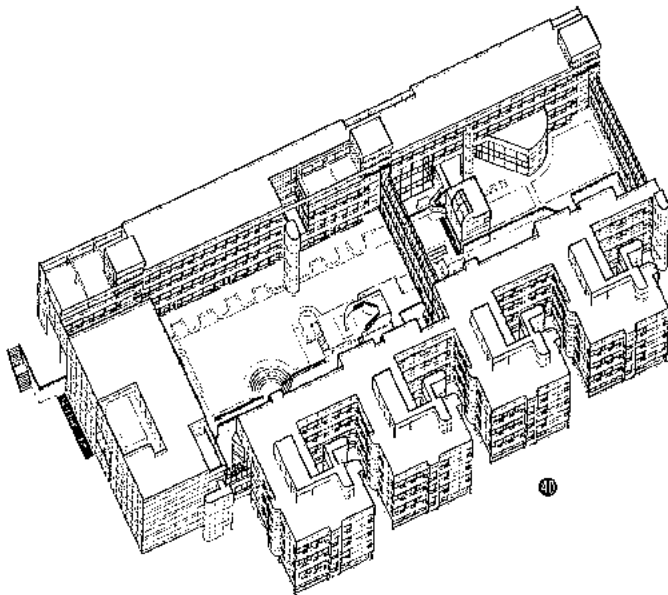
많은 여행 끝에 마이어는 뉴욕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여행 6개월만에 뉴욕으로 와서 사무실을 열 생각을 했다. 유럽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르셀 브로이어의 사무실에 취업신청을 했으나, 로마에서 회신 받기를 “사무실을 새로 여는데, 오겠느냐”고 제의를 받았다.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아직 브로이어가 사무실을 열지 않아서, SOM 뉴욕사무소에서 6개월간 고든 번사프트 밑에서 근무하였다. 그때 예일대학교서관을 설계하였다. ○바로 브로이어의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SOM 을 떠나 브로이어에게 갔다. 그 뒤 3년간 마르셀 브로이어에게 사사받았다. 마이어에게 브로이어의 당시의 초기작품은 유럽의 스케일과 미국의 기술이 균형이 잡힌 것으로 보였다. ○램버트 휴양주택을 설계. 1963년 마이어는 29세의 나이로 뉴욕에 자신의 아파트에 사무소를 세웠다. 이때부터 쿠퍼 유니온에서 1966년까지 출강하고, 프린스턴 대학에 초빙비평자로 출강. ○부모님을 위한 주택을 설계(1965, 팔호안의 숫자는 완성년도) ○“최근의 미국 유대교회 건축”전시회 참가 1964년 ○시라큐스대학에 초청비평가로 활동.



48

○ AR 잡지의 우수주택건축상 수상.
○프랑크 스텔라와 프랭클린 기념분수 설계경기 참가.
○닷선 주택설계(1966)
○렌필드 주택개조계획(1966)
1965년
○플랫건축대학에 초청비평가로 활동
○소나상점 계획(1967)
○친구인 화가 스텔라를 위해 스튜디오와 아파트를 개조한 계획.
○스미스 주택.(1967) 철제 내부기둥이 있는 백색의 목조주택으로, 콘크리트로 된 것 같이 보인다. 거실에서 코네티컷 해변가, 주위경치와 함께 벽난로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벽돌로 된 벽난로를 외부에 돌출시켰다. 간접구를 지나면 거실로 들어서며 벽난로를 마주 보게 되고, 상부는 2층이 오픈되어 있다. 다른 주택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기본형이다. (사진 28 ~ 30)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 대학예술센터, 존 헤이덕과 로버트 슬루츠키와 함께 설계경기 참가. 1966년
○쿠퍼 유니온 대학에서 조교수로 활동(1969년까지)
○호프만주택.(1967) 2개의 직사각형이 45도로 교차한 그리드위에 주택을 구성하였다. 벽난로는 외부로 돌출. (사진 31)
○정신요양원 설계.
○스텔라를 위한 갤러리 개조계획.
1967년
○예일대학에 초청비평가로 활동
○웨스트베스 예술가 공동주택.(1970)저층갤러리에는 필름, 사진, 무용 스튜디오가 있고, 기준층은 너자 형태의 증복도로 되어 있다. 주민이 계획에 참여한 작품.
○살츠만주택.(1969) 손님용 방이 별도의 메스로 구성되어 브리지로 연결된 건물(사진 32)
1968년
○ AR 우수주택상 수상
○ AIA 뉴잉글랜드 지부, 뉴욕시 지부로부터

- ④ 호프만주택
- ⑤ 살츠만주택
- ⑥ 프레도니아 교육관 2층평면도
- ⑦ 파운드 리지 주택 2층평면도
- ⑧ 울드 웨스트베리 주택
- ⑨ 1층평면도
- ⑩ 무원파크 공동주택
- ⑪ 무원파트 전경



주택으로 수상.

○프레도니아 주립대학 건강, 체육교육관. 건물 뒷부분에 대형 실내체육관이 2개층에 2개씩 있는 강의용 건물. 앞부분 1/3은 수영장, 중간에는 강의시설, 나머지 부분은 입구와 작은 체육관이 있다. <프로그램, 구조, 입구, 순환도, 엔클로저>등으로 분할된 다이어그램을 보면 마이어의 의도대로 건물 구성을 간단히 볼 수 있다. (사진 33)

1969년

○루퍼 유니온 대학에서 건축학과 조교수로 활동. (1973년까지)

○마이어는 AIA 상을 수상.

○찰스에반스 산업용건물. 창고와 사무실을 조화시키기 위한 계획.

○브롱스 재개발계획 연구.

○파운드 리지 주택계획안(사진 34)

○올드 웨스트베리 주택. (1971) 전원적인 분위기 속에 경사지 위에 배치된 주택은 집안 공의 공간에는 고루고루 빛을 유입하기 위해 노력했다. 철제기둥은 구조그리드에 따라 배열되고, 목제벽은 벽대로 구성된, 주택으로서는 많은 통로가 있고 시각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형태의 주택. (사진 35 ~ 36)

○먼로 발육센터. (1974)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는 발육장애자 500여명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 훈련 및 주거시설로서, 뉴욕주에서 의뢰한 시설.

○투인파크 공동주택. (1974) 슬럼화 된 지역을 바꾸기 위한 계획. 기존도시의 거리흐름을 반영하되, 거리에 연속성을 주기위해 피로티로 건물을 띄웠다.



당시, 일반적인 공동주택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진 37 ~ 38)

○로버트 영 주택.

1970년

○예루살렘 위원회 지역계획 소위원회 위원이 됨.

○저·중소득층을 위한 주거계획으로 AIA 상 수상.

○뉴욕지방 예술협회 (Municipal Art Society of New York) 상 수상

○HUD 상 수상

○브롱스 정신발육센터. (1977) 역사 면로 발육센터와 같이 뉴욕주에서 의뢰한 시설로, 750명의 정신장애 어린아이들을 수용한다. 완성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요청을 했다는 건물이다. (사진 39 ~ 41)

1971년

○주택작품으로 로마의 아메리칸 아카데미의 상을 수상.

○밀라노 토리에날레에서 6인의 미국 건축가로 선발됨.

○메이드먼 주택. (1976) 주택내장과 파사드를 개수한 계획.

○더글라스 주택. (1973) 울창한 침엽수림의 경관을 주위에 배경으로 두르고, 경사지에 우뚝서서 서쪽으로 미시간호수를 바라보고 있다. 서쪽호수에 면한 Void 부분(벽면적보다 유리나 개구부로 된 부분이 많아 개방된 公的空間)과

Solid 부분(개구부보다 벽면적이 많아 폐쇄적인 私的空間)이 완전하게 동서방향의 2개의 구획으로 구분된 5개층의 거주공간. 마이어의 모든 주택에서 나타나는 Void / Solid의 대비가 이곳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난다. (사진 42 ~ 46)

○올리베티 지점 표준계획안, 여러종류의 대지조건에 따라 파사드, 입구, 주차장을 연결시키기 용이한, 융통성있는 사무소 표준계획.

○올리베티 지점 변화계획안, 표준계획안의 규모보다 적은 오피스 표준계획.

○올리베티 연수원 기숙사계획. 지형을 따라

- ㉓ 브롱스 정신발육센터
- ㉔ 브롱스 엑소노메트릭
- ㉕ 브롱스 전경
- ㉖ 더글라스 주택
- ㉗ 매치도
- ㉘ 호수에서 본 전경
- ㉙ 북측입면도
- ㉚ 저층부평면도

파도치는 긴 건물이 끝단에서는 대지를 가로질러
기단을 드러낸 건물. 그동안 어용되어 온
직각좌표체계가 의도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계획.
기숙사의 창을 통해서만 북서방향으로 허드슨강이
보인다. 이런 배치를 하게 된 것은 굽이치는 W의
대지와 수목의 위치, 경사의 방향등의 영향을 받았다.
500명 수용의 4층규모이다. (사진 47 ~ 48)

○올리버티 본부계획. 단형으로 깊이가 변하는
사무존이 있는 오피스계획안.

1972년

○아놀드 브린너 기념상을 받음.

○이스트사이드 주거계획

○삼버그 주택(1974)

1973년

○로마 아메리칸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로마 주재
건축가가 됨. 로마에서 본 건축형태들에서 느낀 노란
빛과 풍부한 감미로움이 마이어의 감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 빌라 스트로찌 내에
현대미술관 계획, 4층의 건물중 1층을 외벽과사드를
약간 창호를 수정하고, 내부는 전혀 새롭게 높은
천정의 전시장으로 계획함(사진 49 ~ 50)

○패딩턴역 주거계획. 복합용도의 사무소계획

1974년

○콘도미니엄 주거계획

○코넬대학 학부 기숙사. 대학은 호수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골짜기에 위치하고, 기숙사는 지형적
이유로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있는 2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1975년

○스포링필드 상업건물과 호텔.



42

○윙필드 라케트 회관. 운동경기와 클럽하우스

○블래퍼 陶器스튜디오. (1978) 사무소, 도기전시장,
제작작업장이 있음.

○아테네움, 뉴하모니. 뉴 하모니라는 도시는

1815년에 조오지 램이 세웠던 공동사회가 기틀이
되어 유래된 마을로 현재에도 당시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오지 램 뒤를 이어 1825년에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평가되는 영국의 로버트
오웬(1771 ~ 1858)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뉴 하모니
마을을 재설립 했다. 후에 실패로 끝이 났다고 보고
오웬은 정치에서 손을 떼다. 사회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던 곳의 건물이므로, 건축적으로도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다. 질서를 이룬 유토피아와 무질서한 현실
사이에서의 충돌이 오웬의 팔랑스테르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이었다. 여기에 이 도시를 안내하고 그
역사를 보여주는, 여행 안내소 및 강당으로 사용되는
이 건물은 2층 전시장, 식당, 반원형극장, 3층에
전망대 등이 있다. 여행자들은 이곳에서부터 이
도시의 여행을 시작한다. (사진 51 ~ 52)

○테아트럼. 뉴 하모니, 여름철에 음악연주회용으로
세운 야외극장. 아테네움에 인접하여 와바쉬 강가에
세움.

197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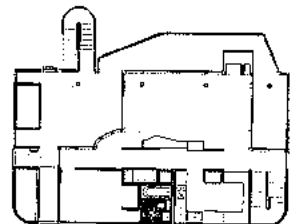
○전원주택계획을 위한 표준도면. 연립주택의 형태로
1세대로부터 4세대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전원주택용
주거계획안. (사진 53)

○『리처드 마이어, 건축가 : 건물과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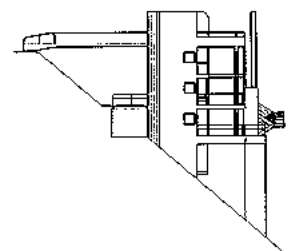
1966~1976』를 옥스포드 대학출판부에서 발행,
케네스 프랜튼의 서문과 존 헤이덕의 후기가 있다.

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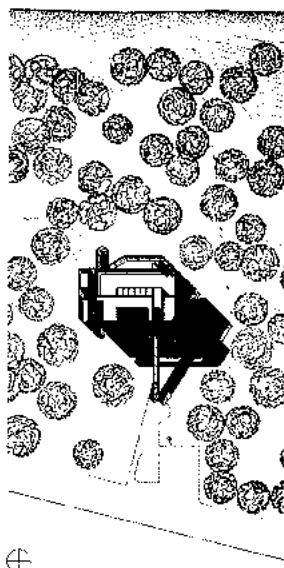
○에일대학, 하바드대학 초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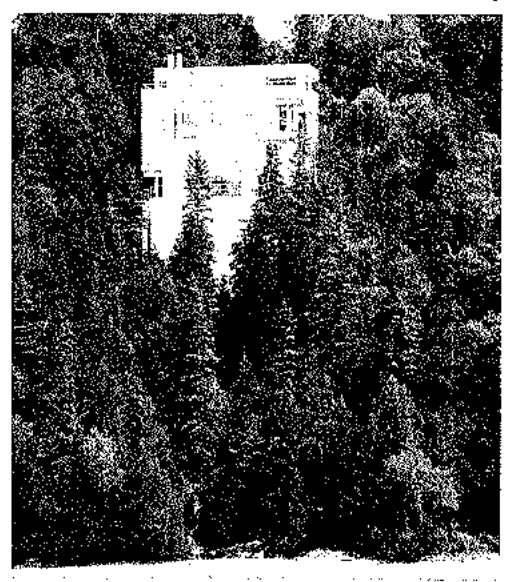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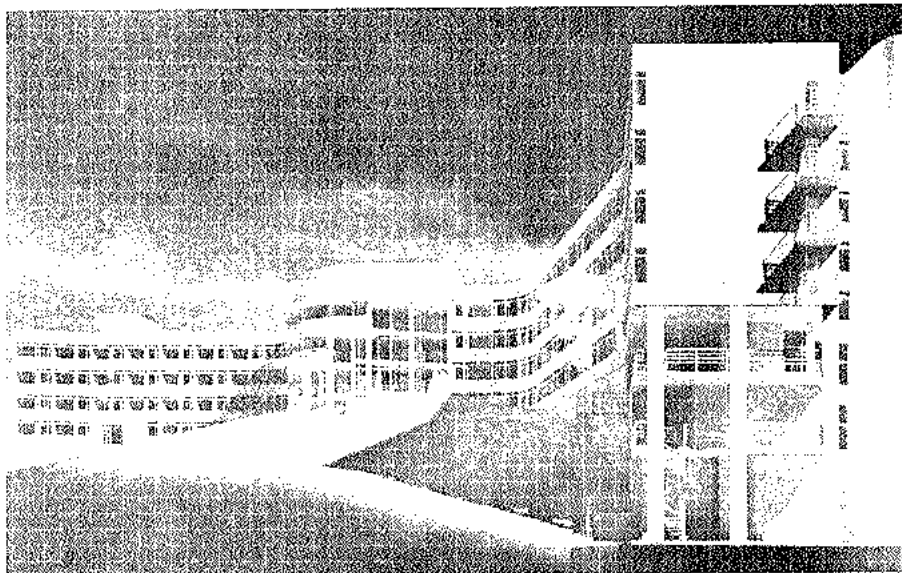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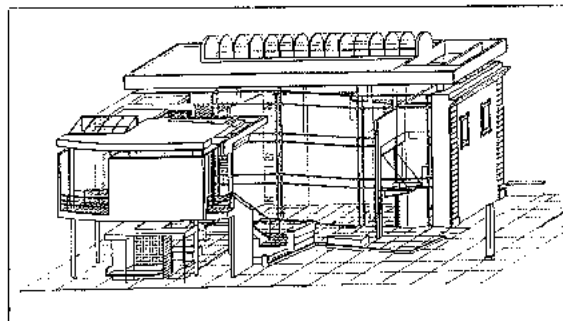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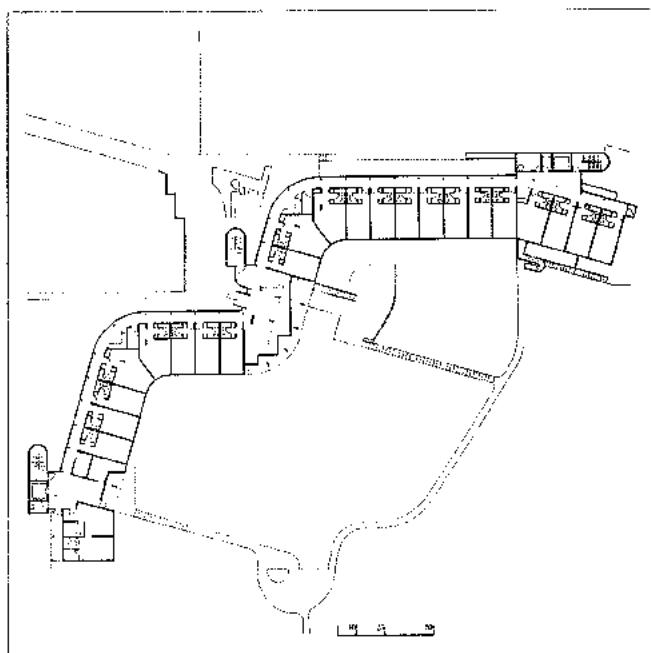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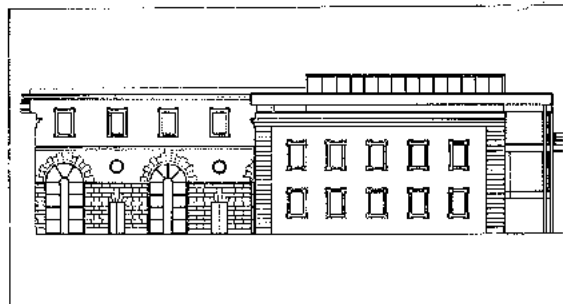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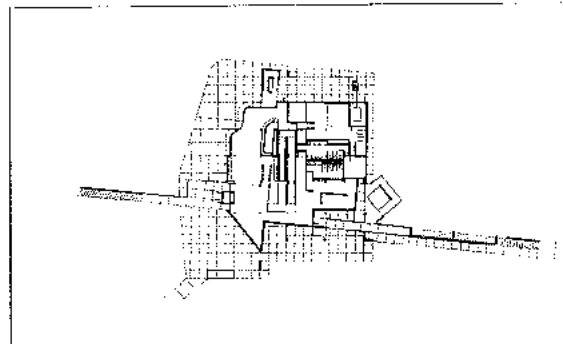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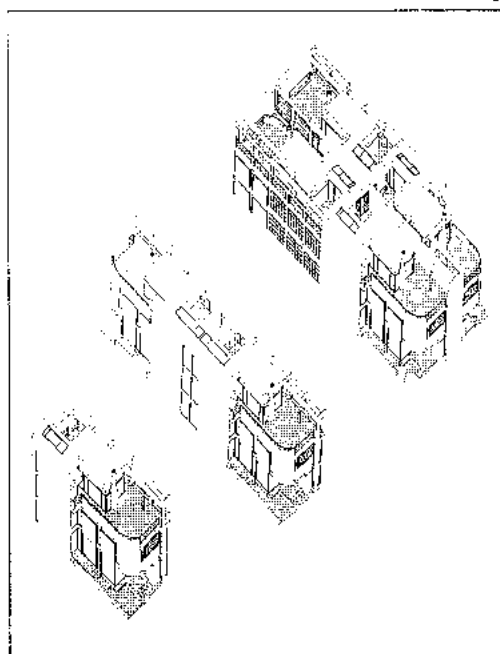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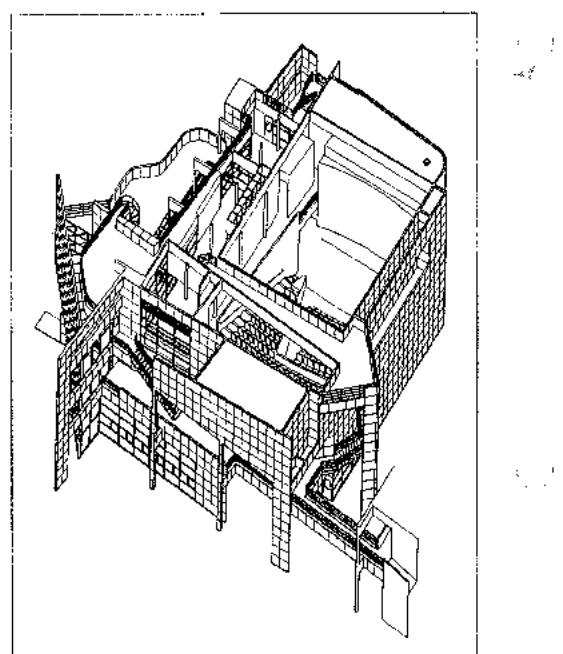
51



52



53



54

- ① 올리베티 연수원 평면도
- ② 모형
- ③ 스트로쨌 미술관 내부투시도
- ④ 스트로쨌 남동측입면도
- ⑤ 아테네움 1층평면도
- ⑥ 엑소메트릭
- ⑦ 전원주택 유닛의 조합
- ⑧ 전시장내부
- ⑨ 필비치주택

○국립디자인 아카데미 회원.

○레이놀즈기념상수상, AR 우수디자인상 수상.

○10월 8일, 뉴욕 주립미술관에서 열린 회화, 조각등 작품전시를 목적으로 개관한 『뉴욕학과 전시회』 전시장 계획. 24m의 긴 전시벽면과 이를 관통한 낮은 높이의 캐노피가 시각적인 방향성을 주는 작품. (사진 54)

○팜비치 주택. (1979) 公의空間과 私의空間으로 완전한 대비가 견고한 벽면을 경계로 하여, 동측으로 주택 바깥쪽 입구와 안쪽 정원과 워스호수로 나누고 있다. 더우기 公的/私的 空間의 대비가 건축재료를 이용하여 구분된다. 스티코와 에나멜을 입힌 금속패널을 사용했다. 격인면과 격인지붕으로 된 거실은 유리로 개방되었다. (사진 55)

○맨체스터 도시센터 계획안. 쇼핑 몰, 호텔, 오피스등이 포함된 도심지 재개발계획중 첫단계로 남측과 서측에 있는 전시장, 체육관이 들어서는 계획.

○구겐하임 미술관 내, 아이 사이몬 독서실 실내장식. (1978) 기존 구겐하임미술관의 창고와 종업원 식당으로 쓰이던 곳을 독서실로 개조. 라이트의 작품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의 모티브를 살려 살내를 곡선과 곡면으로 처리한 것이 특징. (사진 56)

○노을 국제회사를 위한 가구설계. 마이어가 처음으로 의자설계를 한 것은 구겐하임 독서실을 위해서였다. 라이트도 설계한 건물의 형태요소를 이용한 가구를 직접 설계한 경우가 많았다. 노을 인터내셔널을 위해 여러종류의 가구를 설계했다.

1978년

○AIA 주거설계상 수상

○클리프티 클리크 국민학교 설계. (1982) 저학년은 아래층에, 중별로 2개학년씩 3개층에 배치하고, 도서관과는 램프동 교통공간으로 분리되고, 남측은 체육관과 식당이 있다.

○하트포드神學校. (1981) 미이스의 건물은 외관만으로는 그 용도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역시 마이어의 신학교도 흰색교도 흰색의 자기질패널의 외형적 이미지는 순수한 곳이라는 것과 입구 위에 설치된 창틀의 그리드가 유난히 넓은 부분에 나타난 십자 창틀만이 종교와 관련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건물 내외부 곳곳에서 느껴지는 빛과의 대화가 이곳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사진 57 ~ 58)

1979년

○미국예술연맹과 국립 디자인 아카데미 회원으로 피선.

○지오반나미 주택. (1983) 프라이버시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경사지 주택. 철제패널 위 에나멜과

스티코로 私의공간을 구성하고, 公의공간을 유리와 철제 프레임을 이용하여 구성했다. 기하학적 분화를 통한 형태의 입방체가 두드러진다. (사진 59)

○서독,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장식미술관. (1984) 기존의 미술관으로 이용되며 장식미술품을 전시해 온 19세기 신고전양식의 빌라 메츨러 (Villa Metzler) 을 그대로 두고, 이곳에서부터 연결한 새로운 전시장은 크게 3덩이리로 나뉘어 설계하였다.

1980년

○하바드 대학 초청평론가로 활동

○AIA 뉴욕지부상 수상

○하이 미술관. (1983) 아틀란타 시내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3개의 입방체로 된 전시장이 ㄱ자형태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1/4부분이 4分圓 형태의 로비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4분원 외벽은 곡면을 이룬 램프로 로비를 감싸 아트리움을 이루고 있다. 이 아트리움을 향해 길고 완만한 램프가 입구로서 놓여져 있다.

○섬머셋 콘도미니엄, 호화 주택가가 있는 비버리 힐즈에 위치한 4층 규모의 분양아파트로, 6세대가 들어 있는 메조네트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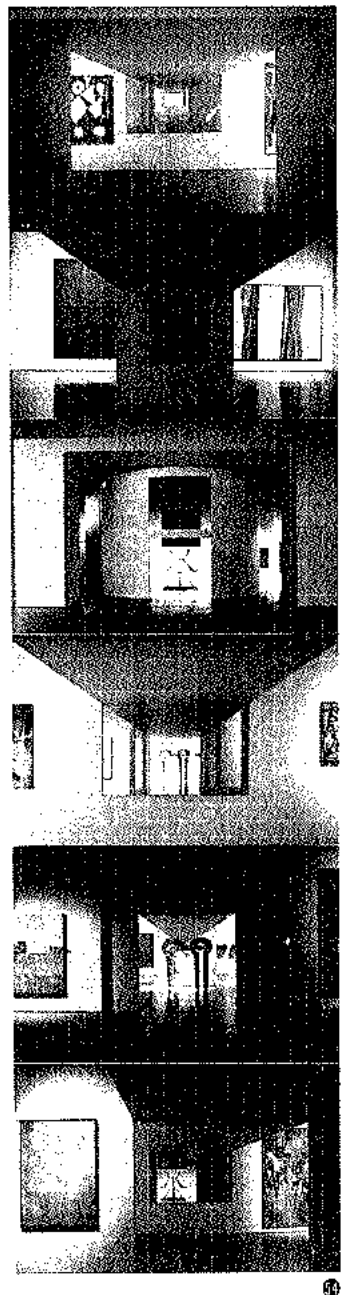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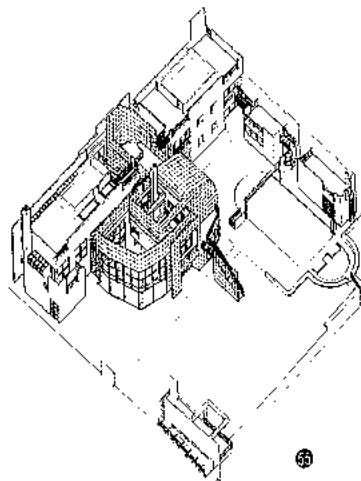
○커피토프 디자인, 프랑크 스티라와 함께 유리장식 디자인을 협동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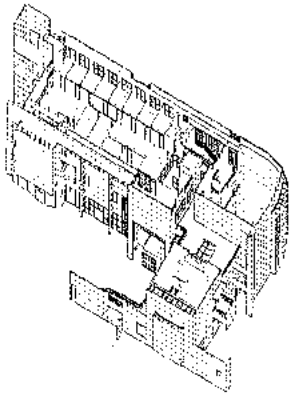
○이스트 67번가 연립주택 계획.

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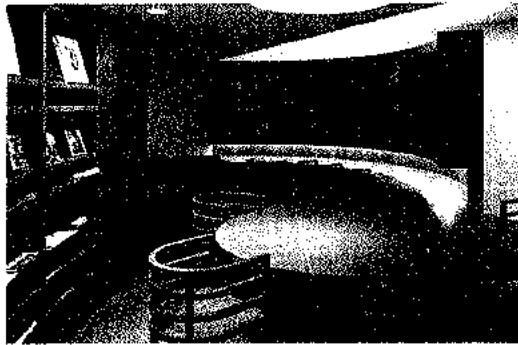
○예술연구 국제센터 위원회 회장으로 피선

○프랑스, 볼로뉴-빌랑포르, 르노 그룹본사 계획안. 모든 사무소에서 세느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려된 이 건물은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부각해야 하고, 진보된 기술개념을 표현해야 하는 과제 외에 1천4백여 직원에게 최대의 사무환경을 마련하도록 요구 받았다. 배치계획시 파리도시 질서에 맞추기 위한 8층을 넘을 수 없는 규모제한이나 배치에 관한 노력이 뒤따랐다. (사진 60 ~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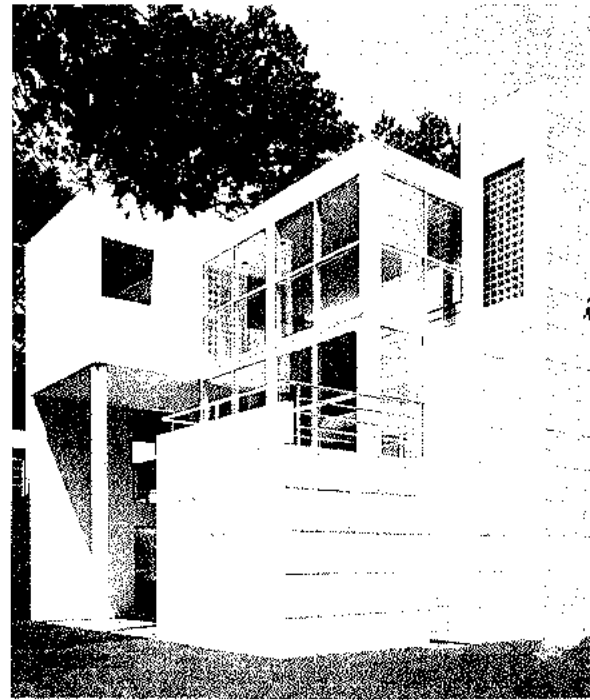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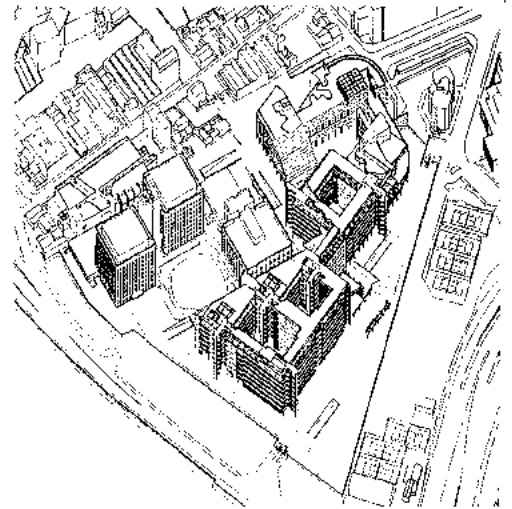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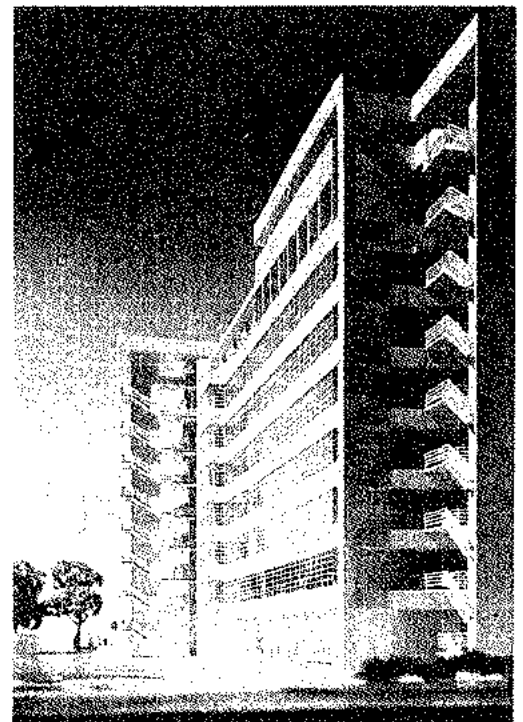
58



59



60



61

1982년

- AIA 뉴욕지부 특별건축상.
- 국제메를린 건축전 계획안. IBA 1987 에는 마이어가 참석치 않은 듯하다. IBA 책자에는 그 위치에 공원과, 다른건축가의 건물로 나타나 있다.
- 데 프완 예술회관 증축안, 엘리엘 사아린년의 설계(1948)와 이오 밍 페이의 증축(1965)에 이어 대지 북측에 마이어가 증축동을 설계함.(사진 62)
- 라 빌레르 공원 설계경기 참가.

1983년

- 헬믹 주택. 마이어의 작품으로서의 비교적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 것이 특징. 브리지는 마이어가 중요한 설계요소로 생각하는 수직동선과 함께 고려되는 수평동선의 변화이다.(사진 63)
- 미국 예술 및 문학 연구아카데미 회원으로 피선.
- 이탈리아, 튜린. 링고르공장 개조안.
- 서독, 뮌헨, 시텐스 사옥계획안.
- 파리, 바스티유오페라 설계경기참가.
- 데이블용 식기디자인.

1984

- 그로타 주택. (1988) 동서측으로 곧게 연결되는 긴석조벽의 남측에 2층까지 오픈된 거실이 반원으로 절치고, 그곳에서 수영장과 돌집이 보인다.
- 엑커버그 주택. (1986) 남부 캘리포니아 해변과 주위의 산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주택.(사진 64 ~ 65)
- 웨스트체스터 주택. (1986) 전원 위에 위치한 주택으로, 다양한 경관과 조망을 이루었다. 토속적인

- 56 독서실 내부
- 57 신학교
- 58 전경
- 59 지오반니피 주택
- 60 르노 그룹 본사
- 61 모형사진
- 62 데 프완 예술회관
- 63 헬믹주택
- 64 엑커버그 주택
- 65 배치도

재료인 석재와 유리곡면의 금속패널로

이루어짐. (사진 66)

○브리지포트 센터. (1988)

○스위드-포웰회사를 위한 식기 디자인.

○프랑스 문화상에 수여하는 문학 및 예술훈장을 수여받음

○마이어는 프리츠커(Pritzker) 건축상을 수상했다. 프리츠커 건축상은 하야트재단의 후원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건축예술을 통해 인간성과 건축환경에 의미있는 공헌을 하고, 작품을 통해 재능, 식견과 실행력을 조화시킨 생존해 있는 건축가에게 1년마다 수상하는 건축상이다. 역대수상자를 살펴보면,

1. 1979년 필립 존슨(미국)
2. 1980년 루이스 바라간(멕시코)
3. 1981년 제임스 스틸링(영국)
4. 1982년 케반 로쉬(미국)
5. 1983년 이오 밍 헤이(미국)
6. 1984년 리차드 마이어(미국)
7. 1985년 한스 홀라인(오스트리아)
8. 1986년 고트프리트 뵐(서독)
9. 1987년 겐조 당게(일본)
10. 1988년 오스카 니마이어(브라질)
11. 고든 분샤프트(미국)
12. 1889년 프랑크 게리(캐나다, 토론토 1929년생, 미국거주)

등이다. 마이어는 역대 수상자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상을 수상했다.

1986년

○V'soske 회사를 위한 織物(텍스타일) 디자인.

○클레토 무나리회사를 위한 장신구 디자인.

○이탈리아, 밀라노, 바이코카 계획안.

○이탈리아, 나폴리 재개발계획안.

○네델란드, 헤이그, 시청사와 도서관 계획.

국제설계경기에서 당선되었는데, 헬무트 얀, 렘 쿨하스 등의 유명한 건축가들도 참가했었다. 이 계획안은 프랑크푸르트 장식미술과는 다르게, 이번 계획은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한부분을 설계하는 일이었다. 마이어의 건축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는데, 도시설계를 하는 것이다. (사진 67 ~ 69)

○서독, 우름, 시의회 전시장.

○오레곤, 보건과학대학 안과센터.

1987년

○산타모니카 해변호텔.

○네델란드, 헤이그 국립투자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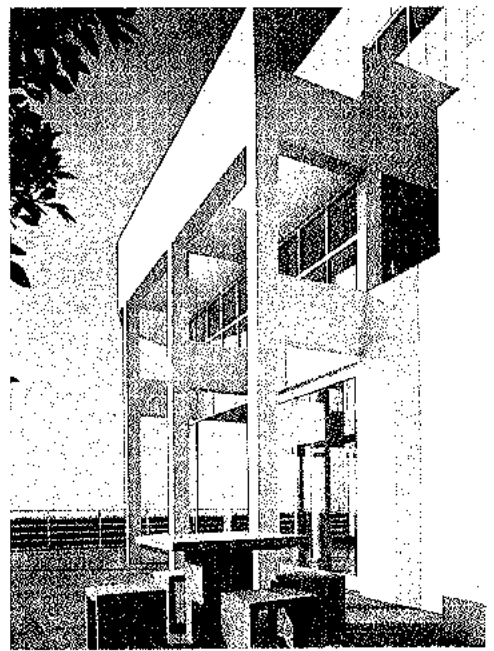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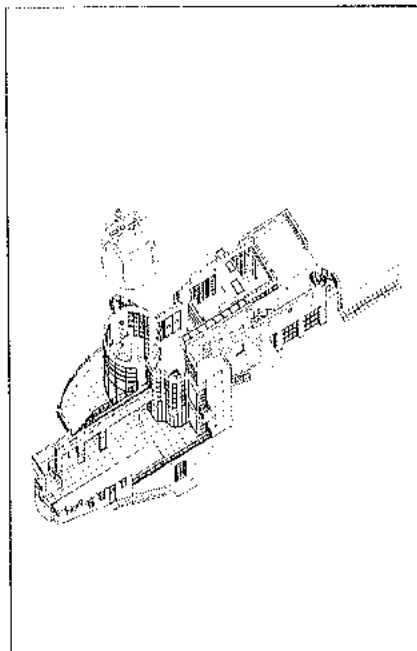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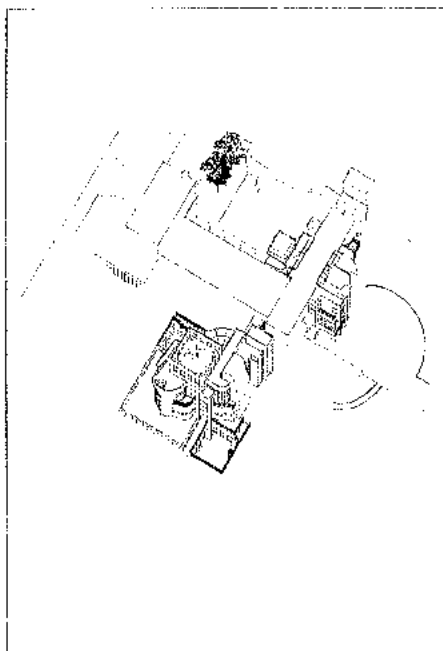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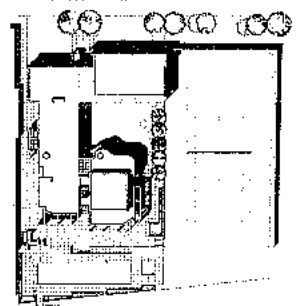
○폴 게티 센터, 로스앤젤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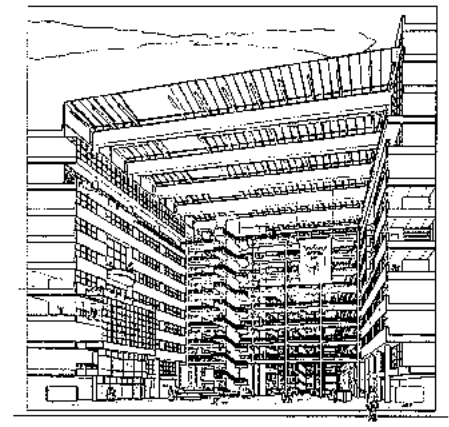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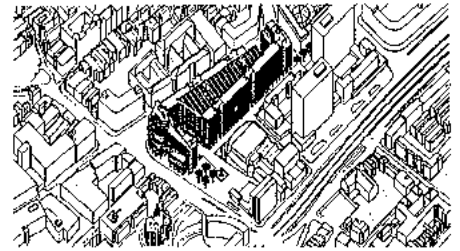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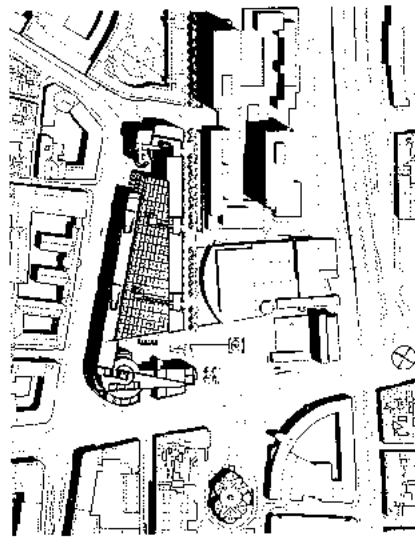
1988년

○영국 왕립 건축가협회의 추천으로 로얄골드메달 수상.

註)

1. 제3 TV에서 방영된 『인간과 건축』은 케네스 프렘본이 해설한 프로그램
2. 『인간과 건축』 최종회.
3. PA. 77.05. pp. 60 ~ 62. 『The Individual: Richard Meier』
4. FIVE ARCHITECTS. 후기. 『Richard Meier』, 서울, 집문사, 1989, 이용제외판권, p. 5.





5. 『Richard Meier』, 앞책 p. 4.
6. PA. 87:12. Suzanne Stephens, p. 96.
7. DOMUS 86:04, 671. p. 38. Lampugnani, A + U, 8803, pp. 28 ~ 32 David Galloway, 『A Heightened Urbanity: The Recent Works of Richard Meier』
8. 세계의 대미술관, 탐구당, 1977.
9. A Review, 84:02, p. 26. Alan Balfour, Criticism.
10. KBS 3, 교육방송, 『건축과 인간』, <파피만아 농사인가?>중에서.
11. “인간과 건축”중에서
12. Richard Meier, 『건축의 디테일에 대하여』 On Details of Architecture. G.A. Detail, pp. 4 ~ 7.
13. A + U, 76 : 04, Richard Meier, p. 54, p. 76. 『My Statement by Richard Meier: 나의 건축선언』
14. A + U, 76 : 04, Richard Meier, pp. 81 ~ 86, Mario Gandelsonas, 『Analysis: Richard Meier's Work』
15. Barbaralee Diamonstein, 『American Architecture Now II』 New York, Rizzoli, 1984. pp. 161 ~ 168, A + U, 8803, p. 32에서 재인용.
16. A + U, 74:08, 『대담: 리처드 마이어+아라타 이소자끼』
17. 『Journal of Architectural theory and Criticism』 Volume 1, No 1, p. 88 ~ 89.
18. J. Paul Getty Museum. Getty Center for the History of Art and the Humanities. Getty Center for Education in the Arts. Getty Art History Information Program. Getty Grant Program.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9. 『Postmodern Visions』, 이용재역, 서울, 집문사, 1988.
20. 필자, 『해체주의』, 건축사, 1989, 10월호 p. 43.
21.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과학적 패러다임』이 주요개념인데, 배리 반즈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이 개념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는 그 의미가 만족스러울 만큼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일관성 있게 사용된

것도 아니라 한다. 그래서 반즈는 패러다임을 “과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용인된 문제해결사례, 즉 구체적인 과학적 연구 업적의 개별적 사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코자 한다고 밝혔다. 쿤의 최근의 저술에서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의미이기도 하다.

22. Ulrich Conrads, 『건축선언문집』, pp. 97 ~ 100.
23. A Review, 81:07, pp. 34 ~ 38.
24. A + U, 74:08, 『대담: 리처드 마이어+아라타 이소자끼』
25. Leon Battista Alberti, 『The Ten Books of Architecture』, The 1775 Leoni Edition, book. VI, CHAP. III, Dover Publications, Inc. New York, 1986, p. 114.
26. Five Architects, A + U, 8803, p. 27. 『Richard Meier Architect』, New York, Rizzoli pp. 381 ~ 405.

참고문헌

1. P / A, 77:05, 77:07, 78:05, 78:10, 79:01, 80:02, 85:03, 87:12.
 2. A Record, 81:04, 81:08, 82:10, 84:01.
 3. A Review, 81:07, 82:05, 84:02, 85:11.
 4. Domus, 80:02, 83:02, 85:06, 86:04, 87:03, 87:10, 87:11.
 5. A Design, 84:11 ~ 12.
 6. A A, 81:02, 82:02.
 7. A + U, 74:08, 76:04, 76:10, 84:02, 84:11, 85:06, 85:09, 88:03.
 8. Barbaralee Diamonstein, 『American Architecture Now』, New York, Rizzoli, 1980.
 9. Stanislaus von Moos, 『Le Corbusier-Elements of a Synthesis』, Cambridge, The MIT Press, 1983
- 번역서, 최명길외공역, 『르코뷔제의 생애』, 기문당, 1987.

- ㉞ 웨스체스터 주택
- ㉟ 헤이그 시청사, 도서관
- ㊱ 엑소노메트릭
- ㊲ 내부

建築士 試験制度 改善에 관한 討論會

본 협회에서는 지난 3월6일 본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사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현행의 시험규정은 시대조류에 뒤떨어진 제도적 모순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학제, 업제, 관계 공무원 등 관련인사가 자리를 메운가운데 전형관리 및 운영, 시험자격개선 및 수습기간 신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의 개선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대 명예교수 金熙春씨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의 중점 토론 내용은,

제1 과제 전형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주·야로 근무하다보면 시험준비가 어려워 사무소를 그만두고 시험공부나 해야 합격할 하는 현실정도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행정관서나 기타 학원에 다니며 공부하는 즉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사람의 합격률이 높은 것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갑자기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실무에서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는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제2 과제 응시자격개선 및 수습기간 신설에 있어서는 건축사자격시험 기간을 현재 대학졸업후 5년에서 2년으로 하고 나머지 3년은 현장 수련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과 대학원 경력의 2등급 산정에 대하여는 좀더 깊이 설계공부를 하겠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등급의 책정의 모순이 있다.

건축사자격취득후 2년의 수련기간은 제도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맡겨주는것과, 어느정도의 수련을 쌓은후 사무소 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이 있었다.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의 개선은 실기시험의 예고제를 없애는 방법과 필기시험에서 과목을 줄이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3번정도의 실기시험 응시자격 유효기간을 두는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영어시험 과목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절실히 요구되나, 응시자의 각기 다른 입장으로 채택의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각과제별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과제 발표자 李光勳 (서울대교수)

전형관리 및 운영

우리나라에서 건축사법이 시행된지도 어언 20여년이 지나서 건축사들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보장받고 동시에 건축사 자신들의 질적향상도 가져 왔으며 70년대와 80년대의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다대한 기여를 하였음은 공지의 사실로서 '88 서울 올림픽 대회를 성공리에 치를수 있었고 오늘날과 같이 전국적으로 훌륭한 건축물들이 도시를 매우게 된 것은 오로지 건축사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장담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동안 시행하여 온 건축사시험에 대하여 그 제도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최근 건축계에선 반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1990년대를 맞이하게 된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모종의 제도적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본다.

우선 본 토론회의 제1과제를 위한 문제 제기로서 현행 건축사시험에 있어서 그 시험문제가 과연 어느 수준에 있으며 바람직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주관식문제에 대한 채점방식이 옳은 것인지? 등에 대한 의구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설계시험에 있어서 그 문제 출제가 응시자의 설계능력 측정에 적합하고 공정을 기할 수 있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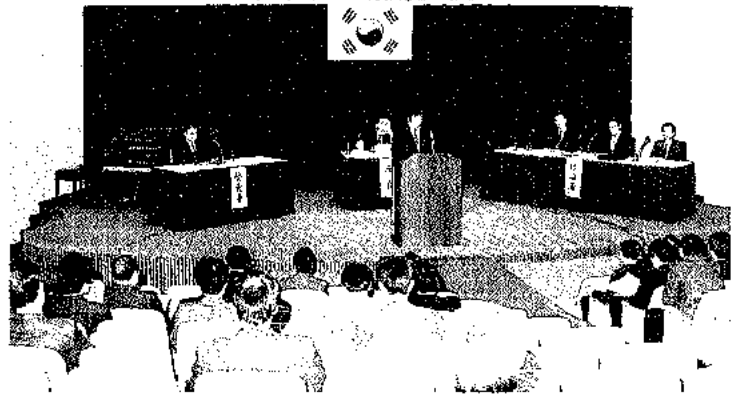
다음에 건축사시험에 합격하고 있을때 그 후 건축사에 대한 사후보장과 인재발굴 및 활용방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등에 대한 의문점이 일어나는 현실상황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서 매년 실시하는 건축사시험을 운영하는 체제와 방법등이 전적으로 건설부 주도하에 관위주로 치루어져 왔다. 그 방식을 잠깐 살펴보면 매년 건축사 출제위원이 위촉되며 이분들의 대부분이 건축공학과 교수들로서 당년에 위촉 임명되고 한정된 짧은 시간내에 출제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중 몇몇 위원들이 출제문제 선정위원이 되어 시험전일에

격리상태에서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후 별도 위촉된 채점위원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그다지 큰 물의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을 꼬집어 내어 본다면 건축에 대한 실무를 하지 못하는 대학교수들이 과연 얼마나 현실에 맞는 출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채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객관적인 건축계의 의구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년 계속되는 행사이고 보면 해마다 건축사시험위원을 전원 교체한다는 것은 인재확보와 사업의 경험등에 대한 면을 고려해 볼때 매우 힘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선 동일인이 수년간에 걸쳐서 위원 위촉이 되는 경우도 있어 대학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서 본의아니게 어느 특정학교에서만 계속적으로 위촉되게 되는 경우가 생겨 이것 역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평을 가질 소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전문분야의 권위자라고



하면 오늘날 공사간에 매우 바쁜 일정에 얽매이게 되어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시험문제를 작성한다는 것이 깊은 연구없이 출제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또한 채점 역시 집중적으로 시간을 충분히 잡고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홀히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건축사시험위원들의 솔직한 걱정인 것이다.

보다 현실적인 큰 문제는 건축사시험에 응시코저하는 건축인들은 대학졸업후 5년이상 실무를 익히고 난 연후라야 되는데 건축사사무소에서 주야로 열심히 설계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건축사시험공부를 별도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시험문제가 실무와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학구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이 출제되니 낙방하는게 일쑤이고 오히려 실무경험 없이 재수생 과외공부 하는 것 같이 오직 참고도서에 의거해서 집중적으로 시험공부 하는 요령파가 합격률이 높다는 것이다.

다음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수련을 쌓고 있다가 여러 편의를 입고서 일단 건축사시험에 합격만 되면 즉시로 독립한다고 나가 버리니, 물론 양자 책임이 있겠지만 기존의 건축사사무소에선 전도유망한 청년 건축인이 도중 퇴사해 버려 그 사무소에선 손해가 막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우기 본인으로서도 이제부터가 건축가로서 실제경험을 쌓고 더욱더 분별하여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수련을 쌓아야 할 때에, 소장으로 독립하고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현실은 우리나라 건축계의 장래를 위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이것이 제도의 잘못으로 돌리긴 어렵지만 단지 사회의 일면이라고 보아 넘기기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어찌하여 건축사사무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실무를 익힌 사람 보다는 대학교 입시준비와 같은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단 말인가? 여기서 혹자는 건축사시험위원들의 파반수 이상은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사이어야 하지 대학교수들만으로는 안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왜 건축사시험에 합격하자 마자 자기가 근무하던 건축사사무소를 박차고 나가서 소규모나마 독립된 사무실을 열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선 기존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선배 건축사들의 책임도 재고해 보아야 하겠다.

여하튼 현재 우리나라 건축설계도시의 질이 저하되는 하나의 큰 이유가 이 점에 있다고도 본인은 본다.

이제 우리나라 건축사법시행령에서 본 토론에 해당하는 조항을 들어 보면

제13조 「건축사위원회」시험과 건축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건축사 위원회」를 둔다.

제14조 「구성 및 위원의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건설부 차관이 된다.

3)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4)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차기 시험시행 공고일의 전일 까지로 한다.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합격과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되어 있다.

다음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제도를 갖는 일본에 대해서 살펴 보면 일본에서도 건축사심사회라고 부르는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비상근 위원들로서 구성되고 시험위원은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와 다르다고 보겠다. 물론 시험위원은 건축 각과목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고 시험위원으로서 품격을 갖춘 자로서 하기로 하고 중앙건축사심사회의 사무는 건설성 주택국에서 관장토록 되어있다.

상술한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건설부 산하에 건축사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1) 본 위원회는 상설기관으로서 각종 건축시험문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하고 그 결과를 건축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해서 건축사시험을 시행토록 한다.

2) 특히 설계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들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

3) 본 관리위원회는 상설기관으로서 건설부 당국과 건축사협회의 자문기관이다.

4) 본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건축사와 건축학전공 대학교수들로서 구성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건축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통계자료가 당시 비치되어 있고 운영에 있어서 최신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정보수집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우리나라 건축문화와 기술이 세계의 발전에 뒤지지 않도록 하는 임무를 다할 것이고 기히 합격된 건축사들에게 대한 제후련제획동의 문제도 다루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특히 본위원회에서 작성된 시험문제는 전부 은행식으로 비축되고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건축사 위원회」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 하나 하나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이 과학적으로 구명되어야 할 것이다.

주관식문제에 있어서는 그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지도 작성 되어서 채점에 공정을 기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설 자문기관의 설치를 위하여는 법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운영·경영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어야겠으며 또한 자체내에서의 연구에 대한 자율성과 아울러 구성원의 자세와 질이 문제가 될 것이고 비밀유지에 대한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즉, 건축사시험제도를 세계 어느 나라 보다는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질 높고 창의적인 건축사들의 탄생을 위하여서는 그 제도운영의 토를 기하기 위한 조치가 이 시기에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응시자격 개선 및 수련기간 신설

건축사법 제13조(자격시험 내용의 시행)에서 “건축사의 자격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건축설계란 설계자의 예술적인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주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비롯하여 건축물의 미적인 조형과 편리하고 정서적인 내외공간을 창출해 내기 위한 “표현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설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지식과 표현력 그리고 건설을 위한 실현수단으로 기술이 동원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술한 법의 규정에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라고만 표현된 내용에 대하여는 아쉬움을 두고 본 주제내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본 주제에서는 건축사시험응시자격과 경력산정기준 그리고 합격후의 실무수련기간 신설과 그 결과 확인을 위한 면접시험제도를 신설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내용에 관하여 논하고자한다.

우리를 주변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일부 합격자들의 합격당시의 능력정도와 경력 그리고 초기 사무소개설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등은 건축사들의 사회적역할을 원만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응시자격 개선

현행 건축사법 제3장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응시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제1호의 규정예외한 학력이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980.1.4당시 신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1982.4.3분호 개정)

2.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1984.12.31. 분호 개정)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1984.12.31. 분호 개정)
4.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1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5. 삭제(1982.4.3)

이 규정에서는 1차시험 응시자격을 대졸후 5년을 표준화했으며 그외 각학력별·경력별로 순차적으로 경력년한을 규정하였으며, 제1호중에서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 제2·3호에서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 되어 있으며 제4호에서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라고 되어있다. 1차 시험응시자격을 대졸 후 5년으로 표준한 것은 건축사자격이 충분한 실무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2차시험시기에 맞추어 수시로 개정되어나가는 건축법이나 새로운 학설 그리고 시공기법등의 발전된 시점에 맞추어 시행하며 앞으로 고려될 수 있는 1차시험합격의 일정년한 유효기간 설정등을 고려한다면 더욱 2차시험시기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좋으며 건축기술사자격의 응시자격이 7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앞으로 언급될 건축사자격시험 합격후 2년간의 수련기간 신설후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면허를 준다면 건축판업무중 유사업종과도 자격기준을 맞출 수 있으므로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4항의 규정에 의한 무학자인 경우에도 14년간의 경력후 응시자격을 준것을 학업과정에서 전공을 잘못택했던 자나 불행하게도 대학 또는 공고과정에 이르기까지의 학업을 받지 못한 자에게까지 응시자격을 준 것은 광범위하게

건축사로서의 적격자를 찾아내는대에 인색하지 아니하되 시험에서 그 소질과 인품 그리고 실력을 가려내기만 한다면 조곤도 문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각호에서 “건축에 관한”이라고 규정하여 “설계감리” 업무와는 상적이 전혀다르며 그 업무에 별도의 자격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이나 “행정”등 업무까지도 구분없이 “설계감리”와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하게 하였음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려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한다.

수정안(제1항의 경우)

...5년이상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업무에 종사한 자이거나,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2앞으로 수정될 경우의 경력인정규준)에 의한 등급분류 경력에 달한 자.

제2·3호는 상가 제1호의 수정안에 준함.

(2) 경력의 인정규준 개선

건축사법 제4장 업무·제19조에서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장 시험·제13조에서도 “건축사의 시험은 설계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규정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건축사법의 요구하는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그 경력의 전문적인 특성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경력 인정기준의 1등급중 2호에서 6호까지의 내용은, 시공기술자, 기술직 공무원, 대학원연구생, 교직자, 공병장교등을 제1호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설계와 감리업무에 종사한 자와 구분없이 1등급에서 동일시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제2·3·4·5·6호의 “건축에 종사한 자”라고 하여도 설계감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나 정도의 차가 있을 것이며 동일시하였다 하여도 자격시험에서 가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이수하는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사실상 전공분야에 대한 넓고 깊이있는 실무를 익힐 수 있다고하는 절대성을 인정하여

경력 인정기준 중 1등급은 제1호만을



남기고 제 2·3·4·5·6호는 2등급으로, 현행기준의 2등급은 3등급으로, 3등급은 4등급(경력환산율 40%)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각 등급의 각호 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현행법 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변경폭이 커졌을 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숙고하였음을 첨언한다.

[3] 합격후 수련기간 신설

건축사시험이 지난 83년으로부터 88년까지의 6년간 통계에 의하면 일반전형의 경우 응시자 16,595명중 합격자 909명으로서 합격률은 5.48%이며 특별전형응시자중 공무원의 경우는 3,090명으로 합격자는 383명으로 12.39%에 이르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특별전형(공무원)의 경우에는 38%가 합격사 발표후 수개월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합격후사무실을 개설함은 당연한 것이며 축하하여야 할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합격자들의 합격전 경력에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중에서는 비교적 연소층에서 합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들이 합격전에 사무소에서의 실무경력내용이 각기 특징을 통한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며 일개의 건물을 조사분석과정에서 설계를 완성하여 건축허가를 내고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일관된 설계 및 감리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는데에 있는 것이다. 특별전형중 공무원의 경우는 특히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사무소를 개설할 경우는 더욱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설계하여 고객의 일생일대의 대사업으로 여겨지는 건축물의 설계를 맡아 다행히 좋은 작품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준 자격과 면허의 권위에도 문제가 되겠으나 건축사 전원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당해 건축사 본인의 책임발생과 건축주에게 미치는 막대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여야 할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의 장래를 위한 건축문화 유산의 창작과정에서 볼때 더욱 있어서는 안될 사태이다.

실무면을 떠나서 불배에도 직업윤리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을 대하고, 건축사간의 경쟁속에 뛰어드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문제시한 두가지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합격후 2년간의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설계·감리업무에 대한 사무소 예비설계자로서의 수련을 받게하여 명실공히 건축사로서의 인품과 실력을 갖게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면허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합격후 2년간의 건축사사무소 수련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이 제도는 시험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되 등록 또는 사무적인 확인업무는 건축사협회에서 관할하며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지도건축사는 책임을 지고 규정된 수련계획에 의하여 후배양성에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4] 면접시험 제도신설

건축사시험 합격후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수련과정이 끝나면 실직자료와 지도건축사의 추천서 그리고 건축사협회의 확인서를 시험관리위원회에 제출케하여 면접시험을 보게하여 그 이수실적과 윤리관이 건축사로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시에 한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면허가 주어지도록 하는 건축사사무소에 2년간 수련기간후 면접시험제도를 추가로 신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건축사시험 1·2차에 합격하고 수련기간 2년을 이수한 다음 다시 면접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합계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된다. 이것은 건축사 자신의 원숙한 성장을 요구하는 것이며 건축사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고, 사회나 국가적인 건지에서는 좋은 작품을 창출하게하여 건축문화를 향상시키고 후배들에게 훌륭한 건축문화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임을 믿어마지 않는 바이다.

연소건축사의 천재적 소질발휘의 기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쉬움도 있으나, 건축실제란 다른 예술과 달리 광범위한 지식과 실무경력을 가지고 많은 전문부서와 협력하여 장기간 작업을 통하여 설계를 완성하여야 하며 공사과정 역시 수많은 공정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며 소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합격건축사 본인을 위하여서도 이러한 제도는 필요한 것이며, 본인이 성실하게 수련에 임한다면 기회는 당연히 주어질 것임을 첨언하고 우수한 건축사가 많이 배출될 것을 기대하며

제3과제 발표자 / 金眞一(한양대 교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의 개선

소수의 엘리트집단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사회정의의 등식으로 하는 자가정당화를 반발 에너지로 전임시켜 그 엘리트집단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한 갈등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이처럼 많은 이념의 공존에서 자기이념의 외적파괴와 내적붕괴의 위기를 수없이 극복하면서 성취해 온 자화상에서, 그래도 나는 마냥 무기력하지만은 않았음을 확인한 자만이 오늘 이 토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정제하면 피가 고갈될것 같은 긴장속에서 정보사회의 전문지식인, 고급생활인의 자격증, 건축사가 되기위한 길은 지금 확실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성가치체계의 광범위한

붕괴현상이 인간의 의표를 찌른 건축 Stage로, 혹은 역설적인 윤리가 최근 세워지는 건축속에 시대의 흐름으로 번져오는 new Value의 자적 Game을 여러분은 도전자답게 기꺼이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이성의 예찬으로 매워진 지난 100년을 이제는 이성과 감성을 평등히 하려는 사조가 지금 물작편의 의의를 회색시키면서 양에서 질 그리고 효율위주에서 쾌적한 공간추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에는 근년에서 여가로 또 다른 자적 Game을 보장할 수 있는 건축의 위상이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만, 이느 시점에서나 교육은 충전이요 문화는 방전일전데 건축교육과 건축사자격시험은 떼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리에서는 건축사자격시험과목에 관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건축사법시행령 제7조·제8조 그리고 제10조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1. 실기과목 예고제를 반납한다

◎ 건축사법시행령 제7조

「제2차 시험의 실기과제는 시행1개월전에 과제가 발표됨」(현행)

현행 2차시험의 실기과제의 사전예고제를 20수년전에 제정한 높은 뜻을 이어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건축적 능력과 도덕성에 깊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폐일언하고 우리는 지난 10수년간 「실기의 예고제」에 대하여 인간의 양심에 부담을 주면서 방관하였고 또한 이미 우려할 정도의 사태를 인지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고제의 훌륭한 제정 취지와는 달리 이론과 보법단안의 황폐, 이로 인한 건축의 꽃이어야 할 실기 - 설계의 輕視 아닌 輕視는 마침내 건축설계 교육에도 결코 이롭지 못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고시와 동격이어야 할 건축사의 권위를 스스로 격하시켜 우리들을 슬프게 하였다.

우리는 자기모멸·자기비하의 가치상실에서 벗어나고 건축사의 자질향상은 물론 정당한 사회적 위상으로 객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자리걸음하는 우리들 인간의 내면성이 회복될 때까지

2차시험 실기과제의 「예고제」를 정중히 반납한다.

2차시험은 실기만을 실시하며, 그 실기과제는 시험장에서 제시한다. 현행 4시간이 실기 배정시간을 대학졸업을 기준하여 5년 이상의 설계 실무 체험자의 기량이 심분 발휘될 수 있도록 8시간으로 연장하여 실기의 객관적인 평가와 여진을 준다.

2. 1차 필기시험을 5개 필수과목과 3개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동시에 실시 한다

응용학문권에 속하는 건축이 주변학문의 성과를 어떤 방법으로 속히 받아들이느냐 하는 욕구는 학계나 실무계나 다름없다. 현대사회에서 건축에 거는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한 길의 첫째는 건축교육이요, 둘째는 건축사에게 있다고 본다. 현행 시험과목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시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러므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예술이 공존해야 하는 건축에서 이 분야의 이론은 고루 다루어 이를 5개 필수과목으로 하였다. 그리고 보다 넓고 고도의 이론과목 3개를 새로두어 그중 택일하여 건축인들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시도하였다.

필수과목

① 일반건축구조

현행 1차시험과목인 건축구조를 일반건축구조로 명칭을 바꾸고 그 내용도 바꾼다.

현행의 건축구조에서 포함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그리고 구조역학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하고 높은 수준의 것은 선택과목의 구조역학으로 독립시킨다.

② 건축시공(현행대로 둔다)

③ 건축법규(현행대로 둔다)

④ 건축계획

현행 2차시험을 필수과목으로 한다. 다만 그 중 건축환경원론과 건축설비는 묶어서 하나의 선택과목으로 한다.

⑤ 영어(신설과목이다)

①②③④는 4가지 선다형 ⑤는 해석으로 한다.

선택과목(택일)

① 建築史(현행대로 둔다)

② 건축환경원론 + 건축설비

현행 건축계획 과목에서 분리 독립된 것임.

③ 구조역학

현행 건축구조 과목에서 분리 독립된 것임.

①②③은 공히 주관식으로 한다.

3. 1차시험 합격 자격 유효기간설정

현행 제도하에서는 1차시험 합격자격을 당해년도 2차시험 응시자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향후 연2년 그 합격을 유효토록 한다. 따라서 합격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의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행법의 제정은 그 시대의 사회적여건 이론과 시험관리와 시험장소, 제도관 사정에 맞추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다행히 지금은 그와 같은 시험환경조건이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시험 주관처나 수험자 서로가 강박함을 피하기 바란다. 원래 작품은 강박이 아니라 여유의 소산일 것이다. 머락공부에 날치기 설계로 얼마나 많은 수험자를 멍하게 하였고 헛된 에너지 소모가 있었단가. 돌이켜 보니 과연 그것은 전근대적사회에서 있을 수 있었다고 보고 분명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10조 합격기준

◎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평균성적 6할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함.(현행)

○ 시험점수 배정은 1차시험 2차시험을

연계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어과목 40점을 제외한 1차시험 그리고 2차시험은 각각 6할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 영어과목은 40점을 기준으로

급제·낙방만을 판정한다.

○ 실기과목점수는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1990년 1월분 도서신고현황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89년도	1990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767,721	1,191,295	423,574	55.17%
	부산지부	544,870	870,110	325,240	59.69%
	대구지부	161,166	207,706	46,540	28.88%
	광주지부	68,314	316,805	248,491	363.75%
	인천지부	209,565	222,378	12,818	6.11%
	대전지부	—	187,640	187,640	ERR
	경기지부	999,563	1,215,896	216,333	21.64%
	전북지부	88,503	149,008	60,505	68.36%
	경북지부	232,850	346,473	113,623	48.80%
	경남지부	338,024	758,993	420,969	124.54%
감소지역	제주지부	1,797	47,381	45,584	2,536.67%
	강원지부	88,964	87,326	(1,638)	-1.84%
	충북지부	139,124	119,799	(19,325)	-13.89%
	충남지부	267,318	134,045	(133,273)	-49.86%
	전남지부	245,403	173,876	(71,527)	-29.15%
합	계	4,153,182	6,028,731	1,875,549	45.16%

(충남지부와 대전지부의 증·감소 현상은 2월 지부가 분리가 됨으로 생김)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월분 4백15만3천1백82㎡보다 45.16% 증가(1백87만5천5백49㎡)한 6백2만8천7백31㎡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1월분 합계한 전년도 누계 4백15만3천1백82㎡보다 45.16% 증가(1백87만5천5백49㎡)한 6백2만8천7백31㎡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지난해 12월분 9백11만6천8백41㎡보다 33.87% 감소(3백8만8천1백1십㎡)한 6백2만8천7백31㎡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増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종별	'89년 12월분	'90년 1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521,347	706,470	185,123	35.51%
다세대주택	264,443	226,691	(37,752)	-14.28%
연립주택	74,420	77,499	3,079	4.14%
아파트	2,879,300	1,988,656	(890,644)	-30.93%
근린생활시설	1,697,284	1,267,343	(429,941)	-25.33%
종교시설	63,063	51,791	(11,272)	-17.87%
의료시설	78,247	13,374	(64,873)	-82.91%
교육연구시설	201,343	71,240	(130,103)	-64.62%
업무시설	980,314	361,078	(619,236)	-63.17%
숙박시설	506,343	138,015	(368,328)	-72.74%
공장	1,200,986	774,135	(426,851)	-35.54%
기타	649,751	352,439	(297,312)	-45.76%
계	9,116,841	6,028,731	(3,088,110)	-33.87%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3,902	3,962	684,746	315	322	20,304	20	20	1,420	4,237	4,304	706,470
다세대주택	867	914	223,727	52	52	2,770	4	4	194	923	970	226,691
연립주택	43	74	77,380	1	1	119	0	0	0	44	75	77,499
아파트	154	491	1,971,411	11	13	17,216	1	1	29	166	505	1,988,656
근린생활시설	2,345	2,391	1,169,250	259	262	50,394	171	173	47,699	2,775	2,826	1,267,343
종교시설	43	51	47,784	15	20	3,501	4	4	506	62	75	51,791
의료시설	4	4	5,676	8	8	5,018	2	2	2,680	14	14	13,374
교육연구시설	23	36	53,309	17	20	7,068	28	29	10,863	68	85	71,240
업무시설	109	113	344,964	18	19	13,741	8	8	2,373	135	140	361,078
숙박시설	87	91	85,465	13	13	4,840	8	8	47,710	108	112	138,015
공장	297	509	458,875	180	317	205,091	52	59	110,169	529	885	774,135
기타	366	496	265,631	142	169	65,524	62	64	21,284	570	729	352,439
합계	8,240	9,132	5,388,218	1,031	1,216	395,586	360	372	244,927	9,631	10,720	6,028,731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2,607	2,640	1,174,156	39	40	17,139	0	0	0	2,646	2,680	1,191,295
부산지부	692	909	803,462	114	130	26,672	48	50	39,976	854	1,089	870,110
대구지부	384	402	174,707	204	216	22,893	28	28	10,106	616	646	207,706
인천지부	283	304	205,110	15	19	13,486	14	16	3,782	312	339	222,378
광주지부	156	210	306,377	37	40	6,686	12	12	3,742	205	262	316,805
대전지부	188	188	164,847	16	16	2,808	48	48	19,985	252	252	187,640
경기지부	1,935	2,093	1,087,718	110	146	74,688	71	71	53,490	2,116	2,310	1,215,896
강원지부	187	228	64,410	41	65	19,355	18	21	3,561	246	314	87,326
충북지부	244	283	95,428	33	39	17,596	17	22	6,775	294	344	119,799
충남지부	127	148	122,268	30	31	6,177	23	23	5,600	180	202	134,045
전북지부	171	187	118,689	45	53	26,071	22	22	4,248	238	262	149,008
전남지부	233	261	130,752	93	118	38,956	11	11	4,168	337	390	173,876
경북지부	271	341	240,027	60	75	69,886	23	23	36,560	354	439	346,473
경남지부	660	817	654,240	169	203	51,819	25	25	52,934	854	1,045	758,993
제주지부	102	121	46,027	25	25	1,354	0	0	0	127	146	47,381
합 계	8,240	9,132	5,388,218	1,031	1,216	395,586	360	372	244,927	9,631	10,720	6,028,731

건설부 질의회신

질의회신

■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판매시설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과 공동주택을 복합용도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불구하고 시장의 면적이 종전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시장부지)로 결정된 나대지를 의미하는지 또는 기존 재래시장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가.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규정은 기존재래시장(건축법령의 제·개정 및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현행 일반주거지역내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을 발함)을 공동주택과 재건축(재래시장에 공동주택의 증축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규정중 “종전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 함은 재래시장의 연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임.

나. 건축법시행령 제82조 및 동시행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령에서 그

시설입지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시설은 건축법 제32조 제1항·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 바,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은 일반주거지역내에 시설결정이 가능하였으나, '87.12.19 동 규칙 개정시 일반주거지역내 시장의 입지에 관한 결정기준이 삭제되어, 특별히 그 시설입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내 시장이 제한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시장의 결정이 불가하도록 되었음. 그러나 동 규칙 개정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은 당부 도설 30310-21205('88.10.29)호로 개정된 규칙 제56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그 입지기준(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하였으므로 동규칙개정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은 건축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건축법 제32조 제1항·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은 가능하므로 '87.12.18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장과 공동주택의 복합용도 건축은 건축법상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다.

제2회 支部會長會議 및 建築士年金運營委員會

'90년도 제2회 支部會長會議 및 建築士年金運營委員會가 宋基德 회장을 비롯한 본부임원, 지부회장 및 姜基世 연금연구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화) 개최되어 건축사연금 기금 증식방안등 주요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주요안건에 대한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부회장회의 협의사항〉

- ◆ '90 제1회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협의
 - 개최일시, 장소, 의제등을 협의,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 '90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에 대한 협의
 - 기본개최서의 검토 및 각지부의 지원 사항에 대해 협의
- ◆ '89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안)에 대한 협의
 -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협의
- ◆ '89회계년도 특별회계 수지결산(안)에 대한 협의
 -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협의
- ◆ '89회계년도 건축법령연구소 특별회계 수지결산(안)에 대한 협의
 -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협의
- ◆ '89회계년도 건축사연금 특별회계 수지결산(안)에 대한 협의
 -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협의
- ◆ 정관 개정(안)에 대한 협의
 -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전환에 대비한 연합회체제로의 전환방안으

로 비상근부회장 및 참여이사제 신설, 임원의 임기를 회계년도와 맞추기로 하는 등 개정방향에 대하여 협의

- ◆ 건축사연금규정 개정(안)에 대한 협의
 - 개정(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협의
- ◆ 건축사법 개정건의(안)에 대한 협의
 -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울 건의하기로 협의.
- ◆ '91회계년도 실적회비 전국정수율에 대한 협의
 - 0.8%로 할 것을 협의

〈건축사연금운영위원회 안건〉

- ◆ 건축사연금기금증식방안 건의에 대한 협의
 - 연금기금 예치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제1금융권의 특정금전신탁에 예치기로 하되 특정금전신탁가능액이 조성되기전까지는 제2금융권의 CMA에 일시 예치기로 함.
- ◆ 건축사 연금관리 운영 비용에 관한 건의에 대한 협의 결정 의견
 - 연금업무 취급직원의 인건비 및 제경비는 연금에서 직접 지출하지 않고 회관 전시장 임대료 수입을 재원으로 한 특별회계에서 지급기로 함.
- ◆ 건축사 연금 규정 개정(안) 승인 의견 - (理事會참조)
- ◆ 건축사 기본연금회비 납입기간 연장건의
 - 기본연금회비 금액의 부족액 납입기간을 5월말 까지로 연장하기로 함.



제2회 지부회장회의 및 건축사연금 운영위원회

제3회 理事會 개최

本協會 '90 제3회 理事會가 지난 7일(수)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90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일정등 주요 부의 안건을 협의하였다.

주요안건의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附議事項〉

- ◆ '90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일자 및 장소, 의제결정
 - 일시 : 3.22(목) 10:00시
 - 장소 : 한국종합전시장 (KOEX) 국제회의장
 - 의제 : '89회계년도 일반회계수지결산(안)승인의건외 7건
- ◆ '89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안) 승인
 -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 '89회계년도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
 -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 '89회계년도 건축법령연구소 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
 -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 '89회계년도 건축사연금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
 -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 정관 개정(안) 승인
 - 차기선출 임원부터 임기를 3년으로 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 건축사연금규정개정(안) 승인
 - 기본연금회비 부족액 납부시기를 익년 2월말에서 5월말까지로 조정하고, '89년도의 연금회비는 기본 연금회비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함.
- ◆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개정(안) 승인
 - 현행본부 총무부에 총무과와 기획과를 두고 있는 바 연금업무의 확대에 연금과를 증설하여 총무과, 경리과, 연금과로 조정하는 내용의 규정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함.
- ◆ 추대회원 추대 승인
 - 정관 제7조제2항1호에 의거 정회원 자격을 15년이상 보유하고 만 65세 이상이 되는 회원 12명을 추대회원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함.
- ◆ 건축사법 개정 건의(안) 승인
 - 건축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수정,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

분이 있어 좀더 검토기로 보류함

◆ '91 회계년도 실적회비전국징수를 결정의건

- '90 회계년도와 같이 0.8%를 총회에 상정기로 함.

◆ 회관(전시장) 임대 승인 의 건
- 제일은행에 전세로 10억원에 임대기로 결의함.

◆ 경조비 지급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84년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경조비지급기준표상의 경조비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승인함.

◆ 위원회 신설 승인 및 위원선임

의견

- 다음과 같이 승인함.

전문감리위원회
(위원장 : 한규봉)

여성화원위원회
(위원장 : 지 순)

〈協議事項〉

◆ 전국건축사대회 결의문 작성에 대한 협의

- 우남용, 정환호 이사에게 작성을 위임함.

◆ 신인·학생작품전 개최시기에 대한 협의

- 3월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시기에 맞춰 개막할 수 있도록하기로 함.

光州直轄市支部(會長 宋良漸)

우수단체 표창 수상

光州支部(회장 宋良漸)는 지난 3일 光州市로부터 지역건축문화발전과 건축행정 발전에 기

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단체로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제1회 임시총회 개최

光州지부는 지난 27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8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는 한편 협회발전과 회원권익신장에 공헌한 전직 임원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이날 공로패 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 건축사사무소 향 박남술
-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길 안태경
- 삼호·우성·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양삼용



광주지부 우수단체 표창 수상식

忠淸北道支部(會長 李容鐵)

회원 해외시찰 실시

忠北지부(회장 李容鐵)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유대강화를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5일까지 소속회원 및 그 가족 55

명으로 구성된 해외시찰단을 구성, 대만, 홍콩, 마카오를 4박5일간 순회하였다.

慶尙北道支部(會長 金東準)

해외 건축문화 시찰단 파견

慶北 지부(회장 金東準)는 외국의 건축양식과 설계기법을 비교 시찰하여 우리나라 건축설계분야 전문가들의 안목을 넓히고 수준향상을 기하고자 1월3일부터 19일까지 3개조로 나누어 총회원 51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외건축문화를 시찰하였다. 시찰기간 및 시찰국은 다음과 같다.

●A조

- 시찰기간 : '90. 1. 3~12

- 시찰국 : 호주, 홍콩, 필리핀
- 시찰인원 : 회원 14명

●B조

- 시찰기간 : '90. 1. 9~17
- 시찰국 : 호주, 홍콩, 마카오
- 시찰인원 : 회원 27명

●C조

- 시찰기간 : '90. 1. 10~19
- 시찰국 : 호주, 홍콩, 필리핀
- 시찰인원 : 회원 10명



충북지부 해외시찰단



경북지부 해외건축문화시찰단

'90 각 위원회 위원명단

◎자문위원회

위 원 장	장기인	전임회장
〃	강명구	〃
〃	강봉진	〃
〃	한창진	〃
〃	이규복	〃
〃	김만성	〃
〃	김두섭	〃
〃	구윤희	〃
〃	김지태	〃
〃	오웅석	〃
〃	안기태	〃

◎윤리위원회

위 원 장	이종완	서울건축사사무소
부위원장	김규태	향도종합건축사사무소
위 원	김창섭	건설부 법무담당관
〃	김동환	동아합동법률사무소
〃	한종언	(주)종합건축사사무소금성
〃	류근열	중도종합건축사사무소
〃	윤기병	미미건축사사무소

◎편찬·홍보위원회

위 원 장 우남용 종합건축사사무소가나·새종

• 편 찬

부위원장	동정근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위 원	박서홍	(주)희산종합건축사사무소
〃	오택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장
〃	조성렬	큐빅디자인연구소
〃	김기철	종합건축사사무소 동명·상목

• 홍 보

부위원장	최정일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일
위 원	정정치	종합건축사사무소합정·정광·명
〃	최명철	종합건축사사무소단우·모람
〃	박연심	건축사사무소 장원
〃	김주철	한국방송공사보도국제작위원
〃	이창식	문화방송

◎건축 1 위원회(구조, 실내디자인, 전통건축)

위 원 장 김정수 새한건축사사무소

• 구조분과위원회

위 원 장	전상백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간 사	이창남	건축사사무소 센구조
위 원	정성교	(주)신원건축사사무소
위 원	이용하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	이리형	한양대 건축공학과
〃	김갑중	한국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	조철호	건국대 건축공학과

• 실내디자인분과위원회

위 원 장	박면수	삼풍종합건축사사무소
간 사	이규창	(주)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위 원	윤도근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	지 순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	성도영	삼대종합건축사사무소
〃	정 소	종합건축사사무소 흥진
〃	조성렬	큐빅디자인연구소

• 전통건축분과위원회

위 원 장	박태수	태창건축사사무소
간 사	장순용	삼성건축사사무소
위 원	이용목	건축사사무소 새한
〃	김두현	문화부
〃	주남철	고려대 공대건축과
〃	김상식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 2 위원회(설비, 시공 및 재료, 에너지)

위 원 장 박영희 무동·백제·우주종합건축사사무소

• 설비분과위원회

위 원 장	박용한	상아건축사사무소
간 사	조영민	건축사사무소 다운
위 원	이영수	새한설계콘서트
〃	손장열	한양대 건축공학과
〃	한응용	한성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상호	한일전기설비연구소
〃	이치서	서진건축사사무소

• 시공및 재료분과위원회

위 원 장		
간 사	김기두	대영건축사사무소
위 원	임재식	한국·금성·종합건축
〃	김해전	국립건설시험소 건축시험과
〃	오창희	한양대 건축공학과
〃	최희태	장안종합건축사사무소
〃	이관영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 건물에너지 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진성	삼광건축사사무소
간사	강철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위원	이명호	중앙대 건축공학과
〃	이은용	종합건축사사무소 삼희·종한
〃	이남호	한국동력자원연구소
〃	안홍동	(주)석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권오주	국제건축사사무소

◎ 건축 3 위원회 (설계·감리)

위원장	장성진	건축사사무소 삼호건축
간사	김영석	극동·영건축사사무소
위원	정한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삼부·천우
〃	최상혁	종합건축사사무소 휘·대진·최상혁
〃	민경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양원영	건축사사무소 신태양
〃	김영덕	(주)한건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 4 위원회 (도시환경)

위원장	김한근	한종합건축사사무소
간사	김우성	(주)아키프랜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김광욱	(주)동양종합건축사사무소
〃	권희영	권희영건축사사무소
〃	박돈서	아주대 건축학과
〃	연제진	인덕공전 건축학과

◎ 법제위원회

위원장	정환호	종합건축사사무소(미래, 화성, 코아)
위원	이종엽	건축사사무소 우일
〃	이종만	녹야·현익·미도종합건축사사무소
〃	장동찬	신세기건축사사무소
〃	김환기	종합건축사사무소동산·동양건축
〃	최광수	범한종합건축사사무소
〃	조태종	종합건축사사무소 마당
〃	강석준	동아건축사사무소

◎ 국제위원회

위원장	김지덕	(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부위원장	이정근	(주)종합건축사사무소아키반·인제
위원	전봉수	전우구조건축사사무소
〃	김종복	영종합건축사사무소
〃	박규영	종합건축사사무소예전사·오성
〃	권오석	대림엔지니어링(주)
〃	송효상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연수위원회

위원장	강태석	(주)한건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김기철	종합건축사사무소 동명·상목
〃	박서홍	(주)희산종합건축사사무소
〃	윤태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인
〃	박영기	연세대공대 건축과
〃	박시익	일신종합건축사사무소
〃	김무언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	정무용	단국대공대 건축과

◎ 세무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상호	건축사사무소 삼성건축
위원	이명환	새서울건축사사무소
〃	윤진우	윤건축사사무소

◎ 설계경기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종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위원	한규봉	(주)천일종합건축사사무소
〃	박찬무	명지대교수
〃	강기세	종합건축사사무소(주)범건축
〃	황일인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	이관표	임이종합건축사사무소

◎ 비위원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효환	정·이화·동신종합건축사(사)
위원	윤기병	미미건축사사무소
〃	김형인	새한건축사사무소
〃	김영석	극동·영건축사사무소
〃	황창구	평해건축사사무소
〃	강성엽	공건건축사사무소
〃	박래운	우신·편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정기	용일건축사사무소
〃	이정재	대지건축사사무소
〃	조정상	종합건축사(사)종원·요셉
〃	한종언	(주)종합건축사 금성
〃	이의구	종합건축사사무소대원·창전사
〃	이종만	녹야·현익·미도종합건축사(사)
〃	조병원	동원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정수	시대건축사사무소
〃	신종호	신종호건축사사무소

◎ 전문감리위원회

위원장	한규봉	(주)천일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한종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	강기세	종합건축사사무소(주)범건축
〃	엄웅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안길원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영수	아키텍트종합건축사사무소

◎ 여성회원위원회

위원장 지 순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

〃

〃

◎ 특별전형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춘배 종합건축사사무소 성미·박·신평

부위원장 김형배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미건사

간사 김기완 김기완건축사사무소

위원 안영준 삼예건축사사무소

〃 한정기 한도건축사사무소

〃 김진식 원당건축사사무소

〃 권정구 권정구건축사사무소

〃 심기섭 청송건축사사무소

〃 정진민 정진민건축사사무소

◎ 업무전산위원회

위원장 김창서 종합건축사사무소 협화건축

위원 김정식 양우종합건축사사무소

〃 박세진 박세진건축사사무소

〃 김창선 엄지건축사사무소

〃 김정태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 건축사연금운영위원회

위원장 회장

부위원장 부회장

위원 본 협회 이사, 감사, 시·도지부장

◎ 전국건축사대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종합건축사사무소 경신·구성·합성·고려

• 기획분과위원회

위원장 김한근 한종합건축사사무소

위원 김기두 대영건축사사무소

〃 김 린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전

〃 최동규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인

• 진행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극동·영건축사사무소

위원 김무언 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 김기완 김기완건축사사무소

〃 강철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 한종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위원 이영희 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종만 녹야·현익·미도종합건축사사무소

〃 민정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영수 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국

〃 오수영 (주)교우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정식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 김병년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윤승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 홍정길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미건사

• 출연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문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위원 정정치 종합건축사사무소 합성·정광·명

〃 김기철 종합건축사사무소 동명·상목

〃 강순일 필건축사사무소

〃 홍문유 건축사사무소세경건축

新 刊 案 內

「最新 建築材料學」

著者：曹 浚 鉉 (建設部建築審査擔當官)

發行處：技文堂

값：8,500 원

「最新 標準建築積算」

編著者：曹 浚 鉉 (建設部建築審査擔當官)

(積算基準·資料)

發行處：技文堂

값：10,000 원